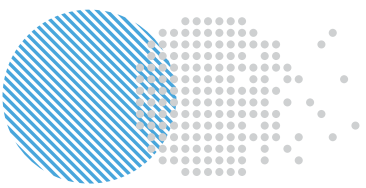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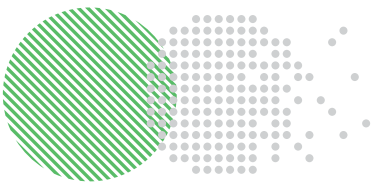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김승경 ·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저 자 **김승경, 백혜정**

연 구 진 연구책임자_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아동·청소년기 동안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시설에 입소하게 된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상실이나 심리적 외상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경험을 가진 적이 없는 청소년들과 동일한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시설에서의 보호는 개인의 필요나 연령, 성숙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일상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개인의 의지나 선호와 같은 선택권이 작동되기 어려우며 통제와 규제 하에 경직된 일상이 제공되어 개인이 삶의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생애초기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회경제적 불이익과 같은 개인의 취약성에 더하여 가정과는 다른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한 일상적인 경험이나 기술 습득 기회 부재 및 다양한 교육기회의 부족은 개인의 삶의 방향이나 진로 결정을 어렵게 하며 자립 이후의 삶에 더 큰 격차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이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각 발달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 발달단계마다 필요한 교육경험과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퇴소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공정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생애초기의 불리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완충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좋은 기회와 경험이 퇴소 이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같은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생애 초기에 보호자의 부재나 보호자로부터의 이탈, 보호자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 이전 교육 경험을 조사하여 시설 유형별 청소년의 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시설 유형별 격차 및 일반청소년들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시설 퇴소 시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청년과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경험해야 할 교육경험에서의 취약영역을 보완하고 자립에 필요한 교육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일반청년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연구내용

- 우리나라 청소년 거주 시설의 유형별 지원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 영국,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교육 관련 지원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시사점을 도출함.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경험, 진로 및 진학, 정보활용능력, 일 경험, 여가 및 활동, 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관계 및 주관적 웰빙 등 교육과 관련된 7개 교육 관련 영역을 포함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경험, 교육 지원 수혜 여부,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 등 현안을 파악하고 시설 유형별 격차 및 일반청소년들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 확인하여 시설거주 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함.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국내 및 해외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실태 보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영역별 세부과제를 도출함.

■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내 및 해외 동향 분석을 포함한 문헌연구,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 정책실무협의회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국내 시설 유형별 교육 지원제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복지시설에서는 개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기술평가를 통해 입소생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은 표준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 없이 시설별로 필요에 따라 자립을 지원하고 있어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개별 자립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입소생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 준비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시설은 생계급여의 최소 직접 지출 의무화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교육급여 등을 활용하여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반면, 청소년쉼터는 시설별 자립활동실비의 정액 지급으로 인해 입소생에 대한 균등한 혜택 보장이 어렵고, 소년보호시설은 시설의 자체 예산으로는 교육비 충당이 어렵고 장학금 등의 후원금 의존도가 높아 재정 지원의 변동성이 매우 큼.
- 실제 현장의 활용률이 낮긴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복지교사 제도를 활용하여 입소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청소년쉼터 및 소년보호시설의 경우 청소년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운영예산이 매우 부족함. 또한 6호 처분 청소년 위탁기관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입소생들 개개인의 학년 또는 수준에 부합하는 교과수업이 제공되지 않아 입소기간 동안 입소생들의 학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교과과목을 보완,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함으로써 퇴소 후 학교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해외의 교육 지원제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업성취는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핵심전제가 되므로 영국의 가상학교장과 같이 아동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단순 학습지원이 아닌 교육적 성취를 높이기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시설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환경은 단순히 숙식을

주요 연구결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과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돕기 위해 대규모의 시설보호를 최소화하고 가정과 같은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을 능동적인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미국이나 일본의 '퍼스트 스타 아카데미', '커리어 교육' 등과 같은 진로탐색 및 멘토링 기회를 확대하여 향후 자립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설거주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각 시설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본, 독일과 같이 각 시설이 지역 내 종합적 지원센터가 되고 지역 정부가 서비스 제공 및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학업수준이나 학습 의욕은 높지 않은 상황임.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가 많고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특성화고 재학률도 높은 편임. 집단별 차이가 있긴 하나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며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 또는 2개 이상 복수의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형편이었음.

  대부분의 면접 참여자들은 기초학력이 낮고 학업흥미가 낮으며 목적의식이 부족하고 학업단절 경험 등으로 인한 학력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적고 학습 의욕이 저하되어 있어 학습행동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됨.
- 시설거주 청소년의 사교육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수강률이나 수강 시간, 수강료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평균에 미치지 못함. 이들의 사교육 경험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반 고등학생들이 거의 하지 않는 학습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임. 그 이유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기초학력 부족으로 현행 학년의 교육 수준을 따라가기 어려워 학원수강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설에서 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강하도록 제안하기 때문임. 그러나

주요 연구결과

일부의 경우에는 흥미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지를 통한 학습조차 거부하기도 함.

- 진로·진학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진로에 관해 일하기(돈벌기)와 상급학교 진학 의견이 각각 37.5% 전후로 가장 많았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19.5%) 경우도 적지 않았음. 특히 학업성적이 낮거나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관련 지식이나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시설거주 청소년 중 상당수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 학습에 대한 낮은 흥미와 목적의식 부족은 진로 결정 시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면접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정보 없이 막연한 이유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로를 전혀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 상태에 있었음. 일부 참여자들은 자립을 최대한 늦추려 했으며,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음.
-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청소년쉼터·소년보호시설 청소년은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지 않거나 공용 기기의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은 특히 컴퓨터·태블릿 활용 능력이 타 시설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음. 기자재 사용에서의 불편감은 개인 또는 공용 등 기자재의 소유 문제보다는 취침시간 규정이나 기자재 사용시간 규정 등으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음.
- 지난 1년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한 경험은 24.3%로 일반 고등학생 경험률보다 다소 높았음. 특히 청소년쉼터 및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의 일 경험률은 절반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고정지출비 사용이나 용돈이 주된 근로 사유인 것은 이들의 일 경험 이유가 단순 경험 차원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지난 1년간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여가·문화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시설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 활동 경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다만 이들의 문화활동 유형은 영화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전시회는 일 년에 한 차례 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활동 외에 여가 시간의 대부분은 온라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었음. 여가 시간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도 28% 전후로 나타남.

주요 연구결과

- 시설의 침실 사용인원은 평균 2.5명이며 시설 내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책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5%임. 다만 청소년쉼터 청소년들은 시설 내 학습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률이 27.9%로 타 시설에 비해 높았으나, 시설 내 학습 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3.2%에 달함.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진학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 참여자 중 상당수가 학업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에서는 대개 선생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업성적과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간에는 정적 관련성을 보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일반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무기력이나 우울 경험률은 상당히 높았고 자신의 정신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은 우울과 무기력 모두,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은 무기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도 무기력과 정신건강에서 부정적 경향을 더 많이 보임.
-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 종사자들은 별도의 교육비 예산이 없고 후원금이 부족하여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고 하지만, 참여자들은 대체로 시설에서 충분히 학습을 위한 비용이나 환경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였음. 참여자들은 후배들을 위해 초기 시기부터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 학습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또한 학습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성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멘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경제교육이나 각종 자립지원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등 자립준비 지원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함.
- 종사자들은 시설 내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면서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신의 낮은 욕구 인식, 지속적인 실패, 노력 부족 문제에 더하여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종사자의 낮은 이해와 개인 전담의 반복훈련 지원 등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전문 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사례 공유 등을 제안함.

핵심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교육 지원 기회 보장'으로 설정함. 그에 따라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목표를 '시설거주 청소년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기회 보장'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세 가지 추진과제, 즉 1. 안정적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2.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3.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강화를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추진과제별로 세부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안정적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 청소년 거주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최소필요기준 마련: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최소필요기준을 설정하여 청소년의 신체·정서적 안정 상태를 도모하여야 함.
- 시설거주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 지원 현실화: 시설 유형별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의 필요에 따른 학습기회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교육비 예산이 부족한 시설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비 예산을 확보하고 책정하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보충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자기주도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제공: 자립 후 제공되는 한시적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진로 및 진학에 대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계획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역할을 강조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통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기준 수립: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숙식제공 및 일상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학습, 심리·정서, 진로·진학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가 적절히 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거주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필요인력의 공통 기준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역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를 지원해야 함.

핵심 정책제언

●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시설거주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 내에 아동 개개인의 교육적 성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지원 제공 및 효과성 검증을 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지역 및 시설 단위 학습지원인력 배치: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시설에서 아동복지교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교사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복지교사 지원 대상 시설의 확대가 필요함.
- 학습 의욕 향상 및 학습 습관 형성의 기회 제공: 기초학력이 낮은 시설거주 청소년을 위해 시판 중인 방문학습지 제공 업체와의 민관 연계를 구축하여 방문학습 기반 학습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교사가 정기적인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여 단계별 기초학습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일정 단위별로 단계가 상승할 때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작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함으로써 성취 기반의 학습흥미를 제고하고 동기유발을 도모하여야 함.
- 학습 환경의 개선(학습실 설치 및 관련 규정 제·개정):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해 귀가 시간의 조정 및 외부 학습공간 이용료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규정 적용이 필요함. 또한 학습시설 기준을 제정하고 시설 내에 별도의 학습실을 마련하여 학년과 수준에 맞는 도서 및 참고서, 학습용 컴퓨터와 헤드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실 운영시간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
- AI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 제공: 시설거주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능동적 체험형 소집단 교육을 진행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기 보급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꿈드림센터 등을 중심으로 학습용 디지털 기기 보급 및 활용, 양질의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 강사를 통한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함.

핵심 정책제언

-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교육 시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과 수업 제공 방안 마련: 보호처분(6호 처분) 등으로 학교가 아닌 보호시설 내 교육으로 위탁되는 청소년의 안정적 학업기회 보장을 위해 학업 수준을 포함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해야 함. 다만 대부분의 위탁시설은 규모가 작고 종사자들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교육지원 전담인력, 학습지원인력 등을 위탁시설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개인 맞춤형 진학·진로 지원

- 지역 및 시설 단위 청소년 진학·진로 전담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지역별로 진학·진로 전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내 시설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사례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교육·연수 내용에 심도 있는 진학·진로지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교육청의 협조를 바탕으로 학생인 경우 시설 종사자-담임교사-진로전담교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진로지도 계획을 수립, 수행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을 통한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진로 교육 제공: 지자체별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직종 업체와 연계하여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성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 및 직업탐색 기회의 폭을 넓히도록 지원하거나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관련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진로·직업탐색 기회 제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기술평가의 표준화 마련 및 보급: 청소년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에서도 시설 간 자립준비 지원의 편차를 줄이고 거주기간 동안 좀 더 체계적인 개별 지원을 위해서 표준화된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아동·청소년 시설 거주자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주무부처에 관계없이 시설 거주 아동·청소년의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업무 매뉴얼을 통합·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핵심 정책제언

●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개인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 전문적인 정서지원 및 심리치료의 병행: 단기상담의 반복으로 상담에 대한 기대와 문제해결 의지가 저하된 청소년들을 위해 시설 내에 상담자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상담업무를 전담 수행할 상담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따라 상담 기간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확대: 학교 내 Wee클래스 연계를 통해 전문상담 및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학생들과 달리 학교 밖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한 고위험군 취약계층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이 필요함.
- 대규모 시설 지양 및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 종사자와의 깊은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및 소속감과 일상생활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공간으로 부적합한 대규모의 시설 환경을 지양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설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함.

●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다양한 문화 및 체험활동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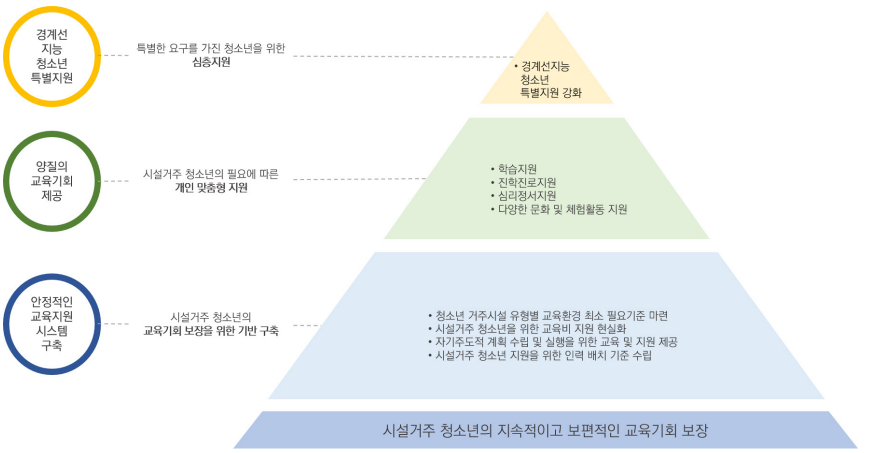
- 인터넷 과몰입 예방을 위한 대체활동 제공: 적절한 시간제한을 두어 인터넷에 오랜 시간 동안 몰입하지 않도록 운동이나 산책과 같은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취미활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도구 및 기구를 지원하고 독려하는 동시에 집단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특히 목적의식이 낮고 무기력한 시설거주 청소년들에게는 목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였을 경우 포상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나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와 같은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경쟁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성취감과 자기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핵심 정책제언

- 폭넓은 문화 및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제공: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접근성 및 문화시설 이용 편의성이 낮아 문화 및 체험활동 기회가 낮은 지역의 시설에는 적절한 이동수단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문화활동 경험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활동을 개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맞는 취미를 탐색하고 개발시키고 나와는 다른 상황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및 참여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퇴소 후 사회에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적응해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

●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 강화

- 시설 내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종사자 대상의 교육과 연수에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특성 및 개입 방안에 관한 기본 및 전문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사례 공유가 필요함. 나아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기관(사업)을 확대하고 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지원목표 및 지원방법에 대한 공유하는 등 공통의 목표를 향해 지원을 제공할 때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잠재력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임.



차 례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추진체계 ····· 6
3. 연구내용 ····· 6
4. 연구방법 ····· 7

Ⅱ.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실태

1. 시설거주의 특성 ····· 15
2.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경험 ····· 16
3.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 취약성 관련 요인 ····· 25
4. 퇴소 이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 ····· 30
5. 소결 및 시사점 ····· 32

Ⅲ. 시설거주 청소년 현황 및 지원제도

1. 시설거주 청소년 현황 ····· 35
2.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관련 지원제도 ····· 54
3. 소결 및 시사점 ····· 66

Ⅳ. 주요국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 제도

1. 영국 ····· 71
2. 일본 ····· 79
3. 미국 ····· 89
4. 독일 ····· 98
5. 소결 및 시사점 ····· 103

Ⅴ.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실태 조사

1. 조사개요 ····· 109
2. 교육 실태조사 결과 분석 ····· 115
3. 소결 및 시사점 ····· 218

Ⅵ. 시설거주 청소년 심층면접

1. 심층면접 개요 ····· 229
2. 자문회의 개요 ····· 231
3. 심층면접 결과 분석 ····· 232
4. 소결 및 시사점 ····· 294

Ⅶ. 정책제언

1. 정책의 기본 방향 ····· 302
2. 정책제언 ····· 304

참고문헌 ····· 343

부 록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실태 설문지 ····· 363

Abstract ····· 393

표 목차

표 Ⅲ-1.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의 대상 및 기능 39
표 Ⅲ-2.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 42
표 Ⅲ-3.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현황 ····· 43
표 Ⅲ-4.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수용인원, 아동현황 ·· 45
표 Ⅲ-5.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수(순 인원) ····· 47
표 Ⅲ-6. 보호소년 가족관계별 인원 ····· 48
표 Ⅲ-7.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연도별 ····· 49
표 Ⅲ-8.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지역별 ····· 49
표 Ⅲ-9.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성별, 재학상태별 ··· 50
표 Ⅲ-10. 청소년자립생활관 정원 및 현원 ····· 50
표 Ⅲ-11. 자립생활관 입주 인원 ····· 51
표 Ⅲ-12. 각 시설퇴소청년 유형별 타 시설 이용률 ····· 52
표 Ⅲ-13. 생활했던 기관 수 및 기관에서 생활했던 기간 ····· 53
표 Ⅲ-14. 생활했던 기관 수에 따른 우울 및 고립감의 차이 ····· 54
표 Ⅲ-15.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의 8대 영역 ····· 56
표 Ⅲ-1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 58
표 Ⅲ-17. 아동복지교사 지원 내용 ····· 59
표 Ⅲ-18. 청소년쉼터 종사자 배치기준 ····· 62
표 Ⅲ-19. 아동보호치료시설 제공 교육프로그램(예시) ····· 63
표 Ⅳ-1. 영국 4개 구성국 내 보호 아동 수 통계 ····· 72
표 Ⅳ-2. 영국(잉글랜드)의 아동홈 관련 현행 법률 및 규정 ····· 73
표 Ⅳ-3. 아동홈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75
표 Ⅳ-4. 최근 3년 이내 Ofsted 평가 '우수' 또는 '양호' 등급
아동홈 일부 사례 ····· 77
표 Ⅳ-5. 일본 보호 아동 통계(2023.2.1. 기준) ····· 80
표 Ⅳ-6. 일본의 아동양호시설 관련 법률·규정 및 지침 ····· 82
표 Ⅳ-7. 아동양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및 내용 ····· 84
표 Ⅳ-8. 일본 지자체의 시설거주 청소년 학습 지원 사례 ····· 86

표 Ⅳ-9. 미국 보호 아동 통계(2023.9.30. 기준) ····· 90
표 Ⅳ-10. 사회보장법 내 위탁 보호 아동 지원 관련 개정 내용 ····· 91
표 Ⅳ-11. 미국 주정부의 그룹홈 운영 방식
–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의 사례 ····· 92
표 Ⅳ-12. 그룹홈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일리노이주 사례 ····· 94
표 Ⅳ-13. 연방정부의 위탁 아동·청소년 교육·진로 지원 관련
법·제도 ····· 95
표 Ⅳ-14. 독일 보호 아동 통계 ····· 98
표 Ⅳ-15.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 내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조항 ····· 99
표 Ⅳ-16. 독일 작센안할트주 잘츠베델에 위치한 청소년
집단시설(Jugendheim) 'Hanse-Haus' 운영 사례 ····· 101
표 Ⅳ-17.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 보조금 제도 및 자립준비 지원
프로그램 개요 ····· 103
표 Ⅴ-1.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확인 및 배경) ····· 111
표 Ⅴ-2.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교육) ····· 111
표 Ⅴ-3.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진로·진학) ····· 112
표 Ⅴ-4.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정보활용능력 및 일 경험) ····· 113
표 Ⅴ-5.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여가 및 활동) ····· 114
표 Ⅴ-6.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 114
표 Ⅴ-7.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관계 및 주관적 웰빙) ····· 115
표 Ⅴ-8. 조사 참여자 특성 ····· 116
표 Ⅴ-9. 현재 학업 상태 ····· 117
표 Ⅴ-10. 현재 재학 중인 학년 및 학업 상태 ····· 118
표 Ⅴ-11.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중학교 ····· 118
표 Ⅴ-12. 현재 재학 중인 학교: 고등학교 ····· 119
표 Ⅴ-13. 고등학교 계열 선택 시 주된 이유 ····· 120
표 Ⅴ-14. 고등학교 계열 선택 시 영향을 준 사람 ····· 121
표 Ⅴ-15. 학업성적: 전체 ····· 122
표 Ⅴ-16. 학업성적: 과목별 ····· 123
표 Ⅴ-17. 과목별 평균 점수: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 124
표 Ⅴ-18. 학교생활 만족도: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 125
표 Ⅴ-19. 학교생활 만족도 ····· 126
표 Ⅴ-20.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감 ····· 128
표 Ⅴ-21. 학교를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 ····· 129
표 Ⅴ-22. 학교를 그만둔 후 주로 하고 있는 활동: 1순위+2순위 ··· 130

표 Ⅴ-23. 지난 1년 사교육 수강 유무 ····· 131
표 Ⅴ-24. 지난 1년 사교육 수강 유무 ····· 132
표 Ⅴ-25. 지난 1년간 사교육 수강과목(복수응답) ····· 133
표 Ⅴ-26. 지난 1년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 134
표 Ⅴ-27. 지난 1년 주당 사교육 수강시간: 과목별 ····· 135
표 Ⅴ-28. 지난 1년 주당 사교육 수강시간: 합계 ····· 136
표 Ⅴ-29. 월평균 사교육 수강료: 합계 ····· 137
표 Ⅴ-30. 수강료 마련 방법 ····· 138
표 Ⅴ-31. 사교육 희망 과목 유무 ····· 139
표 Ⅴ-32. 사교육 희망 과목(복수응답) ····· 140
표 Ⅴ-33. 희망하는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 142
표 Ⅴ-34. 시설 유형별 희망하는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 143
표 Ⅴ-35. 학업성적별 희망하는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 144
표 Ⅴ-36. 혼자 교과 공부를 하는 평균 시간 ····· 145
표 Ⅴ-37. 필요시 학습 교재 사용 가능 여부 ····· 146
표 Ⅴ-38. 진로계획 ····· 147
표 Ⅴ-39. 희망 교육수준: 본인 ····· 150
표 Ⅴ-40. 희망 교육수준: 시설 선생님 ····· 151
표 Ⅴ-41. 본인과 시설 선생님 간 희망 교육수준의 차이 ····· 151
표 Ⅴ-42. 본인의 희망 교육수준에 따른 주당 수강시간 및
하루 평균 공부시간의 차이 ····· 152
표 Ⅴ-43. 진학·진로 결정 시 의논 및 정보제공 정도 ····· 152
표 Ⅴ-44. 진학·진로 결정 시 도움 정도 ····· 153
표 Ⅴ-45. 기관유형에 따른 진학·진로 결정 시 정보제공 및
도움 정도 ····· 155
표 Ⅴ-46. 학업성적에 따른 진학·진로 결정 시 정보제공 및
도움 정도 ····· 156
표 Ⅴ-47.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 157
표 Ⅴ-48. 장래 희망 직업과 적성·흥미 간 일치 여부 ····· 158
표 Ⅴ-49.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에 따른 하루 평균 공부시간 및
미래 결정요인 차이 ····· 159
표 Ⅴ-50. 장래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 기준
인지 정도 ····· 159
표 Ⅴ-51. 장래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기술
준비 정도 ····· 160
표 Ⅴ-52. 전공과 장래 희망 직업 간 일치 정도 ····· 161

표 Ⅴ-53. 직업 유무 ····· 161
표 Ⅴ-54. 현재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 간 일치 정도 ····· 162
표 Ⅴ-55. 현재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 간 불일치 이유 ····· 162
표 Ⅴ-56.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63
표 Ⅴ-57.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2순위) ····· 164
표 Ⅴ-58. 현재 준비 중이거나 취득한 자격증 유무 ····· 166
표 Ⅴ-59. 준비·취득 자격증이 현재 직업 또는 장래 희망 직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 168
표 Ⅴ-60. 진로준비: 시설 유형별 ····· 169
표 Ⅴ-61. 진로준비: 학업성적별 ····· 169
표 Ⅴ-62. 미래 결정 요인: 개인 대 환경 ····· 170
표 Ⅴ-63. 진로에 대한 태도 ····· 171
표 Ⅴ-64. 기관유형에 따른 진로에 대한 태도 ····· 171
표 Ⅴ-65. 학업성적에 따른 진로에 대한 태도 ····· 172
표 Ⅴ-66. 컴퓨터·태블릿 보유 여부 ····· 173
표 Ⅴ-67. 성별에 따른 컴퓨터 활용 능력 ····· 177
표 Ⅴ-68. 시설 유형에 따른 컴퓨터 활용 능력 ····· 178
표 Ⅴ-69. 거주기간에 따른 컴퓨터 활용 능력 ····· 179
표 Ⅴ-70. 학업성적에 따른 컴퓨터 활용 능력 ····· 180
표 Ⅴ-71. 지난 1년간 일 경험 여부 ····· 181
표 Ⅴ-72. 일주일 평균 근로 일수 ····· 183
표 Ⅴ-73. 하루 평균 근로 시간 ····· 184
표 Ⅴ-74. 주된 근로 사유 ····· 185
표 Ⅴ-75. 지난 1년간 관람 평균 횟수 ····· 187
표 Ⅴ-76. 성별에 따른 관람 경험 ····· 188
표 Ⅴ-77. 시설 유형에 따른 관람 경험 ····· 189
표 Ⅴ-78. 지난 1년간 여행 경험 ····· 190
표 Ⅴ-79. 여가생활 만족도 ····· 194
표 Ⅴ-80. 방의 공동 사용 여부 및 방 당 평균 인원 ····· 196
표 Ⅴ-81. 시설 내 학습 공간 여부 ····· 197
표 Ⅴ-82. 시설 내 학습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 대처 방법 ····· 197
표 Ⅴ-83. 시설 밖 학습 공간 이용 여부 ····· 198
표 Ⅴ-84.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밖 학습 공간(1+2순위) ····· 199
표 Ⅴ-85. 시설 내 휴식 공간 여부 ····· 201
표 Ⅴ-86. 시설 유형에 따른 동네 환경 ····· 202
표 Ⅴ-87. 지역 규모에 따른 동네 환경 ····· 203

표 Ⅴ-88. 성별에 따른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 205
표 Ⅴ-89. 시설 유형에 따른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 206
표 Ⅴ-90. 학업성적에 따른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 207
표 Ⅴ-91.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 ····· 208
표 Ⅴ-92. 스트레스 정도 ····· 209
표 Ⅴ-93. 무기력 정도 ····· 210
표 Ⅴ-94. 우울 정도 ····· 211
표 Ⅴ-95.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 213
표 Ⅴ-96. 하위집단별 결핍 지수 ····· 216
표 Ⅴ-97.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 217
표 Ⅵ-1.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 229
표 Ⅵ-2. 심층면접 주요 질문 내용 ····· 230
표 Ⅵ-3. 자문회의 참석자 정보 ····· 231
표 Ⅵ-4 심층면접 주요 결과 ····· 232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 6
그림 Ⅲ-1. 시설퇴소 이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시설 이동 경로 ····· 52
그림 Ⅴ-1. 학업성적: 전체 ····· 122
그림 Ⅴ-2. 학업성적 범주: 과목별 ····· 123
그림 Ⅴ-3. 과목별 평균 점수: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 124
그림 Ⅴ-4. 학교생활 만족도: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 125
그림 Ⅴ-5. 학교생활 만족도 ····· 127
그림 Ⅴ-6.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감 ····· 128
그림 Ⅴ-7. 학교를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 ····· 129
그림 Ⅴ-8. 학교를 그만둔 후 주로 하고 있는 활동: 1순위+2순위 ·· 131
그림 Ⅴ-9. 지난 1년간 사교육 수강과목(복수응답): 시설 유형별 ···· 133
그림 Ⅴ-10. 과목별 경험자의 지난 1년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과목별 ····· 134
그림 Ⅴ-11. 지난 1년 주당 사교육 수강시간: 과목별 ····· 135
그림 Ⅴ-12. 지난 1년 주당 사교육 수강시간: 학업성적별 ····· 136
그림 Ⅴ-13. 월평균 사교육 수강료(합계): 시설 유형별 ····· 138
그림 Ⅴ-14. 수강료 마련 방법 ····· 139
그림 Ⅴ-15. 사교육 희망 과목 유무: 시설 유형별 ····· 140
그림 Ⅴ-16. 사교육 희망 과목(복수응답): 시설 유형별 및 학업성적별 ····· 141
그림 Ⅴ-17. 희망하는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 142
그림 Ⅴ-18. 혼자 교과 공부를 하는 평균 시간: 시설 유형 및 학업성적별 ····· 146
그림 Ⅴ-19. 필요시 학습 교재 사용 가능 여부 ····· 147
그림 Ⅴ-20. 진로계획 ····· 149
그림 Ⅴ-21. 진학·진로 결정 시 의논·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도움 정도 ····· 153
그림 Ⅴ-22. 장래 희망 직업 ····· 157
그림 Ⅴ-23. 장래 희망 직업과 적성·흥미 간 일치 여부 ····· 158

그림 Ⅴ-24. 학업성적별 장래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 기준 인지 및 능력·기술 준비 정도 ····· 160
그림 Ⅴ-25. 전공과 장래 희망 직업 간 일치 정도 ····· 161
그림 Ⅴ-26.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2순위) ····· 165
그림 Ⅴ-27. 현재 준비 중이거나 취득한 자격증 유무 ····· 166
그림 Ⅴ-28. 현재 준비 중이거나 취득한 자격증 종류 ····· 167
그림 Ⅴ-29. 필요시 컴퓨터·태블릿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 175
그림 Ⅴ-30. 컴퓨터·태블릿 필요시 대체 방법 ····· 175
그림 Ⅴ-31. 컴퓨터 활용 능력 ····· 176
그림 Ⅴ-32. 지난 1년간 경험했던 주된 일자리 ····· 182
그림 Ⅴ-33. 일한 기간 ····· 183
그림 Ⅴ-34. 지난 1년간 관람 경험 여부 ····· 186
그림 Ⅴ-35. 지난 1년간 관람 평균 횟수 ····· 187
그림 Ⅴ-36. 여가 시간 주요 활동 내용(1+2순위) ····· 192
그림 Ⅴ-37. 성별에 따른 주중-주말의 여가 시간 주요 활동 내용(1+2순위) ····· 192
그림 Ⅴ-38. 주중-주말 여가 시간을 주로 함께 보내는 사람 ····· 193
그림 Ⅴ-39. 주말 여가 시간을 주로 함께 보내는 사람에 따른 주된 여가 활동(1+2순위) ····· 193
그림 Ⅴ-40.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주된 이유 ····· 195
그림 Ⅴ-41. 주요 희망 여가활동(1+2순위) ····· 195
그림 Ⅴ-42. 동네 환경에 대한 인식 ····· 202
그림 Ⅴ-43.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 204
그림 Ⅴ-44. 항목별 결핍 정도 및 결핍 점수별 분포율 ····· 215
그림 Ⅷ-1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303
그림 Ⅷ-2.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 304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1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애 초기에 부모의 학대적 양육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기 교육 참여, 취업 등 전 생애과정 동안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진다(최지은, 2025:36).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사업 실패나 실직 등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내 여건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는 해당 청소년의 교육 취약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홍성효, 장수명, 2022). 또한 부모의 소득 수준은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와 양육 시간,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을 포함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받고 이러한 차별적 기회로 인해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된다(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 강한나, 박혜원, 2013; 정미라, 곽은순, 윤장숙, 2007; 정익중, 2011; 류정순, 이순형, 1998).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환경의 질이 낮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더 유리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OECD Policy Insight, 2022.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거주지역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격차가 심화되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역량격차를 넘어서게 되고, 경제(소비, 자산), 교육·학업 기회, 진로·진학, 건강·의료, 정보·서비스, 사회적 관계(고립·참여), 지역사회 환경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사회적 격차의 고리가 보다 공고화되고 대물림되어 세대 간 사회이동이

1)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교 학령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음. 이에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으로 사용하였으나, 거주시설이나 관련 제도 등에 따라 '아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하여 두 용어를 맥락에 따라 혼용하였음.

감소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즉, 격차가 심화되면 개인은 장래 경제적 파탄이나 생활 수준 저하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자산이나 재능이 있는 경우 성공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자산이나 재능이 보통인 경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인해 노력이 의미없다고 생각하고 단념하는, 이른바 희망의 상실로 인한 의욕의 포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동·청소년기 동안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 및 폭력, 방임, 가정해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시설에 입소하게 된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상실이나 심리적 외상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경험을 가진 적이 없는 청소년들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나아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생애 초기 시기에 국가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는 있지만, 시설은 이용자가 더 넓은 공동체에서 격리되거나 강제로 함께 생활하고, 이용자가 내 삶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시설의 필요가 이용자의 개별화된 욕구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곳(Šiška & Beadle-Brown, 2020:6; 김희진, 2024.5. 재인용)이다. 이로 인해 개인의 필요나 연령, 성숙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일상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개인의 의지나 선호와 같은 선택권이 작동되기 어려우며 통제와 규제하에 경직된 일상이 제공되어 개인이 삶의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애 초기의 불리하고 취약한 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육, 취업, 고용, 신체·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미래에 대한 인식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격차를 확대시킨다. 다만 생애 초기의 부정적 경험이 불리한 결과나 부적응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삶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새로운 상황과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의 경험에 따라 불리하고 취약한 환경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애 초기의 취약한 영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미 발견된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가가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인이 개선된 환경에서 사회경제적 지지나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받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교육이나 취업, 건강 등에서의 성취를, 장기적으로는 생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타인의 관리·감독 없이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생애 초기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회경제적 불이익과 같은 개인의 취약성에 더하여 가정과는 다른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하는 경험 및 기술 습득 기회의 부재와 다양한 교육기회의 부족은 개인의 삶의 방향이나 진로 결정을 어렵게 하며 자립 이후의 삶에 더 큰 격차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각 발달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이 삶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교육경험과 활동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시설퇴소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생애초기의 불리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완충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경험을 퇴소 이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보호력이 부재한 청소년들의 장기적인 거주(1년 이상)가 가능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단기 및 중장기쉼터), 소년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 중 자립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령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규정하여 시설 유형별 청소년들의 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시설 유형별 격차 및 일반청소년들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 퇴소 시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청소년과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경험에서의 취약영역을 보완하고 자립에 필요한 교육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일반청소년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추진체계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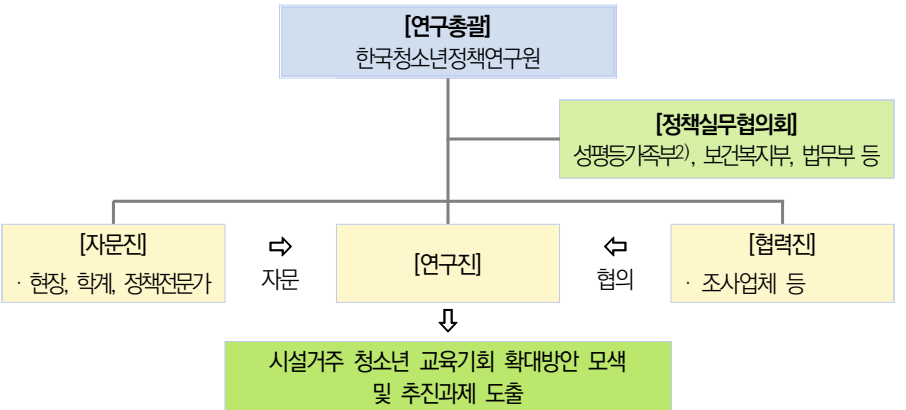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1) 국내 및 해외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 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우리나라 청소년 거주 시설의 유형별 각종 지원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 영국,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한 현안 파악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유형별 거주 청소년들의 교육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경험, 진로 및 진학, 정보활용능력, 일 경험, 여가 및 활동, 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관계

2)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5년 10월 1일자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었음. 다만 2025년 10월 이전 발간된 자료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

및 주관적 웰빙 등 교육과 관련된 7개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생활 장면을 보다 심도있게 확인하고 실태조사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지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 참여 및 진로·진학에 대한 태도 및 생각, 진로·진학 준비, 시설 환경에 대한 생각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3) 정책제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실증 자료들은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 실태를 확인하는데 활용되었고, 심층면접 자료는 시설 내에서의 교육기회에 관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경험 및 요구에 관해 청취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교육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참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 실태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영역별 세부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기존 통계자료 분석

시설거주 청소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책동향,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 및 해외사례, 선행연구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아동종합실태조사(이상정, 이주연 외, 2023)',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2023)' 등의 국가승인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거주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교육실태, 시설 유형별 교육 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 내용과 방향 설계,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경험 실태 관련 현안 진단, 조사표 개발, 자료 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 정책추진과제 검토 등 연구 추진과정의 각 단계

에서 상시적으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자문 내용은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받아 녹음, 기록되었으며, 일부는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번호	자문영역	자문진
1	연구 내용 및 조사표 개발 관련 자문	현장 전문가
2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및 실태 자문	현장 전문가
3	자료 분석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 정책과제 도출 등	현장 전문가

3)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자료를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 현황 및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경험, 진로 및 진학, 정보활용능력, 일 경험, 여가 및 활동, 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관계 및 주관적 웰빙 등 교육과 관련된 7개 영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경험, 교육 지원 수혜 여부,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는 물론, 일반청소년과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조사대상인 '시설거주 청소년'의 범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 「소년법」 처분에 따른 감호위탁 및 소년원 퇴소 후 소년보호시설(민간 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에서 거주 중인 청소년을 포함하였다. '시설거주 청소년'이라는 대상 특성상 현재 입소 청소년 현원, 성별, 연령 등에 변동이 많아 모집단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표집 틀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목표 표본 수인 1,000명에 대해 시설별 현황자료에 제시된 정원을 근거로 목표 표본 수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800명, 청소년복지시설 150명, 소년보호시설 50명으로 할당하였으며,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성별, 지역규모, 연령, 시설 유형 등 하위집단별 응답 인원이 일정 지역에서 추출되지 않도록 권역을 일부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327개소였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최종 응답자는 1,059명이었다.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등 시설거주 청소년 ※ 각 유형별 모집단 규모와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규모 할당
표집틀	2024년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표본	시설에 거주 중인 15~18세 청소년 1,059명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입소자 중 임의표집
표집방법	시설을 통해 조사기간 내 목표 표본수를 달성하는 방식의 비확률표집(snow-ball sampling)
주요내용	교육, 진로·진학, 정보활용능력, 일 경험, 여가 및 활동, 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관계 및 주관적 웰빙 등 7개 영역 43문항
조사방법	웹조사
조사시기	'25년 6~8월
비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완료 (승인: 202505-HR-고유-012)

* 시설 특성상 현원, 성별, 연령 등에 변동이 많아 표본할당이 어려움. 다만 정원을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 750~800명, 청소년복지시설 150~200명, 소년보호시설 50명 내외로 할당하였으며,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하위집단별(성별, 지역규모, 연령별, 시설 유형별) 응답인원이 한 곳에서 추출되지 않도록 모집단 규모와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였음.
* 연구 전반 및 조사 설문 등에 대해 시설담당자에게 설명 후 조사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담당자 미동의 시 청소년 참여는 불가함.
* 표집틀에 따라 기관 섭외 후 기관담당자가 시설 내 해당연령 청소년에게 조사링크를 발송, 조사링크를 받은 청소년은 조사설명문 확인 후 개별의사에 따라 조사에 동의하고 참여함.

4) 심층면접

심층면접에서는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 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 현안을 파악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관련 경험 및 관련 생활 실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면접 참여자는 시설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고등학교 학령의 청소년 14명으로 1회당 1~2명씩 각 1회의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위해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 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생활 장면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 그것이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 설문지를 기초로 현재 학교 진학 사유, 학업 및 학교생활, 학교 외 진로·진학 교육 여부, 진로 관련 준비, 여가시간 활동, 교육 및 휴식공간, 학습 방해 요인, 학습 관련 어려운 점 및 희망지원, 후배들에게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면접 내용은 실태조사에서 단편적으로 사실 확인만이 가능했던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요소	내 용
면접 참여자 섭외 과정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실태조사〉 설문 참여 시 관련 의견수렴에 동의한 청소년, 또는 시설장 추천 청소년
면접 참여자 수	14명
면접 참여자 특성 개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면접 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담 (1:1 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시설 사정에 따라 1:2 비대면 면접 방식 채택)
면접 시간 및 횟수	집단별 1시간 내외. 상황에 따라 1~2회 진행
면접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사전 동의서 수령 후 기록 및 녹취
면접자	연구진
비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완료 (승인: 202505-HR-고유-012)

* 연구 전반 및 조사 설문 등에 대해 시설담당자에게 설명 후 조사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담당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의 청소년은 참여가 불가함. 시설담당자가 시설 내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심층면접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에 한하여 조사설명문 확인 후 개별의사에 따라 조사에 동의하고 참여함.

5) 콜로키움

콜로키움에서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준비, 무엇이 어려운가〉를 주제로 손선옥 선임연구위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이 발제하였다.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의, 경계선지능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및 욕구,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준비과정과 사례개입에 대한 발제 후 연구진 및 콜로키움에 참석한 원내 직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번호	주요내용	발제자 및 참석자	개최시기
1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준비, 무엇이 어려운가	발제자: 손선옥(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참석자: 연구진 및 원내 전 직원	10월

6) 토론회

국회인구전략포럼2.0(대표의원: 김희정 국회의원)과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이 공동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와 본원이 후원하는 토론회에서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

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거주시설 유형별 특징, 교육실태조사 결과 등에 대한 연구진의 발제 후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번호	주요내용	발제자 및 토론자	개최시기
1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	발제자: 김승경(본원 연구진) 토론자: - 조규필(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고희원((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 팀장) - 조하나로(강서여자청소년중장기쉼터 소장)	12월

7)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해외 주요국가의 지원제도 검토, 교육실태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제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번호	주요내용	참석자 소속기관	개최시기
1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제언의 타당성 검토	성평등가족부	11월

제2장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실태

1. 시설거주의 특성
2.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경험
3.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 취약성 관련 요인
4. 퇴소 이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
5. 소결 및 시사점

2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실태[3)]

1. 시설거주의 특성

시설거주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서에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돌봄의 형태인 시설돌봄(residential care)을 '① 사용자들이 더 넓은 커뮤니티에서 격리되거나 함께 살도록 강요받고, ② 사용자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충분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③ 시설 자체의 요구가 사용자 개개인의 요구보다 우선시되는 경우'(Šiška & Beadle-Brown, 2020:6)라고 정의하였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원을 타인과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곳,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영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곳, 지역사회 자립생활로부터 격리되거나 분리된 곳, 일상의 결정에 있어 본인의 통제가 결여된 곳, 누구와 함께 살지와 관련한 선택권이 부족한 곳,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무관하게 일상이 경직된 곳, 특정한 통제하에 단체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곳, 동정적 관점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 일상생활 환경에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곳 등이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UN CRPD, 2022: para. 14; 김희진, 2024.5:56에서 재인용).

국제사회에서는 가족이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집단이며 아동의 성장·안녕 및 보호를 위한 자연적 환경이므로 아동이 부모의 양육을 받거나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 양육을 받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에 다른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며(UN 총회, 2009:2), 가정에서의 아동 분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한 일시적이며 최단기간이어야 한다(UN 총회, 2009)는 기조하에 부모의 양육이 부적절하거나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3) 본 장은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지지적이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 놓일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안 양육을 결정하는 경우 이들의 욕구와 권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동 방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UN 아동권리위원회, 2019:13)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가정의 형태가 아닌 다수의 개인이 특정한 통제하에 본인의 의지와 선호가 배제된 채 함께 생활하는 시설 중심의 대안양육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2.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경험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싼 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성인기에 이르러 건강한 자립을 위한 준비로서 교육·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활동 경험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일반 또래들과 비교하면서 취약성과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1) 학교 교육

(1) 학업성적

우리 사회에서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하기 위한 사다리로 인식되는 "명문대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많은 가정에서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아기부터 자녀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이들의 학업성취와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예: 김나영, 2021; 정종우, 이동원, 김혜진, 2024). 즉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교육적 성취의 저하로 이어졌다(홍성효, 장수명, 2022). 이러한 교육 및 경험의 기회 제한과 그에 따른 성취의 저하는 시설거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생활 적응이나 심리·정서 지원, 거주 및 일자리 지원 등에 비해 학업성취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김서현, 양은별, 정익중, 2017).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 보호시설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서

현 외, 2017).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조사에서 학교 성적에 대한 응답을 보면 교급이 올라갈수록 자기 성적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들이 보고한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국어 6.1점, 수학 5.1점, 영어 4.7점이었다(민소영 외, 2023). 참고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12~17세 일반 아동이 스스로 평가한 성적을 보면 10점 만점에 국어 6.7점, 수학 6.47점, 영어 6.53점으로(이상정, 이주연 외, 2023) 양육시설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들에 비해 국어보다는 수학과 영어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과 관련해서 김서현 등(2017)은 한정된 예산의 문제로 학습지원이 학교 성적이 우수한 일부 청소년에게만 제공되고 그 외의 청소년들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관련하여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조사에서 아동양육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31.3%, 고등학생의 15.6%는 사설 교과학원에 다니고 있고, 중학생의 5.0%, 고등학생의 3.5%는 개인 및 그룹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소영 외, 2023). 한편, 동일한 조사에서 교과 관련 학원·과외 뿐 아니라 특기·적성 등을 포함하여 학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모든 기관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중학생 37.3%, 고등학생 54.3%로 보고되었는데(민소영 외, 2023).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실시한 사교육비조사(통계청, 2023)에서 중학생 24.6%, 고등학생 33.6%가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생 59.6만 원, 고등학생 74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중학생 7.4시간, 고등학생 6.7시간이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4.3.14.). 이러한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액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인 경우,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24.3.14.).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복지시설이나 법무부 산하 자립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관련 연구나 통계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들의 학업과 관련해서는 재학 여부나 학업 중단 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수준 정도만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들의 낮은 학업성취도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학업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교를 중퇴하지 않고 졸업하기만을 바라는 사회적 시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의 학업성적을 배경 변인으로 활용한 일부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들의 성적 평균은 중간보다 낮아(예: 김정숙, 2018; 김지연, 정소연, 2015) 사회적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시설거주 이전부터 학업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하였고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만큼 양호한 학업성취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학업에서의 성취는 자존감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향후 진학과 진로 문제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이들의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 진학률: 인문계 대 특성화 고등학교

양육시설 거주아동의 경우는 자립지원을 위해 재학 중인 고등학교 계열에 대한 정기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1년 조사 결과에서는 실업계(특성화고) 고등학교 재학률이 53.7%(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a)로 같은 해 우리나라 청소년 평균 특성화고 재학률(15.3%)[4]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특성화고의 재학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시설 퇴소 후 대학 진학보다는 경제적 활동을 더 희망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중학교 때의 학업성취도가 낮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학교 시기에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문인영, 나승일, 2021)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다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자립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계열별 고등학교 진학률 역시 앞서 언급한 학업성적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부족한 형편이다. 다만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환경이 양호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예상되어 학업성적이나 양육시설 아동들의 고등학교 진학률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나 법무부 산하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업성적 이전에 학업 중단 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였다.

(2) 학업 중단

성평등가족부나 법무부 산하 시설거주 청소년의 경우는 양육시설거주 청소년에 비해

4)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2021 교육기본통계 개황**. https://kess.kedi.re.kr/mobile/publ/publFile?survSeq=2021&menuSeq=3894&publSeq=63&menuCd=89632&menuId=0_0&itemCode=02 (검색일: 2025.2.5.)

학업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에서 더 나아가 중등 교육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2018)의 연구에서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이용)하는 17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율(고등학교 중퇴 이하)은 29.8%로 나타났고 이들 중 29.8%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계획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최근 연구(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2023)는 성평등가족부 및 법무부 산하 시설퇴소 청년들의 학업 중단율은 각각 8.7%, 25.6%로 일반 또래 청소년(1.0%)[5]은 물론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1.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과는 별도로 학업 중단 위기에 있거나 이미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적 지원책의 마련 및 강화가 필요하다.

(3)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조사에 따르면 지난 학기 학교생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은 3.3점, 고등학생은 3.2점으로 보고되었다(민소영 외, 2023). 이에 반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지경 외, 2023)에서 9~18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도[6]는 4점 만점에 2.84점으로 양육시설거주 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았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거나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조사의 학교생활만족도 점수에 대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또래에 비해 낮음(김지경 외, 2023)에도 양육시설 거주 아동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양은별, 김태우, 박은혜, 이소연, 정익중(2015)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되었다. 이 조사에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중학교 2학년 일반청소년과 가정외보호 중인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설문조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의 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자존감, 우울·불안, 비행, 학업성적이나 교사 관계에서는 가정외보호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친구

5) 일반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교육부 보도자료 (2023.8.30.).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19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5.2.6.)

6) 현재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에 대한 응답 평균 점수임.

관계에서만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양은별 외, 2015). 이와 관련하여 강현아, 이종은(2018)은 질적 연구를 통해 시설아동 중에는 학교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조용히 지내거나 반대로 시설아동의 티를 내지 않고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처럼 보이기 위해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학업성적은 비록 우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사고 없이 학교생활을 무난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로 시설에서 중도 퇴소를 당하여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자기 자립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또는 오랜 시설 생활로 조직에 순응하는 것이 더 많은 지원으로 연결되고 퇴소 후의 삶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등 자신에게 도움이 됨을 터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강현아, 이종은, 2018).

(4) 고등교육

2022년 아동보호통합패널조사에서는 양육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해당 문항에서 4년제 대학교 이상이라는 응답률은 중학생(61.3%)보다는 고등학생(50.3%)에게서 좀 더 낮았다(민소영 외, 2023). 전문대 진학까지 포함한다면 중학생은 71.2%, 고등학생은 76.2%의 응답률을 보였다(민소영 외, 2023). 이는 저소득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교육 수준 역시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다는 연구 결과(홍성효, 장수명, 2022)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이들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시설퇴소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65.3%(양육시설 퇴소청년 73.2%, 청소년시설 46.5%, 소년보호시설 32.5%)로 그 전년도인 2022년 일반청년의 대학 진학률(8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백혜정 외, 2023). 시설거주 경험이 있는 이들이 진학한 대학의 유형을 보면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 진학률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시설 유형별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중에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대학원 포함)(각각 22.5%, 12%)보다는 전문대학(각각 24%, 20.5%)에 진학률이 높았던 반면 양육시설퇴소 청년 중에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 진학률(37.9%)이 전문대(35.3%)보다 다소 높았다(백혜정 외, 2023). 한편, 2021년 양육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2~3년제 대학 진학률이 51.6%로 4년제 대학 진학률 43.8%보다 높았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a).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학생 수가 전문대학 학생 수보다 3배 이상 많음[7]을 감안한다면 시설거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전문대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 진학률이 높고 사교육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고등교육으로의 진입률, 특히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특성화고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지출이 낮을수록 4년제 대학교보다는 전문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문인영, 나승일, 202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대학 진학 시 학과 선택은 자신의 적성이나 특기를 고려하기보다는 주변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취업이 유리한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도 발생한다(강현아, 이종은, 2018). 앞서 고등학교 진학에서 또래 청소년들보다 특성화고 진학 비율이 높은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현아, 이종은(2018)은 시설거주 아동에 대한 진로지도는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살아가기 위한 방향이나 자립준비청년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기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기보다는 개인의 성향과 적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대학을 진학하였다고 해서 모든 교육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시설퇴소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에 따르면 대학 졸업 유예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5%로 2021년 일반 청년들의 경험률(9.5%)보다 다소 높았다. 대학 졸업 유예 이유로는 학비나 생활비 조달을 위함(30.6%)이 가장 많았는데 일반청소년들의 졸업 유예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이 취업 준비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청년들이 고등교육에서 어떠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2) 활동·참여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활동은 현재 삶의 질 제고는 물론 건강한 성장과 발달,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그 안에서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청소년 활동정책에서 한걸음 빗겨 서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수립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23)에서 청소년활동 관련 내용은 대부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청소년쉼터 등 시설거주 청소년을 언급한 경우는 디지털 저작권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경제·금융 교육 지원

7) 교육부 보도자료 (2023.08.30).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19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5.2.6.)

정도만 언급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활동에서 쉼터 등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이들이 온라인 상이나 경제·금융 관련 활동에서 가·피해 경험이나 경제적 자립 준비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취약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별개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시설 안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동, 과학·정보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율은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이상정, 이주연 외, 2023)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가정 아래 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b: 29)에서는 양육시설은 아동에게 적합한 발달환경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내 미술관·박물관, 대학 등과 연계해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취미·여가 프로그램 연계, 아동에 대해 과학·음악·체육·문화·캠핑 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과 더불어 "동아리 운영 활성화, 축구·농구 등 집단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아동들이 건전하게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아동보호통합패널조사에서 아동양육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체육 시간을 제외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중고등학생은 약 32%였으며 특히 여학생에게서 응답률이 높았다(민소영 외, 2023). 방과후 특기·적성 학원에 다니는 비율은 중학생 26.8%, 고등학생 18.2%였다(민소영 외, 2023). 이 외에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및 교류 활동은 해당 시설장이나 종사자 성향(이상정, 주보혜 외, 2023),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향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현아, 이종은, 2018). 즉 문화 및 교류 활동에 대해 시설장 및 종사자가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시설 안에서 청소년이 얼마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시설에서 '공부를 곧잘 하는 착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으면 학원이나 과외,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러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하지 않더라도 시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나 체험활동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통제로 느끼는 경우도 보고되었다(강현아, 이종은, 2018).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청소년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선도·

수련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여성가족부, 2024) 여기서 수련활동을 문화·참여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문화예술·체육·진로체험·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3.6%로 나타나 이들 중 상당수가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실제로 단기·중장기 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쉼터에서 제공하는 영화관람이나 여행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손재환, 김범구, 한유화, 김세진, 2020).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참여 활동이 개인 선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별 참석이라기보다는 단체 활동 프로그램의 의무적 참여, 그리고 오히려 쉬지 않고 제공되는 프로그램[8]의 과도한 참여로 인해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호소하기도 하였다(손재환 외, 2020; 남미자 외, 2024).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여가·문화 활동 외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9] 제도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월 30만 원 이내에서 수련활동·문화활동·특기활동·교류활동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원이 필요하나 타 제도에 의한 유사 지원이 없는 청소년으로 지원 기간은 1년 이내(필요시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이며 지원 항목은 생활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활동지원 등의 영역에서 가장 필요 또는 중요한 1개 항목 지원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 및 구비 서류 등의 절차가 비교적 길고 복잡하며 생활지원이나 자립지원 등 타 지원 영역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활동 지원은 그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정부에서는 문화누리카드[10]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14만 원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장시설 거주자는 수급자로 자동 지정되어 지원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동양육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자동 수급대상자가 되지만 보장시설이 아닌 청소년쉼터나 자립생활관 등의 거주 청소년은 본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를 이용한 10대 청소년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그러나

8) 여기에서 언급된 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예: 인권교육, 안전교육, 생활지도 등)도 포함한 것임.

9) 이하에 서술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 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24a)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10) 문화누리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란?** https://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 (검색일: 2025.2.19.)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3)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훈련 경험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일반고보다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고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시기는 상대적으로 이르다는 연구 결과(문인영, 나승일, 2021)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특성화고를 진학하는 비율이 일반청소년보다 높은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특성과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 역시 직업 선택 시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김희진 외, 2018). 따라서 이들이 적성을 찾고 직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교육과 직업 교육·훈련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진로 교육 및 직업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상정, 김수진 등(2023)의 연구에서 보호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들은 가장 받고 싶은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 취·창업 교육을 언급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거주 청소년들도 진로·직업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와 관련된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황여정 외, 2021). 시설 퇴소 청년 중에서도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 진로 상담·교육 등과 같은 취업 지원, 그리고 직업 교육·훈련 지원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았다(김지연 외, 2022). 법무부 산하 자립생활관 종사자들도 생활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취업지원을 주거지원, 심리지원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원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이승현, 권수진, 박선영, 고기원, 2021).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서 학교 교육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직업 훈련 및 지원을 받은 시설퇴소청년들은 응답자의 약 36%로 그 비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참여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훈련 및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백혜정 외, 2023). 그러나 이들에게 적절한 진로지도나 취·창업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법무부 산하 자립생활관은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시설거주 청소년에게 취업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승현 외, 2021).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산하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정책 비교에서도 법무부 산하 자립생활관 거주 청소년

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훨씬 미흡하였다(백혜정 외, 2023). 그 결과 부족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모범적인 몇몇 청소년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이승현 외, 2021).

성평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거주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지원 역시 법무부 산하 시설거주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할 뿐이다. 일례로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진로경험을 연구한 강현아, 이종은(2018)의 질적 연구에서는 양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는 개인의 적성이나 성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립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지도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진로지도는 단체생활과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시설 내 모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양육시설 보호기간 중 자립계획(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나 진학·취업 등의 진로를 정할 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응답은 각각 59.8%와 67%로 나타났다(이상정, 주보혜 외, 2023). 이는 다시 말하면 10명 중 3~4명 정도는 자신이 낸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거나 아예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었음을 의미한다. 덧붙여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양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나 지원을 청소년 스스로 알아봐야 했다는 점도 제한점으로 지적되었다(이상정, 주보혜 외, 2023). 이처럼 시설에서의 정보제공 부족은 청소년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진로 전문 상담자나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개별적인 맞춤형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3.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 취약성 관련 요인

생애 초기에 가정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 격리된 아동·청소년들은 이미 그 자체로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미국 아동 건강 조사(National Survey of Children's Health: NSCH)의 2011~2012년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11]은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에 비해 가정 내 학대나 가족 구성원의 약물 중독·정

11) 미국의 경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시설거주보다는 가정위탁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을 의미함.

신건강 문제·폭력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한 번 이상 했을 가능성이 2.7배, 네 번 이상 경험했을 가능성은 30배나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Bramlett & Radel, 2014). 또한 같은 자료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학업성취도 역시 낮은 경향을 보였다(Radel, Bramlett, Chow, & Waters, 2016). 즉 원가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대안 가정환경으로 옮긴 이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됨을 시사한다.

발생 연령, 발생 사유 및 발견 경로에 따라 이들을 정의하는 법적 규정이나 이들을 보호하는 지원체계는 상이할 수 있지만, 국가의 돌봄체계 내에 편입되어 보호를 받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의 생활이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성장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이후의 대인관계, 사회적응 및 자립 과정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고통이나 상처를 가진 채 시설이라는 집단에서 생활하는 것은 일반청소년들과는 다른 성향이나 특성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규율 및 규칙으로 인해 개인의 선호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단체생활,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담당자의 잦은 이직 및 그로 인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 입소 청소년들의 연령과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위계적 특성, 행동반경의 제약으로 인한 교우관계 및 대인관계의 협소성, 기계적인 일과로 인해 발생하는 창의성이나 자율성, 일상 경험의 제약, 경제관념 형성을 위한 경제교육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청소년에 비해 다양한 삶의 기술 습득 및 사회적응 등을 위한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불리한 환경에 놓인 취약한 청소년들이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회 부족까지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의 교육영역에서의 격차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후 삶의 다양한 측면에까지 누적적·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소득, 자산, 주거, 교육 등 각각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격차는 서로 중첩적이고 연관되어 발생(전병유, 신진욱, 2016)하고, 각각의 영역이 가지는 고유한 작동방식과 다르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중격차가 구조화되고 견고화됨에 따라 하나의 방법으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다중격차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 확장해 가면서 재생산되는 특성을 가지

게 된다(김태완 외, 2023).

원가정에서 격리 또는 분리되어 가정에 비해 청소년 개인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개인의 의지나 선호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통제하에서 단체로 일상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시설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경험을 일반청소년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의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시설퇴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립의 기초를 보완하기 위한 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 관련 취약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서술하였다.

1) 경제적 여건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활동 취약성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시설 내 생활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태가 아닌 것은 물론 이들의 원가정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이다. 일례로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들이 인식한 원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시설퇴소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지연 외, 2022)에서도 아동·청소년 시기에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을 하였다는 응답 역시 절반 이상이었다. 빈곤은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 부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김지연 등(2022)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청소년기에 학대·방임, 학교폭력, 성폭력 등 부정적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빈곤은 청소년들이 양질의 양육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데 이들 중에는 가출, 노숙 과정에서 더 심한 빈곤에 노출되면서 극한의 경험을 하기도 한다(김은정, 백혜정, 김희진, 2019). 시설 생활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심리적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고(김은정, 백혜정, 김희진, 2019), 청소년에게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리 생활을 거치지 않고 가정에서 곧바로 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것은 그나마 최선의 경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시설의 경제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모든 시설 입소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2) 청소년 근로

시설거주 청소년 중 일부는 시설 입소 이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일례로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연령대의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8.9%였으며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용돈 부족(53.0%)'이었다(민소영 외, 2023). 청소년쉼터나 자립생활관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양육시설 거주 청소년들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은데 이는 그만큼 이들의 경제 상황이 더욱 열악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저학력, 저숙련도를 가진 청소년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고강도의 불안정한 일자리이다(김은정, 백혜정, 김희진, 2019; 민소영 외, 2023).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학력이나 자격증, 직무 능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비 등 일정한 비용을 치러가며 비교적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당장 눈앞의 기본적인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들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찍부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뛰어듦으로써 미래를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3) 심리·정서 문제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는 학업성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낮은 학업성취도나 높은 학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윤인애, 마신연, 신윤아, 2023) 반대로 개인의 불안정한 심리·정서 상태가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은예, 한수연, 박용한, 2023; 이상미, 2023).

많은 선행연구들은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문제를 다양한 유형과 수준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쉼터 등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우울, 자살계획, 고립감, 자존감, 삶의 만족도,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반 청년 및 청소년들보다 많거나 그 수준이 심각하였다(김희진 외, 2018; 백혜정 외, 2023). 한편, 위기청소년들의 건강 연구에서는 같은 위기청소년 집단 내에서 청소년시설 거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양부모 가정에 거주하는 위기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부모·조손 가정의 위기청소년들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아동·청소년 복지시설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백혜정, 임희진, 송미경, 김양희, 2020).

시설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심리·정서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심리·정서상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심리·정서를 같이 살피고 필요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

청소년들은 각자의 특성이나 환경이 다양하므로 개인에 맞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인영, 나승일(2021)의 연구에서는 개인 및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 부모-자녀 간 진로 관련 대화 정도는 개인의 교육 및 고용경로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교육적 포부 증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이들의 교육적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지지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교육적 차원의 지지나 지원이 부족하여 학급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하였다(강현아, 이종은, 2018). 더 나아가 시설에서 순응적이지 않은 청소년들은 시설 선생님의 지지 및 지원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강현아, 이종은, 2018) 자신에게 적절한 교육·활동 참여 기회는 물론 교육적 포부를 높일 수 있는 기회조차 갖기 어려울 수 있다.

5) 취약한 시설 내 학습환경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학습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이상정, 이주연 외, 2023)에 따르면 9~17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방수는 2.98개,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는 0.2%, 학교 등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에 적당한 공간이 집 안에 없는 경우는 5.4%에 불과하였다. 또한 같은 조사(이상정, 이주연 외, 2023)에서 가구원 수는 평균 3.95명, 양부모 가구가 90.9%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다수의 청소년이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 시설에서는 공간 부족 현상을 겪기도 한다. 시설기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은 침실 1개당 정원 기준을 3명 이하로 삼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5a), 청소년복지시설은 침실 정원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여성가족부, 2024a).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침실 내 정원을 아동복지시설 기준에 준하여 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12] 아직도 시설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시설거주 아동의 주거 경험 연구에 따르면 방당 평균 인원이 아동양육시설 3.74명, 중장기청소년쉼터 2.85명, 공동생활가정 2.5명이었다(임세희, 권지성, 이아영, 전수아, 윤수경, 2021).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13]을 적용하면 방 하나당 동성 자녀 최대 2명인 것을 감안할 때 시설거주 청소년은 최저주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시설 안에서의 학습환경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이 있다는 응답은 아동양육시설 92.4%, 그룹홈 81.8%인데 비해 중장기청소년쉼터는 59.3%로 낮았다(임세희 외, 2021). 단독 사용 가능한 컴퓨터(노트북이나 태블릿도 포함)가 있는 비율도 아동양육시설 72.2%, 공동생활가정 69.7%인데 비해 중장기청소년쉼터는 57.4%였다(임세희 외, 2021).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시설 내 청소년들의 학습환경은 썩 좋은 편이라 할 수 없으며 특히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청소년들의 학습환경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였다.

4. 퇴소 이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

교육경험이 퇴소 이후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3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백혜정 외, 2023)와 2024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김승경,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 2024)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재학 이상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학력이 어떠한 차이를 야기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근로와 관련하여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시설퇴소청년들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에 비해 일자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1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https://case.humanrights.go.kr/dici/diciSearchView.do?search_data=a87007e3223d1ccf453194fda71b9ce3 (검색일: 2025.3.11.)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최저주거기준.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https://www.law.go.kr/LSW/unSc.do?section=&menuId=391&subMenuId=395&tabMenuId=409&eventGubun=060101&query=%EC%B5%9C%EC%A0%80%EC%A3%BC%EA%B1%B0%EA%B8%B0%EC%A4%80 (검색일: 2025.3.11.)

적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시설퇴소청년들의 NEET 경험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가 50%를 상회하였지만,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은 1년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8.9%인 것에 비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은 15.1%에 불과하여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학 휴학 및 졸업자의 경우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시설퇴소청년들에 비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높았고,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고졸 이하의 청년들에 비해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저축·보험·연금 등 자산 형성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도 유의하게 높았다.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대학 재학 이상의 청년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에 비해 우울증상 경험 비율이 낮고, 최근 1년간 자해경험도 낮았으며, 건강보험료 미납 및 연체경험도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에 비해 평소 운동 횟수가 많았고, 고립감을 경험하는 비율도 낮았다.

여가·문화 영역에서는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고졸 이하의 청년들에 비해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 2~3일 정도의 여행 등의 여가·문화 경험률이 높았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은 고졸 이하의 청년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도 높고,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높았으며, 본인의 자립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육수준이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인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게 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자 하는 욕구와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는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교육은 단기간의 지원으로 성취되기 어렵고, 시설퇴소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반청년들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세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소결 및 시사점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국제사회의 탈시설화 기조와 달리 강제적인 집단생활 및 개인 통제 결여라는 시설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교육 및 활동 경험에서 광범위한 취약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은 시설퇴소 이후 자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데, 특히 수학 및 영어 과목에서 일반 또래와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이 집중되거나 공간 부족, 단체생활과 같이 학습환경 자체의 취약성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교육경로에서도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보다는 조기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진학 비율이 현저히 높고, 특히 소년보호시설이나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 중단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들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낮고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 진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과 선택 시 적성이나 특기를 고려하기보다는 주변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을 염두에 두고 취업에 유리한 분야로 집중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취약성은 시설 생활로 인한 제약이나 복잡한 개인적 배경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용돈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학력·저숙련도로 인해 주로 저임금·고강도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장기적인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학대나 방임 등 원가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나 우울,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시설 내에 교육적 지지를 제공해 줄 보호자의 부재, 시설종사자와의 불안정한 관계, 시설 내 열악한 학습환경 등도 개인의 교육적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교육수준을 단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교육이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시설거주 청소년 현황 및 지원제도

1. 시설거주 청소년 현황
2.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관련 지원제도
3. 소결 및 시사점

3 시설거주 청소년 현황 및 지원제도[14)]

1. 시설거주 청소년 현황

1) 청소년 거주시설의 유형 및 현황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 시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근거하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제4조 정의))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주거시설로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공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있고 이용시설은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생활시설 중 아동일시보호시설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은 입소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해당되고, 자립지원시설은 시설퇴소 후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인 것에 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1년 이상 비교적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이 아동 1명당 6.6㎡ 이상이고, 침실의 정원은 실당 3명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66㎡ 이상의 강당 또는 오락실, 도서실(열람석 및 도서류 비치), 심리검사·치료실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심리검사·치료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공동생

14)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활가정은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의 별표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복지시설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이 있다. 이 중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로 본 연구의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에서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일정 기간 보호하며 주거, 상담,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기 및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침실 내 정원은 단기쉼터의 경우 1실당 3인 이하, 중장기쉼터는 1실당 2인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17.1.4). 이 외에 개별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상담실,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단체활동실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별표3).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부모의 보호력 부재, 부적절한 양육, 가정에서의 이탈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은 가정 밖 청소년 범주에 해당하고, 청소년쉼터에서 주로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14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일시쉼터가 33개소, 단기쉼터가 69개소, 중장기쉼터가 38개소이다. 일시쉼터는 24시간~7일 이내의 일시보호 기능을 가지며,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제공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최장 24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의 장기보호를 제공하며 최장 4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소년보호시설로는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이기

도 하지만,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즉, 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의 소년 중 소년원에 보낼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보호력이 미약하거나 부재하여 일정 기간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사의 심리 결과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6호) 처분을 받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 이후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아동복지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위탁하게 된다.

6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대체로 행위의 수준이 낮지만 보호자나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행위의 수준이 낮고 보호자는 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가정의 소년으로 방치한다면 비행반복의 위험성이 큰 경우, 소년이 이미 4호나 5호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범하였고, 보호자나 가족이 보호능력이 미약한 경우, 아직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은 없지만 비행의 정도가 큰 소년 중에서 선도를 기대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마잘로센터 홈페이지, 2025.2.5. 검색).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며, 시설 설치기준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의 별표2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입소기간은 법원판결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이지만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침실 1개의 정원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에 근거한 기관으로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그룹홈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무료숙식, 취업지원,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사회정착지원 및 비행예방에 초점을 두면서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보호소년 및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청소년들 중 부모의 보호력이 부재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만 12~22세 이하 청소년들의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 자립의지를 평가하여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입주비와 급식비는 무료이고 학교수업료와 취업 및 자립에 필요한 교통비는 후원금에서 일부 지급된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2025.8.6. 검색).

이밖에 교육부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가정형 위(Wee)센터는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상습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행동 등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를 포함한 돌봄·상담·교육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부모의 보호력이 부재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타 시설들과는 달리 가정형 위(Wee)센터는 일부 가정, 학교에서의 위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기는 하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학교부적응이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학생과 보호자가 기관에 내방하여 접수면접 후 사례회의를 통해 위탁교육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해당 학교의 동의 및 정식 의뢰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 원적교의 학적 유지가 가능하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기간은 대체로 2주~3개월이며 일부의 경우 최대 6개월~1년까지 입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생의 문제 및 각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시설에서의 교육 경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부모의 보호력이 부재한 청소년들의 거주가 가능한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단기 및 중장기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에 거주 중인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표 Ⅲ-1.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의 대상 및 기능

소관부처	법적근거	시설 유형	세부유형	대상	지원내용	입소연령 및 기간	설치현황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 복지시설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취업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 0~18세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 243개소, 8,991명 ('23년 12월 말 기준)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 수립		· 17개소, 230명 ('23년 12월 말 기준)
			아동보호치료시설	· 소년법 제32조제6호 처분 · 정서적·행동적 장애 치료 필요 아동 · 학대 피해 아동	· 소년법 제32조제6호 처분 또는 치료 필요 아동 보호·치료		· 12개소, 442명 ('23년 12월 말 기준)
			공동생활가정 (아동그룹홈)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 양육, 자립지원	· 0~24세	· 520개소, 2,578명 ('23년 12월 말 기준)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		· 16개소, 230명 ('23년 12월 말 기준)

소관부처	법적근거	시설 유형	세부유형	대상	지원내용	입소연령 및 기간	설치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	· 학대피해아동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		· 144개소, 335명 ('23년 12월 말 기준)
성평등 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 가정 밖 청소년(9~24세)	·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9~24세 · 중장기: 3년 이내 (최장 4년) · 단기: 3개월 이내 (최장 24개월)	· 중장기 38개소 · 단기 66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 가정 밖 후기 청소년 (19~24세)	· 주거를 지원하면서 자립을 위한 지원 제공	· 1년 (필요시 6개월씩 2회 연장 가능)	· 13개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	·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	·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오름과정 (1개월), 디딤과정(4개월) 등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	·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여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 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6개월(법원 결정)	· 18개소
법무부	아동복지법	아동 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 6개월(법원결정)	· 10여 개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년보호협회)	-	청소년자립생활관	· 보호소년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 생활공간 제공,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자립 지원 및 숙식 제공	· 만 12~24세 · 6개월마다 연장평가, 원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8개소(강원, 대구, 부산, 안양, 광주, 대전, 의왕, 전북)

소관부처	법적근거	시설 유형	세부유형	대상	지원내용	입소연령 및 기간	설치현황
교육부	교육부 훈령 제329호	-	가정형 위(Wee)센터	· 초·중·고 소속 학생 중 가정·학교·개인 및 사회적 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학생	· 보호·교육·상담 통합지원	· 2주~3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 전국 19개소(사·도교육청에서 운영)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0500에서 일부 발췌. (검색일: 2025.2.1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 〉 청소년 〉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https://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에서 일부 발췌. (검색일: 2025.2.12.)
법무부 블로그.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아시나요?**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3611830000?trackingCode=rss에서 일부 발췌. (검색일: 2025.2.12.)

2) 청소년 거주시설별 현황

부모의 보호력 부재, 부적절한 양육, 가정에서의 이탈 등으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수는 '20년 4천 명대에서 '23년 2천 명대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인구의 감소율을 감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감소 비율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으로는 학대가 가장 많았다. '20년에는 부모 이혼, 비행·가출·부랑, 미혼부모·혼외자로 인한 원인이 높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부모 사망, 미혼부모·혼외자, 부모 이혼 등으로 인한 사유가 높고 비행·가출·부랑으로 인한 발생은 '22년부터 급감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2.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단위: 명)

연도	유기	미혼 부모, 혼외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 시설 입소	부모 이혼 등	합계
2020년	169	466	11	468	1,766	181	279	75	166	539	4,120
2021년	117	366	0	293	1,660	170	275	101	99	356	3,437
2022년	73	252	0	11	1,103	139	235	70	110	296	2,289
2023년	88	259	1	14	785	169	270	89	147	232	2,054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4.8.5)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서 일부 발췌, 재구성.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tag=&act=view&list_no=1482557
(검색일: 2025.1.21.)

매해 발생하는 아동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에서의 보호조치가 결정된 아동은 '23년 현재 524명으로 '20년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않는 수준이며, '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동생활가정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역시 '20년 714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3년에는 222명으로 '20년의 3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다만, 입양이 다소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23년에 입양과 입양 전

위탁을 통합하여 인원을 산출한 것을 감안하면 입양 역시 '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 중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으로 장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20년 44.8%에서 '23년 36.3%로 8.5%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보호대상아동 중 1/3 이상은 장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현황

(단위: 명)

연도	시설입소							가정보호				일시보호			합계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소계	시설**	가정형보호	소계	
2020	1,131	342	20	452	714	68	2,727	88	1,068	237	1,393	-	-	-	4,120
2021	996	243	33	282	546	83	2,183	75	1,028	151	1,254	-	-	-	3,437
2022	567	0	0	12	287	47	913	52	802	114	968	381	27	408	2,289
2023	524	0	0	13	222	42	801	162*	783	0	945	266	42	308	2,054

* '입양'은 2023년부터 입양+입양 전 위탁 아동을 통합.
** '시설'은 기존의 시설입소 내 일시보호에 해당, 2022년부터 분리.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4.8.5)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연도별)에서 일부 발췌, 재구성.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tag=&act=view&list_no=1482557 (2025.1.21. 검색).

전국에 분포된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시설은 '23년 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총 24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종사자는 6,874명으로 1개소 당 28.2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다. 총정원은 총 13,534명으로 1개소 당 정원은 평균 55.7명이지만 시설에 따라 정원이 최소 9명부터 최대 150명인 시설까지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23년 말 현재 수용인원은 총 8,991명으로 1개소 당 평균 3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용률은 66.4% 수준이다. 취학 전 아동(0~3세 308명+3~6세 1,392명, 총 1,700명)이 전체의 약 18.9%였으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약 39.2%,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18.0%,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17.0%였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국에 520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종사자 수는 1,846명으로 1개 시설당 3.6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다. 총정원은 3,462명으로 시설당 정원은

평균 6.6명으로 최소 5명부터 최대 7명 수준이다. 수용인원은 2,578명으로 1개 시설당 5.0명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용률은 74.5% 수준이다. 취학 전 아동(0~3세 28명+3~6세 197명, 총 225명)은 전체의 약 8.7% 정도였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840명으로 약 32.6%,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592명(23.0%)이었으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615명(23.9%)으로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취학 전 및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비율이 적고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4.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수용인원, 아동현황

(2023.12.31. 현재.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현황			수용인원			아동현황							
		시설 수	종사자 수	정원	남	여	계	미취학 (0~3)	미취학 (3~6)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계
아동양육시설	서울	35	1,402	2,011	921	685	1,606	100	350	772	155	157	38	34	1,606
	부산	17	462	1,107	394	293	687	20	82	239	128	188	15	15	687
	대구	17	363	858	281	238	519	9	62	230	93	87	15	23	519
	인천	9	377	629	264	185	449	21	75	177	81	87	5	3	449
	광주	10	299	544	213	165	378	1	60	156	92	52	14	3	378
	대전	11	262	543	156	138	294	20	47	104	57	55	7	4	294
	울산	1	81	150	57	54	111	2	17	44	36	8	4	-	111
	세종	1	16	48	12	8	20	-	1	3	7	6	2	1	20
	경기	27	699	1,255	460	402	862	13	158	331	199	146	6	9	862
	강원	8	179	384	121	103	224	8	27	59	54	41	25	10	224
	충북	11	332	582	244	163	407	17	76	165	63	59	14	13	407
	충남	13	391	766	279	252	531	9	89	216	100	83	22	12	531
	전북	14	352	732	249	212	461	17	59	156	85	113	13	18	461
	전남	22	594	1,431	471	362	833	30	111	329	131	129	75	28	833
	경북	18	419	990	362	313	675	14	70	231	145	130	69	16	675
	경남	24	447	1,222	390	337	727	13	86	265	148	139	60	16	727
	제주	5	199	282	121	86	207	14	22	49	48	49	25	-	207
계		243	6,874	13,534	4,995	3,996	8,991	308	1,392	3,526	1,622	1,529	409	205	8,991

(계속)

구분		시설현황			수용인원			아동현황							
		시설 수	종사자 수	정원	남	여	계	미취학 (0~3)	미취학 (3~6)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계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서울	66	236	419	178	128	306	4	35	80	75	81	22	9	306
	부산	28	101	190	78	67	145	-	7	40	33	54	8	3	145
	대구	11	40	68	32	18	50	2	2	16	9	15	-	6	50
	인천	18	64	115	56	52	108	-	11	34	26	30	5	2	108
	광주	34	125	229	88	90	178	3	14	75	39	29	13	5	178
	대전	16	57	101	48	34	82	2	3	27	26	19	4	1	82
	울산	8	29	50	33	6	39	-	1	11	15	10	-	2	39
	세종	-	-	-	-	-	-	-	-	-	-	-	-	-	-
	경기	156	535	1,044	406	348	754	8	61	267	169	165	62	22	754
	강원	14	43	95	32	38	70	-	4	25	13	16	10	2	70
	충북	25	90	173	59	59	118	3	8	39	31	25	7	5	118
	충남	30	101	210	84	73	157	-	8	45	41	32	18	13	157
	전북	41	151	274	98	100	198	1	11	58	43	54	21	10	198
	전남	33	126	222	101	66	167	-	10	53	39	43	16	6	167
	경북	9	33	62	30	17	47	2	10	19	2	9	5	-	47
	경남	27	99	182	80	57	137	3	9	42	26	32	16	9	137
	제주	4	16	28	14	8	22	-	3	9	5	1	4	-	22
계		520	1,846	3,462	1,417	1,161	2,578	28	197	840	592	615	211	95	2,578

* 출처: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생활시설 4종 및 이용시설 2종, 학대쉼터) (2023.12.31. 현재), 보건복지부(2024). 2024 아동복지(생활)시설 현황II(공동생활가정) (2022.12.31. 현재)에서 발췌, 일부 재구성.

(2) 청소년복지시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24년 기준 일시쉼터 33개소, 단기쉼터 66개소, 중장기쉼터 3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입소자 수는 순인원이 매년 5,000명 내외에 이르며, 매년 전체 입소생의 10%를 상회하는 6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중장기 쉼터에 입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중장기쉼터는 1개소 당 평균 입소정원이 8.5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총 입소정원은 323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단기쉼터는 1개소 당 평균 입소정원이 13.3명이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입소정원은 878명 정도로 볼 수 있다. '23년 안전망시스템에 입력된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유는 부모폭행 등 가정문제가 57.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개인문제(7.3%) 등이었다(여성가족부, 2025.1.10).

표 Ⅲ-5.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수(순 인원)

(단위: 명)

구분		청소년쉼터		합계
		단기	중장기	
입소 순인원[1)]	2020년	3,997	585	4,902
	2021년	3,779	581	4,824
	2022년	3,655	554	4,724
	2023년	4,382	591	5,555
퇴소 순인원[1)]	2020년	3,442	341	3,885
	2021년	3,322	345	3,856
	2022년	3,239	323	3,780
	2023년	3,745	346	4,363

* 출처: 김승경 외(2024).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p.19)에서 발췌.
여성가족부 (2024b). 내부자료.

* 주: 순 인원은 연간 이용 및 입소 인원에서 중복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을 의미함.

(3) 소년보호시설

2023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0,094건이며, 이 중 미제로 남은 13,365건을 제외하고 '23년에 처리된 소년보호사건 49,444건 중 보호처분은 50,253건으로 전체의 61.2%에 달한다(법원행정처, 2024). 보호소년의 연령은 16세 이상~18세 미만이 32.2%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14세 이상~16세 미만 32.0%, 14세 미만 23.7%, 18세 이상~19

세 미만 12.1% 등의 순이고, 교육 정도는 중학교 50.4%, 고등학교 38.0%, 초등학교 11.0% 등이었다(법원행정처, 2024). 소년보호처분은 대체로 가정의 보호력이 약하여 보호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해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호소년의 가족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보호소년의 약 73%가 양부모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 이상이 편부 및 편모 등 한부모 가정의 자녀였고, 부모가 없는 경우도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보호소년 가족관계별 인원

(단위: 명)

구분	실부모	계부·계모	편부	편모	무부모	기타	합계
합계	4,668	8	764	864	43	60	6,407
백분율	72.9	0.1	11.9	13.5	0.7	0.9	100.0

* 출처: 법원행정처(2024). 2024 사법연감. p.791에서 일부 발췌 후 수정.

소년보호시설은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자립생활관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구분되지만, 「소년법」상 비행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강제적인 시설이 아닌 아동복지시설 등 민간기관에 감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인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거주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일반적으로 10살 이상의 청소년들이 법원결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소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6개월이 연장되기도 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전국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3년 연말 기준으로 약 430명 내외의 입소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표 Ⅲ-7.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연도별

(단위: 개소, 명)

연도	시설 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 현재 입소자
2019년	12	768	746	469
2020년	12	705	735	436
2021년	12	706	695	404
2022년	12	685	707	435
2023년	12	682	707	442

*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제70호). 세종: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 현황(생활시설 4종 및 이용시설 2종, 학대쉼터)에서 일부 발췌.

지역별로는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시설 수와 입소자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천, 울산, 광주, 세종,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에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입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Ⅲ-8.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지역별

(단위: 개소, 명)

지역	시설 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23년) 현재 입소자
서울	3	239	235	126
부산	1	13	11	17
대구	2	58	57	55
대전	1	186	174	92
경기	1	76	76	40
충북	1	21	66	33
전북	1	85	79	50
전남	1	-	3	10
경남	1	4	6	19

*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제70호). 세종: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 현황(생활시설 4종 및 이용시설 2종, 학대쉼터)에서 일부 발췌.

표 Ⅲ-9.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성별, 재학상태별

(단위: 개소, 명)

지역	시설 수	정원	인원(성별)			인원(재학상태별)			
			계	남	여	미취학, 초등재학, 중등재학,	고등 재학	대학 재학	기타
서울	3	175	126	83	43	81	12		33
부산	1	40	17	17		13	4		
대구	2	72	55	25	30	33	11	1	10
대전	1	100	92	92		43	24		25
경기	1	40	40		40	24	2		14
충북	1	36	33	33		10	23		
전북	1	70	50	39	11	41	9		
전남	1	40	10	6	4	3	4	1	2
경남	1	30	19	19		7	11		1

*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제70호). 세종: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 현황(생활시설 4종 및 이용시설 2종, 학대쉼터)에서 일부 발췌 후 수정.

이에 비해 자립생활관은 보호소년 등 및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자립 의지를 갖고 입소를 희망하는 만 12~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호소년 및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생필품 및 심리상담 등의 기본지원, 학업연계, 취업활동, 현장체험, 콘텐츠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의왕),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안양, 전북, 강원 등 전국에 8개소를 운영 중이며, 총정원은 130명이고 2023년 기준 현원 51명으로 정원 대비 39.2% 수준이다(법무부, 2024).

표 Ⅲ-10. 청소년자립생활관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정원	현원
130	51

* 출처: 법무부 (2024). **2024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경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p.287.

1일 평균 입주 인원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신 입주 인원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Ⅲ-11. 자립생활관 입주 인원

(단위: 명, 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일 평균 입주 인원	93	83	79.2	68.2	55.6
신 입주 인원	110	96	78	43	45

* 출처: 법무부 (2024). **2024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경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p.287.
* 1일 평균 입주 인원: (해당 연도의 총 입주 인원)/(해당 연도 일수).
신 입주 인원: 해당 연도에 새로 입주한 인원.

3) 시설퇴소 청년들의 시설거주 경험

시설퇴소[15]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시설퇴소청년들 중 상당수는 시설거주기간 동안 2개 이상 다른 유형의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의 7.4%(13개월)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중 18.8%(평균 5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중 28.2%(평균 10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36.3%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각각 생활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청소년쉼터 및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은 본인이 퇴소한 시설 외에 고시원이나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한 경험이 각각 40% 이상으로 나타나 아동양육시설 퇴소청년들에 비해 불안정한 주거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시설별 퇴소청년들은 시설을 퇴소하기까지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설을 이동·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퇴소시설을 기준으로 한 단일 보호체계의 정책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각의 보호체계에서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호 대상들이 서로 중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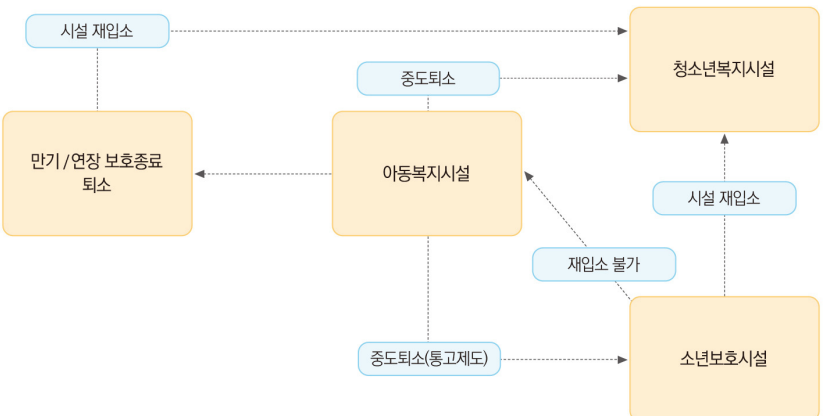
15) 본 연구에서 시설퇴소청년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을 의미하며, 일반청년은 '김기헌, 배정희(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여 청년 중 30세 이하 청년의 응답만을 재분석한 결과임.

표 Ⅲ-12. 각 시설퇴소청년 유형별 타 시설 이용률

(단위: %)

유형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아동양육시설	87.7	**18.8**	**28.2**
청소년시설(쉼터, 회복지원시설)	**7.4**	80.3	**36.3**
자립지원관·생활관	18.2	33.6	50.0
미혼모·성폭력피해자·노숙인 시설	0.8	4.1	1.6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교도소·구치소	**1.2**	**7.5**	78.2
숙박시설(고시원, 모텔 등)	10.8	42.0	41.9
기타	4.4	30.0	26.6

* 출처: 김지연 외 (2022). p.106의 내용을 재구성한 김승경 외 (2024) p.23에서 재인용.



* 출처: 김지연 외 (2022). p.116, 김승경 외 (2024) p.24에서 재인용.

그림 Ⅲ-1. 시설퇴소 이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시설 이동 경로

시설퇴소 전에 생활했던 기관 수는 평균 1.6개 기관이었으며, 1개소 당 평균 생활기간은 66.7개월로 나타났다. 아동시설 퇴소청년들은 평균 129.4개월(10.7년)을 시설에서 거주하였으며,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54.6개월(4.5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들은 37.5개월(3.1년) 정도를 시설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은 1개 시설에서 평균 약 99.5개월(8.3년)을 거주하였으며 타 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에

비해 비교적 오랜 기간 시설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1개 시설에서 약 20.1개월(1.7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은 15.7개월(1.3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1~2년 간격으로 거주지를 변경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김승경 외, 2024:96).

표 Ⅲ-13. 생활했던 기관 수 및 기관에서 생활했던 기간

(단위: 개소, 개월)

구분		생활했던 기관 수			생활했던 기간			1개소 당 평균 생활 기간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전체		1.60	1.265	-	106.76	84.608	-	66.7
퇴소 시설	아동시설[a]	1.32	0.694	241.963*** c>b>a	129.35	82.075	354.205*** a>c>b	98.0
	청소년시설[b]	2.38	1.938		37.47	44.380		15.7
	소년보호시설[c]	2.72	2.152		54.59	69.381		20.1

*p<.05, **p<.01, ***p<.001
* 출처: 김승경 외 (2024). p.96.

이렇게 잦은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청년들은 생활했던 기관 수에 따라 우울이나 고립감 등의 심리·정서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했던 기관 수가 많아질수록 우울이나 고립감 점수가 높아졌고, 특히 6개 이상의 기관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청년들은 우울이나 고립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상태가 유의하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이상의 기관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청년들의 경우 1개소에서 생활한 청년들에 비해 자립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경 외, 2024:97).

표 Ⅲ-14. 생활했던 기관 수에 따른 우울 및 고립감의 차이

(단위: 점)

구분		우울			고립감			자립수준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생활했던 기관 수	1개소[a]	1.65	.718	27.790*** c>a,b	1.75	.880	29.667*** c>a,b	2.93	.626	7.722*** a>c
	2~5개소[b]	1.81	.801		1.96	1.001		2.85	.633	
	6개소 이상[c]	2.26	.928		2.53	1.037		2.70	.599	

*p<.05, **p<.01, ***p<.001

2.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관련 지원제도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지원제도를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 중인 아동에게 보호, 양육,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기관은 개별보호 및 관리계획에 기초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아동의 적성 및 욕구파악, 사회성 발달정도 및 자립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며,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8).

시설 입소가 결정된 아동에게는 아동복지시설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15세부터는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진학, 취업, 주거계획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입력하고 있다.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자립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제공되는데,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은 시설 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제공되며, 보호아동에게 별도 공간(1인실) 또는 지역별 자립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11). 18세가 되기 전 아동의 자립준비도, 본인의 연장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종료 및 보호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보호연장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가장학금, 외부자원 등을 활용한 취업·진학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11).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대학 진학, 취업(예정) 유무, 등록금 조달, 주거 마련, 원가정 관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자립수당 신청 여부,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액 등 자립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관할 자립지원 전담에 연계하며,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8).

15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동의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고 실제로 보호종료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5세부터 보호종료 3개월 전까지는 매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하고 고등학교 이후 아동부터는 진학 또는 취업계획 등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자립지원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34). 보호종료 전까지 전반적인 발달상황이나 희망진로, 희망주거 등에 관해 사정한 자립기술평가에 기초하여 자립지원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집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립기술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학업수준을 향상시켜 희망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진학 이후 등록금 조달방안을 검토하고, 취업 희망자의 경우 입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의 희망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여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34).

시설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연령·수준별로 표준화된 자립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자립에 필수적인 8개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8대 프로그램 영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5.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의 8대 영역

영역	내용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기술 습득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기술 습득
자기관리기술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성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자기 관리 기술 습득
사회적기술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습득
자산관리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자립 후 살림살이 등 기술 습득
진로탐색기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취·창업 계획 세우기, 이력서 작성 등 기술 습득
직업생활기술	직장인 되는 법, 즐겁게 일하기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사회진출기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거주지 마련 방법 습득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p.36 일부 수정.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이 일반생계비 급여 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급비를 시설회계로 산입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a:217). 생계급여는 아동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시설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희망이음으로 항목별 사용내역 및 영수증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a:217). 시설회계로 편입 시 세입예산과목은 입소비용수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하지만, 그것이 시설이용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세출예산과목은 아동의 직·간접비용으로 사용되는 사업비(운영비, 교육비, 기타사업비), 운영비(수용비 중 아동을 위한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소규모수선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중 보험료 및 아동을 위해 사용하는 기타운영비)로 편성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5a:217). 다만 생계·급식비, 피복비 등 아동 개인별 직접 지원 항목으로 최소시설생계급여[16]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6) 보장기관은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보장시설별로 예산을 편성하며, 지급기준은 수급자 현원으로 구분함. 보장시설 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주·부식비 등 구분 없이 집행이 가능하며, 쌀 등 기부금품 후원 등으로 주·부식비가 절감되는 경우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로 추가 사용가능하다. 단,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냉·난방 연료비, 기관운영비 등 시설의 관리 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분야에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음(보건복지부, 2025b:340).

2025a:217).

후원금과 관련하여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후원자가 후원금의 용도를 지정한 지정후원금의 경우 자립정착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비 및 개인적금 적립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a:220). 나아가 대학 진학 자금으로 아동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보건복지부, 2025a:221)하는 등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즉 보호아동의 생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의 공동회계로 편입하도록 하되 최소한 해당 아동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시설생계급여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직접 사용하도록 하여 시설이 보호아동의 생계급여를 운영비나 일반사업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사용 하한선을 설정하여 아동 개개인의 복지 및 생계급여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소시설생계급여 이상의 비용을 생계·급식비, 피복비 등으로 사용하고 난 사업비로 개인의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며, 후원금을 통해 학원비 등을 충당할 수 있으나 후원금은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종사자를 살펴보면 시설장, 사무국장(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없음),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보육사, 생활복지사, 간호조무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원, 위생원, 안전관리원, 영양사, 사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의 하위유형이나 규모, 보호아동의 연령에 따라 배치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호아동이 30명 이상인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직종별 종사자가 모두 배치되고 보호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사를 더 많이 배치해야 하지만, 아동이 10명 미만인 양육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보호아동 연령기준에 따른 보육사만 배치하면 된다. 보호아동이 8명 미만인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과 보호아동 연령기준에 따른 보육사 배치에 더하여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필요 인원만큼 배치할 수 있다.

202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보건복지부, 2025b:338)

지급기준 구분(현원)	월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356,568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323,664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11,162원
300인 이상 시설	311,139원

표 Ⅲ-1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 유형	직종별	배치기준
아동 복지 시설	시설장	• 시설당 1명
	사무국장	• 아동 30명 이상 시설당 1명(자립지원시설은 10명 이상 1명) * 공동생활가정, 아동전용시설 해당 없음
	상담지도원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상담소는 필요 인원 • 자립지원시설은 아동 10명 미만 1명, 아동 10명 이상 30명 미만 2명, 아동 30명 이상 3명
	임상심리상담원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상담소는 30명 이상 1명 • 보호치료시설은 시설당 1명
	보육사	• 0~2세까지 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 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해당 없음
	생활복지사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ex) 아동 31명부터 생활복지사 2명 배치 • 10명 이상 전용시설은 필요 인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상담소 30명 이상 1명
	직업훈련교사	•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은 필요 인원
	조리원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은 10명 이상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ex) 아동 31명부터 조리원 2명 배치
	위생원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이상 1명
	안전관리원	•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2명(40명 이상 4명),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영양사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1명
	사무원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은 10명 이상 1명 • 자립지원시설, 상담소,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은 10명 이상 1명, 자립지원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양육시설은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 공동생활가정은 필요 인원
	의사 (또는 계약의사)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출처: 보건복지부 (2025a).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세종: 보건복지부. pp.247~248.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 참조.

표 Ⅲ-17. 아동복지교사 지원 내용

구분	지원분야	활동내용
기본 분야 (전일)	기초학습	- 기초학습교육(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외국어지도	- 외국어 기초지도 - 그룹외국어지도, 영어 등 활동 프로그램 지도 * 외국어 영역: 중국, 일본어, 베트남어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외국어
	독서지도	- 독서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그룹 독서지도,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도
	예체능지도	- 예체능활동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지도 * 음악, 미술, 바둑, 컴퓨터, 축구, 로봇과학, 연극, 서예, 손글씨, 한자, 댄스(무용), 요리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분야 가능
	다문화·장애아동지도	- 다문화아동 / 장애아동 지도
	기타	- 시군구청장이 지역수요 등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예: 아동인권, 진로지도, 수학 등)
분야별 공통사항		해당 분야 수업 전후 정리 및 학교생활교육(숙제 및 과제물 관리 등)
기본 분야 (단시간)	기초학습	- 기초학습교육(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 학교 수업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기초학습 교육(초등국어, 초등수학 등) *단, 심화과정 교육 불가
	외국어지도	- 외국어 기초지도 - 그룹외국어지도, 영어 등 활동 프로그램 지도 * 외국어 영역: 중국, 일본어, 베트남어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외국어
	독서지도	- 독서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그룹 독서지도,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도
	예체능지도	- 예체능활동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지도 * 음악, 미술, 바둑, 컴퓨터, 축구, 로봇과학, 연극, 서예, 손글씨, 한자, 댄스(무용), 요리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분야 가능
	다문화·장애아동지도	- 다문화아동 / 장애아동 지도
	기타	- 시군구청장이 지역수요 등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예: 아동인권, 진로지도, 수학 등)
분야별 공통사항		해당 분야 수업 전후 정리 및 학교생활교육(숙제 및 과제물 관리 등)

* 출처: 보건복지부 (2025a).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세종: 보건복지부. p.338에서 일부 발췌.

이 외에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는 아동복지교사 신청을 통해 시설거주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에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보건복지부, 2025a:319)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가정 등에서 신청이 가능(보건복지부, 2025a:322)하다. 아동복지교사는 기초학습, 외국어지도, 독서지도, 예체능 지도, 다문화·장애아동 지도, 아동인권 및 진로지도 등 기타 분야 등 6개 기본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보건복지부, 2025a328)하는데, 주 25시간의 전일근무(주 5일 이내, 1일 5시간 지원), 또는 주 12시간의 단시간 근무(주 3~4일, 1일 5시간 이내)가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5a:328).

다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교사의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17]인데, 실제 현장 종사자들은 자문회의에서 아동복지교사의 취지와 활동내용에 대해 현장에 유용한 제도라고 하면서도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활용시간대가 맞지 않아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1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교사 제도 활성화 및 이용방법 홍보, 이용시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근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① 가정 밖 청소년에게(대상) ② 일정 기간(보호기간) ③ 생활지원, 보호(서비스), ④ 사례관리, ⑤ 가정·사회로의 복귀(단기목표), ⑥ 학업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중장기목표) ⑦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시설 유형)을 의미(여성가족부, 2025:198)한다. 주요 업무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사례관리, 자립지원,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 기관이지만 경우에 따라 최장 24개월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식주, 의료 등 보호서비스,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 중장기 보호기관(최장 4년)으로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17) 2023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95.2%,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4.2%, 공동생활가정 0.2%, 아동양육시설 0.2% 등으로 거주시설 청소년을 지원하는 비율은 1% 미만임(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18)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자문회의(2025.8.14.) 내용임.

학업·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하여 입소 및 이용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준하여 안전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5:273).

청소년쉼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최소사업비[19]에 별도로 자립활동실비, 건강특화사업비를 더한 금액 이상을 필수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5:257). 사업비는 운영비, 교육비, 자립활동실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에는 청소년을 위한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등이 포함되고, 자립활동실비에는 온·오프라인 학원 수강, 방문학습, 교재비, 직업훈련비 등 학위취득, 취업준비활동, 청년일 경험지원 사업 참여수당(1인당 1일 5만원 이내) 등이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25:256).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안)(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22)에 따르면 자립준비지원비는 청소년 1인당 연간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22년도부터 1인당 금액 규정이 삭제되었고 자립활동실비는 개소 당 500만 원 내에서 시설 사정 및 청소년 특성에 맞게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여성가족부, 2022:41), 개소 당 500만 원 내에서 청소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여성가족부, 2025:273)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립지원비용이 타 사업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개소 당 500만 원 내에서 청소년 특성에 맞게 자립활동실비를 집행하되 청소년들이 고루 혜택을 받기에는 각 개소 당 정원 및 입소 청소년들의 수가 상이하여 자립활동실비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으나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 및 최대 비용이 책정되지 않아 지원이 특정 청소년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2년 이전과 같이 기관에서 1인당 금액 규정을 제한할 경우 학원수강, 학습지원, 자격증 취득 훈련 등의 과정에서 자립준비지원비의 한계로 인해 교육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청소년쉼터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여 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19) 최소사업비는 정부보조금 중 추가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임(여성가족부, 2025:257).

이용권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데, 초등은 연 487,000원, 중등은 연 679,000원, 고등은 연 76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대표자인 시설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며, 기관에서 급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급여는 입소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으로 볼 수 없다.

청소년쉼터의 종사자는 크게 시설장, 보호·상담원, 행정원/조리원 등으로 구분되며, 입소기간에 따른 하위유형(단기/중장기)과 입소정원에 따라 보호·상담원 배치 인원에 차이가 발생한다. 청소년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사례관리, 자립지원 등의 활동은 대체로 보호·상담원이 담당하고 있다.

표 Ⅲ-18. 청소년쉼터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 유형	직종별	배치기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시설장	• 시설당 1명, 상근
	보호·상담원	• 단기청소년쉼터: 정원에 따라 2~6명 배치 • 중장기쉼터: 2명 *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장과 보호·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음
	행정원/조리원	• 시설당 1명

출처: 여성가족부 (2025). 2025 청소년사업안내 (Ⅱ). p.21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별표2 참조.

3) 소년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소년보호시설은 6호 처분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설립된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포함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3항에 근거, ①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②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소년법」 제32조1항에 근거하여 보호처분 6호 결정을 받은 소년들을 감호위탁하는 역할과 치료를 요하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6호 처분시설에서는 교과교육 프로그램, 치료프로그램, 선도프로그램, 보호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소 상이함을 볼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입소생들의 학년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교과교육이 학교와 같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검정고시, 예체능, 직업훈련, 안전 및 범죄 예방교육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입소기간 동안 교과교육이 단절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표 Ⅲ-19. 아동보호치료시설 제공 교육프로그램(예시)

구분	교육프로그램
효광원	• 치료프로그램(성교육, 미디어, 심리정서지원, 이혈침, 가족치료) • 선도프로그램(언어순화교육, 예절교육, 위생교육 등) • 보호프로그램(두드림, 검정고시 등) • 교육프로그램(치료공동체,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살레시오	• 치료(목공예, 도예, 미술치료, 분노조절프로그램) • 선도프로그램(열매프로그램, 모닝미팅, 예절교육, 모둠활동, 생일자파티, 또래모임) • 교육프로그램(검정고시 주간학교/야간학교)
로뎀	• 치료프로그램(바이올린, 가족힐링캠프, 원예치료, 심리정서지원사업) • 선도프로그램(교사-아동멘토링, 보호자특별교육, 비폭력서약, OK로뎀 시상) • 보호프로그램(아동이미용, 아동안전교육, 아동건강관리, 소방안전, 위생교육 등) • 교육프로그램(검정고시, 직업상담, 꿈키움제빵, 농사교육, 컴퓨터, 축구)
희망샘	• 교과학습프로그램 • 진로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제과제빵, 네일아트, 바리스타 등) • 생활지도프로그램(생활예절, 식사예절, 위생교육, 건강관리 등) • 적응훈련프로그램(초기적응, 개별아동, 퇴소준비 프로그램) • 심리치료프로그램(심리상담, 심리검사, 외부전문기관 연계) • 안전교육프로그램(교통안전교육, 유괴예방, 약물오남용 교육 등)
마자렐로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동아리활동(발레, 네일아트, 기타 등) • 직업훈련(바리스타, 컴퓨터) • 퇴소생을 위한 프로그램

구분	교육프로그램
	• 가족캠프 • 자아성장프로그램(법과 질서, 효과적인 대화법, 학교폭력예방, 진로교육, 인터넷중독) • 교육지원 – 씨앗반(치유 및 적응교육): 개인상담, 음악치유, 금연프로그램, 가족화해프로그램 – 성장반(사회심리재활교육): 기초학습, 검정고시, 자율학습, 독서생활 등 – 열매반(자립지원 및 직업재활교육): 금전관리, 진로탐색, 직업재활(바리스타, 네일, 테디베어, 컴퓨터, POP 등 직업교육)
나사로	• 건강발달프로그램(건강검진, 헬스케어) •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이끄미지원, 미술치료교실, 인지행동치료, 보호자특별교육 등) • 정서프로그램(영화상영, 자원봉사, 공연관람, 텃밭가꾸기) •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댄스, POP, 밴드, 냅킨아트, 캘리그라피) • 인지발달프로그램(스마일교실, 검정고시반, 다큐, 독서) • 자기보호능력계발프로그램(악물오남용예방교육, 소방 및 재난대비교육, 구강교육 등) • 사회성발달프로그램(여행, 아동자치회, 달란트 시장, 또래상담 프로그램) • 자립지원프로그램(일상생활기술, 사회적기술, 경제교육, 진로 및 취업, 숲치유캠프) • 직업훈련(애견미용, 제과제빵, 한식조리사 등)
늘사랑	• 교육지원프로그램(학교복귀, 검정고시, 특별교육, 교양문화) • 자립지원프로그램(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 심리·정서치유(개별상담, 집단상담, 뇌훈련프로그램) • 원가족 회복지원사업(연고자 상담, 보호자 특별교육) • 퇴소후 지원사업(사례관리)

* 출처: 이승현, 박선영(2017).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33을 일부 수정, 보완.
마자렐로센터 홈페이지. http://mcmain.or.kr/sub/sub01_04.php (검색일: 2025.10.17.)

이밖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는 보호소년 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자립지원시설 운영 등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청소년 관련 연구, 청소년 관련 선도·복지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협회의 사업)),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는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기숙사, 그룹홈 형태의 자립생활시설로, 12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으로 소년원 출원자, 6호 처분자, 소년분류심사원 출원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입주 대상이며, 입주 시 보호자의 신청 또는 관련기관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라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자립 및 사회정착 의지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주거 무료 숙식 지원 외에 전문심리상담, 학업연계 지원, 취업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취업 및 취업 알선, 사후지도 등을 하고 있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멘토와의 결연활동을 하고 있다.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문화체험, 심성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수업료와 취업 및 자립에 필요한 교통비 등은 후원금에서 일부 지급하고 있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2025.7.22. 검색). 이 외에도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문화체험, 심성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기본 예산만으로는 자립생활관 지원이 부족하여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통해 예산을 보완하고 있는데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기금(장학금)을 연계하거나 후원금을 조성하고 있다(이승현 외, 2022:107). 또한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으로 사업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복권기금은 주로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시설보수 및 노후차량 교체 등에 사용되고 있다(복권위원회, 2025). 이 외에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정관((재)한국소년보호협회 내부자료, 2023)에 따르면 협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회정착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일부를 모집 및 관리 운영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소년보호협회 정관 제15조). 사회정착기금은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중에서 장학, 주거, 원호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학원비, 기초생활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취업 지원 및 주거지원금, 취업성공지원금, 창업지원금, 긴급생계비·긴급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규정(한국소년보호협회 내부자료, 2025) 내에는 시설종사자들의 역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종사자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부금을 통해 운영비용을 충당한다는 내용 이외에 입소생들의 사회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의 구성이나 예산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부금품 등의 후원금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이나 기관장의 특성 등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입소생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 소결 및 시사점

국내 시설거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시설 유형 모두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지만, 시설별 소관부처에 따라 입소 대상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각 시설이 가진 특성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표준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아동의 상태 및 욕구에 부합하는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기술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진학 지원 및 진학 이후 등록금 조달방안, 취업지원 등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 기초생계급여의 최소지출 하한선을 설정하여 생계, 급식, 피복비 등 개인별 직접 지원항목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위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별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개별 아동의 자립정착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비 및 개인적금 등을 적립하는 등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사업예산에 자립활동실비를 별도 편성함으로써 자립지원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자립활동실비를 개소 당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2022년부터 1인당 금액 규정이 삭제되어 개별 청소년이 자립준비지원비의 한계로 인해 교육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나, 시설별 입소 청소년 수에 따라 개인별 지원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정 청소년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비에 편성된 교육비는 운영비, 의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비용을 개인의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관 또는 입소생들의 당면한 문제에 따라 활용 가능한 교육비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부 청소년쉼터의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교육비를 충당하기도 하나 모든 입소생이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관에서 교육급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으로 볼 수 없다.

소년보호시설의 경우 입소 청소년들의 치료 및 재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별로 프로그램에 편차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치료, 보호, 선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프로그램에 입소생의 학년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교과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입소기간 동안 교과교육이 단절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관기관의 기금(장학금)을 연계하거나 후원금을 조성하여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멘토와의 결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교수업료와 취업 및 자립에 필요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조직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사회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입소생의 교육비로 활용되는 후원금과 장학금 조성은 사회적 상황이나 기관장의 특성 등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입소생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들은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소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체계의 안정성 및 균형성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동복지시설은 생계급여의 최소 직접 지출 의무화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등을 활용하여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반면, 청소년쉼터는 시설별 자립활동실비의 정액 지급으로 인해 입소생에 대한 균등한 혜택 보장이 어렵다. 물론 1인당 자립활동실비가 정액으로 규정될 경우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긴 하나, 시설별 정액 지급인 경우에도 입소생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소생의 요구나 계획에 따른 예산 변동 지급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년보호시설은 시설의 자체 예산으로는 교육비 충당이 어렵고, 장학금 등의 후원금 의존도가 높아 재정 지원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소년보호시설은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복지시설의 개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기술평가 모델은 입소생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청소년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에서도 시설 거주기간 동안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개별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입소생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 준비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시설 내에서 입소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 및 예산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복지교사를 활용하여 입소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복지교사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각 시설은

입소생들의 자립지원, 상담 등을 담당할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기초 교육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므로 자립 전 기초학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운영예산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입소기간 동안 입소생들의 학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교과과목을 보완,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함으로써 퇴소 후 학교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주요국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 제도

1. 영국
2. 일본
3. 미국
4. 독일
5. 소결 및 시사점

4 주요국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 제도[20]

1. 영국

1) 보호 아동·청소년 통계[21]

영국은 가족 붕괴, 학대, 방임, 아동 또는 부모의 질병·장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및 기타 가족의 심각한 위기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이 아닌 지역 당국으로부터 24시간 이상 연속적인 돌봄을 받은 18세 미만 아동을 법적으로 '보호 아동(looked after child)'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2/23년도를 기준으로 영국 내 전체 보호 아동 수는 약 10만 7,000명으로 집계되며 대부분은 위탁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어 시설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아동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다만, 영국 내 4개의 자치국 중 잉글랜드에서는 전체 보호 아동 8만 3,840명 중 약 19%가 주거형 시설에 머무르고 있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시설거주 아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 본 장은 장지희 연구원(넥스텔리전스)가 자료를 취합, 초안을 작성하고,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수정, 보완하였음.
21) NSPCC Learning (2024.11.). *Statistics briefing: children in care*. p.4, pp.9-10. https://learning.nspcc.org.uk/media/mjrls2ci/statistics-briefing-children-care.pdf (검색일: 2025.8.30.)

표 Ⅳ-1. 영국 4개 구성국 내 보호 아동 수 통계

(단위: 명, %)

구분		잉글랜드 (2023.3.31. 기준)	북아일랜드 (2023.3.31. 기준)	웨일스 (2023.3.31. 기준)	스코틀랜드 (2023.7.31. 기준)
전체 보호 아동 수		83,840	3,801	7,210	12,206
보호 유형별 비율	위탁 돌봄 (친족 돌봄 포함)	68	83	69	66
	부모와 함께 생활	7	8	14	20
	주거형 시설*	19	6	10	11
	기타 (예비 입양자 포함)	6	4	7	-

* 출처: NSPCC Learning (2024.11.). *Statistics briefing: children in care.* https://learning.nspcc.org.uk/media/mjrls2ci/statistics-briefing-children-care.pdf (검색일: 2025.8.30.)

* 주: 주거형 시설에는 보호시설(구금시설), 아동홈(children's home), 반독립형 생활, 기숙학교 및 기타 주거시설 등이 포함됨.

2) 법·제도적 근거[22]

영국(잉글랜드)[23]은 1982년 아동홈법(Children's Homes Act 1982)을 통해 아동홈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고,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에서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24]에 보호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증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아동홈 등 시설거주 아동에 대한 주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 영국은 2000년 돌봄기준법(Care Standards Act 2000)을 제정하여 1982년 아동홈법을 대체하고, '아동홈'이라는 주거형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동 법은 아동홈을 포함한 다양한 아동 복지 시설의 정의, 정부

22) GOV.UK. Ofsted (2025.8.1.). *Introduction to children's hom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ow-to-open-a-childrens-home/introduction-to-childrens-homes (검색일: 2025.8.30.)
Care Standards Act 2000.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14/contents (검색일: 2025.6.6.)
·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541/contents (검색일: 2025.6.6.)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7.). *The Children Act 1989 guidance and regulations. Volume 2: care planning, placement and case review.*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Department for Education (2015.4.). *Guide to the Children's Homes Regulations including the quality standards.*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23) 영국의 4개 구성국은 지역별로 별도의 법령과 감독기관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보호 아동의 수와 아동홈이 가장 많은 잉글랜드 지역에 한정하여 아동홈을 통한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제도를 정리함.

24) 잉글랜드 내 개별 지방자치단체(city council, borough council, county council 등)를 의미함.

등록, 관련 규제·감독·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홈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로 돌봄과 거주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동 법에 따라 아동홈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아동홈을 운영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영국은 2015년 잉글랜드 아동홈 규정(Children's Homes (England) Regulations 2015)을 마련하여 아동홈의 등록 및 운영기준, 시설기준, 기록관리 등 아동홈 운영에 대한 세부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표 Ⅳ-2. 영국(잉글랜드)의 아동홈 관련 현행 법률 및 규정

명칭	주요 내용
아동법 (Children Act 1989)	• 아동 복지 시설의 입소와 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 명확화 • 아동홈의 등록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은 다른 후속 법률·규정을 통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되었으나, 동 법 역시 여전히 아동홈 운영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
돌봄기준법 (Care Standards Act 2000)	• 아동 복지 시설의 정의, 등록, 규제, 감독, 관련 처벌 등을 규정 • 아동홈 등록 의무화 • 영국 교육기준청(Ofsted)* 등 국가 차원의 감독기관에 대해 아동홈에 대한 등록, 시설 점검·평가, (관련 법 위반 시) 법적 제재 등의 권한 및 의무 부여 • 아동홈 등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한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 및 기타 품질 기준 도입 – 동 법 제23조는 아동홈과 같은 시설에서 아동의 복지와 보살핌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규정 및 품질 기준으로 국가 최소 기준을 도입할 것을 명시
잉글랜드 아동홈 규정 (Children's Homes (England) Regulations 2015)	• 아동홈의 등록, 운영기준, 품질표준, 인력, 시설기준, 기록 관리, 아동의 권리 및 안전, 불만처리 등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 • 동 규정의 해석과 실무 적용을 위한 지침서(Guide to the Children's Homes Regulations including the Quality Standards)도 마련되어 활용 중

* 출처: The official home of UK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uk (검색일: 2025.8.30.)

* 주: 국가 차원의 감독기관은 최초에는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이었으나 이후에는 Ofsted로 변경됨.

3) 아동홈 유형 및 운영 방식

영국의 아동홈은 크게 보호 아동홈(secure children's home),[25] 아동홈으로 등록된 주거형 특수학교(residential special schools registered as children's home),[26] 단

25)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아동 등 특수한 필요에 의해 안전한 환경에서의 감독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시설로, 대개 잠금장치가 있음.

26) 특수한 교육적 요구사항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형 교육 시설.

기 아동홈(short-break-only children's home)[27] 및 일반 아동홈의 4가지로 분류된다. 아동홈을 운영하는 주체는 지방정부, 비영리 단체, 기타 민간 사업자 등이며,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이 아동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 관리와 서비스 품질 감사·평가를 담당하고 있다.[28]

지방정부는 보호 아동의 아동홈 배치와 실제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는 주체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학교 및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가상학교장(virtual school head)[29] 등 보호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결정하고, 아동의 복지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

4) 교육 및 기타 서비스[30]

영국의 아동홈은 일반적으로 숙박(개인공간), 교육, 오락·여가, 건강 및 웰빙, 라이프스킬 훈련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홈 직원들은 거주 아동에게 "집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서적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2015년 잉글랜드 아동홈 규정 및 그 공식 해설서(Guide to the Children's Homes Regulations including the Quality Standards)는 아동홈에 대해 ▲아동의 개인별 관련 계획[31]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목표 달성 지원 ▲아동의 학습/발달 지원 및 자율학습 지원 ▲비공식적인 학습 기회 장려 ▲아동에 대한 추가 평가나 전문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훈련 기관, 지방정부 등에 내용 전달 ▲의무교육 연령을 초과한 아동에 대해 추가적인 교육, 훈련, 또는 취업 관련 활동 지원 ▲아동의 학습에 필요한

---

27) 12개월 중 75일 미만으로 거주.

28) 단, 일부 구금시설 등에 대한 아동의 등록관리 등은 법무부가 담당.

29) 법에 따라 지자체는 모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는 '가상학교장'을 두어 현재 보호 아동이거나 과거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 가상학교는 물리적인 학습 공간이나 학습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아동의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지원하는 일종의 '서비스'로, 가상학교장은 교육시스템 내 여러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보호 아동이 다른 또래들과 동등한 교육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수행.

30) Department for Education (2011). *Children's Homes: National Minimum Standards*.
Callagher (2023.8.10.). *What is a children's home?* https://www.ajg.com/uk/news-and-insights/what-is-a-childrens-home (검색일: 2025.6.6.)
Department for Education (2015.4.). *Guide to the Children's Homes Regulations including the quality standards.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31) 아동별 배치 계획, 돌봄 계획, 교육계획, 의료 계획, 특수교육 필요 인정 학생 등 복잡한 요구사항이 있는 아동에 대한 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EHC) Plan) 등.

적절한 장비, 시설, 자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Ⅳ-3. 아동홈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명칭	주요 내용
숙박 (개인공간)	• 집단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설거주 아동에게 반드시 다른 구성원과 떨어져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개인 침실) 제공 – 국가 최소 기준 및 잉글랜드 아동홈 규정에 따르면, 각 아동에게는 개인 침실(1인실)이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의 동의 시 최대 2인까지 하나의 침실(2인실)을 공유(국가 최소 표준에 따르면 기숙학교의 경우 최대 4인 1실까지 가능) – 또한 학생이 조용히 앉아 공부할 수 있는 의자·책상/테이블·조명·책장 등을 제공하고, 개인별로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 사물함 등 개인 보관함도 제공
교육	• 아동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제공 – 정규 교육훈련(또는 대안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숙제 지원 및 독서 지원 등을 제공
오락/여가	• 아동이 창의적·문화적·지적·신체적·사회적 관심사와 기술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아동의 관심사와 취미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인해 제공 – 아동이 수학여행, 학교 밖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여가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장려
건강과 웰빙	• 정기검진 및 기타 필요한 의료 지원 제공 • 신체적·정서적 웰빙 지원 제공
정서적 지원	• 아동이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제공
라이프스킬 훈련	• 요리, 개인위생, 자금 관리, 의사결정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라이프스킬을 개발해 향후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15.4.). *Guide to the Children's Homes Regulations including the quality standards*.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외.

지방당국은 1989년 아동법 제22조(3A)에 따라 보호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지방당국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데, 이때 가상학교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가상학교장은 지역 내 보호 아동이 마치 하나의 학교, 즉 '가상학교'에 출석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아동의 출석, 학업성취도 등을 모니터링한다. 가상학교장은 아동의 부모처럼 보호아동의 교육적 옹호자가 되어 해당 아동의 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교사, 보호자(아동홈 포함) 등에게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상학교장은 보호 아동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개인교육계획(PEP)

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아동이 가진 여러 복잡한 요구(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교육심리학자, 멘토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및 서비스와 연계를 구축해 협력하기도 한다.[32]

아동홈은 지방당국, 가상학교장, 사회복지사 등이 아동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교육적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아동의 학업적 진전이 합의된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동홈 직원은 가상학교장, 학습 멘토, 교사 등 교육 전문가와 협력하고 조언을 구한다.

아동홈에 거주하는 보통의 아동은 인근의 전일제 학교를 다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복잡한 요구가 있는 아동은 부분제 학교나 대안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데, 아동홈은 해당 아동이 그들의 필요에 맞게 필수 교육 또는 대안적인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아동홈은 등하교 동행, 대체 교통수단 마련,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성 제공, 숙제 지원, 학습 튜터 지원, 학부모 모임 및 학교 공개수업 참석 등을 통해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지원한다. 일반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에게는 아동홈에서 별도의 교육활동을 제공하거나 인근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아동을 보낸다. 정부에 '학교'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홈은 다른 외부 교육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교육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숙제 지원과 독서 지원은 아동홈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교육 관련 서비스이다. 아동홈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집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 등을 포함한 적절한 장비와 시설, 그리고 자원을 제공한다. 아동홈 직원들은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자율학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우에 따라 학교 등 교육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숙제나 시험에 관한 일정을 미리 전달받아 아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아동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아동홈은 독서 지원의 일환으로 아동에게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읽을 수 있는 별도의 독서 시간을 마련해 주고 각 아동에게 도서관 이용을 권장한다. 또한 아동으로 하여금 매주 정기적으로 서적이나 잡지 등을 구매하고, 이를 소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도

32)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2.). *Promoting the education of looked-after children and previously looked-after children –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NCFE 웹페이지. *Spotlight on the role of the virtual school and the virtual school head: What do you need to know?* https://www.ncfe.org.uk/sector-specialisms/early-years-and-childcare/education-childcare-career-toolkit/contemporary-issues-debates/virtual-school-head (검색일: 2025.8.30.)

한다.[33] 아동홈은 여가 활동도 지원한다. 아동이 클럽, 스포츠 시설, 음악 레슨 등에 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자금, 교통편 등을 제공한다. 또한 특별 여행이나 액티비티, 휴가 등을 기획해 제공하기도 한다.[34]

표 Ⅳ-4. 최근 3년 이내 Ofsted 평가 '우수' 또는 '양호' 등급 아동홈 일부 사례

서비스 공급자 (Ofsted 식별번호*)	주요 내용	평가 결과
Northumberland County Council (SC486604)	• (개요) 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시설로 지방당국이 운영 – 최대 수용 인원은 4명으로, 조사 당시('24.7.9.~7.10.) 3명의 아동이 거주 • (교육) 각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학교 등교를 장려 –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한 아동이 부분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성과 확인 • (건강)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연습 시간을 운영하고, 약 복용 시 도움 제공 • (여가) 수영 강습, 해변 피크닉 등과 같은 활동 제공	양호
Frances House Ltd (SC403462)	• (개요) 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시설로 민간기업이 운영 – 최대 수용 인원은 5명으로, 조사 당시('25.5.13.~5.14.) 3명의 아동이 거주 • (교육) 등하교 동행, 개인 학습과 시험 준비 지원, 대학 진학 시험 준비 및 면접 준비 지원 제공 • (기타) 아동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할 것을 장려하는 등 아동의 대인관계 기술능력 향상을 지원	양호
Bay View Child Care Limited (SC463926)	• (개요) 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시설로 지방당국이 운영 – 조사 당시('23.1.5.~1.6.) 5명의 아동이 거주 • (교육) 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해 아동의 학습 장애 요소를 파악해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아동에 대한 교육 예측을 바탕으로 최선의 교육적 선택을 지원 • (여가) 취미 활동을 장려 – 거주 아동은 헬스장, 숲속 스쿠터 타기, 럭비, 정원 가꾸기, 휴가, 콘서트 참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	우수

33) Walsall Council (2020.11.). *Residential Education Policy*, pp.6-7. https://proceduresonline.com/trixcms1/media/8497/residential-education-policy.pdf (검색일: 2025.8.30.)

34) White, C., Gibb, J., Graham, B., Thornton, A., Hingley, S., & Mortimer, E. (2015). *Training and developing staff in children's homes*. p.31. Department for Education.

서비스 공급자 (Ofsted 식별번호*)	주요 내용	평가 결과
Shropshire Council (SC370982)	• (개요) 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시설로 민간 기업이 운영 – 조사 당시('24.5.1.~5.2.) 5명의 아동이 거주 • (교육)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숙제 지원, 학교의 중요 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지원 • (여가) 아동홈 직원들이 아동의 취미 활동(풋볼 경기 시청, 러닝 등)에 빈번히 동참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하고, 말을 좋아하는 아동에게는 승마 레슨을 받게 하는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에게 자신감과 영감을 제공	우수

* 출처: GOV.UK. (영국 정부 웹사이트). *Inspection outcomes of children's hom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spection-outcomes-of-childrens-homes (검색일: 2025.9.10.)

* 주: 아동홈의 명칭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식별번호로 구분하며, 아동홈 평가 결과는 '우수', '양호', '개선필요', '부적절'로 나뉨.

5) 개선 과제[35]

영국의 아동홈은 ▲충분한 적합 시설 부족 ▲아동홈 거주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도 ▲착취적인 민간 아동홈 운영자 규제 등과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방당국은 시설거주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확인한 후에도 해당 아동을 배치할 적합한 아동홈을 찾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당국은 보호 아동 확인 시 아동의 현재 거주지 및 인근의 아동홈 중 높은 평가를 받은 아동홈에 해당 아동을 배치하려 하지만, 영국 내 아동홈의 지역적 배치가 균등하지 않고, 이용가능한 자리도 충분하지 않은데다, 일부 민간 아동홈 운영자는 복잡한 요구를 가진 아동의 배치를 거절하는 일도 빈번해 갈 곳이 없는 아동이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받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홈에 거주하는 아동은 일반 학생에 비해 대체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편이다. Ofsted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36] 아동홈 거주 아동은 다른 또래 아동에 비해 '양호' 또는 '우수' 평가를 받은 중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3% 더 낮았다. 지방당국은 법령에 따라 보호 아동을 '양호' 이상 등급의 학교에 우선

35) NSPCC Learning (2024.11.). *Statistics briefing: children in care*. p.4, pp.9-10.

36) GOV.UK. Ofsted (2021.2.17.). *The education of children living in children's hom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education-of-children-living-in-childrens-homes/the-education-of-children-living-in-childrens-homes (검색일: 2025.8.30.)
GOV.UK. Blog Ofsted: social care (2021.2.17.). *The education of children living in children's homes*. https://socialcareinspection.blog.gov.uk/2021/02/17/the-education-of-children-in-childrens-homes/ (검색일: 2025.8.30.)

배정해야 하는데, 이처럼 대체로는 좋은 학교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홈 거주 학생들과 다른 또래 학생들 사이에는 교육적 격차가 존재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아동홈 거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다른 특수교육 또래 학생들에 비해 '양호' 또는 '우수'한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약 3~5%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민간 아동홈 서비스 제공자들의 착취적 행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4년 11월 민간 아동홈 운영자들이 정부 기금을 이용해 과도한 수익 활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수익 한도에 법적 제한을 두는 규제안을 포함하는 아동복지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개혁안은 2025년 중 법제화가 예상된다.[37]

2. 일본

1) 보호 아동·청소년 통계[38]

일본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방임 등으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을 아동양호시설(児童養護施設)[39]이라는 집단생활 시설에서 주로 보호하고 있다.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일본 아동복지 시스템 내 전체 보호아동 수는 4만 1,182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만 3,043명(약 56%)이 아동양호시설에 머무르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양호시설 외에도 심리·행동상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치료하는 데에 주력하는 아동심리치료시설(児童心理治療施設), 가출·비행·사회부적응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자립지원시설(児童自立支援施設), 시설 소를 앞둔 청소년의 자립 생활 준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집단생활 시설인 자립지원홈(自立援助ホーム) 등 공동생활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여

37) BBC (2024.11.18.). *'Exploitative' children's home profits to be curbed*. https://www.bbc.com/news/articles/c1wj5v711zzo (검색일: 2025.8.30.)
Community Care (2024.11.18.). *'Crackdown on excessive profits' pledged as government unveils children's social care reforms*. https://www.communitycare.co.uk/2024/11/18/crackdown-on-excessive-profits-pledged-as-government-unveils-childrens-social-care-reforms (검색일: 2025.8.30.)

38) こども家庭庁 (일본 어린이가정청, 2024.2.29.). 児**童養護施設入所**児**童等調査の概要** (令和 5年 2月 1日 現在), p.2.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ba23f3-abb8-4f95-8202-f0fd487fbe16/5c104d63/20240229_policies_shakaiteki-yougo_86.pdf (검색일: 2025.9.10.)

39) 아동양호시설은 '아동보호시설'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구금을 전제로 하는 보호시설과의 혼란을 피하고 '기르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아동양호시설로 통칭함.

러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특별한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아동양호시설에 배치되어 생활한다.

표 Ⅳ-5. 일본 보호 아동 통계(2023.2.1. 기준)

(단위: 명, 세)

구분		위탁가정 (~19세)	아동양호시설 (~19세)	아동심리치료시설 (~19세)	아동자립지원시설 (~19세)	영유아 보호시설 (~6세)	모자생활지원시설* (~19세)	패밀리홈** (그룹홈, ~19세)	전환기 청소년 자립지원홈 (15~22세)
전체 보호 아동 수		6,057	**23,043**	1,334	1,135	2,404	4,538	1,713	958
성별	남자	3,111	**12,008**	766	812	1,306	2,338	923	421
	여자	2,926	**10,801**	546	303	1,082	2,181	773	529
입소 아동 평균 연령		9.9	**11.8**	12.7	13.9	1.6	7.6	11.8	17.8

* 출처: こども家庭庁(일본 어린이가정청, 2024.2.29.). 児童養護施設入所児童等調査の概要(令和 5年 2月 1日 現在).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ba23f3-abb8-4f95-8202-f0fd487fbe16/5c104d63/20240229_policies_shakaiteki-yougo_86.pdf (검색일: 2025.9.10.)

* 주: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과 그 자녀에게 안전한 거주지와 생활·경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주: 위탁가정으로 지정된 가정(부부)이 5~6명 내외의 소수 아동들과 가족처럼 생활하는 전문 위탁의 한 형태.

2) 법·제도적 근거[40]

일본은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제41조를 근거로 아동양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동양호시설이란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를 받은 아동, 또는 환경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및 양육하고, 퇴소 후에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016년 일본 정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정양육 우선원칙'을 법에 명시하였고, 가급적 집단생활시설이 아닌 가정보호 환경(위탁가정 등)에 아동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가정위탁 인프라 부족, 제도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40) 児童養護施設運営指針 (후생노동성, 2024.3.29.). 児**童養護施設運**営**指針.** pp.4-5.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ba23f3-abb8-4f95-8202-f0fd487fbe16/1d1aa7d2/20230401_policies_shakaiteki-yougo_07.pdf (검색일: 2025.9.10.)
e-Gov 法令検索 (일본 e-GOV 법령검색 사이트). 児**童福祉施設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昭和二十三年厚生省令第六十三号). https://laws.e-gov.go.jp/law/323M40000100063/20200401_502M60000100049#Mp-Ch_7 (검색일: 2025.7.23.)
e-Gov 法令検索 (일본 e-GOV 법령검색 사이트). 児**童福祉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六十四号). https://laws.e-gov.go.jp/law/322AC0000000164 (검색일: 2025.7.23.)

혼란 등으로 인해 여전히 시설보호의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최근에는 아동양호시설이 사회적 양호 서비스의 지역 거점(허브)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고도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양호시설은 단순한 보호공간을 넘어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사회적 양호 시스템 하의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나 사후관리, 지역 내 위탁가정에 대한 자문 및 전문 지원 제공 등 지역 차원에서 아동 양호를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41]

아동양호시설의 설비 및 운영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児童福祉施設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기준은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최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일본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일본 전역의 도(都)·도(道)·부(府)·현(縣)[42] 등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시설 규정에 관한 자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는데, 지방 정부의 조례는 반드시 국가 기준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아동양호시설이 입소 아동에 대해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활 지도, 학습 지도, 직업 지도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관계 조정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아동양호시설운영지침(児童養護施設運営指針)'을 마련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실천 방향을 더욱 상세하게 안내하는 자료로, 강제성은 없지만 사실상 모든 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41) 조정우 (2024). 일본의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 현황: 최근 변화와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년 겨울호, 통권31호**, pp.32-46.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 일본의 행정구역.

표 Ⅳ-6. 일본의 아동양호시설 관련 법률·규정 및 지침

명칭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1947)	• 18세 미만의 아동의 육성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 아동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무를 보호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전체에 부여 • 제41조에서 아동양호시설을 법적으로 규정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児童福祉施設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1948)	• 1948년 '아동복지시설 최저 기준(児童福祉施設最低基準)'이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발표된 이래 여러 차례 일부 개정 및 명칭 변경이 이뤄짐 • 아동복지법(제45조)에 근거해 마련된 후생노동성령(법규) • 아동양호시설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의 설비(1인당 면적, 1실당 최대 수용 인원 등), 직원 배치, 위생, 안전 등에 대한 국가 최저 기준 명시 • 아동양호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주요 서비스로 생활 지도, 학습 지도, 직업 지도 및 가정환경 조정 서비스 제공 의무 명시(제45조) • 아동양호시설을 비롯한 모든 아동복지시설에 적용
아동양호시설운영지침 (児童養護施設運営指針, 2012)	• 후생노동성이 마련한 아동양호시설에 대한 공식 권고문 ※ 법령이 아니므로 강제성은 없으나 행정상 지침이므로 사실상 모든 시설에서 준수 필요 • 아동양호시설의 보육·생활 지도, 자립 지원, 직원 운영, 지역 연계, 품질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실무 지침 제공 • 아동의 '웰빙(well-being)'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개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 보장, 사회와의 연계, 투명성·책임성 실현 등을 강조

* 출처: e-Gov 法令検索 (일본 e-GOV 법령검색 사이트). https://laws.e-gov.go.jp (검색일: 2025.9.10.)

3) 아동양호시설 운영 방식[43]

아동양호시설의 운영 주체는 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등 민간단체이다. 국가와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는 시설 설립에 대한 인·허가, 지도·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의 입소 결정은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설치해 운영하는 아동상담소(児童相談所)가 담당한다. 시설 운영 자체는 민간단체가 맡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관여와 책임이 매우 크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이 높게 유지되는 편이다.

아동양호시설과 관련한 정책 및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중앙 정부기관은 어린이가정청이다. 일본은 아동복지 정책을 효율성 있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후생노동성

43) 백윤철, 이연숙 (2023). 일본에서 사회보장의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5**(3), pp.65-88.

과 내각부 등이 맡고 있던 아동복지 기능을 분리해 2023년 4월 총리대신 직속의 어린이가정청이라는 통합 기구를 신설하였다. 어린이가정청은 어린이가정청 설치법(こども家庭庁設置法)을 근거로 아동양호시설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지침을 제시하며, 운영비 지원을 비롯한 행정적 기능 등을 수행한다.

4) 교육 및 기타 서비스[44]

아동양호시설은 후생노동성령('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숙박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 학습 지도, 직업 지도 및 가정환경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아동의 필요에 따라서는 심리 지원이나 생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시설 아동의 학습 격차나 낮은 대학 진학률 등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양호시설은 자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다른 파트너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입소 아동의 학습 개선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요코하마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일본수상학원(日本水上学園)은 2006년부터 학습지를 활용하는 '구몬(KUMON) 학습법'[45]을 도입하였다. 주 5일 동안 매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구몬 타임'이라는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그 시간 동안 입소 아동은 그들의 나이에 관계없이 현재의 학습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풀게 되고 시설 직원들은 풀이 결과를 채점하며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이 학원은 과거에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원마다 지도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입소 아동에게 맞춤화된 학습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맞춤형 지도와 단계적 성취를 중시하는 구몬 학습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은 작은 성공(100점 달성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수상학원 외에 다른 여러 아동양호시설들에서도 구몬 학습지를 활용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46]

---

44) ランチャイズ本部 웹페이지 (2025.1.8.). 児**童養護施設の独立開業方法！開業費用や年収の目安と、起業の手順や流れ。経営の成功方法や、儲からない失敗ポイント**. https://next-business.co.jp/kaigyo/20751/#:~:text=%E5%85%90%E7%AB%A5%E9%A4%8A%E8%AD%B7%E6%96%BD%E8%A8%AD%E3%81%A8%E3%81%97%E3%81%A6%E9%96%8B%E6%A5%AD,%E3%81%AE%E7%A2%BA%E8%AA%8D%E3%81%8C%E5%BF%85%E9%A0%88%E3%81%A7%E3%81%99%E3%80%82 (검색일: 2025.9.10.)
유명희, 정희원 (2012). 아동양육시설의 공간계획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1), pp.228-239. p.230.
ジョブメドレー 홈페이지 (2024.6.21.). 児**童養護施設とは？職員に必要な資格と仕事内容、入所理由について解説。** https://job-medley.com/tips/detail/33449 (검색일: 2025.9.10.)

45) 일본 구몬교육연구회가 개발한 학습지를 활용하고 있어 이같이 명명함.

표 Ⅳ-7. 아동양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및 내용

명칭	주요 내용
숙박 및 기타 시설	• 개인 공간은 1실 4인 이하여야 하며, 1인당 4.95평방미터 이상의 면적 제공 – 유아(0~6세)인 경우는 1실 6인 이하의 공간에서 1인당 3.3평방미터 이상의 공간 제공 • 시설 내 입소 아동·청소년이 30인 이상인 시설인 경우 별도로 양호실과 휴게실 마련 • 입소 아동의 연령이나 적성 등에 따라 직업 지도에 필요한 설비 구축
생활 지도	• 아동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간성과 사회성을 기르고, 자립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보장 – 식사·목욕·의류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 등
학습 지도	• 아동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 조언, 정보 등 제공 – 숙제 지원, 수험 대책 수립, 통신교육 활용 등 지원
직업 지도	• 직업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동시에 아동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 조언, 정보 등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습·강습 기회도 제공 – 직업 체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인턴십 소개 등
가정환경 조정	• 아동의 가정 상황에 따라 '부모-자식 관계 재구축' 등 지원
기타	• 필요에 따라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심리 지원 제공 • 생활 체험 프로그램(농업 체험, 견학, 지역 행사 참여 등)도 제공

* 출처: 児童養護施設運営指針 (후생노동성, 2024.3.29.). 児**童養護施設運**営**指針.**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ba23f3-abb8-4f95-8202-f0fd487fbe16/1d1aa7d2/20230401_policies_shakaiteki-yougo_07.pdf (검색일: 2025.9.10.)

46) KUMON 홈페이지 (2018.7.3). **公文式の施設導入－児童養護施設 日本水上学園 将来の自立につながる学習支援施設スタッフとの「大切な時間」** Vol.263. https://www.kumon.ne.jp/kumonnow/topics/vol263 (검색일: 2025.9.10.)
KUMON 홈페이지 (2015.7.28). 児**童養護施設でのKUMON－日本水上学園 学習を通して、がんばっている自分に出会うことができる。だから「学習支援は 子どもにとって"癒し"」なのです。** Vol.097. https://www.kumon.ne.jp/kumonnow/topics/vol097 (검색일: 2025.9.10.)
KUMON 홈페이지 (2015.07). 児**童福祉施設での公文式 〉日本水上学園.** https://www.kumon.ne.jp/houjin/case/children_home/report_01_1 (검색일: 2025.9.10.)

다른 예로 아동양호시설은 비영리법인(NPO)[47]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로, 공인NPO인 리빙인피스(Living in Peace)는 전국 아동양호시설 거주 청소년을 위한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인 '오시고토리프(おしごとリップ[48])'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양호시설이 신청을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설퇴소 이후의 자립 생활과 직업 선택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 안내 이벤트를 통해 아동양호시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선택 및 자립 생활 준비에 도움이 되는 체험 및 교육 활동 기회 등도 제공한다. 리빙인피스는 2011년부터 전국 아동양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49]

지자체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함께 아동복지 시스템 내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아동양호시설 입소 아동을 위한 학습 지원 제도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 도쿄도와 지역 곳곳에 학업 지원 교실을 만들어 운영한 구마모토현 등이 있다.[50]

---

47)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공익 활동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위탁사업비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운영되는 것은 아님.

48) 'おしごと'는 '직업'을, 'リップ'는 LIP(Living in Peace)를 의미.

49) Living in Peace 홈페이지. **児童養護施設で暮らす子どもたち向けのキャリア教育プログラム「おしごとリップ」.** https://www.living-in-peace.org/kdpj/oshigoto-lip/ (검색일: 2025.7.20.)
Living in Peace 홈페이지. **2025年度7月おしごとリップ開催.** https://www.living-in-peace.org/news/kodomo-2025-08-01/ (검색일: 2025.9.10.)

50) WAM NET (2015.10.). **生活困窮者自立支援関連情報.**. https://www.wam.go.jp/content/wamnet/pcpub/top/skinformation/fromwam/20161128_05.html (검색일: 2025.9.10.)
3keys 웹페이지. **これまでの事業.** https://3keys.jp/service/other-projects/ (검색일: 2025.9.10.)
熊本県 (2019.3.25.). **子どもの学習援助事業.** https://kouseikyoku.mhlw.go.jp/kyushu/000117332.pdf (검색일: 2025.9.10.)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5.3.). **「生活困窮世帯の子どもの学習支援事業」実践事例集.** p.91.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080240.pdf (검색일: 2025.9.10.)

표 Ⅳ-8. 일본 지자체의 시설거주 청소년 학습 지원 사례

<table>
<tr><th>명칭</th><th>주요 내용</th></tr>
<tr><td>도쿄도</td><td>
• (관련 사업명*) 아동양호시설 등 자립 지원 사업
• (사업 방식)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NPO 등 공익 활동 단체의 관련 프로그램을 선정해 해당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
• (대표 사례) NPO 쓰리키즈(3keys)의 '가정교사형 프로그램(家庭教師型プログラム)'
– (대상) 아동양호시설, 자립지원홈 등 시설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 (지원 방식) 한 명의 청소년과 한 명의 멘토(가정교사, 대학생, 전문강사 등)가 장기적으로 결연을 맺고(1:1 멘토링), 멘토가 매주 1회 시설을 직접 방문해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맞춤형 학업 지도와 더불어 진학·진로·생활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관여 주체별 역할〉
<table>
<tr><th>도쿄도</th><th>• 쓰리키즈(NPO)에 보조금 지원</th></tr>
<tr><td>쓰리키즈</td><td>• 도의 보조금, 기부금 등을 활용해 멘토(자원봉사자)의 모집·교육·관리 실시
• 멘토(자원봉사자) 관리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채용 및 운영</td></tr>
<tr><td>멘토</td><td>• 자원봉사자로, 가정교사, 대학생, 전문강사 등이 참여
• 활동 후 매번 학습 달성 정도, 청소년 지도 시의 고민 등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해 쓰리키즈에 제출</td></tr>
<tr><td>아동양호시설</td><td>•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
• 멘토링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연회비 지불
※ 프로그램 초기에는 시설이 지불하는 비용이 없었으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시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연회비 도입(연간 1만 2,000엔, 멘토 5인까지 활용 가능)</td></tr>
</table>
– (강점) 마음의 문을 닫기 쉬운 시설거주 청소년을 멘토가 일대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학습 지원이 필요한 부문을 면밀히 파악
– (결과) 학습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성적이 올라간 것을 칭찬해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의욕과 기쁨을 느끼도록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 확인
– (운영 기간) 2009~2019년
※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양호 아동을 위한 학원비·과외비 지원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자 쓰리키즈는 동 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종료
</td></tr>
<tr><td>구마모토현</td><td>
• (관련 사업명*) 아동 학습 원조 사업
• (사업 방식)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2곳으로 결성된 공동체(컨소시엄)에 위탁해 현 전역에 학원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학습 지원 교실을 만들어 학습 지원을 실시
– 학습 교실은 지역 거점(공공시설, 청소년 지원 센터 등을 활용)에 구축되며, 대개 방과후 시간에 맞춰 운영
– 가정 방문을 통한 지원도 실시
• (대상) 소학교(초등학교)1학년~18세 이하의 사회적 양호 아동
</td></tr>
</table>

명칭	주요 내용
	• (지원 내용) 학습 교실 운영 및 가정 방문을 통해 학습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생활·상담 지원 제공 – 숙제, 수업 복습, 시험 대비 등에 대한 도움 제공 – 요리, 직장 체험, 자연 체험, 농업, 공작 등 활동·체험 기회 제공 • (지원 체제) 구마모토현 사회복지과가 서비스를 제공할 위탁업체(컨소시엄)를 선정해 운영 – 위탁업체는 서비스 대상 아동에 대한 면접·평가를 실시한 후 아동에게 서비스를 연계하고, 학습 교실에 직원(교육 지원자, 교실 운영 책임자)을 배치 – 자원봉사자로 대학생 등이 참여 • (운영 기간) 2011년~현재

* 출처: 3keys 웹페이지. **これまでの事業.** https://3keys.jp/service/other-projects/ (검색일: 2025.9.10.)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5.3.). **「生活困窮世帯の子どもの学習支援事業」実践事例集.** p.91.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080240.pdf (검색일: 2025.9.10.)

* 주: 관련 사업명은 지방 정부의 예산 항목에 따라 빈번히 변경되며 다수 지방 정부가 대동소이한 사업명으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운영 중임.

한편, 일본 중앙정부는 아동양호시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 항목 중 '특별육성비(特別育成費(補習費))'를 통해 시설거주 아동이 정규 학교교육 외에도 학원을 다니거나 온라인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비 및 과외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아동 빈곤 대책 추진법(子どもの貧困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51]을 통해 빈곤이 가져오는 '교육적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국가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시설 입소 아동 등 사회적 보호 대상 아동이 충분한 학습 지원을 받고 학습 지연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육성비를 통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3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2015년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특별육성비 지원이 전국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제도에 따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인 시설 입소 아동은 월 2만 엔(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월 2만 5,000엔)의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52]

또한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시설거주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이 '대학수험비(大学受験費)'라는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당해 연도 3월 말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자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대학입학시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수험료, 교통비,

51) 2024년 개정을 통해 '아동의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こどもの貧困の解消に向けた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로 명칭이 변경됨.
52) 어린이가정청이 제시한 기준액으로, 실제 지원금액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숙박비, 지원서 접수비 등)을 연간 최대 15만 8,000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지원금은 지자체가 관리 및 지급한다.

한편 중앙정부는 시설거주 아동들의 자립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취득 등을 위한 특별가산비(資格取得等特別加算費)'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지원 제도를 계속 운영해왔으나 2024년 이후 어린이가정청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예산 문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지원 금액 및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시설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그에 따른 자격 취득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데, 2025년 현재 지원 금액은 대상 아동 1인당 5만 7,620엔으로 대개 운전면허 취득, 컴퓨터 자격 취득, 토익, 기타 국가 자격 또는 인증 취득 등에 활용된다.[53]

5) 개선 과제[54]

일본의 아동양호시설은 자금 부족, 인력 부족, 부족한 진학 지원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최근 어린이가정청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예산 문서에서 이미 아동양호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어린이가정청은 2025년부터 아동양호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에 진로 지원 담당자, 학습 지원 담당자, 심리상담사 배치 비용을 새로 포함시켜 각 시설이 이들 전문가를 고용해 운영할 수

53) こども家庭庁 (2023.5.10.). 児**童福祉法による**児**童入所施設措置費等**国**庫負**担**金について**, p.33.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457e2a2-61a9-4c92-9bbd-da2846dbc95b/40e73edc/20241108_policies_shakaiteki-yougo_jidonyushoshisetsu-kokkofutankin_02.pdf (검색일: 2025.9.10.)
こども家庭庁 (2025.3.27.). 児**童養護施設等における一時保護**児**童の受入**体**制の整備について**, p.8.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a23cc922-6f03-41a4-a39d-c7bdadaf7adf/10ec62ef/20250401_policies_shakaiteki-yougo_tsuuchi_92.pdf (검색일: 2025.9.10.)
福祉新聞 (2024.7.23), **施設出身者の進学後押し · 受験費新設、支度費は２倍（こども家庭庁）.** https://fukushishimbun.com/yoiku/36141 (검색일: 2025.9.10.)
e-Gov 法令検索 (일본 e-GOV 법령검색 사이트). **こどもの貧困の解消に向けた**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https://laws.e-gov.go.jp/law/425AC1000000064 (검색일: 2025.9.10.)
セーブ · ザ · チルドレン (2024.6.21). **日本/子どもの貧困問題解決**. https://www.savechildren.or.jp/scjcms/sc_activity.php?d=4492 (검색일: 2025.9.10.)

54) Paralym Art (2020.3.5.). 児**童養護施設で育つ子供たちの現**状**と私たちにできるサポート**. https://paralymart.or.jp/kiquest/7026 (검색일: 2025.9.10.)
こども家庭庁 (2025.2.28.).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 p.117, p.120. p.266.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ba23f3-abb8-4f95-8202-f0fd487fbe16/bd79fb76/20250228_policies_shakaiteki-yougo_125.pdf (검색일: 2025.9.10.)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육성비로 대학 수험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거주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학습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스마트폰 구입비, 통신비 등을 위한 지원금도 증액하였다.

3. 미국

1) 보호 아동·청소년 통계[55]

미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위탁보호 및 입양 아동 분석보고시스템(AFCARS)[56]에 따르면 미국 내 보호 아동·청소년(0~24세) 수는 34만 3,077명으로, 친족 보호를 받거나(38%) 위탁 가정(28%)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룹홈(Group Home)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집단적인 거주 환경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복지시설로 대략 7~12명의 아동·청소년이 전문 직원의 지도하에서 집단적으로 보호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현재 미국 내 전체 보호 아동 중 약 4%만이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족 기반의 복지 서비스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준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적으로도 위탁 가정이나 친족 보호, 가족 재결합 등의 가정형 보호가 권장되었다. 이에 따라 그룹홈에 머무는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로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단기적·일시적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룹홈 외에도 공동생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는 정신적·신체적 치료와 재활 등 전문 서비스 중심인 집단치료시설(Residential Care)과 청소년 임신부 등 특별한 보호와 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Institution) 시설 등이 있다.

---

5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25.5.1.). *The AFCARS Dashboard*(Print Version), p. 5. https://acf.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2023-afcars-dashboard-printable.pdf (검색일: 2025.9.20.)

56)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25.5.1.). *The AFCARS Dashboard*(Print Version). https://acf.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2023-afcars-dashboard-printable.pdf (검색일: 2025.9.20.)

표 Ⅳ-9. 미국 보호 아동 통계(2023.9.30. 기준)

(단위: 명, %)

구분	위탁 가정	입양전 임시 보호	친족 보호	쉼터 돌봄	치료형 위탁 가정	그룹 홈	독립 생활	기관 시설	교정 시설	집	집단 치료 시설	기타*
전체 보호 아동	위탁 보호 시스템 내 전체 아동 수 343,077명 (1세 미만 7%, 1~5세 31%, 6~10세 22%, 11~16세 28%, 17세 6%, 18~24세 7%)											
아동 수	95,964	13,117	131,490	1,388	28,401	13,613	11,371	7,569	2,182	12,738	14,712	10,532
비율	28	3	38	0	9	4	3	2	1	4	4	3

* 출처: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25.5.1.). *The AFCARS Dashboard*(Print Version). https://acf.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2023-afcars-dashboard-printable.pdf (검색일: 2025.9.20.)

* 주: 가출, 소재지 미상, 데이터 누락 등 포함.

2) 법·제도적 근거[57]

미국의 그룹홈 운영은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틀과 주(州)정부별 세부 규정이 결합된 다층적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먼저 연방정부는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아동복지서비스(Child Welfare Services) 조항(Title IV-B)을 근거로 아동 복지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대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해 왔는데, 특히 1980년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을 통해 사회보장법에 아동의 장기 위탁 보호 및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Title IV-E)을 도입하고, 그룹홈을 포함한 위탁 보호 시스템 내 아동의 생활 및 돌봄을 위한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명시하였다. 이후 각 주정부는 주로 Title IV-B와 Title IV-E를 근거로 그룹홈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가족우선예방서비스

57)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웹사이트. *What Are the IV-B Programs?* https://www.cwla.org/what-are-the-iv-b-programs/ (검색일: 2025.7.30.)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웹사이트. *Timeline Of Major Child Welfare Legislation*. https://www.cwla.org/wp-content/uploads/2014/05/TimelineOfMajorChildWelfareLegislation.pdf (검색일: 2025.7. 30.)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웹사이트. *Compilation of Titles IV-B, IV-E and Related Sections of the Social Security Act*. https://acf.gov/cb/law-regulation/compilation-related-sections-security-act (검색일: 2025.9.20.)

법(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s Act)에 의해 일반 그룹홈 등 위탁 보호 시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제한되면서 현재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주로 아동복지서비스 규정(Title IV-B)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Ⅳ-10. 사회보장법 내 위탁 보호 아동 지원 관련 개정 내용

구분	내용
1935년	• 사회보장법 제5편(Title V)에서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소규모 재정 지원 명시
1961년	• 사회보장법 제4편-A(Title IV-A)를 통해 이전에는 가정이 있는 아동에게만 지급되었던 부양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지원 범위를 위탁 보호 아동으로 확대
1967년	• 사회보장법 제5편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새로 도입된 제4편-B(Title IV-B, '아동복지서비스')로 이관·확대
1980년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을 통해 사회보장법 제4편-E(Title IV-E)를 신설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위탁 보호 아동 재정 지원 체계 재편 – 입양 지원 프로그램 수립 및 빈곤 아동 등을 위한 위탁 양육 지원 강화 추진 – 제4편-A에 따른 지원은 점진적으로 중단되고, 제4편-E가 위탁 보호 및 입양 지원의 주된 재정적 근거로 자리매김
2018년	• 가족우선예방서비스법(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s Act)을 통해 제4편-E에 따른 그룹홈 지원 내용 변경 – 동 법은 친가정 보호 강화, 가족 재결합 및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룹홈 등 집단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가족 기반(위탁 가정 등)이 아닌 위탁 서비스(그룹홈, 비치료 목적의 집단 주거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축소 – 그룹홈 유형의 시설 중 심각한 정신·행동상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임상 서비스를 갖춘 인증된 치료형 위탁 시설(Qualified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에 한해서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 일반적인 그룹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2주간 단기로만 지원)

* 출처: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웹사이트. *What Are the IV-B Programs?* https://www.cwla.org/what-are-the-iv-b-programs/ (검색일: 2025.7.30.)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웹사이트. *Timeline Of Major Child Welfare Legislation.* https://www.cwla.org/wp-content/uploads/2014/05/TimelineOfMajorChildWelfareLegislation.pdf (검색일: 2025.7.30.)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웹사이트. *Compilation of Titles IV-B, IV-E and Related Sections of the Social Security Act.* https://acf.gov/cb/law-regulation/compilation-related-sections-security-act (검색일: 2025.9.20.)

미국 주정부는 연방 법 외에도 주의 자체 아동복지 관련 법률이나 명령, 또는 주정부 예산 관련 특별 조항 등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거나, 아동복지 기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인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정부 규정

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로부터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시행된다. 주정부는 사회보장법 제4편-B를 근거로 연방정부에 아동복지 사업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며, 이를 통해 운영비 및 보조금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그룹홈 운영 방식[58]

그룹홈 운영 방식은 주에 따라 상이하다. 그룹홈의 실제 운영은 대체로 비영리 복지기관, 종교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정부 및 기타 지자체(시, 카운티 등)는 그룹홈과 같은 시설에 대한 인가와 감독을 수행하고 운영 기준을 제시하며, 운영비·시설개선비 등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제공한다.

표 Ⅳ-11. 미국 주정부의 그룹홈 운영 방식 –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의 사례

구분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관리기관	•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DSS)	• 일리노이주 아동복지국(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인가	• (신청) 그룹홈 운영 신청자(민간 기관 등)가 프로그램의 목적, 서비스, 대상,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설명서(Program Statement)를 제출 – 설명서 제출 시 해당 그룹홈의 목적(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기술 요구(쉼터, 자립, 치료, 직업훈련, 청소년 부모 교육 등) – 해당 시설의 필요성과 서비스 적합성에 대한 지역 카운티 정부 부서의 지지서 제출 필요 • (심사) 시설 구조, 안전, 직원 자격,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방문 실사 실시	• (신청) 그룹홈 운영 신청자가 연간 운영비, 직원 채용 계획, 제공 프로그램(서비스), 대상 아동 수, 아동 지원 계획 등을 기술한 신청서 제출 ※ 그룹홈 운영 허가 신청은 DCFS의 인가를 받은 아동복지기관(Child Welfare Agencies)만 가능 • (인가) 최초에는 6개월의 임시 허가를 발행하고, 이후 실제로 운영을 확인한 후 정식 인가로 전환

58)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페이지. *Foster Care*.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foster-care (검색일: 2025.8.1.)
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홈페이지, April 10, 2025). *Rules 403 – Licensing Standards for Group Homes*. https://dcfs.illinois.gov/content/dam/soi/en/web/dcfs/documents/about-us/policy-rules-and-forms/documents/rules/rules-403.pdf (검색일: 2025.8.1.)

구분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 (인가) 시설 등급(서비스 수준, 치료/비치료 시설 여부 등 고려)에 따라 면허 부여	
감독	• 그룹홈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감사 실시 • 관련 민원 및 불만 처리 • 그룹홈에 정기적인 운영 보고 요구	• DCFS가 아동복지기관에 대한 그룹홈 운영 허가·갱신 부여 및 평가 • 아동복지기관이 실제 그룹홈(다수일 수 있음)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감독 실시 • 그룹홈에 정기적인 운영 보고, 사례 관리 리뷰 등 요구
재정 지원	• 주정부 예산, 연방 기금(Title IV-E/IV-B), 지역 카운티 예산 등을 통해 그룹홈 운영 비용 지원	• 주정부 예산 및 연방 기금(Title IV-E/IV-B)을 통해 그룹홈 운영 비용 지원
협력 체계	• (카운티 사회복지사) 그룹홈 배치가 필요한 아동을 식별해 적합한 그룹홈을 선정한 후, 그룹홈과 협력해 배치 결정을 확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공유 – 아동 배치 후에는 서비스 품질과 필요한 연계 서비스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실시 • (그룹홈) 주기적인 보고, 서비스 조정 등에 참여 • (주정부) 정기적인 정보 교환 및 시설 점검 등 실시	• (주정부) 아동복지기관 인·허가 담당, 아동 사례 관리 등에 참여 • (아동복지기관) 주정부 규정에 부합하는 아동복지사를 그룹홈 내 개별 아동마다 배치해 아동별 사례 관리 및 평가 실시 • (그룹홈) 아동복지법인의 복지사 및 관리자와 협력해 아동에 대한 서비스 평가 실시, 사례 회의 등에 참여
특징	• 카운티 정부와 긴밀히 협력 • 단기 쉼터, 자립 지원 등 용도별 전문화 추구	• 주정부 기관(DCFS)의 엄격한 관리

* 출처: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페이지. *Foster Care*.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foster-care (검색일: 2025.8.1.)
The 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홈페이지). *Foster Care*. https://dcfs.illinois.gov/loving-homes/fostercare.html (검색일: 2025.8.1.)

4) 교육 및 기타 서비스

그룹홈은 숙식을 포함하여 교육 및 진로지도, 레크리에이션, 정신건강·심리 치료상담 등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룹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운영 규정 및 시설 관련 규정은 주정부가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는 아동 1인당 최소 침실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6세 이상 남녀는 별도의 침실로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동별 필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59]

59) 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홈페이지, April 10, 2025). *Rules 403* –

표 Ⅳ-12. 그룹홈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일리노이주 사례

명칭	주요 내용
숙박 (개인공간)	• 아동에게 침대, 옷장, 서랍장 등이 포함된 침실 제공 – 1인 1베드(침대) – 침실 규모는 옷장, 서랍장 공간을 제외하고, 아동 1인당 최소 40평방피트(약 3.7㎡) – 만 6세 이상 아동은 성별에 따라 침실 구분 – 아동 5인당 1개 이상의 욕실(샤워실) 확보
교육 및 직업훈련	• 정규교육(고등학교 과정 이상 이수 장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 시 튜터링 등 제공 • 적성에 따른 직업 훈련 기회 제공 •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아동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훈련 또는 실무 경험 제공 • 아동의 관심사와 재능에 따라 스포츠, 미술, 음악 등 과외 활동 제공
레크리에이션	• 아동의 연령 및 발달상 필요에 맞는 실내 및 실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제공
건강 및 안전	• 정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기타 필요한 의료 지원 제공 • 안전한 환경(화재 및 대피 훈련, 총기/탄약 소지 제한, 전염병 격리 등) 제공
전문 서비스	• 아동복지사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사회적·심리적·정신적 지원 및 치료 제공
종교	• 아동의 종교적 권리 보장 – 종교 교육, 종교 활동 참여 등 보장

* 출처: 일리노이주 그룹홈 규정
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홈페이지, April 10, 2025). *Rules 403 – Licensing Standards for Group Homes*. https://dcfs.illinois.gov/content/dam/soi/en/web/dcfs/documents/about-us/policy-rules-and-forms/documents/rules/rules-403.pdf (검색일: 2025.8.1.)

최근 미국에서는 가정 기반 위탁이 장려되면서 시설거주 청소년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강도 높은 집중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그룹홈이 아닌 비치료 목적의 그룹홈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위탁 보호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취약 아동·청소년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학업과 미래 진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Licensing Standards for Group Homes. https://dcfs.illinois.gov/content/dam/soi/en/web/dcfs/documents/about-us/policy-rules-and-forms/documents/rules/rules-403.pdf (검색일: 2025.8.1.)

표 Ⅳ-13. 연방정부의 위탁 아동·청소년 교육·진로 지원 관련 법·제도

명칭	주요 내용
모든학생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s Act, 2015)	• 미국의 모든 학생이 성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 – 위탁 아동 등 취약 아동이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 안정성(educational stability)'을 강조 • 위탁 아동의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거나, 또는 위탁 변경 후 새로운 학교로 신속한 등록 및 전학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 – 학교 통학을 위한 교통편 보장도 명시 • 위탁 아동의 빈번한 이동 등으로 인해 학업 결손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 교과과정 외 보충수업, 개별 튜터링,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 균형 잡힌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시 • 동 법을 근거로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교육청, 학교, 주정부 담당부처(아동복지부 등)가 협력
체이피 프로그램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 위탁보호 아동의 자립과 취업능력 확대를 위해 해당 아동에게 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프로그램 • 연방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주정부 담당기관(아동복지부 등)이 주별로 프로그램을 운영 – 연방정부 지원금은 위탁 보호 아동 수를 기준으로 주정부에 할당 • 지원 대상은 주정부에 따라 연령 범위가 상이하나 최소 만 14세~최대 23세(일반적으로는 만 21세까지)인 위탁 보호 상태 또는 위탁 보호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지원 • 지원 내용은 학업 지원, 취업 지원, 직업 교육, 독립생활을 위한 라이프스킬(금융 지식 향상 등) – 주정부는 체이피 프로그램의 예산을 사용해 생활비 등 현금 지원, 교육기관·커뮤니티단체 등과의 계약·협력을 통해 교육 취업 프로그램, 자립기술 훈련, 진로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
체이피 교육훈련 보조금 프로그램 (Chafee Education and Training Grant Program)	• 체이피 프로그램과 별개로, 만 16세 이후에 위탁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26세 미만 대학생 또는 직업학교 등록생에게 연간 최대 5,000달러를 지원

* 출처: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페이지. *School Success K-12.*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cdss-programs/foster-care/california-foster-youth-education-resource-hub/k-12. (검색일: 2025.8.3.)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페이지. *Foster Care.*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foster-care (검색일: 2025.8.1.)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웹페이지.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https://www.pa.gov/agencies/dhs/resources/for-providers/child-welfare-providers/chafee-foster-care (검색일: 2025.8.3.)
New York State 웹사이트.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https://ocfs.ny.gov/programs/youth/chafee.php (검색일: 2025.8.3.)

연방정부는 모든 학생 성공법(ESSA), 체이피 프로그램 및 체이피 교육훈련 바우처 프로그램(ETV) 등을 통해 위탁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며, 이러한 연방 차원의 법제도를 근거로 주정부와 지역 교육청(Local Education Agency) 등이 서비스 제공 방식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0] 주정부들도 위탁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주는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Foster Youth Services Coordinating Program, FYSCP)이라는 교육지원사업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위탁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개선, 교육 안정성 증진, 자립 준비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카운티 및 학구 단위에서 주로 유·초·중·고등학교[61] 과정 내 위탁 청소년의 학업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로그램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FYSCP 코디네이터'는 주 교육부와 학구, 기타 파트너 기관을 연계하고 이들 간 서비스를 조정하면서 위탁 청소년의 학업적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를 찾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코디네이터는 각 카운티마다 배정되어 있으며 FYSCP 감독, FYSCP 계획 시행 보장, FYSCP 예산 모니터링 및 관리, 학구·파트너 기관 등에 기술 지원 및 사례 컨설팅 제공 등을 담당한다. FYSCP하에서 각 카운티나 학구는 위탁 아동·청소년의 학업 개선을 위해 주정부의 지원금을 사용하는데, 한 사례로 앨러미다 카운티(Alameda County)의 지역교육청은 위탁 아동·청소년에게 튜터링을 제공하기 위해 그룹홈 등에 방과후 학습을 도와줄 과외교사(주로 대학생)를 보내 일대일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 멘토링을 제공할 전담 직원을 배치해(직원 1인당 20~25명의 청소년 담당) 아동복지사, 위탁 보호 기관, 학교 직원 등과 협력하도록 하면서 대상 청소년에게 학교와 집에서의 학업 상담, 개인별 교육 계획(IEP) 업데이트, 학교과제 수행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62]

---

60)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페이지. *School Success K-12*.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cdss-programs/foster-care/california-foster-youth-education-resource-hub/k-12. (검색일: 2025.8.3.)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페이지. *Foster Care*.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foster-care (검색일: 2025.8.1.)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웹페이지.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https://www.pa.gov/agencies/dhs/resources/for-providers/child-welfare-providers/chafee-foster-care (검색일: 2025.8.3.)
New York State 웹사이트.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https://ocfs.ny.gov/programs/youth/chafee.php (검색일: 2025.8.3.)

61) 지원 대상은 카운티·학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21세까지 지원됨.

다른 사례로 일리노이 주정부는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위탁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대학 진학 및 자립 준비 프로그램인 '퍼스트 스타 아카데미(First Star Academy)'를 지원한다. 동 프로그램은 민간 비영리단체인 퍼스트 스타(First Star)에서 시작한 것으로 현재 일리노이주립대 외에도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유타대학교 등 미국 전역의 다수 대학들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리노이 주정부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비 중 일부를 주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립대의 퍼스트스타 아카데미는 매주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탁 아동·청소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학 진학 준비, 학업 지도, 라이프스킬 수업 등을 제공하며, 여름방학 기간에는 2주간의 단기 몰입형 프로그램(Summer Immersion Program)을 운영해 청소년이 대학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중요 과목 수업(수학, 언어, 과학 등), 대학 진학/직업 계획 및 이력서 작성, 지역사회 봉사 및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63]

5) 개선 과제[64]

미국의 그룹홈은 최근 연방정부의 기능 축소 및 사회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룹홈 등 위탁 보호 시스템 내 아동·청소년과 일반 학생의 학업 격차가 여전하

---

62)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페이지. *School Success K-12*.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cdss-programs/foster-care/california-foster-youth-education-resource-hub/k-12 (검색일: 2025.8.3.)
The California Evidence-Based Clearinghouse for Child Welfare(CEBC) 웹페이지. *Foster Youth Services Coordinating Program(FYSCP)*. https://www.cebc4cw.org/program/foster-youth-services/ (검색일: 2025.8.9.)
Kern County Superintendent of Schools Office(KCSOS) 웹페이지. *Foster Youth Services Coordinating Program(FYSCP)*. https://kern.org/foster-youth-services/ (검색일: 2025.8.9.)
Voices for Children (2022.12.). *2021-2022 FOSTER YOUTH SERVICES COORDINATING PROGRAM*. https://www.speakupnow.org/wp-content/uploads/2022/12/Foster-Youth-Services-Coordinating-Program-FYSCP-Pamphlet-Email-version-2021.22.pdf (검색일: 2025.9.20.)

63) Illinois State University 웹페이지. *First Star Academy*. https://childwelfare.illinoisstate.edu/first-star-academy/ (검색일: 2025.8.9.)
First Star (2017.4.27.). *Center for Child Welfare and Adoption Studies receives $250,000 to help youth in foster care reach college*. https://www.firststar.org/illinois-state-university/ (검색일: 2025.9.20.)
The 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홈페이지, 2021.9.17.). *Statewide Foster Care Advisory Council*, p.3. https://dcfs.illinois.gov/content/dam/soi/en/web/dcfs/documents/loving-homes/foster-care/documents/swfcac_minutes_091721.1.0.pdf (검색일: 2025.9.20.)

64) Foster Love (2025.5.26.). *The Problems with the Foster Care System in 2025: Where We Are and What Still Needs to Change*. https://fosterlove.com/blog/the-problems-with-the-foster-care-system-in-2025-where-we-are-and-what-still-needs-to-change/ (검색일: 2025.9.20.)
Arizona Friends Of Foster Children Foundation (2024.3.2.). *Foster Care and Education: Challenges & How to Support*. https://www.affcf.org/supporting-the-education-of-students-in-foster-care/ (검색일: 2025.9.20.)

며,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 아동·청소년이 컴퓨터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집에서 숙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4. 독일

1) 보호 아동·청소년 통계[65]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 Bundesamt)에 따르면 독일 내 위탁 보호 아동·청소년(0~26세) 수는 2023년 기준 약 21만 5,000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수는 12만 8,000명으로 전체 보호아동의 약 60%에 달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유형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주거형 집단시설(Heimerziehung[66]), 소규모 그룹홈(Wohngruppen),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 시설(Mutter/Vater-Kind-Einrichtungen), 기숙학교 겸 보육원(Internat und Tagesheim) 등이 있다.

표 Ⅳ-14. 독일 보호 아동 통계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설보호	136,114	126,912	122,659	121,005	127,584
위탁가정	91,176	89,736	97,329	86,047	86,970
총계	227,290	216,648	219,988	207,052	214,554

* 출처: Statistische Bundesamt (독일 연방 통계청, 2024.11.19.). *Seit 2017 erstmals wieder mehr junge Menschen in Heimen und Pflegefamilien*.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35_225.html (검색일: 2025.9.30.)

65) Statistische Bundesamt (독일 연방 통계청, 2024.11.19.). *Seit 2017 erstmals wieder mehr junge Menschen in Heimen und Pflegefamilien*.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35_225.html (검색일: 2025.9.30.)

66) 독일어로 'heim'은 '집'을 의미하며, 어린 유아보다는 십대 청소년들이 집단적인 돌봄을 받는 시설은 'Jugendheim(청소년의 집)', 'Jugendwohngruppe(청소년 그룹홈)' 등으로 세분화되어 불리기도 함.

2) 법·제도적 근거[67]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의 제34조는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위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설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SGB VIII는 2021년 6월 발효된 아동·청소년 강화법(Kinder und Jugendstärkungsgesetz, KJSG)에 의해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자립준비청소년(Careleavern[68])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규정 명확화(§41, 41a SGB Ⅷ)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47 SGB Ⅷ) ▲자립준비청소년의 복지분담금 지불액 축소(§ 92 Abs. 1a SGB VIII, § 94 SGB VIII) 등이었다.

표 Ⅳ-15.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 내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조항

구분	내용
제34조	• 집단시설 또는 소규모 그룹홈 등에서 숙식, 돌봄, 정서·교육적 지원, 자립 훈련, 진로설계 지원 명시
제41조	• 자립준비청소년(만18~26세)에 대한 생활·진로설계·자립지원 및 거주 보장 명시
제47조	• 시설 운영자에 대한 보고 및 문서와 의무 규정
제92조 및 제94조	• 부모, 청소년 등의 복지비 비용 분담 의무와 원칙 규정

* 출처: 홍문기 (2022).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년 겨울호(통권23호)**, pp.141-14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문기 (2024).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 및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년 겨울호(통권31호)**, pp.15-3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발췌.

67) 홍문기 (2024)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 및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년 겨울호, 통권31호**, pp.15-3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eutscher Bundestag (2022.11.10.). *Kostenheranziehung in der Kinder-und Jugendhilfe wird abgeschafft.*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45-de-kostenheranziehung-917450 (검색일: 2025.9.30.)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BFSFJ) (2022.12.16.). *Gesetz zur Abschaffung der Kostenheranziehung von jungen Menschen in der Kinder-und Jugendhilfe.*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e/abschaffung-kostenheranziehung-kjh-199758 (검색일: 2025.9.30.)
Bundesnetzwerk Ombudschaft in der Jugendhilfe (2023.1.1.). *Kostenheranziehung junger Menschen in der Jugendhilfe.* https://www.ombudschaft-jugendhilfe.de/de/topic/6491.kostenheranziehung.html (검색일: 2025.9.30.)
Socialnet (2025.2.14.). *Stationäre Erziehungshilfe.* https://www.socialnet.de/lexikon/Stationaere-Erziehungshilfe (검색일: 2025.9.30.)

68) 영문으로 'care leaver'

독일은 집단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자립준비청소년이 직업훈련이나 고용을 통해 수입을 얻을 경우 수입의 75%에 해당하는 복지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했는데 위탁 보호 아동·청소년이 '가난한' 상태로 자립생활을 시작하지 않도록 복지분담금을 수입의 25%로 감액 조정하였다. 이후 이러한 복지분담금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SGB VIII에 따라 완전히 폐지되었다.

3) 주거형 집단시설 및 그룹홈 운영 방식[69]

독일은 16개 주(Länder)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 각 주정부와 도시 또는 소규모 행정구역에 따라 설립된 지역별 청소년청(Jugendamt)이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 관련 서비스를 담당한다. 청소년청은 아동의 식별 및 시설 배치, 시설 운영 허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청소년청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독일은 일명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70]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해 온 만큼 실제 시설 운영은 민간 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재단 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청소년청이 지급하며, 시설 자체 운영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체험활동, 치료비, 진로지원 비용 등도 지원한다. 실제 지급 비용은 시설과 체결한 계약(일일 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바이블링겐시의 경우에는 현재 그룹홈 아동 1인당 하루 187.06유로('25.5.1. 이후 요율)를 지급한다.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대략 그룹홈 아동 1인당 6만 8,200유로(한화 약 1억 1,000만 원)를 지원하는 셈이다.

---

69) BBW Waiblingen 웹페이지. *Unsere aktuellen Kostensätze*. https://berufsbildungswerk.diakonie-stetten.de/das-bbw-waiblingen/informationen-fuer-jugendaemter/kostensaetze-jugendhilfe.html (검색일: 2025.8.15.)
행복한교육 (2015.4.). **가정형 대안학교로 위기청소년 품는다**. 하임 Heim.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6&nttId=3959 (검색일: 2025.8.15.)
Infosystem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웹페이지. *Heimerziehung, sonstige betreute Wohnformen*. https://www.kinder-jugendhilfe.info/aufgaben-und-handlungsfelder/hilfen-zur-erziehung/heimerziehung-sonstige-betreute-wohnformen (검색일: 2025.8.15.)

70) 연방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지자체보다는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보다는 개인 수준에서 충분한 자체 구제 또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이에 참여하지 않고, 서비스가 부족한 영역에 보다 집중하거나 민간 부문과 분담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원칙.

4) 교육 및 기타 서비스[71]

주거형 집단시설 및 그룹홈은 대부분 주택형 위탁 시설로 도시형, 전원형으로 나뉘며 대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실과 거실, 작업장, 상담실, 욕실, 식당, 체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주거형 집단시설과 그룹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청소년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연방정부 규정(SGB VIII)은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시설에 대해 24시간 숙식 및 생활지도, 건강·일상 관리, 학업 지원, 정서·심리 치료 및 상담, 진로·자립 지원, 사회 적응 및 참여 지원 등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Ⅳ-16. 독일 작센안할트주 잘츠베델에 위치한 청소년 집단시설(Jugendheim) 'Hanse-Haus' 운영 사례

구분	내용
운영주체	• Berufsverbund Hanse-Zentrum für Bildung und Jugendförderung gGmbH (교육서비스회사)
제공 서비스	• 만 12~18세 독일 청소년 및 미성년 난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생활·양육·교육·진로지도·자립지원 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 15개실 구비(각 남녀 아동에게 개인실 제공) • 청소년이 독립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생활을 위한 아파트 3개소도 보유
중점 지원 영역	• 학교교육에서 직업훈련으로의 전환에 초점 설정 – 기술 개발, 직업훈련 진출, 직업훈련 이수 등을 위한 기회 제공 – 특히 작센안할트주가 제공하는 진로지원 프로그램(BRAFO, BOP, TIP 등)과 연계해 개별 청소년별로 진로지도를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 포털을 소개하는 한편, 직업 경험과 관련된 맞춤형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 지원	• 지역 청소년청과 협력해 언어·수학 과목 등에 대한 과외학습, 금융 교육, 요리, 요가 및 운동, 진로 코칭 등 개인에게 맞춤화된 다양한 학습 및 라이프스킬 교육 제공
학교생활 지원	• 매일 학교생활을 점검하고 청소년들이 수업 내용과 학습 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디지털 지원	• 청소년들이 디지털 도구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하며, PC·노트북 이용 보장

* 출처: BVH Hanse-Zentrum 웹페이지. *BVH-Standort Jugendheim Hanse-Haus Salzwedel.* https://bvh-karriere.de/standort/jugendheim-salzwedel/#1583272016972-e1c4796e-385c (검색일: 2025.8.18.)

71) BVH Hanse-Zentrum 웹페이지. *BVH-Standort Jugendheim Hanse-Haus Salzwedel.* https://bvh-karriere.de/standort/jugendheim-salzwedel/#1583272016972-e1c4796e-385c (검색일: 2025.8.18.)
Hessisches Ministerium für Arbeit, Integration, Jugend und Soziales (2023.4.). *Richtlinien für (teil-)stationäre Einrichtungen in Hessen, die gemäß § 45 Achtes Buch Sozialgesetzbuch (SGB VIII) einer Betriebserlaubnis bedürfen.* https://soziales.hessen.de/sites/soziales.hessen.de/files/2023-04/GWE_2023_02_13%20Einrichtungsrichtlinien.pdf (검색일: 2025.9.30.)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정부에서 자체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헤센주의 경우에는 십대 청소년이 거주하는 집단시설(Jugendheim)은 최대 15인까지 수용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개인실에서 생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2년부터 새로운 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프로그램(JUST BEst[72])을 도입하여 위탁 보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위탁 보호를 받으면서 향후 독립된 생활을 준비 중인 청소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거주, 진로교육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위탁 보호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비, 직업훈련 및 커리어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여러 보조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73]

5) 개선 과제[74]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주거형 집단시설 및 그룹홈 등 집단시설은 학생들의 학업경로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본질적인 교육 장벽이 존재하며 완전히 평등한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학교와 시설이 상호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학교교육을 뒷받침하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시설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 및 배제가 존재해 시설을 구분하는 명칭을 새로운 다른 명칭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72) 정식 명칭은 'JUGEND STÄRKEN – Brücken in die Eigenständigkeit'

73)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BFSFJ). *Förderungsarten und Förderungshöhe*. https://www.xn—bafg-7qa.de/bafoeg/de/das-bafoeg-alle-infos-auf-einen-blick/foerderungsarten-und-foerderungshoehe/foerderungsarten-und-foerderungshoehe.html (검색일: 2025.8.17.). bafoeg-aktuell (2024.8.16.). *Berufsausbildungsbeihilfe (BAB) – Voraussetzungen und Höhe*. https://www.bafoeg-aktuell.de/berufsausbildungsbeihilfe/ (검색일: 2025.9.30.)

74) Clark, Z., Denysova, O., & Molnar, D. (2023). Unwahrscheinliche Bildungskarrieren. *Sozial Extra, 47*(5), pp.285-290.

표 Ⅳ-17.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 보조금 제도 및 자립준비 지원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자립준비 지원 프로그램 (JUST BEst)	• 2022~2028년 기간 동안 시행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전국 지자체 및 청소년청과 함께 주도하며, 2027년까지 총 7,000만 유로를 투자 • 만 14~26세 청소년 중 아동복지시설을 떠난 퇴소자는 물론,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머무르면서 미래의 독립생활을 준비 중인 청소년 및 홈리스 청소년 등에 대해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 생활을 위한 상담·조언, 주거안정, 진로·직업 교육 등을 지원 • BMFSFJ가 지역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결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 컨소시엄이 운영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아웃리치 사업, 상담센터 등 접근이 쉬운 초기 상담 서비스, 사회 통합 및 자립능력 향상에 관한 사례 관리,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원 시범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국가 장학보조금 (BAföG)	• 연방교육지원법(BAföG)에 따라 연방 교육부가 운영 • 학생(10학년 이상 또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 부조 방식 • 매월 최대 992유로(24/25학년도 겨울학기 이후부터 적용)
직업훈련지원금 (Berufsausbildungsbeihilfe, BAB)	• 연방 고용부가 운영 • 학교가 아닌 정부 공인 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매월 보조금 지원 • 매월 최대 822유로(24년 8월 이후부터 기본 442유로, 임대료보조금 380유로)

*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MBFSFJ). *Förderungsarten und Förderungshöhe*. https://www.xn—bafg-7qa.de/bafoeg/de/das-bafoeg-alle-infos-auf-einen-blick/foerderungsarten-und-foerderungshoehe/foerderungsarten-und-foerderungshoehe.html (검색일: 2025.8.17.)

5. 소결 및 시사점

해외의 보호아동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영국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개별 아동의 필요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상학교장과 같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도움으로써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단순한 숙식 제공을 넘어 집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라이프스킬 훈련, 숙제 지원 등 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보호아동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관리 및 감독을 시행하고 민간 아동홈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양호시설은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 내 종합적인 지원 센터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보호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아동복지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양호시설은 공공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등과 협력하여 구몬학습법이나 오시고토리프와 같은 커리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아동의 교육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육성비, 대학수험비, 자격취득 특별 가산비 등 보호아동의 교육격차 해소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구입비 및 통신비 지원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원 항목과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가족우선 예방서비스법을 통해 위탁가정이나 친족보호 등 가족기반 보호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아동의 시설보호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시설은 일시적인 보호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제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연방정부가 법과 재정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정부와 지역사회가 아동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의 학업격차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생 성공법', '체이피 프로그램' 등과 같은 연방차원의 제도뿐만 아니라 '퍼스트 스타 아카데미'와 같은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아동에게 학업, 멘토링, 진학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 재단 등 민간주체를 보조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국가의 재정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보호아동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가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연계를 강화하여 보호아동의 요구에 더 적절히 대응하는 현장중심의 아동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각 주정부와 지역 청소년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아동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청이 아동의 시설배치부터 시설의 운영 감독, 재정지원 등 전반적인 과정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 연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와 학업성취는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핵심전제가 되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가상학교장과 같이 아동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단순한 학습지원이 아닌 교육적 성취를 높이고, 미국이나 일본의 '퍼스트 스타 아카데미', '커리어교육' 등과 같은 진로탐색 및 멘토링 기회를 확대하여 향후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스마트폰 구입비, 통신비 지원 등과 같이 아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정보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항목을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소년을 능동적인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환경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과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돕는 곳이어야 한다. 즉 청소년이 안정된 정서적 유대감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시설보호를 최소화하고 가정과 같은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라이프스킬 훈련'과 같이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시설거주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각 시설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본, 독일과 같이 각 시설이 지역 내 종합적 지원센터가 되고 지역 정부가 서비스 제공 및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교육청-복지기관-민간단체 등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협력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하에 개별 시설의 이윤추구를 제한하고, 독일과 같이 국가의 재정지원하에 지역 청소년청이 운영감독 및 재정지원 등에 책임을 지는 구조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각 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소관부처가 상이한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완전히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해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시설거주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방안을 고려함에 있어 시설거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

이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결핍을 최소한으로 채워주는 역할이 아니라, 가정에서 성장해 온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은 기회를 얻고, 그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과 자립역량 개발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5장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실태 조사

1. 조사개요
2. 교육실태 조사결과 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5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실태 조사[75)]

1. 조사개요

1) 개요

본 조사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일반청소년들의 교육 실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하는 경험이나 기술을 배우고, 시설거주로 인한 불리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완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인 '시설거주 청소년'의 범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 「소년법」 처분에 따른 감호위탁 및 소년원 퇴소 후 소년보호시설(민간 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 자립생활관 등)에서 거주 중인 청소년을 포함하였다. '시설거주 청소년'이라는 대상 특성상 현재 입소 청소년 현원, 성별, 연령 등에 변동이 많아 모집단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표집틀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목표 표본 수인 1,000명에 대해 시설별 현황자료에 제시된 정원을 근거로 목표 표본 수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800명, 청소년복지시설 150명, 소년보호시설 50명으로 할당하였으며,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하위집단별(성별, 지역 규모, 연령별, 시설 유형별) 응답 인원이 일정 지역에서 추출되지 않도록 권역을 일부 고려하도록 하였다.

75)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조사 참여자는 고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만 15~18세 청소년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담당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설의 청소년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표집틀에 따라 기관을 섭외한 후 기관담당자가 조사에 동의하는 경우 시설 내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조사링크를 발송하면 조사링크를 받은 청소년은 조사설명문 확인 후 개별의사에 따라 조사 동의 후 참여하도록 하여 보호자인 기관 담당자의 동의 획득 및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조사 참여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3) 조사지 개발 및 문항

(1) 조사지 개발 과정

조사지는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및 생활 관련 연구를 분석한 후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초안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담당자가 참석한 자문회의에서 조사영역, 조사문항, 설문길이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조사문항 어휘 및 응답 난이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 및 조사업체 담당자의 검토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수정·보완하였다. 조사 내용은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과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함께 구성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조사지는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202505-HR-고유-012), 조사 참여자의 응답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웹 설문 조사 형태로 개발하여 설문 로직 및 문항을 최종 검토한 후 실사에 착수하였다.

(2)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조사 영역은 총 7개 영역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은 〈표 V-1〉과 같다. 본 조사에 앞서 사전 질문은 인적사항, 거주시설 등 조사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조사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교육영역은 재학 여부 및 학교 유형, 학교생활, 학업중단 여부, 사교육 경험, 자습 및 교재 사용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진로·진학영역은 진로·진학 결정, 장래 희망, 현재 직업 및 직업 준비, 직업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정보활용능력 영역에서는 컴퓨터 및 태블릿 소유 및 활용능력을, 네 번째 일 경험 영역에서는 일 경험 여부 및 일자리 내용, 학업에의 지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섯 번째 여가 및 활동 영역에서는 체험활동 및 여가 활용 경험 등에 대해, 여섯 번째 교육 환경 및 휴식 공간 영역은 시설 내·외부의 학습 공간, 지역 환경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일곱 번째 관계 및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및 우울, 스트레스, 생활 결핍 정도 등 심리·정서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V-1.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확인 및 배경)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0. 사전 질문	인적 사항	• 성별	• SQ1	연구진 개발
		• 생년월	• SQ2	연구진 개발
		• 현재 거주시설	• SQ3	연구진 개발
		• 거주 지역	• SQ4	연구진 개발
		• 경제 수준	• SQ5	아동 H2 수정
	거주시설	• 총 경험한 거주시설	• SQ6~SQ6-1	시설 문27 수정
		• 시설 유형별 거주기간	• SQ6-2	시설 문27-1, 문27-2 수정

* 출처:
1) 시설: 김승경 외 (2024).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 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아동: 이상정, 이주연 외 (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17세 아동용 조사표)

표 V-2.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교육)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Ⅰ. 교육	재학 여부	• 교급별 재학 여부	• 문1~문1-3	아동 A3 수정
	학교 유형 및 고등학교 선택	• 학년 및 학교 유형	• 문1-4~문1-8	아동 A3-1~A4 수정
		• 고등학교 계열 선택 이유	• 문2-1	연구진 개발
		• 고교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 문2-2	연구진 개발
	학교생활	• 학업성적	• 문3	아동 C4 수정
		• 학교생활 만족도	• 문4	사회24 문16 수정
		•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	• 문5	아동 C8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학업 중단	•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	• 문6	복지 문1-2 수정 청소년 문37-2 수정
		• 현재 하는 일	• 문7-1	복지 문1-3 수정
		• (취업 준비 시) 직업교육·훈련 참여 여부	• 문7-2	연구진 개발
		• (취업 준비시) 수강·훈련 비용 부담 방법	• 문7-3	연구진 개발
	사교육	• 지난 1년간 사교육 수강 여부 및 과목별 수강 경험	• 문8-1~문8-2	아동 C5 수정
		• 과목별 수강 방법 및 시간	• 문8-3~문8-4	
		• 수강료	• 문8-5	연구진 개발
		• 수강료 충당 방법	• 문8-6	연구진 개발
		• 수강 희망 여부 및 희망 과목, 수강 방법	• 문9	연구진 개발
	자습 및 교재	• 혼자 공부하는 시간	• 문10	청소년 문31
		• 교재 사용 정도	• 문11	연구진 개발

* 출처:
1) 아동: 이상정, 이주연 외 (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17세 아동용 조사표)
2) 사회24: 통계청 (2024). **2024년 사회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3) 복지: 정은희 외 (2021).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가조사 유형5 설문지)
4) 청소년: 김지경 외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13~18세 조사표)

표 V-3.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진로·진학)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Ⅱ. 진로·진학	진로·진학 결정	• 진로 계획	• 문12	아동 C11 수정
		• 희망 교육 수준	• 문13	사회24 문19 수정
		• 시설 선생님의 응답자에 대한 희망 교육 수준	• 문14	연구진 개발
		• 진로·진학 결정 관련 외부 지원 여부 및 도움 정도	• 문15	연구진 개발
	장래 희망	•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 문16	청소년 문41 수정
		• 희망 직업명	• 문16-1	청소년 문41-1
		• 희망 직업과 적성·흥미 간 일치 정도	• 문16-2	연구진 개발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 희망 직업의 자격 기준에 대한 지식 정도	• 문16-3	연구진 개발
		• 희망 직업에 필요한 능력·기술 준비 정도	• 문16-4	연구진 개발
		• 장래 직업과 고교 전공 간 일치 정도(해당자만)	• 문16-5	사회24 문22-2 수정
	현재 직업 및 직업 준비	• 현재 직업	• 문17~문17-1	연구진 개발
		• 현재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 간 일치 여부 및 비일치 이유	• 문17-2, • 문17-2-1	연구진 개발
		• 직업 선택 시 고려 요인	• 문18	청소년 문42 수정
		• 자격증 취득 및 준비	• 문19, 문19-1	연구진 개발
		• 자격증의 일 관련 도움 정도	• 문19-2	연구진 개발
	직업관	• 다양한 직업군 경험 정도	• 문20-1 • 문20-2	청소년 문43 6), 연구진 개발
		• 노력·환경에 대한 생각	• 문21	가치관 14-1)
		• 진로 의식	• 문22	아동 C14 수정

* 출처:
1) 아동: 이상정, 이주연 외 (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17세 아동용 조사표)
2) 사회24: 통계청 (2024). **2024년 사회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3) 청소년: 김지경 외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13~18세 조사표)
4) 가치관: 임희진, 황여정 (202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Ⅴ-4.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정보활용능력 및 일 경험)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출처
Ⅲ. 정보 활용 능력	컴퓨터·태블릿	• 소유 여부	• 문23	연구진 개발
		• 자유로운 사용 정도	• 문23-1	연구진 개발
		• 필요시 사용 방법	• 문23-2	연구진 개발
		• 활용 능력 정도	• 문24	컴퓨터 문-ICT 사용 자아효능감 수정
Ⅳ. 일 경험	일 경험 여부	• 지난 1년간 일 경험 여부	• 문25	근로 문13
	내용	• 경험했던 일자리 유형	• 문25-1	근로 문14 수정
		• 기간 및 시간	• 문25-2, • 문25-3~문25-4	근로 문15~문17
		• 주된 이유	• 문25-5	근로 문10 수정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출처
	학업 지장	• 일로 인한 학업 지장 정도	• 문25-6	연구진 개발

* 출처:
1) 컴퓨터: 서민희 외 (2024).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23 결과 분석**. 충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근로: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이수정 (202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Ⅴ-5.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여가 및 활동)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Ⅴ. 여가 및 활동	체험활동	• 지난 1년간 관람 경험	• 문26	사회23 문37 수정
		• 지난 1년간 여행 경험	• 문27	연구진 개발
	여가 활용	• 여가 시간에 하는 일(평일/주말)	• 문28-1, 문29-1	사회23 문41 수정
		• 여가를 함께 하는 사람(평일/주말)	• 문28-2, 문29-2	사회23 문41-1 수정
		• 여가 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문30 • 문30-1	사회23 문41-1 수정 사회23 문42-1 수정
		• 희망 여가활동	• 문31	사회23 문43 수정

* 출처: 사회23: 통계청 (2024). **2024년 사회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표 Ⅴ-6.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Ⅵ. 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방	• 방의 거주 인원	• 문32, 문32-1	주거 문3 수정
	시설 내 공간	• 휴식 공간 정도	• 문33	연구진 개발
		• 학습 공간 정도	• 문34	연구진 개발
		• 학습 공간 부족 시 대처 방법	• 문34-1	연구진 개발
	시설 밖 학습 공간	• 이용 여부 및 이용 시설	• 문35 • 문35-1	연구진 개발
		• 미이용 이유	• 문35-2	연구진 개발
	지역 환경	• 동네 환경 구축 정도	• 문36	연구진 개발

* 출처: 주거: 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2020).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7.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관계 및 주관적 웰빙)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Ⅶ. 관계 및 주관적 웰빙	관계	•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	• 문37	아동 D7
		• 생활 만족도 정도	• 문38	아동 I2-4, 청소년 문1-41
		•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 문39	아동 D1 수정
	주관적 웰빙	• 스트레스 및 무기력 정도	• 문40	청소년 문9 1), 3)
		• 신체 및 정신 건강 정도	• 문41	청소년 문12 수정
		• 우울 정도	• 문42	건강 문27
		• 생활 결핍 정도	• 문43	아동 H1 수정

* 출처:
1) 아동: 이상정, 이주연 외 (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17세 아동용 조사표)
2) 청소년: 김지경 외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13~18세 조사표)
3) 건강: 임희진 외 (202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실사 추진 및 결과 분석

실사는 6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328개 시설에서 1,083명의 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완료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불성실, 부적격 응답을 제외하였으며, 최종 데이터에는 총 327개소, 1,059명의 응답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백분율, 평균, chi-square, t/F-test 등의 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교육 실태조사 결과 분석[76)]

1) 일반사항: 조사 참여자 특성

조사에 참여한 시설거주 청소년은 총 1,059명이었고,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 52.7%, 여자 47.3%로 남자가 다소 많았다. 시설 유형은 아동양육시설 60.7%, 공동생활가정 19.4%로 아동복지시설이 총 80.1%였으며, 청소년쉼터

76) 시설거주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비교를 위해 '23~'24년 사회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 또한 본 조사의 결과 분석 계획 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로 시설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규모나 특성이 상이하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14.9%,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소년보호시설이 5.0%였다.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거주한 시설의 수는 1개소인 경우가 64.5%로 가장 많고, 2개소 이상인 경우가 35.5%였다. 시설에 거주한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5~10년 27.0%, 3년 미만 20.5%, 3~5년 13.5% 등의 순이었다.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규모는 중소도시가 51.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대도시 35.8%, 읍면지역 13.1%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지각한 경제 수준은 중(중간 수준) 55%로 가장 많고, 상(높은 수준)과 하(낮은 수준)는 22.6%, 22.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V-8.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비율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059	100.0	전체		1,059	100.0
성별	남자	558	52.7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64.5
	여자	501	47.3		2개소 이상	376	35.5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60.7	거주 기간	3년 미만	217	20.6
	공동생활가정	205	19.4		3~5년	143	13.5
	청소년쉼터	158	14.9		5~10년	285	27.0
	소년보호시설[77]	53	5.0		10년 이상	411	38.9
지역 규모	대도시	379	35.8	주관적 경제 수준	상(7~10점)	239	22.6
	중소도시	541	51.1		중(4~6점)	582	55.0
	읍면지역	139	13.1		하(0~3점)	238	22.5

2) 교육

(1) 현재 학업 상태

① 현재 학업 상황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령대(2007~2009년생)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77) 본 실태조사에서 소년보호시설은 6호 처분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청소년자립생활관을 포함함.
*보호처분 6호 처분: 「소년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10세 이상~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6개월 연장 가능)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제도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 (검색일: 2025.9.17.)).

결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94.0%, 고등학교를 휴학하거나 중퇴한 경우가 4.0%,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2.1%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비율이 98.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공동생활가정(95.6%), 청소년쉼터(95.6%), 소년보호시설(81.6%)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의 경우 고등학교를 휴학하거나 중퇴한 청소년, 중학교 졸업 이하의 청소년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타 시설에 비해 더 많았다. 거주시설 수에 따라서는 1개 시설에 거주한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재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잦은 시설 이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9. 현재 학업 상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휴학/중퇴	고등학교 재학 중	χ^2검증
전체		1,059	2.1	4.0	94.0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0.6	1.2	98.1	107.504 ***
	공동생활가정	205	2.4	2.0	95.6	
	청소년쉼터	158	6.3	12.0	81.6	
	소년보호시설	53	5.7	20.8	73.6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1.5	2.2	96.3	19.838***
	2개소 이상	376	3.2	7.2	89.6	

*p<.05, **p<.01, ***p<.001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총 1,004명이었으며, 고등학생이 99.1%, 중학교 3학년이 0.9%였다. 참여 청소년 중 고등학교 2학년이 34.7%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학년 33.8%, 고등학교 3학년 30.7%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총 55명이었는데, 고등학교 휴학 및 중퇴가 76.4%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미진학 14.5%, 중학교 휴학 및 중퇴 5.5%이었으며, 초등학교 중퇴는 3.6%였다.

표 V-10. 현재 재학 중인 학년 및 학업 상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004	100.0	전체		55	100.0
재학 중인 학년	고등학교 3학년	308	30.7	학업 중단 상태	고등학교 휴학/중퇴	42	76.4
	고등학교 2학년	348	34.7		고등학교 미진학	8	14.5
	고등학교 1학년	339	33.8		중학교 휴학/중퇴	3	5.5
	중학교 3학년	9	0.9		초등 중퇴	2	3.6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9명 중 8명(88.9%)은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1명(11.1%)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중학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일반 중학교	소년원중학교	특수학교
전체	9	88.9	0.0	11.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47.1%)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35.7%)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았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에서는 일반고 재학률이 특성화고 재학률보다 높았으나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특성화고 재학률이 일반고 재학률보다 높았다. 단 소년보호시설 청소년 집단에서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의 재학률 차이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난 차이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V-12. 현재 재학 중인 학교: 고등학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일반고	자공고/자사고	예/체고	과고/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체		995	47.1	2.0	1.2	0.1	2.7	35.7
성별	남자	523	44.0	2.1	0.4	0.2	4.0	39.0
	여자	472	50.6	1.9	2.1	0.0	1.3	32.0
시설유형	아동양육시설	631	47.9	1.4	1.7	0.2	2.7	35.0
	공동생활가정	196	50.0	3.6	0.0	0.0	4.1	30.1
	청소년쉼터	129	38.8	2.3	0.8	0.0	1.6	45.7
	소년보호시설	39	48.7	2.6	0.0	0.0	0.0	41.0

구분		사례 수	체험(대안)학교	기타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소년원고	χ^2검증
전체		995	5.0	0.1	0.1	3.9	2.0	-
성별	남자	523	5.0	0.2	0.0	3.6	1.5	23.305*
	여자	472	5.1	0.0	0.2	4.2	2.5	
시설유형	아동양육시설	631	5.4	0.0	0.2	4.1	1.4	54.487**
	공동생활가정	196	4.1	0.0	0.0	5.6	2.6	
	청소년쉼터	129	5.4	0.0	0.0	1.6	3.9	
	소년보호시설	39	2.6	2.6	0.0	0.0	2.6	

*p<.05, **p<.01, ***p<.001

② 고등학교 선택 관련 경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성적에 맞춰서(22.8%) 학교 계열을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거리가 가까워서(18.6%), 흥미, 적성에 따라서(18.4%), 취업에 유리해서(13.5%), 진학에 유리해서(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는 성적에 맞춰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흥미, 적성에 따라서, 소년보호시설은 거리가 가까워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13. 고등학교 계열 선택 시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전체		1,037	22.8	18.4	13.5	12.0
성별	남자	549	22.8	16.6	16.2	12.9
	여자	488	22.7	20.5	10.5	10.9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39	24.6	17.4	13.0	12.2
	공동생활가정	200	18.0	23.5	10.5	15.5
	청소년쉼터	148	22.3	18.9	20.9	7.4
	소년보호시설	50	20.0	10.0	10.0	8.0

구분		⑤	⑥	⑦	⑧	χ^2검증
전체		0.5	9.5	18.6	4.7	-
성별	남자	0.9	8.2	17.1	5.3	18.257*
	여자	0.0	11.1	20.3	4.1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0.5	10.0	17.7	4.7	33.053*
	공동생활가정	0.0	7.5	19.5	5.5	
	청소년쉼터	0.7	8.1	18.9	2.7	
	소년보호시설	2.0	16.0	26.0	8.0	

* ① 성적에 맞춰서
② 흥미, 적성에 따라서
③ 취업에 유리해서
④ 진학에 유리해서
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⑥ 주변의 권유로
⑦ 거리가 가까워서
⑧ 기타

*p<.05, **p<.01, ***p<.001

고등학교 계열 선택 시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본인(4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시설 선생님(19.0%), 학교 선생님(16.9%), 가족(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계열 선택 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 청소년들은 본인, 학교 선생님, 시설 선생님의 순이었으나, 여자 청소년들은 본인, 시설 선생님, 학교 선생님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시설 선생님에게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14. 고등학교 계열 선택 시 영향을 준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χ^2검증
전체		1,037	44.4	10.1	16.9	19.0	1.1	6.9	1.6	-
성별	남자	549	48.5	10.4	17.3	15.7	0.7	6.6	0.9	16.669*
	여자	488	39.8	9.8	16.4	22.7	1.4	7.4	2.5	

* ① 본인
② 가족(부모, 형제, 친지 등)
③ 학교 선생님
④ 시설 선생님
⑤ 학원 선생님
⑥ 친구
⑦ 기타

*p<.05, **p<.01, ***p<.001

③ 학업성적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장 최근 학업성적에 대해 상(잘하는 편) 17.6%, 중(보통 수준) 36.9%, 하(못하는 편) 45.5% 등으로 대체로 중하위권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성적 평균 역시 4.51점으로 보통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성별 및 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에 비해 본인의 성적이 상(잘하는 편)이라는 응답률이 더 높았고, 여자 청소년들은 중(보통 수준)이나 하(못하는 편)라는 응답률이 남자보다 높았다. 시설 유형에 따라서는 본인의 성적이 상(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 그 차이는 최대 2%p에 불과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중(보통수준)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반면 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쉼터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은 하(못하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성적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5. 학업성적: 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상	중	하	평균[1)]	표준편차	t/F검증
전체		1,059	17.6	36.9	45.5	4.51	2.032	-
성별	남자	558	21.0	35.1	43.9	4.69	2.083	3.071 **
	여자	501	13.8	38.9	47.3	4.31	1.956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3	17.0	38.6	44.5	4.55	1.978	3.942 ** a,b>d
	공동생활가정[b]	205	18.0	43.9	38.0	4.72	1.886	
	청소년쉼터[c]	158	19.0	27.8	53.2	4.33	2.213	
	소년보호시설[d]	53	18.9	17.0	64.2	3.72	2.460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10점이며 응답률은 상(7~10점), 중(5~6점), 하(1~4점)으로 나누어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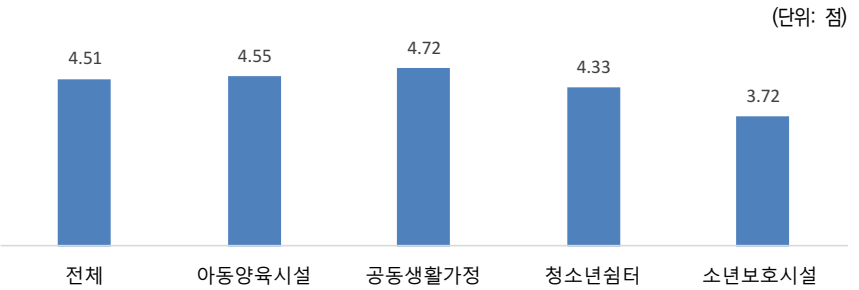


그림 V-1. 학업성적: 전체

학업성적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중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과목은 사회와 국어로 이 과목들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성적을 보여주었다. 반면 수학과 영어의 평균 성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와 수학은 하(못하는 편)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과목임을 볼 수 있다.

표 V-16. 학업성적: 과목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상	중	하	평균[1)]
전체	1,059	17.6	36.9	45.5	4.51
국어	1,059	27.2	33.3	39.5	4.93
수학	1,059	13.1	21.4	65.4	3.65
영어	1,059	13.1	21.9	65.0	3.70
사회	1,059	27.5	35.7	36.8	5.04
과학	1,059	18.9	30.4	50.7	4.39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10점이며 응답률은 상(7~10점), 중(5~6점), 하(1~4점)으로 나누어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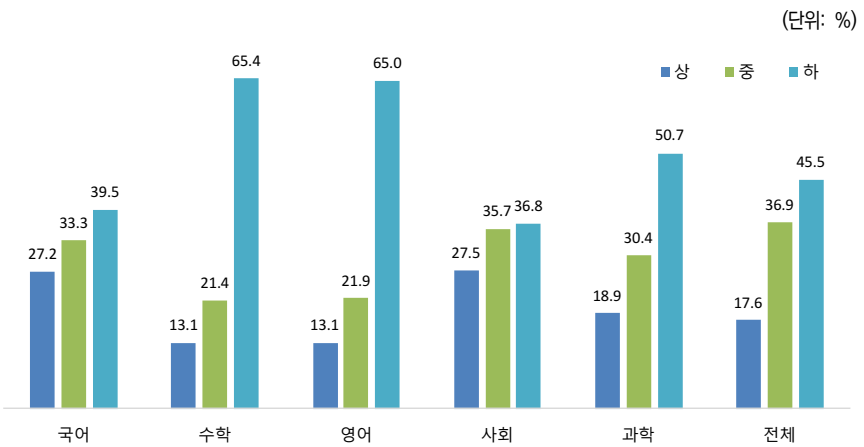


그림 V-2. 학업성적 범주: 과목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을 과목별 평균 점수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중·고등학교 연령인 12~1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성적이 낮아짐을 감안하더라도 시설거주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적은 보통 수준 이하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성적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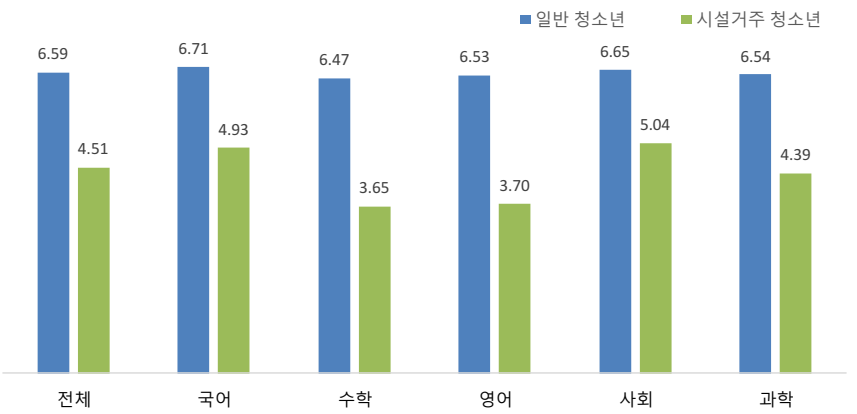
표 V-17. 과목별 평균 점수: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일반청소년[1)]	2,283	6.59	6.71	6.47	6.53	6.65	6.54
시설거주 청소년	1,059	4.51	4.93	3.65	3.70	5.04	4.39

* 주: 1) 학업성적 평균점수의 범위는 1~10점임.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이상정, 이주연 외, 2023)의 연구 결과 중 12~17세의 응답률임.

(단위: 점)



* 주: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이상정, 이주연 외, 2023)의 연구 결과 중 12~17세의 응답률임.

그림 V-3. 과목별 평균 점수: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2) 학교생활 만족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일반청소년과 비교해 본 결과 시설거주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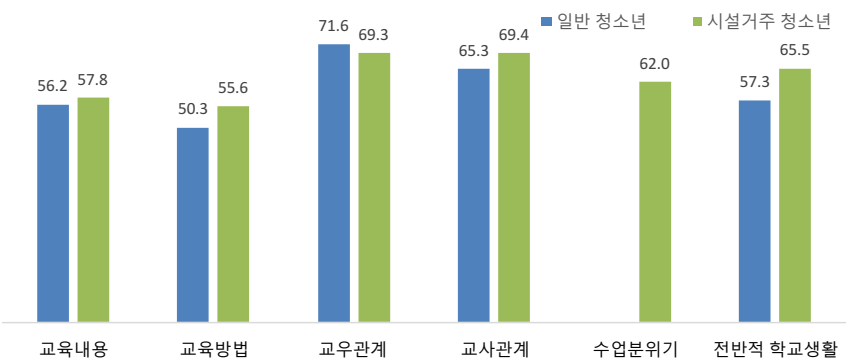
표 V-18. 학교생활 만족도: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단위: %)

구분[1]		불만족	보통	만족
교육내용	일반청소년[2]	8.7	35.2	56.2
	시설거주 청소년	6.8	35.5	57.8
교육방법	일반청소년[2]	13.0	36.7	50.3
	시설거주 청소년	8.3	36.2	55.6
교우관계	일반청소년[2]	5.0	23.4	71.6
	시설거주 청소년	7.7	23.0	69.3
교사와의 관계	일반청소년[2]	4.6	30.0	65.3
	시설거주 청소년	5.0	25.6	69.4
수업 분위기	일반청소년[2]	–	–	–
	시설거주 청소년	8.2	29.9	62.0
전반적인 학교생활	일반청소년[2]	5.9	36.9	57.3
	시설거주 청소년	8.1	26.4	65.5

* 주: 1) 응답률은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 보통, 만족(약간 만족+매우 만족)으로 나누어 봄.
2)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4 사회조사보고서(통계청, 2024)의 연구 결과 중 중·고등학생의 응답률임.

(단위: %)



* 주: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4 사회조사보고서(통계청, 2024)의 연구 결과 중 중·고등학생의 응답률임.

그림 V-4. 학교생활 만족도: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표 V-19.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평균[1]	t/F검증	평균[1]	t/F검증	평균[1]	t/F검증
전체		1,004	3.78	-	3.73		4.04	-
성별	남자	525	3.87	3.095 **	3.80	2.641 **	4.20	4.807 ***
	여자	479	3.68		3.64		3.87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34	3.84	8.776 *** b>d	3.78	7.885 *** a,b>d	4.11	6.498 *** a,b,c>d
	공동생활가정[b]	198	3.89		3.82		4.06	
	청소년쉼터[c]	132	3.47		3.44		3.88	
	소년보호시설[d]	40	3.35		3.28		3.43	
거주 시설 수	1개소	663	3.83	2.333 *	3.79	2.714 **	4.15	4.343 ***
	2개소 이상	341	3.68		3.61		3.83	
학업 성적	상(7~10점)[a]	172	4.31	60.523 *** a>b>c	4.26	55.771 *** a>b>c	4.47	29.755 *** a>b>c
	중(4~6점)[b]	375	3.93		3.86		4.16	
	하(0~3점)[c]	457	3.46		3.42		3.79	

구분		사례 수	교사와의 관계		수업 분위기		전반적인 학교생활	
			평균[1]	t/F검증	평균[1]	t/F검증	평균[1]	t/F검증
전체		1,004	4.04	-	3.86		3.93	-
성별	남자	525	4.10	2.166 *	3.96	3.408 **	4.07	4.374 ***
	여자	479	3.97		3.74		3.78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34	4.09	5.826 ** a,b>d	3.92	6.043 *** a,b,c>d	4.01	10.577 *** a,b,c>d
	공동생활가정[b]	198	4.09		3.88		4.00	
	청소년쉼터[c]	132	3.86		3.70		3.66	
	소년보호시설[d]	40	3.55		3.28		3.23	
거주 시설 수	1개소	663	4.13	3.892 ***	3.94	3.542 ***	4.02	3.680 ***
	2개소 이상	341	3.87		3.69		3.76	
학업 성적	상(7~10점)[a]	172	4.47	37.248 *** a>b>c	4.28	24.957 *** a>b>c	4.41	38.633 *** a>b>c
	중(4~6점)[b]	375	4.15		3.92		4.05	
	하(0~3점)[c]	457	3.79		3.65		3.65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5점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영역별로 보면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교우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는 평균 4.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반적인 학교생활, 수업분위기,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대한 만족도는 3.7~3.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성별, 시설 유형, 거주시설 수, 학업성적 등에 따라 항목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및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에 비해, 1개 시설에서만 생활한 청소년과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에게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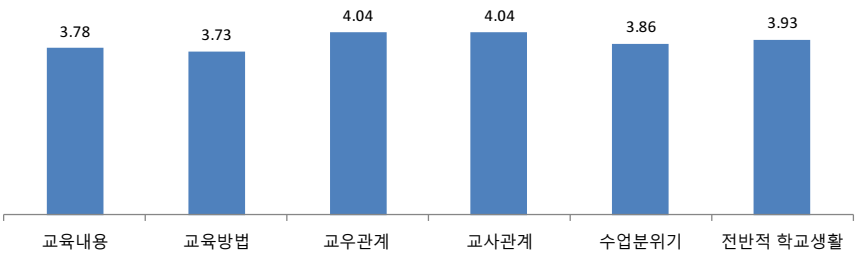


그림 Ⅴ-5. 학교생활 만족도

(3) 학업 부담감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을 일반청소년과 비교한 결과, 공부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일반청소년이 6.9%p 높았으나, 부담감에 대한 평균 점수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에게서 0.02점 더 높게 나타났다. 시설거주 청소년들 중 73.9%는 약간 이상의 부담감을 갖는 반면, 26.1%의 청소년들은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의 평균 점수는 2점대 전후로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업 부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높았으며, 청소년쉼터 청소년들이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에 비해, 성적이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이 중 이상인 청소년에 비해 더 높았다.

표 V-20.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느끼지 않음	부담을 느낌	평균[1]	χ^2검증
일반청소년[2]		2,300	19.2	80.8	2.07	-
시설거주 청소년		1,004	26.1	73.9	2.09	-
성별	남자	525	31.0	69.0	1.98	-4.284***
	여자	479	20.7	79.3	2.22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34	26.2	73.8	2.07	2.944* c>d
	공동생활가정[b]	198	23.7	76.3	2.10	
	청소년쉼터[c]	132	23.5	76.5	2.27	
	소년보호시설[d]	40	45.0	55.0	1.85	
학업 성적	상(7~10점)	172	29.7	70.3	2.02	4.207*
	중(5~6점)	375	24.0	76.0	2.02	
	하(1~4점)	457	26.5	73.5	2.18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며 응답률은 '전혀 느끼지 않음'과 '부담을 느낌(약간+꽤 +많이 느낀다)'으로 나누어 봄.
2)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이상정, 이주연 외, 2023)의 연구 결과 중 12~17세의 응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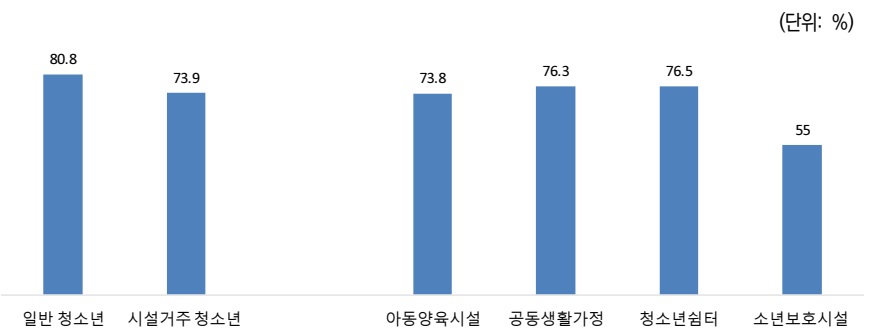


그림 V-6.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감

(4) 학업중단(휴학, 중퇴, 미진학) 사유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가 21.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적성과 특기를 살리기 위해'와 '친구 문제로'(각 10.9%),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9.1%) 등의 순이었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은 '적

성 및 특기를 살리기 위해'가 주요한 이유였으나,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은 '학교의 처분(규칙위반, 징계 등)으로',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은 '공부하기 싫어서'를 주요한 이유로 선택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학교를 잘 못 다닐 것 같아서', '(학교에)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학업량이 너무 많아서', '검정고시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의 권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V-21. 학교를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건강 문제	학비마련 문제	가정 문제	학업 부진	친구 문제	교사와의 갈등
전체		55	9.1	0.0	7.3	0.0	10.9	7.3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9	11.1	0.0	0.0	0.0	22.2	0.0
	공동생활가정	7	14.3	0.0	14.3	0.0	0.0	0.0
	청소년쉼터	26	7.7	0.0	11.5	0.0	15.4	15.4
	소년보호시설	13	7.7	0.0	0.0	0.0	0.0	0.0

구분		공부하기 싫어서	적성 및 특기	학교가 멀어서	학교 처분	법원 처분	기타	χ^2검증
전체		21.8	10.9	3.6	5.5	3.6	20.0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0.0	33.3	0.0	0.0	11.1	22.2	41.992 *
	공동생활가정	14.3	14.3	0.0	28.6	14.3	0.0	
	청소년쉼터	19.2	0.0	7.7	0.0	0.0	23.1	
	소년보호시설	46.2	15.4	0.0	7.7	0.0	23.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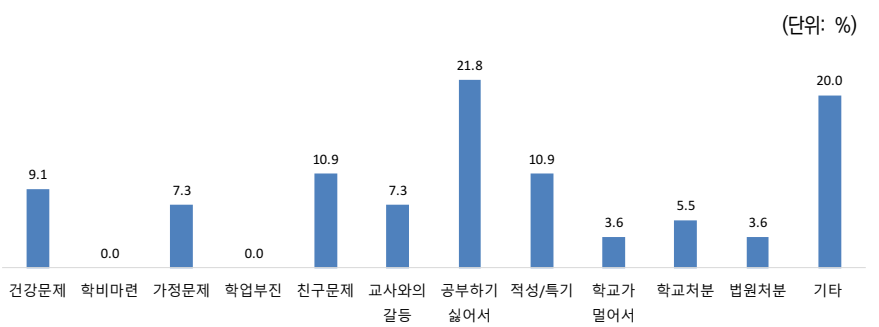


그림 V-7. 학교를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 현재 주로 하고 있는 활동(1+2순위)으로는 '검정고시 준비'가 50.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취업 및 아르바이트'(26.4%), '진학준비'(17.0%), '구직 활동 및 직업교육훈련'(15.1%) 등의 순이었다. 모든 응답자에게서 '검정고시 준비'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남자 청소년은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여자 청소년은 '진학준비'를 하는 청소년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시설 유형별로는 '검정고시 준비' 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거주 청소년은 '진학준비'를,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은 '진학준비'와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였으며, 청소년쉼터 청소년은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소년보호시설은 '취업 및 아르바이트'와 '구직활동 및 직업교육훈련'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검정고시 준비' 외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그다음으로 '진학준비'를 하는 반면, 성적이 보통 수준인 경우 '진학준비'와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였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V-22. 학교를 그만둔 후 주로 하고 있는 활동: 1순위+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1순위)		53	11.3	43.4	18.9	11.3	5.7	5.7	3.8
전체 (1순위+2순위)		53	17.0	50.9	26.4	15.1	7.5	5.7	5.7
성별	남자	31	9.7	58.1	32.3	16.1	0.0	3.2	6.5
	여자	22	27.3	40.9	18.2	13.6	18.2	9.1	4.5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9	33.3	55.6	22.2	11.1	22.2	0.0	11.1
	공동생활가정	6	33.3	50.0	33.3	0.0	0.0	16.7	0.0
	청소년쉼터	25	12.0	56.0	32.0	20.0	4.0	8.0	0.0
	소년보호시설	13	7.7	38.5	15.4	15.4	7.7	0.0	15.4
학업 성적	상(7~10점)	14	28.6	35.7	21.4	21.4	0.0	0.0	0.0
	중(5~6점)	14	21.4	78.6	21.4	0.0	0.0	7.1	14.3
	하(1~4점)	25	8.0	44.0	32.0	20.0	16.0	8.0	4.0

* ① 학업준비(유학, 대안학교 및 방통고 진학 및 재학, 대학입시 등 진학준비)
② 검정고시 준비
③ 취업 및 아르바이트
④ 구직활동(취업준비) 및 직업교육훈련
⑤ 치료 및 요양
⑥ 아무것도 하지 않음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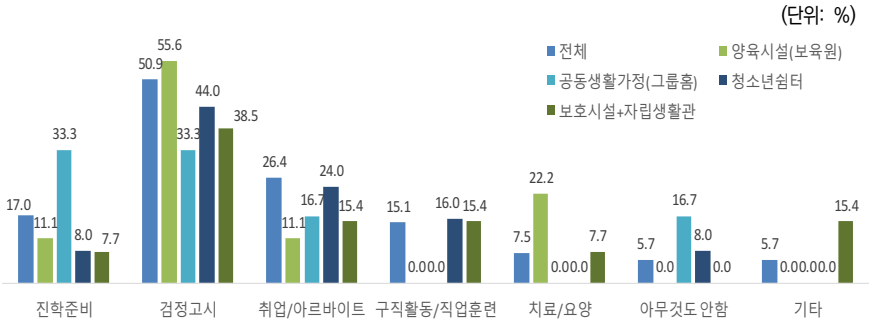


그림 V-8. 학교를 그만둔 후 주로 하고 있는 활동: 1순위+2순위

(5) 사교육 경험

① 사교육 경험 정도

현재 재학 중이거나 진학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학교 공부나 학력 취득을 위해(검정고시 포함)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업, 인터넷 강의, 학습지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63.8%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사교육 경험률이 높았고, 시설 유형에 따라서는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사교육 수강 경험률이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보다 높았다.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교육 수강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3. 지난 1년 사교육 수강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χ^2검증
전체		1,037	63.8	36.2	-
성별	남자	545	58.5	41.5	14.009***
	여자	492	69.7	30.3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0	64.4	35.6	25.007***
	공동생활가정	203	72.4	27.6	
	청소년쉼터	148	58.8	41.2	
	소년보호시설	46	34.8	65.2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χ^2검증
학업 성적	상(7~10점)	181	70.7	29.3	15.853***
	중(5~6점)	387	68.5	31.5	
	하(1~4점)	469	57.4	42.6	

*p<.05, **p<.01, ***p<.001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통계청, 2024)에서 지난 1년간 고등학생의 사교육 경험률은 67.3%로 이에 비해 시설거주 청소년의 사교육 경험률은 63.8%로 다소 낮은 편이다. 다만 본 조사에서는 초중고사교육비조사와 달리 경험률에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센터 등 지역기관에서의 교육 경험도 포함하였다. 이에 학교나 공공기관에서의 방과후 교육 경험만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약 63.3%로 매우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표 V-24. 지난 1년 사교육 수강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기타
일반청소년[1)]	-	27.5	42.9	46.9	15		17.2	10.5
시설거주 청소년	1,037	19.6	37.2	36.9	9.7	8.7	12.7	12.0

* 주: 1)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4 초중고사교육비조사(통계청, 2024) 결과 중 고등학생의 응답률임.

② 사교육을 받은 과목 및 수강 방법

지난 1년간 사교육 여부에 대한 응답자 중 과목별 사교육 경험률을 보면 수학(37.2%)과 영어(36.9%)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과학을 제외하고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의 수강률이 좀 더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들이 타 시설에 비해 모든 과목에서 수강률이 높았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수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통계청, 2024)에서 학생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표 V-25. 지난 1년간 사교육 수강과목(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예체능	기타
전체		1,037	19.6	37.2	36.9	9.7	8.7	12.7	12.0
성별	남자	545	18.2	36.1	33.0	10.3	9.0	10.3	11.6
	여자	492	21.1	38.4	41.3	9.1	8.3	15.4	12.4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0	18.3	37.2	35.2	7.3	7.2	11.7	12.2
	공동생활가정	203	22.7	46.8	48.8	14.8	10.3	14.8	12.3
	청소년쉼터	148	21.6	26.4	31.8	11.5	10.1	14.2	10.8
	소년보호시설	46	17.4	30.4	26.1	15.2	17.4	13.0	10.9
학업 성적	상(7~10점)	181	23.2	47.5	47.5	12.7	15.5	10.5	13.8
	중(5~6점)	387	20.2	38.8	39.5	13.2	10.1	13.7	12.9
	하(1~4점)	469	17.7	32.0	30.7	5.8	4.9	12.8	10.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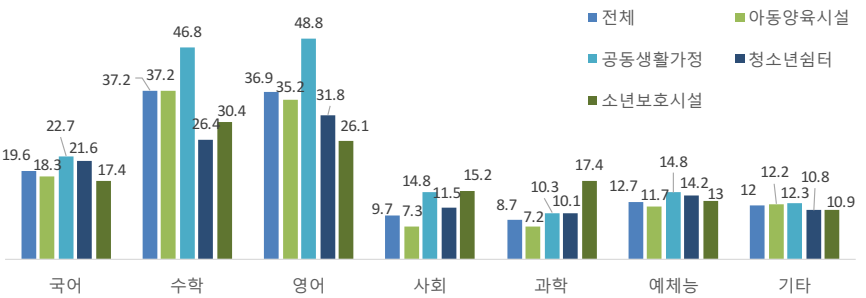


그림 V-9. 지난 1년간 사교육 수강과목(복수응답): 시설 유형별

지난 1년간 사교육을 수강한 청소년들의 수강 방법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학원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터넷 강의, 학습지, 과외 등의 순이었다. 2024년 초중고사교육 비조사 결과(통계청, 2024)에서는 사교육 수강 방법을 일반교과 전체에 대한 응답률로 제시하였는데, 고등학생의 수강 방법 중 가장 많은 방법은 학원수강(46.3%)이었고, 그다음으로 개인 과외 12%,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10.8%, 그룹과외 4.6% 순이었다. 방문학습지 이용률은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 0.4%에 불과하였으나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일반 교과목의 경우 3.5%에서 6.6%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표 V-26. 지난 1년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학원	과외	온라인 과외	인터넷 강의	학습지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 기관
국어	전체[1)]	1,037	8.9	3.2	1.4	7.4	6.6	1.6	0.8
	유경험자	203	45.3	16.3	6.9	37.9	33.5	8.4	3.9
수학	전체[1)]	1,037	24.6	4.3	1.2	4.9	3.8	0.9	0.5
	유경험자	386	66.1	21.8	6.0	24.9	19.4	4.4	2.6
영어	전체[1)]	1,037	22.3	4.5	1.5	3.6	3.5	0.9	0.5
	유경험자	383	59.8	23.0	7.8	18.3	17.8	4.7	2.6
사회	전체[1)]	1,037	9.9	1.7	1.4	10.5	5.8	1.5	1.0
	유경험자	101	26.7	8.9	6.9	53.5	29.7	7.9	5.0
과학	전체[1)]	1,037	14.1	2.0	1.7	8.0	6.5	1.3	1.3
	유경험자	90	37.8	10.0	8.9	41.1	33.3	6.7	6.7
예체능	전체[1)]	1,037	30.2	1.8	0.7	1.0	1.6	1.9	0.6
	유경험자	132	81.1	9.1	3.8	5.3	8.3	9.8	3.0
기타	전체[1)]	1,037	22.5	1.3	0.8	3.2	3.8	3.3	1.3
	유경험자	124	60.5	6.5	4.0	16.1	19.4	16.9	6.5

* 주: 1) 전체 응답률은 사교육 경험률 여부에 대한 응답자 1,037명 대비 응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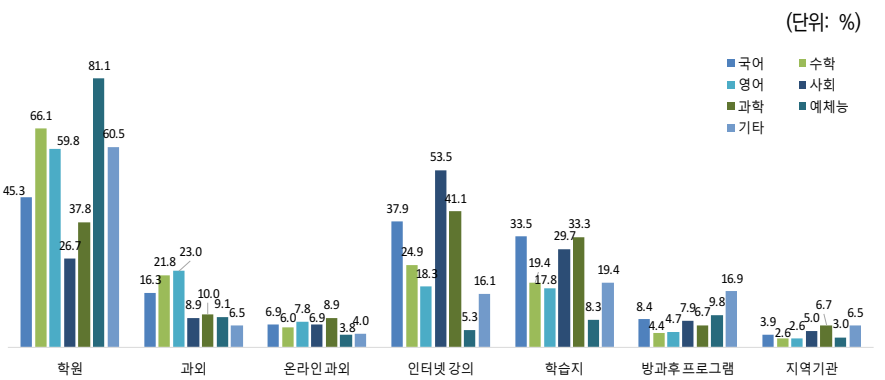


그림 V-10. 과목별 경험자의 지난 1년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과목별

③ 사교육 수강시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 주당 사교육 수강시간을 과목별로 보면 예체능이 6.3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그다음으로는 수학(3.89시간)과 영어(3.56시간) 순이었다. 예체능(36.4%)과 수학(23.1%)은 주당 6시간 이상, 국어와 사회, 과학은 주당 1시간, 영어는 1~2시간 수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통계청, 2024)에서 고등학생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6.9시간이었다. 이와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당 수강시간 평균을 산출하여 보았다. 즉 시설거주 청소년들 중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인원까지 포함하여 총 1,037명의 주당 사교육 평균 시간을 산출하면 5.17시간으로 일반 고등학생의 주당 평균 시간보다 짧았다. 게다가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예체능 과목 수강시간은 긴 반면 일반교과 수강시간은 짧은 것을 감안한다면 교과목 사교육 주당 평균 시간은 일반 고등학생에 비해 훨씬 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7. 지난 1년 주당 사교육 수강시간: 과목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 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상	평균[1)]
국어	203	36.5	18.7	16.7	15.3	4.4	8.4	2.80
수학	386	20.5	21.0	13.0	13.0	9.6	23.1	3.89
영어	383	20.9	20.9	14.4	16.7	11.5	15.7	3.56
사회	101	35.6	23.8	14.9	10.9	6.9	7.9	2.80
과학	90	27.8	26.7	11.1	17.8	10.0	6.7	2.86
예체능	132	14.4	14.4	13.6	12.9	8.3	36.4	6.36
기타	124	24.2	19.4	18.5	7.3	7.3	23.4	4.42

* 주: 1) 지난 1년 주당 사교육 수강시간의 범위는 1~24시간이며 표에 제시된 평균 시간은 과목별 사교육 미참여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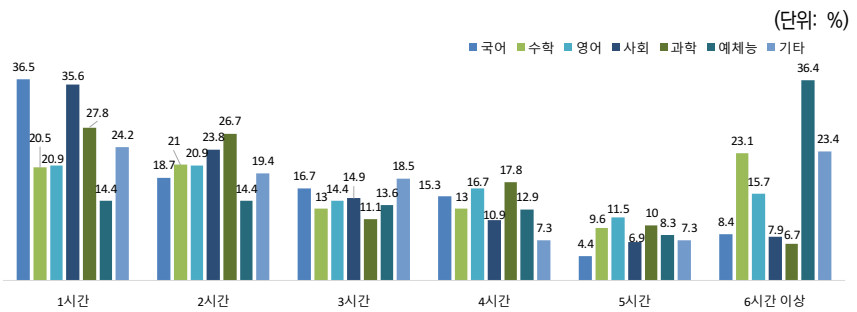


그림 V-11. 지난 1년 주당 사교육 수강시간: 과목별

사교육 미참여자를 제외하고 과목별 사교육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수강시간을 모두 합산한 결과 평균 수강시간은 주당 8.10시간이었다. 평균 5~10시간 수강한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시간 미만(21.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주당 20시간 이상 수강한다는 응답도 7.7%나 있었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의 시설에 거주는 청소년들의 주당 수강시간이 8.99시간으로 읍면지역 청소년 수강시간인 6.84시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길었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읍면지역과 같이 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개수가 적어지거나 학원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상(높은 수준)인 청소년들의 수강시간은 평균 9.73시간으로 하(낮은 수준)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수강시간인 7.15시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길었다.

표 V-28. 지난 1년 주당 사교육 수강시간: 합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 수	3시간 미만	3~5 시간	5~10 시간	10~15 시간	15~20 시간	20시간 이상	평균	t/F 검증
전체		662	21.3	16.5	32.0	15.0	7.6	7.7	8.10	-
지역 규모	대도시[a]	246	18.3	15.4	30.1	16.3	11.0	8.9	8.99	3.612 * a>c
	중소도시[b]	331	23.0	16.6	32.3	14.5	5.7	7.9	7.76	
	읍면지역[c]	85	23.5	18.8	36.5	12.9	4.7	3.5	6.84	
학업 성적	상(7~10점)[a]	128	15.6	13.3	29.7	19.5	9.4	12.5	9.73	5.854 ** a>c
	중(4~6점)[b]	265	20.0	16.2	32.8	16.6	6.4	7.9	8.28	
	하(0~3점)[c]	269	25.3	18.2	32.3	11.2	7.8	5.2	7.15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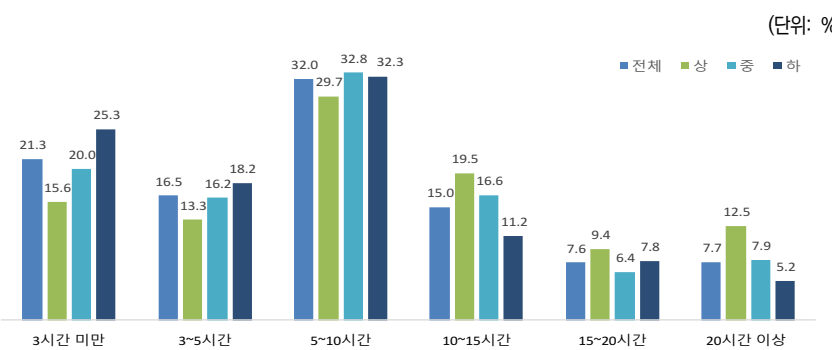


그림 V-12. 지난 1년 주당 사교육 수강시간: 학업성적별

④ 월평균 수강료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은 월평균 수강료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을 제외하고 산출한 월평균 사교육 수강료는 27.5만 원이었으며, 시설별로는 공동생활가정이 33.8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27.47만 원), 청소년쉼터(20.35만 원), 소년보호시설(14.88만 원) 등의 순이었다. 시설별 차이는 사후 검증 결과 동일 집단군으로 분류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실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통계청 보도자료, 2025.3.13.)에서 고등학생 월평균 수강료는 사교육 미경험자를 포함할 경우 52만 원이었고, 사교육 참여 고등학생의 월평균 수강료는 77.2만 원이었다. 이에 비해 사교육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월평균 수강료는 일반청소년의 1/3 수준인 27.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거주 청소년의 사교육 수강료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표 V-29. 월평균 사교육 수강료: 합계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 수	15만원 이하	16~30 만원	31~45 만원	46~60 만원	60만원 초과	잘 모르겠음	평균[1)]	t/F 검증
일반청소년		-	-	-	-	-	-	-	77.20	-
시설거주 청소년		661	14.7	10.9	5.3	4.8	3.5	60.8	27.50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412	14.1	9.5	5.6	4.1	2.9	63.8	27.47	2.805 *
	공동생활가정[b]	146	8.2	15.8	5.5	8.2	4.8	57.5	33.82	
	청소년쉼터[c]	87	24.1	11.5	3.4	3.4	3.4	54.0	20.35	
	소년보호시설[d]	16	37.5	0.0	6.3	0.0	6.3	50.0	14.88	

*p<.05, **p<.01, ***p<.001

* 주: 1) 평균값은 '잘 모르겠음'을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2) 일반청소년 응답값은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통계청 보도자료, 2025.3.13.)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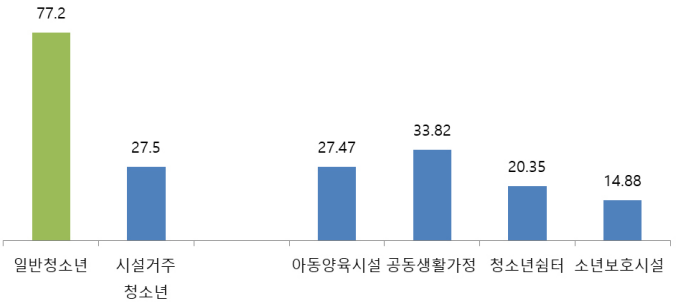


그림 V-13. 월평균 사교육 수강료(합계): 시설 유형별

사교육을 위한 수강료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시설 또는 국가지원, 후원금 등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8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가족들이 지원한다는 응답이 7.3%, 스스로 벌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0.9%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수강료가 없음', '모름' 등의 응답이 많았으며, '친구의 계정을 빌림', '유튜브(동영상 강의 수강)', 'EBS 무료강의' 등의 응답이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에 비해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남자 청소년들은 가족들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시설 유형에 따라서는 대체로 외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긴 하였으나, 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쉼터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가족들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은 타 시설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기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V-30. 수강료 마련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내가 벌어서	가족들이 지원	외부 지원	기타	χ^2검증
전체		662	0.9	7.3	86.3	5.6	-
성별	남자	319	0.9	9.4	82.1	7.5	9.281 *
	여자	343	0.9	5.2	90.1	3.8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412	0.7	4.1	89.3	5.8	27.805 **
	공동생활가정	147	1.4	10.2	85.7	2.7	
	청소년쉼터	87	1.1	14.9	77.0	6.9	
	소년보호시설	16	0.0	18.8	62.5	18.8	

*p<.05, **p<.01, ***p<.0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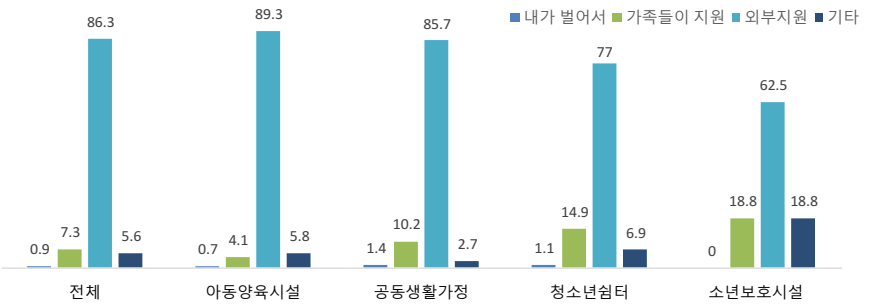


그림 V-14. 수강료 마련 방법

⑤ 사교육 희망 과목 및 수강 방법

학원이나 과외, 인터넷 강의, 학습지 등 사교육을 희망하는 과목이 있는지에 대해 39%의 청소년들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자 청소년(46.9%)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사교육을 희망하는 과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31.9%)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V-31. 사교육 희망 과목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χ^2검증
전체		1,059	39.0	61.0	-
성별	남자	558	31.9	68.1	24.989***
	여자	501	46.9	53.1	

*p<.05, **p<.01, ***p<.001

사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하는 과목을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예체능(42.4%)을 원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영어(39.5%), 수학(34.1%), 국어(29.8%), 과학(22.8%), 사회(16.2%)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시설 유형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은 국어(42.4%)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쉼터는 영어(46.5%)를 희망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또한 소년보호시설은 전 과목에 걸쳐 타 기관에 비해 사교육 희망 과목에 대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적이 상(높은 수준)에 속하는 청소년은 예체능보다는 수학, 영어, 과학, 국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사교육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성적이 중(보통수준)이거나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은 예체능을 희망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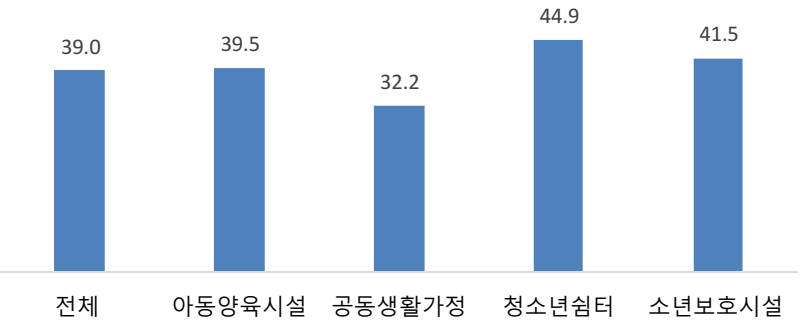


그림 V-15. 사교육 희망 과목 유무: 시설 유형별

표 V-32. 사교육 희망 과목(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예체능	기타
전체		413	29.8	34.1	39.5	16.2	22.8	42.4	14.0
성별	남자	178	27.5	36.0	38.2	16.3	23.0	41.6	13.5
	여자	235	31.5	32.8	40.4	16.2	22.6	43.0	14.5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254	28.0	32.3	37.0	15.0	20.9	41.7	14.6
	공동생활가정	66	42.4	28.8	37.9	24.2	24.2	31.8	12.1
	청소년쉼터	71	19.7	38.0	46.5	8.5	22.5	45.1	15.5
	소년보호시설	22	45.5	59.1	50.0	31.8	40.9	72.7	9.1
학업 성적	상(7~10점)	78	33.3	39.7	34.6	14.1	34.6	30.8	20.5
	중(5~6점)	154	27.3	30.5	39.0	16.2	21.4	43.5	11.7
	하(1~4점)	181	30.4	34.8	42.0	17.1	18.8	46.4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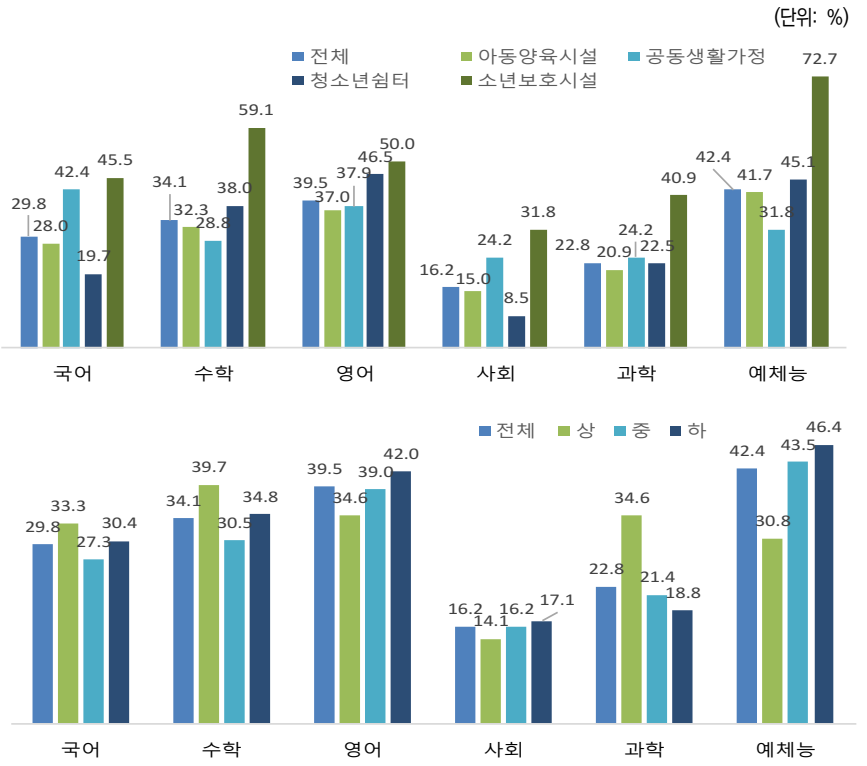


그림 V-16. 사교육 희망 과목(복수응답): 시설 유형별 및 학업성적별

사교육 수강 방법으로는 학원에 다니는 것을 가장 희망하였고, 교과목은 개인/그룹과외, 인터넷 강의, 학습지, 온라인 과외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학은 학습지보다 온라인 과외를 좀 더 희망하였다. 이에 비해 예체능은 학원, 개인/그룹과외,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면대면 수업이 가능한 학원이나 과외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온라인 과외나 인터넷 강의는 차선책임을 알 수 있다.

표 V-33. 희망하는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학원	개인/그룹과외	온라인 과외	인터넷 강의	학습지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 기관
국어	123	52.0	33.3	16.3	29.3	26.0	6.5	4.9
수학	141	62.4	44.7	12.1	28.4	27.0	5.0	3.5
영어	163	60.1	42.3	14.7	28.8	23.9	3.1	4.9
사회	67	44.8	41.8	26.9	38.8	23.9	4.5	6.0
과학	94	57.4	39.4	18.1	30.9	21.3	7.4	6.4
예체능	175	81.7	26.9	3.4	8.0	7.4	13.1	8.0
기타	58	75.9	17.2	10.3	22.4	15.5	13.8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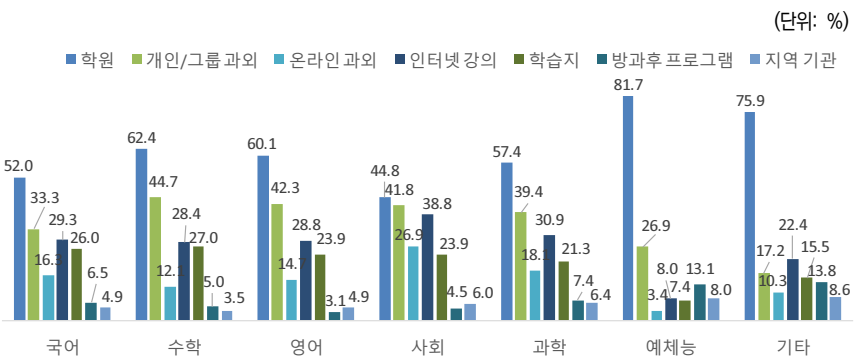


그림 V-17. 희망하는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학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반면, 소년보호시설은 국어는 온라인 과외, 수학은 학원, 영어는 과외, 사회는 과외와 온라인 과외, 학습지, 과학은 학습지 등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체능은 학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4. 시설 유형별 희망하는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학원	과외	온라인 과외	인터넷 강의	학습지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 기관
국어	전체	123	52.0	33.3	16.3	29.3	26.0	6.5	4.9
	아동양육시설	71	53.5	31.0	15.5	35.2	26.8	4.2	5.6
	공동생활가정	28	60.7	42.9	10.7	25.0	21.4	10.7	3.6
	청소년쉼터	14	57.1	35.7	21.4	21.4	21.4	14.3	7.1
	소년보호시설	10	10.0	20.0	30.0	10.0	40.0	0.0	0.0
수학	전체	141	62.4	44.7	12.1	28.4	27.0	5.0	3.5
	아동양육시설	82	58.5	42.7	11.0	29.3	31.7	4.9	3.7
	공동생활가정	19	73.7	52.6	21.1	42.1	21.1	5.3	0.0
	청소년쉼터	27	74.1	48.1	11.1	25.9	22.2	7.4	3.7
	소년보호시설	13	46.2	38.5	7.7	7.7	15.4	0.0	7.7
영어	전체	163	60.1	42.3	14.7	28.8	23.9	3.1	4.9
	아동양육시설	94	62.8	41.5	14.9	27.7	23.4	1.1	5.3
	공동생활가정	25	64.0	60.0	20.0	40.0	28.0	8.0	0.0
	청소년쉼터	33	60.6	33.3	12.1	30.3	21.2	6.1	9.1
	소년보호시설	11	27.3	36.4	9.1	9.1	27.3	0.0	0.0
사회	전체	67	44.8	41.8	26.9	38.8	23.9	4.5	6.0
	아동양육시설	38	42.1	39.5	26.3	50.0	23.7	5.3	7.9
	공동생활가정	16	56.3	62.5	31.3	31.3	25.0	6.3	6.3
	청소년쉼터	6	66.7	16.7	16.7	33.3	16.7	0.0	0.0
	소년보호시설	7	14.3	28.6	28.6	0.0	28.6	0.0	0.0
과학	전체	94	57.4	39.4	18.1	30.9	21.3	7.4	6.4
	아동양육시설	53	64.2	41.5	17.0	35.8	20.8	9.4	7.5
	공동생활가정	16	43.8	50.0	25.0	31.3	25.0	0.0	0.0
	청소년쉼터	16	68.8	31.3	12.5	25.0	12.5	12.5	12.5
	소년보호시설	9	22.2	22.2	22.2	11.1	33.3	0.0	0.0
예체능	전체	175	81.7	26.9	3.4	8.0	7.4	13.1	8.0
	아동양육시설	106	82.1	28.3	1.9	6.6	9.4	14.2	7.5
	공동생활가정	21	90.5	28.6	4.8	14.3	9.5	9.5	9.5
	청소년쉼터	32	84.4	18.8	6.3	12.5	3.1	12.5	9.4
	소년보호시설	16	62.5	31.3	6.3	0.0	0.0	12.5	6.3

학업성적별로 희망하는 사교육 수강 방법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학원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사회 과목의 경우 성적이 중(보통 수준)인 청소년들에게서 학원보다 과외를 희망한다는 응답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35. 학업성적별 희망하는 사교육 수강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학원	과외	온라인 과외	인터넷 강의	학습지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기관
국어	전체	123	52.0	33.3	16.3	29.3	26.0	6.5	4.9
	상(7~10점)	26	57.7	23.1	7.7	34.6	26.9	0.0	0.0
	중(5~6점)	42	50.0	45.2	7.1	26.2	26.2	7.1	7.1
	하(1~4점)	55	50.9	29.1	27.3	29.1	25.5	9.1	5.5
수학	전체	141	62.4	44.7	12.1	28.4	27.0	5.0	3.5
	상(7~10점)	31	74.2	38.7	3.2	35.5	22.6	0.0	0.0
	중(5~6점)	47	59.6	51.1	12.8	29.8	27.7	8.5	4.3
	하(1~4점)	63	58.7	42.9	15.9	23.8	28.6	4.8	4.8
영어	전체	163	60.1	42.3	14.7	28.8	23.9	3.1	4.9
	상(7~10점)	27	66.7	33.3	11.1	44.4	37.0	0.0	7.4
	중(5~6점)	60	61.7	43.3	8.3	31.7	18.3	3.3	6.7
	하(1~4점)	76	56.6	44.7	21.1	21.1	23.7	3.9	2.6
사회	전체	67	44.8	41.8	26.9	38.8	23.9	4.5	6.0
	상(7~10점)	11	45.5	36.4	9.1	36.4	27.3	0.0	0.0
	중(5~6점)	25	44.0	56.0	36.0	44.0	20.0	8.0	8.0
	하(1~4점)	31	45.2	32.3	25.8	35.5	25.8	3.2	6.5
과학	전체	94	57.4	39.4	18.1	30.9	21.3	7.4	6.4
	상(7~10점)	27	59.3	40.7	7.4	40.7	18.5	0.0	3.7
	중(5~6점)	33	54.5	45.5	24.2	30.3	24.2	12.1	12.1
	하(1~4점)	34	58.8	32.4	20.6	23.5	20.6	8.8	2.9
예체능	전체	175	81.7	26.9	3.4	8.0	7.4	13.1	8.0
	상(7~10점)	24	83.3	12.5	4.2	12.5	16.7	12.5	8.3
	중(5~6점)	67	82.1	32.8	1.5	4.5	4.5	14.9	9.0
	하(1~4점)	84	81.0	26.2	4.8	9.5	7.1	11.9	7.1

(6) 기타

① 혼자 공부하는 시간

시설거주 청소년의 하루 교과 공부 시간은 평균 1.87점으로 하루 1~2시간 공부(27.4%)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3~5시간(25.1%)이 그다음으로 많았는데, 혼자 공부한 시간이 없다는 의견도 20.8%에 달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공동생활가정(2.02시간), 아동양육시설(1.92시간), 청소년쉼터(1.75시간) 청소년의 공부시간이 소년보호시설(1.07시간) 청소년에 비해 길었고,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은 타 시설 청소년에 비해 혼자 공부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혼자 교과 공부를 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표 V-36. 혼자 교과 공부를 하는 평균 시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 수	혼자 공부한 시간 없음	1시간 미만	1~2 시간	2~3 시간	3~5 시간	5시간 이상	평균	t/F 검증
전체		1,053	20.8	8.3	27.4	17.9	25.1	0.6	1.87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0	18.8	7.7	28.6	19.5	24.5	0.9	1.92	4.033 ** a,b,c>d
	공동생활가정[b]	204	17.2	9.3	29.4	15.2	28.9	0.0	2.02	
	청소년쉼터[c]	156	24.4	7.1	24.4	19.9	24.4	0.0	1.75	
	소년보호시설[d]	53	49.1	15.1	13.2	3.8	18.9	0.0	1.07	
학업 성적	상(7~10점)[a]	186	11.3	5.9	22.0	21.5	38.2	1.1	2.53	28.457 *** a>b>c
	중(4~6점)[b]	387	15.0	6.5	28.4	20.2	29.5	0.5	2.10	
	하(0~3점)[c]	480	29.2	10.6	28.5	14.8	16.5	0.4	1.43	

*p<.05, **p<.01, ***p<.0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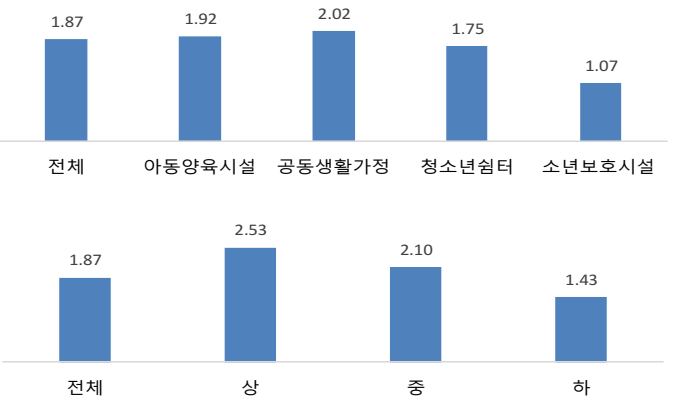


그림 V-18. 혼자 교과 공부를 하는 평균 시간: 시설 유형 및 학업성적별

② 학습 교재 사용 가능 여부

필요한 경우 참고서, 문제집 등 학습 교재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87.0%의 청소년들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여자 청소년(90.0%)에게서, 그리고 공동생활가정(92.2%)과 아동양육시설(90.8%)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높은 수준) 또는 중(보통 수준)인 청소년에게서 학습 교재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V-37. 필요시 학습 교재 사용 가능 여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1)]	t/F검증
전체		1,059	13.0	87.0	3.22	-
성별	남자	558	15.8	84.2	3.17	-2.135*
	여자	501	10.0	90.0	3.27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3	9.2	90.8	3.30	29.345*** a,b>c,d
	공동생활가정[b]	205	7.8	92.2	3.40	
	청소년쉼터[c]	158	30.4	69.6	2.81	
	소년보호시설[d]	53	28.3	71.7	2.79	
학업 성적	상(7~10점)[a]	186	7.5	92.5	3.37	8.765*** a,b>c
	중(4~6점)[b]	391	8.7	91.3	3.28	
	하(0~3점)[c]	482	18.7	81.3	3.12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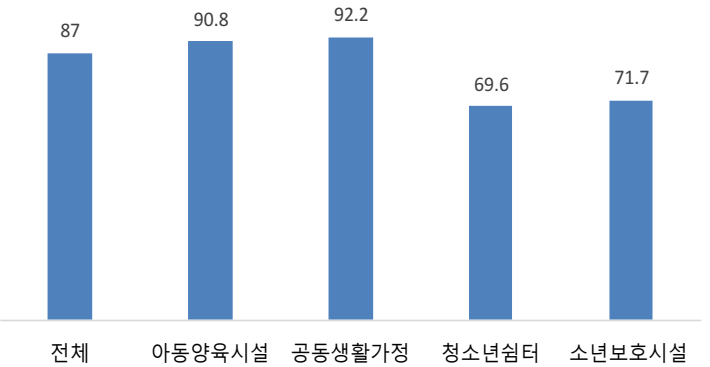


그림 V-19. 필요시 학습 교재 사용 가능 여부

3) 진로·진학

(1) 진로계획 및 희망 교육수준

① 진로계획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향후 진로에 관해 일을 해서 돈을 벌 것(37.6%)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상급학교에 진학(37.5%)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둘 간의 차이는 0.1%p로 차이가 미미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진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19.5%)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진로계획은 성별, 시설 유형, 거주시설 수, 학업성적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V-38. 진로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상급학교 진학	일을 해서 돈을 벌 것[1]	가족이 하는 일을 도움	진학, 취업 하지 않음
일반청소년[2]		2,300	82.2	7.4	0.3	0.3
시설거주 청소년		1,059	37.5	37.6	0.8	2.0
성별	남자	558	34.2	38.2	1.4	2.9
	여자	501	41.1	36.9	0.0	1.0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상급학교 진학	일을 해서 돈을 벌 것[1)]	가족이 하는 일을 도움	진학, 취업 하지 않음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40.0	33.6	0.8	2.5
	공동생활가정	205	41.0	37.6	0.0	1.5
	청소년쉼터	158	27.8	51.3	1.3	0.6
	소년보호시설	53	22.6	45.3	1.9	1.9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38.4	36.3	1.0	2.5
	2개소 이상	376	35.9	39.9	0.3	1.1
학업 성적	상(7~10점)	186	52.7	32.3	0.0	3.8
	중(5~6점)	391	37.6	38.1	0.8	2.8
	하(1~4점)	482	31.5	39.2	1.0	0.6

구분		사례 수	진로 결정 하지 않음	기타 (군입대 등)	학업 (복교, 검정고시 등)	χ^2검증
일반청소년2)		2,300	9.0	0.8	0.0	-
시설거주 청소년		1,059	19.5	1.8	0.9	-
성별	남자	558	20.1	2.3	0.9	17.433 **
	여자	501	18.8	1.2	1.0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20.7	2.2	0.3	50.931 ***
	공동생활가정	205	18.5	1.0	0.5	
	청소년쉼터	158	15.8	0.6	2.5	
	소년보호시설	53	18.9	3.8	5.7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19.0	2.3	0.4	14.146 *
	2개소 이상	376	20.2	0.8	1.9	
학업 성적	상(7~10점)	186	9.1	0.5	1.6	53.278 ***
	중(5~6점)	391	17.1	2.3	1.3	
	하(1~4점)	482	25.3	1.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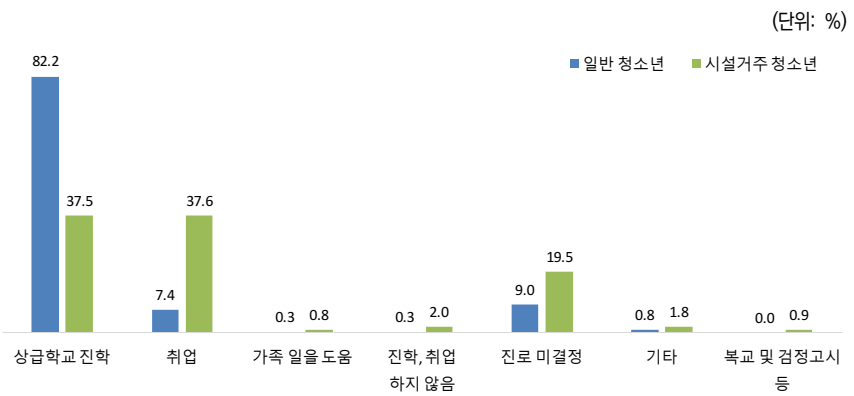
*p<.05, **p<.01, ***p<.001

* 주: 1) 일반청소년의 경우 일을 해서 돈을 벌 것에 대한 응답은 사업·창업·알바에 대한 응답률을 합친 것임.
2)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이상정, 이주연 외, 2023)의 연구 결과 중 12~17세의 응답률임.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에 비해 상급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거주 경험이 있는 시설이 1개인

청소년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이 높고, 복수의 시설거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상(높은 수준)인 청소년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고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응답이 적은 반면, 학업성적이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응답과 진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군입대가 가장 많았고, 운동선수나 직업훈련을 받겠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82.2%가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는 것에 비해 시설거주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37.5%만이 상급학교 진학을 언급하였다. 반면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시설거주 청소년은 일반청소년(7.4%)의 5배 이상(37.6%), 진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일반청소년(9.0%)의 2배 이상(19.5%)이었다. 일반청소년의 응답이 12~17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일반청소년들은 좀 더 어린 나이에 진로를 결정하는 반면,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학령이 되어서도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진로계획 수립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이상정, 이주연 외, 2023)의 연구 결과 중 12~17세의 응답률임.

그림 V-20. 진로계획

② 희망 교육수준

향후 희망하는 교육수준에 대해 청소년들은 4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교) 이상 희망자는 69%이다. 4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희망하는 비율은 남자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에 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에게서, 성적이 낮은 청소년보다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에게서 유의하게 비율이 높았다. 성적이 하(낮은 수준)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2~3년제 대학교를 선호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거주 청소년의 희망 교육수준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희망하는 청소년(28.1%)의 비율은 일반청소년 비율의 4배 이상이었으며, 2~3년제 대학을 희망하는 비율(28.9%)도 일반청소년의 3배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희망하는 비율(40.1%)은 일반청소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학원 이상 석사, 박사학위를 희망하는 경우(2.8%) 역시 일반청소년의 4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낮음을 볼 수 있다.

표 V-39. 희망 교육수준: 본인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2~3년제)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χ^2검증
일반청소년[1)]		2,300	6.7	8.0	78.1	7.3		-
시설거주 청소년		1,059	28.1	28.9	40.1	1.5	1.3	-
성별	남자	558	32.1	26.0	38.9	0.9	2.2	19.489**
	여자	501	23.8	32.1	41.5	2.2	0.4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26.1	29.5	42.0	1.6	0.8	33.356**
	공동생활가정	205	22.0	31.2	43.4	2.0	1.5	
	청소년쉼터	158	41.1	22.8	31.0	1.3	3.8	
	소년보호시설	53	37.7	30.2	32.1	0.0	0.0	
학업 성적	상(7~10점)	186	22.0	18.8	54.3	2.7	2.2	43.972***
	중(5~6점)	391	23.5	30.2	43.2	2.0	1.0	
	하(1~4점)	482	34.2	31.7	32.2	0.6	1.2	

*p<.05, **p<.01, ***p<.001

* 주: 1)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이상정 외, 2023)의 연구 결과 중 12~17세의 응답률임.

본인의 희망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시설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시설 선생님들은 4년제 이상 및 2~3년제 대학교까지(77.9%) 교육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본인이 희망하는 비율(69.0%)에 비해 8.9%p 더 높았다. 시설

선생님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들이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길 희망하는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2~3년제 및 4년제 이상 대학교까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0. 희망 교육수준: 시설 선생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2~3년제)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χ^2검증
전체		1,059	20.3	33.1	44.8	0.8	1.1	-
성별	남자	558	23.3	31.2	43.0	0.7	1.8	11.806*
	여자	501	17.0	35.1	46.7	0.8	0.4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17.3	34.5	47.1	0.5	0.6	55.971 ***
	공동생활가정	205	15.6	30.7	50.2	2.4	1.0	
	청소년쉼터	158	36.7	29.7	30.4	0.0	3.2	
	소년보호시설	53	26.4	34.0	37.7	0.0	1.9	
학업 성적	상(7~10점)	186	14.5	21.0	63.4	0.0	1.1	51.421 ***
	중(5~6점)	391	17.1	33.5	47.1	1.5	0.8	
	하(1~4점)	482	25.1	37.3	35.7	0.4	1.5	

*p<.05, **p<.01, ***p<.001

본인과 시설 선생님 간에 희망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본인과 선생님의 희망 교육수준이 일치하는 비율이 71.4%로 가장 많았다. 선생님의 희망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는 18.2%이고, 본인의 희망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경우는 10.4%였다.

표 V-41. 본인과 시설 선생님 간 희망 교육수준의 차이

(단위: 명, %)

	본인의 희망 교육수준이 더 높음	본인과 선생님의 희망 교육수준이 일치함	선생님의 희망 교육수준이 더 높음	전체
사례 수	110	756	193	1,059
비율	10.4	71.4	18.2	100.0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희망 교육수준에 따른 주당 수강시간 및 하루 평균 공부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희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당 사교육 수강시간과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에 대한 목표가 높을수록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표 V-42. 본인의 희망 교육수준에 따른 주당 수강시간 및 하루 평균 공부시간의 차이

(단위: 명, 시간)

구분	주당 수강시간			하루 평균 공부시간		
	사례 수	평균	t/F검증	사례 수	평균	t/F검증
전체	662	8.10		1,053	1.87	-
고등학교 이하[a]	138	5.05	16.783	296	1.29	22.654
대학교 이하(2~3년제, 4년제)[b]	501	8.86	***	727	2.07	***
대학원(석, 박사)[c]	23	9.96	b,c>a	30	2.85	c>b>a

*p<.05, **p<.01, ***p<.001

(2) 진학·진로를 결정 시 도움을 받는 대상 및 도움 정도

진학·진로를 결정할 때 시설거주 청소년들 중 85.8%는 시설 선생님과 의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 등 학교 선생님과 의논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83.8%, 진로교사 및 상담교사 등 학교 선생님과 의논한 비율은 85.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43. 진학·진로 결정 시 의논 및 정보제공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없다	있다	평균[1)]
학교 선생님(담임·교과교사)	1,059	5.5	10.8	48.0	35.8	16.2	83.8	3.14
학교 선생님(진로·상담교사)	1,059	8.5	18.0	42.8	30.7	26.5	73.5	2.96
시설 선생님	1,059	4.3	9.8	42.3	43.5	14.2	85.8	3.25
외부 공공기관 선생님	1,059	21.2	26.2	35.9	16.8	47.3	52.7	2.48
민간(사설)기관 선생님	1,059	26.1	26.1	30.7	17.2	52.1	47.9	2.39
친구·선후배 등	1,059	13.2	18.7	44.0	24.1	31.9	68.1	2.79
인터넷 진로 사이트 등	1,059	27.8	24.3	30.8	17.2	52.0	48.0	2.37
기타	1,059	42.0	21.0	24.7	12.3	63.0	37.0	2.07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며 응답률 중 '없다'는 전혀 없다+별로 없다, '있다'는 약간 있다+매우 있다의 합임.

진학·진로 결정 시 의논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진로교사 및 상담교사 등 학교 선생님과 의논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시설 선생님, 친구 및 선후배 등과의 의논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진학 및 진로를 결정할 때 의논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시설 선생님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44. 진학·진로 결정 시 도움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됨	평균[1)]
학교 선생님(담임·교과교사)	887	0.7	5.0	49.4	45.0	5.6	94.4	3.39
학교 선생님(진로·상담교사)	778	1.4	4.8	50.9	42.9	6.2	93.8	3.35
시설 선생님	909	1.1	5.6	45.3	48.0	6.7	93.3	3.40
외부 공공기관 선생님	558	4.3	10.8	47.0	38.0	15.1	84.9	3.19
민간(사설)기관 선생님	507	2.8	10.3	46.0	41.0	13.0	87.0	3.25
친구·선후배 등	721	1.8	7.2	56.7	34.3	9.0	91.0	3.23
인터넷 진로 사이트 등	508	2.6	9.1	48.2	40.2	11.6	88.4	3.26
기타	392	2.6	6.1	53.3	38.0	8.7	91.3	3.27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며 응답률 중 '도움되지 않음'은 전혀+별로 도움되지 않음, '도움 됨'은 약간+매우 도움 됨의 합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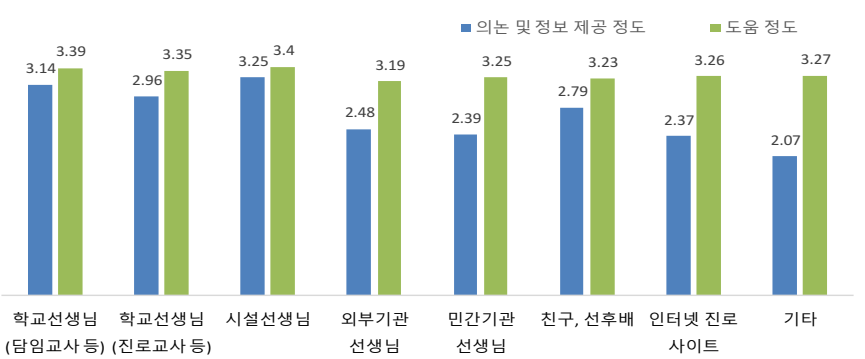


그림 V-21. 진학·진로 결정 시 의논·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도움 정도

기관유형에 따라 진학·진로 결정 시 도움을 받은 정도를 비교한 결과 공동생활가정의 청소년들은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를 포함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제공받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에 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청소년들은 진로담당교사 및 상담교사를 포함한 학교 선생님, 시설 선생님, 외부 진로 관련 공공기관 및 센터 선생님, 친구 및 선후배로부터 정보를 많이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민간기관 선생님이나 인터넷 진로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았다. 다만 사후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대상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도에는 시설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성적이 상(높은 수준) 또는 중(보통 수준)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진로담당교사 및 상담교사 등을 포함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 및 선후배로부터 진로 관련 의견 및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중(보통 수준)인 청소년들은 성적이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에 비해 외부 진로 관련 공공기관 선생님, 민간기관 선생님, 인터넷 진로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았다. 그러나 시설 선생님으로부터 얻는 의견이나 정보는 학업성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학·진로 결정 시 도움을 받은 정도는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상(높은 수준) 또는 중(보통 수준)인 청소년들은 성적이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 선생님, 시설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의견이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업성적이 중(보통 수준)인 청소년들은 성적이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에 비해 외부 진로 관련 공공기관 선생님, 친구 및 선후배, 인터넷 진로 사이트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5. 기관유형에 따른 진학·진로 결정 시 정보제공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의견 및 정보제공 정도			도움 정도		
		사례 수	평균	t/F 검증	사례 수	평균	t/F 검증
학교 선생님 (담임·교과교사)	전체	1,059	3.14	-	887	3.39	-
	아동양육시설[a]	643	3.21	18.028*** a,b>c>d	558	3.42	4.808**
	공동생활가정[b]	205	3.27		180	3.43	
	청소년쉼터[c]	158	2.90		116	3.22	
	소년보호시설[d]	53	2.55		33	3.18	
학교 선생님 (진로·상담교사)	전체	1,059	2.96	-	778	3.35	-
	아동양육시설[a]	643	3.03	13.511*** a,b,c>d	492	3.40	3.683*
	공동생활가정[b]	205	3.05		156	3.35	
	청소년쉼터[c]	158	2.75		104	3.17	
	소년보호시설[d]	53	2.34		26	3.27	
시설 선생님	전체	1,059	3.25	-	909	3.40	-
	아동양육시설[a]	643	3.27	12.980*** a,b,c>d	561	3.40	2.646*
	공동생활가정[b]	205	3.40		184	3.49	
	청소년쉼터[c]	158	3.17		132	3.29	
	소년보호시설[d]	53	2.66		32	3.41	
외부 공공기관 선생님	전체	1,059	2.48	-	558	3.19	-
	아동양육시설[a]	643	2.56	6.553*** a,b,c>d	365	3.22	2.193
	공동생활가정[b]	205	2.40		94	3.22	
	청소년쉼터[c]	158	2.44		81	3.06	
	소년보호시설[d]	53	1.98		18	2.83	
민간(사설)기관 선생님	전체	1,059	2.39	-	507	3.25	-
	아동양육시설[a]	643	2.53	14.326*** a>c>d	348	3.28	1.341
	공동생활가정[b]	205	2.29		91	3.29	
	청소년쉼터[c]	158	2.15		55	3.11	
	소년보호시설[d]	53	1.75		13	3.00	
친구·선후배 등	전체	1,059	2.79	-	721	3.23	-
	아동양육시설[a]	643	2.88	7.820*** a,b,c>d	467	3.23	2.232
	공동생활가정[b]	205	2.74		130	3.34	
	청소년쉼터[c]	158	2.66		99	3.16	
	소년보호시설[d]	53	2.30		25	3.04	
인터넷 진로 사이트 등	전체	1,059	2.37	-	508	3.26	-
	아동양육시설[a]	643	2.55	21.692*** a>c>d	353	3.26	0.766
	공동생활가정[b]	205	2.26		92	3.33	
	청소년쉼터[c]	158	2.10		57	3.18	
	소년보호시설[d]	53	1.55		6	3.00	

*p<.05, **p<.01, ***p<.001

표 V-46. 학업성적에 따른 진학·진로 결정 시 정보제공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의견 및 정보제공 정도			도움 정도		
		사례 수	평균	t/F 검증	사례 수	평균	t/F 검증
학교 선생님 (담임·교과교사)	전체	1,059	3.14	-	887	3.39	-
	상(7~10점)[a]	186	3.30	13.397	167	3.52	13.560
	중(4~6점)[b]	391	3.24	***	339	3.45	***
	하(0~3점)[c]	482	3.00	a,b>c	381	3.27	a,b>c
학교 선생님 (진로·상담교사)	전체	1,059	2.96	-	887	3.39	-
	상(7~10점)[a]	186	3.09	17.215	167	3.48	12.052
	중(4~6점)[b]	391	3.11	***	339	3.43	***
	하(0~3점)[c]	482	2.78	a,b>c	381	3.22	a,b>c
시설 선생님	전체	1,059	3.25	-	887	3.39	-
	상(7~10점)[a]	186	3.26	2.326	167	3.46	8.020
	중(4~6점)[b]	391	3.31		339	3.49	***
	하(0~3점)[c]	482	3.20		381	3.31	a,b>c
외부 공공기관 선생님	전체	1,059	2.48	-	887	3.39	-
	상(7~10점)[a]	186	2.53	4.952	167	3.22	5.063**
	중(4~6점)[b]	391	2.59	**	339	3.30	b>c
	하(0~3점)[c]	482	2.38	b>c	381	3.07	
민간(사설)기관 선생님	전체	1,059	2.39	-	887	3.39	-
	상(7~10점)[a]	186	2.46	5.356	167	3.34	3.290*
	중(4~6점)[b]	391	2.50	**	339	3.31	
	하(0~3점)[c]	482	2.28	b>c	381	3.15	
친구·선후배 등	전체	1,059	2.79	-	887	3.39	-
	상(7~10점)[a]	186	2.88	12.370	167	3.27	8.107***
	중(4~6점)[b]	391	2.94	***	339	3.33	b>c
	하(0~3점)[c]	482	2.63	a,b>c	381	3.12	
인터넷 진로 사이트 등	전체	1,059	2.37	-	887	3.39	-
	상(7~10점)[a]	186	2.44	7.991	167	3.28	4.500*
	중(4~6점)[b]	391	2.51	***	339	3.36	***
	하(0~3점)[c]	482	2.23	b>c	381	3.15	b>c

*p<.05, **p<.01, ***p<.001

(3) 장래 희망 직업

① 장래 희망 직업 여부

시설거주 청소년들 중 66.7%는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였다고 응답하여 2/3가량의 청소년들이 희망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이 6.1%p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47.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	χ^2검증
전체		1,059	66.7	33.3	-
성별	남자	558	63.8	36.2	4.364*
	여자	501	69.9	30.1	
학업 성적	상(7~10점)	186	78.5	21.5	24.466***
	중(5~6점)	391	69.8	30.2	
	하(1~4점)	482	59.5	40.5	

*p<.05, **p<.01, ***p<.001

장래 희망 직업으로는 사회복지사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으며, 제과제빵사(파티시에), 간호사, 바리스타, 미용사, 요리사, 군인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V-22. 장래 희망 직업

② 장래 희망 직업과 적성·흥미 간 일치 여부

장래 희망 직업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93.6%는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2.8%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5%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였는지, 진로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고 고민을 한 후 목표를 설정하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48. 장래 희망 직업과 적성·흥미 간 일치 여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평균[1)]
전체	706	0.7	2.1	34.7	58.9	3.5	3.57

* 주: 1) 평균값은 잘 모르겠음을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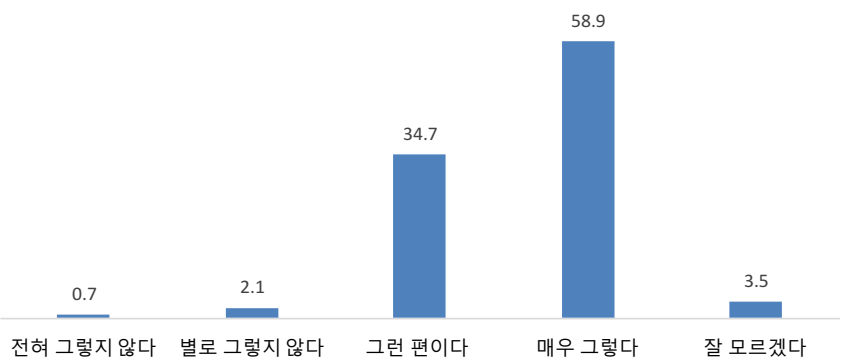


그림 V-23. 장래 희망 직업과 적성·흥미 간 일치 여부

③ 장래 희망 직업을 위한 노력 여부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하루 평균 공부시간과 미래 결정요인[78)]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정하지 않았다

78) 미래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이 절(3)진로, 진학)의 후반부에 서술되어 있음.

는 청소년에 비해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았고, 자신의 미래가 환경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였다. 즉 자신의 장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이 미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49.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에 따른 하루 평균 공부시간 및 미래 결정요인 차이

(단위: 명, 분, 점)

구분		하루 평균 공부시간			미래 결정요인[1]		
		사례 수	평균	t/F검증	사례 수	평균	t/F검증
전체		1,053	1.87		1,059	4.44	-
장래 희망 직업	정하였음	703	2.05	4.310***	706	4.29	-2.632**
	정하지 않았음	350	1.52		353	4.75	

*p<.05, **p<.01, ***p<.001

* 주: 1) 미래 결정요인은 나의 미래가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나타내며 평균 점수 범위는 1~10점임.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 중 장래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 기준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67.3%였다. 자격 기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 기준을 잘 알고 있었다.

표 V-50. 장래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 기준 인지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잘 모른다	보통이다	잘 안다	평균[1]	t/F검증
전체		706	5.1	27.6	67.3	7.12	-
학업 성적	상(7~10점)[a]	146	3.4	21.9	74.7	7.53	9.523** a,b>c
	중(4~6점)[b]	273	3.3	24.9	71.8	7.33	
	하(0~3점)[c]	287	7.7	33.1	59.2	6.71	

*p<.05, **p<.01, ***p<.001

* 주: 1) 평균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며 '잘 모른다'는 0~3점, '보통이다'는 4~6점, '잘 안다'는 7~10점으로 나누어 봄.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들이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56.8%가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준비 정도는 시설 유형 및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의 준비 정도 점수가 더 낮았다. 이러한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에 대한 준비 정도는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성적이 상(높은 수준), 중(보통 수준)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하(낮은 수준)에 속하는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표 V-51. 장래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기술 준비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준비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준비한다	평균[1]	t/F검증
전체		706	7.5	35.7	56.8	6.70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441	7.0	34.7	58.3	6.76	4.288 ** a,b,c>d
	공동생활가정[b]	139	6.5	37.4	56.1	6.78	
	청소년쉼터[c]	97	7.2	35.1	57.7	6.73	
	소년보호시설[d]	29	20.7	44.8	34.5	5.31	
학업 성적	상(7~10점)[a]	146	4.1	25.3	70.5	7.25	13.063 *** a,b>c
	중(4~6점)[b]	273	4.4	38.5	57.1	6.89	
	하(0~3점)[c]	287	12.2	38.3	49.5	6.23	

*p<.05, **p<.01, ***p<.001

* 주: 1) 평균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며 응답률은 '준비하지 않는다'(0~3점), '보통이다'(4~6점), '준비한다'(7~10점)로 나누어 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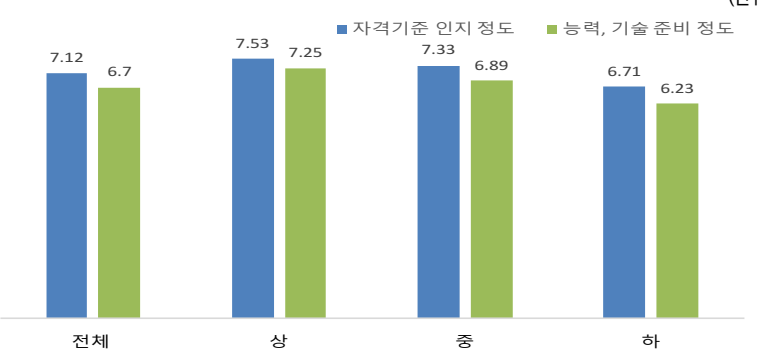


그림 V-24. 학업성적별 장래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 기준 인지 및 능력·기술 준비 정도

④ 현재 전공 및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 간의 일치 정도

특목고, 특성화고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전공이 장래 희망 직업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56.9%가 일치한다(일치하는 편이다+매우 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다(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일치하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도 24.1%에 달하여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진로에 대해 보다 충분한 숙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52. 전공과 장래 희망 직업 간 일치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일치하는 편이다	매우 일치한다	평균[1)]
전체	304	13.2	10.9	19.1	22.7	34.2	3.54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5점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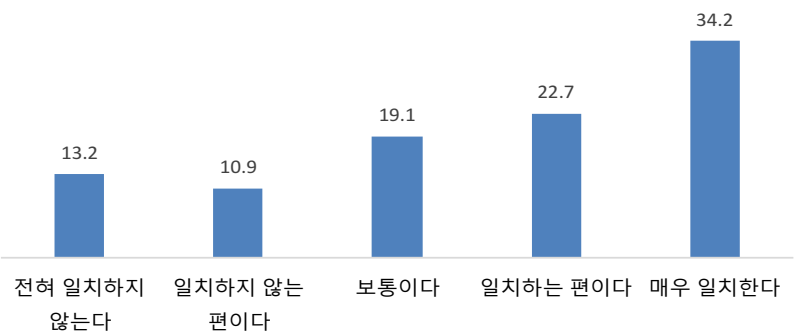


그림 V-25. 전공과 장래 희망 직업 간 일치 정도

시설거주 청소년 중 학생,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1.4%(15명)였으며, 이들의 현재 직업은 육상, 양궁, 유도 등 운동선수 및 검도교범, 생산 및 시설관리 종사자,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사 등이었다.

표 V-53. 직업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059	1.4	98.6

현재 직업을 가진 청소년들 중 자신의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이 일치하는 경우는 73.3%였는데, 아동양육시설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 중 90% 이상이 일치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동생활가정과 청소년쉼터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V-54. 현재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 간 일치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χ^2검증
전체		15	73.3	26.7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11	90.9	9.1	6.942*
	공동생활가정	3	33.3	66.7	
	청소년쉼터	1	0.0	100.0	
	소년보호시설	0	0.0	0.0	

*p<.05, **p<.01, ***p<.001

현재 직업을 가진 청소년들 중 현재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이 불일치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는 희망 직업에 맞는 자격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이 불일치한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현재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 중이기 때문에 희망 직업은 장래성이 없거나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희망 직업에 도달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희망 직업이 있으나 현실에 맞추어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55. 현재 직업과 장래 희망 직업 간 불일치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현재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 중이어서	희망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현재 내 상황에서 희망 직업에 맞는 자격을 갖추기 어려워서	희망 직업은 장래성이 없거나 안정적이지 않아서
전체	4	25.0	0.0	50.0	25.0

(4) 직업 선택 및 자격증 취득

① 직업 선택 시 기준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경제적 수입(24.3%), 자신의 적성(18.8%), 안정성(17.3%), 자신의 능력(13.0%), 일과 삶의 균형(6.8%) 등의 순이었다. 직업 선택 시 고려 사항의 순위는 모든 집단에서 대체로 유사하나, 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경제적 수입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던 데 비해 안정성을 선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비율이 높았고, 일과 삶의 균형, 의사결정권, 자아성취, 자율성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경제적 수입이나 자신의 능력을 좀 더 고려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타 시설 유형에 비해 대중적 인기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도 좀 더 높았다. 한편 공동생활가정이나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다른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는 비율이 낮은 대신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하는 비율은 좀 더 높았다.

표 V-56.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자신의 능력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안정성	직업의 장래성	의사 결정권	경제적 수입
전체		1,059	13.0	1.5	0.9	17.3	2.3	2.0	24.3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14.8	1.6	1.1	18.7	2.2	1.9	20.4
	공동생활가정	205	8.8	2.4	0.5	17.1	2.0	3.4	23.9
	청소년쉼터	158	8.9	0.0	0.0	13.3	3.2	1.3	35.4
	소년보호시설	53	20.8	1.9	3.8	13.2	1.9	0.0	39.6

구분		창의성 발휘	자신의 적성	자아 성취	사회 기여도	일과 삶 균형	자율성	기타	χ^2검증
전체		2.4	18.8	2.7	2.4	6.8	5.3	0.4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2.8	19.4	2.8	2.6	5.6	5.6	0.6	69.370 **
	공동생활가정	1.5	20.5	1.5	2.0	9.8	6.8	0.0	
	청소년쉼터	1.3	16.5	5.1	1.9	9.5	3.8	0.0	
	소년보호시설	3.8	11.3	0.0	1.9	1.9	0.0	0.0	

*p<.05, **p<.01, ***p<.001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도 경제적 수입, 적성, 안정성, 자신의 능력,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에 비해 안정성, 자아성취, 자율성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 적성을 고려하는 비율이 남자에 비해 높았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은 직업의 장래성, 적성,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은 자아성취를,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은 경제적 수입과 자신의 능력,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의 순위는 동일하였으나, 상(높은 수준)인 청소년들은 경제적 수입, 안정성, 자신의 적성,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한 사항으로 선택한 반면 중(보통 수준) 청소년들은 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위, 의사결정권, 창의성 발휘, 자율성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적이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 자아성취 등의 특성을 고려하는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V-57.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자신의 능력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안정성	직업의 장래성	의사 결정권	경제적 수입
전체		1,059	24.7	4.2	2.3	32.7	5.5	3.8	44.5
성별	남자	558	22.4	3.9	2.5	34.1	5.6	3.4	44.8
	여자	501	27.3	4.4	2.0	31.1	5.4	4.2	44.1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26.6	4.5	2.3	33.0	5.4	4.0	41.1
	공동생활가정	205	18.0	2.9	1.5	32.2	7.3	3.9	46.3
	청소년쉼터	158	21.5	3.8	2.5	32.3	3.8	3.8	50.6
	소년보호시설	53	37.7	5.7	3.8	32.1	3.8	0.0	60.4
학업 성적	상(7~10점)	186	19.9	3.8	2.2	34.4	6.5	2.7	47.8
	중(5~6점)	391	24.3	5.4	2.0	30.7	5.9	5.6	44.8
	하(1~4점)	482	27.0	3.3	2.5	33.6	4.8	2.7	42.9

구분		사례 수	창의성 발휘	자신의 적성	자아 성취	사회 기여도	일과 삶 균형	자율성	기타
전체		1,059	5.2	36.9	6.6	5.4	15.1	11.9	1.3
성별	남자	558	5.6	33.5	8.1	5.7	15.2	14.2	1.1
	여자	501	4.8	40.7	5.0	5.0	15.0	9.4	1.6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5.4	37.0	6.7	5.9	14.5	11.8	1.7
	공동생활가정	205	4.9	42.0	3.9	5.4	19.0	12.7	0.0
	청소년쉼터	158	4.4	35.4	10.8	3.8	15.2	12.0	0.0
	소년보호시설	53	5.7	20.8	3.8	3.8	7.5	9.4	5.7
학업 성적	상(7~10점)	186	4.3	40.9	4.8	5.9	17.2	9.1	0.5
	중(5~6점)	391	6.6	35.3	6.1	5.1	14.1	13.3	0.8
	하(1~4점)	482	4.4	36.7	7.7	5.4	15.1	11.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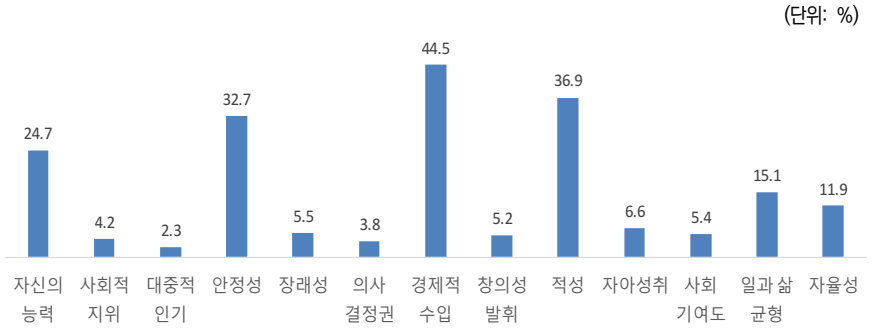


그림 Ⅴ-26.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2순위)

② 자격증 준비 및 취득 여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준비하거나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 청소년은 46.1%였으며, 과반이 넘는 청소년들은 취득했거나 준비 중인 자격증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상(높은 수준)인 청소년들 중 절반이 넘는 53.2%의 청소년들은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성적이 낮은 수준에 속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준비하거나 취득한 자격증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졌다.

표 V-58. 현재 준비 중이거나 취득한 자격증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χ^2검증
전체		1,059	46.1	53.9	-
학업 성적	상(7~10점)	186	53.2	46.8	9.274*
	중(5~6점)	391	48.6	51.4	
	하(1~4점)	482	41.3	58.7	

*p<.05, **p<.01, ***p<.0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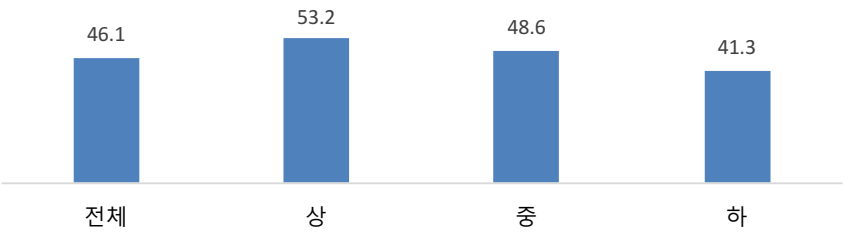


그림 V-27. 현재 준비 중이거나 취득한 자격증 유무

청소년들이 준비 중이거나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 중 가장 많은 것은 바리스타 자격증이었고, 그다음으로는 ITQ(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정보기술자격) 자격증이었다. 서술형 응답에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으로 작성한 항목이 ITQ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일 경우 ITQ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한 청소년의 비율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한 청소년 비율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제과 및 제빵 기능사, 조리기능사, 간호사(간호조무사), 헤어 및 피부 미용자격증, 전기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준비·취득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림 V-28. 현재 준비 중이거나 취득한 자격증 종류

현재 준비 중이거나 취득한 자격증이 현재 직업이나 장래 희망 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 76.9%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시설 유형이나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취득한 자격증이 현재 직업이나 장래 희망 직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성적이 상(높은 수준)이거나 중(보통 수준)인 청소년 역시 성적이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에 비해 현재 준비 중이거나 취득한 자격증이 현재 및 장래 직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는데, 이는 성적이 높은 수준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희망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했기 때문일 수 있다.

표 V-59. 준비·취득 자격증이 현재 직업 또는 장래 희망 직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1)]	t/F 검증
전체		488	5.9	17.2	44.3	32.6	3.03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282	4.3	16.0	45.0	34.8	3.10	6.674 *** a,b>d
	공동생활가정[b]	98	2.0	14.3	48.0	35.7	3.17	
	청소년쉼터[c]	84	13.1	23.8	34.5	28.6	2.79	
	소년보호시설[d]	24	16.7	20.8	54.2	8.3	2.54	
학업 성적	상(7~10점)[a]	99	4.0	13.1	44.4	38.4	3.17	6.074 ** a,b>c
	중(4~6점)[b]	190	4.7	14.2	44.2	36.8	3.13	
	하(0~3점)[c]	199	8.0	22.1	44.2	25.6	2.87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5) 진로 준비

① 진로 준비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직업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진로탐색 과정에서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그 직업에 대해 알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0.7%(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였고, 주변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62.7%였다. 주변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응답은 거주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공동생활가정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은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표 V-60. 진로준비: 시설 유형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1]	t/F 검증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전체	1,059	39.3	60.7	2.69	-
	아동양육시설	643	38.9	61.1	2.70	1.968
	공동생활가정	205	38.5	61.5	2.70	
	청소년쉼터	158	38.6	61.4	2.76	
	소년보호시설	53	49.1	50.9	2.40	
나는 주변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전체	1,059	37.3	62.7	2.75	-
	아동양육시설[a]	643	37.6	19.9	2.76	3.338 * b>d
	공동생활가정[b]	205	31.7	22.0	2.85	
	청소년쉼터[c]	158	40.5	16.5	2.66	
	소년보호시설[d]	53	45.3	13.2	2.49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며 응답률 중 '그렇지 않다'는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합임.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진로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었는데 학업성적이 상(높은 수준), 중(보통 수준)에 속한 청소년은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에 비해 관심 있는 직업 종사자를 만나서 직업에 대해 알아본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표 V-61. 진로준비: 학업성적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1]	t/F 검증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전체	1,059	39.3	60.7	2.69	-
	상(7~10점)[a]	186	32.3	67.7	2.89	19.680 *** a,b>c
	중(4~6점)[b]	391	32.7	67.3	2.85	
	하(0~3점)[c]	482	47.3	52.7	2.50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1]	t/F 검증
나는 주변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전체	1,059	37.3	62.7	2.75	-
	상(7~10점)[a]	186	34.9	65.1	2.88	8.971 *** a,b>c
	중(4~6점)[b]	391	31.7	68.3	2.84	
	하(0~3점)[c]	482	42.7	57.3	2.63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며 응답률 중 '그렇지 않다'는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합임.

② 진로 의식: 미래 결정 요인 및 진로 태도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환경보다는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 미래의 삶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미래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각은 성별이나 시설 유형, 학업성적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Ⅴ-62. 미래 결정 요인: 개인 대 환경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결정	보통	환경에 의해 결정	평균[1]
전체	1,059	53.9	23.2	22.9	4.44

* 주: 1)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결정'은 1~4점, '보통'은 5~6점, '환경에 의해 결정'은 7~10점임.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많이 배울수록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돈을 일찍 벌고 싶고,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진로 설정에 있어서는 시설 선생님보다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따르는 편이었다. 이러한 진로에 대한 태도는 시설 유형이나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V-63. 진로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1)]
많이 배울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1,059	1.9	9.9	59.4	28.8	3.15
돈을 일찍 벌고 싶다	1,059	1.1	14.8	45.9	38.1	3.21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모른다	1,059	14.5	39.8	35.5	10.1	2.41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 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시설 선생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1,059	24.9	41.7	25.0	8.3	2.17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히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돈을 일찍 벌고 싶다는 응답은 쉼터 및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의 순이었다.

표 V-64. 기관유형에 따른 진로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1)]	t/F 검증
많이 배울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전체	1,059	11.8	88.2	3.15	-
	아동양육시설	643	11.8	88.2	3.16	1.025
	공동생활가정	205	9.8	90.2	3.19	
	청소년쉼터	158	13.3	86.7	3.12	
	소년보호시설	53	15.1	84.9	3.02	
돈을 일찍 벌고 싶다	전체	1,059	16.0	84.0	3.21	-
	아동양육시설[a]	643	18.0	82.0	3.16	4.870** a,b,d,c
	공동생활가정[b]	205	17.6	82.4	3.20	
	청소년쉼터[c]	158	8.9	91.1	3.38	
	소년보호시설[d]	53	5.7	94.3	3.38	

구분		사례 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1]	t/F 검증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모른다	전체	1,059	54.4	45.6	2.41	-
	아동양육시설[a]	643	53.0	47.0	2.45	5.499** d>b
	공동생활가정[b]	205	63.9	36.1	2.22	
	청소년쉼터[c]	158	55.1	44.9	2.41	
	소년보호시설[d]	53	32.1	67.9	2.68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 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시설 선생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전체	1,059	66.7	33.3	2.17	-
	아동양육시설	643	65.0	35.0	2.19	0.812
	공동생활가정	205	69.8	30.2	2.12	
	청소년쉼터	158	67.1	32.9	2.20	
	소년보호시설	53	73.6	26.4	2.02	

*p<.05, **p<.01, ***p<.001

* 주: 1)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그런 편이다+그렇다임.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학업성적이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은 상(높은 수준)인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V-65. 학업성적에 따른 진로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1]	평균
많이 배울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전체	1,059	11.8	88.2	3.15	-
	상(7~10점)	186	11.8	88.2	3.18	2.075
	중(5~6점)	391	10.0	90.0	3.19	
	하(1~4점)	482	13.3	86.7	3.11	
돈을 일찍 벌고 싶다	전체	1,059	16.0	84.0	3.21	-
	상(7~10점)	186	12.9	87.1	3.24	1.861
	중(5~6점)	391	14.8	85.2	3.26	
	하(1~4점)	482	18.0	82.0	3.16	

구분		사례 수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1)]	평균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모른다	전체	1,059	54.4	45.6	2.41	-
	상(7~10점)[a]	186	65.1	34.9	2.26	6.329 ** c>a
	중(4~6점)[b]	391	56.8	43.2	2.37	
	하(0~3점)[c]	482	48.3	51.7	2.51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 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시설 선생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전체	1,059	66.7	33.3	2.17	-
	상(7~10점)	186	70.4	29.6	2.09	1.581
	중(5~6점)	391	67.0	33.0	2.15	
	하(1~4점)	482	64.9	35.1	2.22	

*p<.05, **p<.01, ***p<.001

* 주: 1)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그런 편이다+그렇다임

4) 정보활용능력

(1) 컴퓨터·태블릿 사용 방법

① 컴퓨터·태블릿 소유 여부

필요시 컴퓨터·태블릿 사용 가능 정도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태블릿의 소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있는 반면 시설 내 공용 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24.3%, 기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6.7%였다.

표 V-66. 컴퓨터·태블릿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나 혼자 사용	시설 내 공동 사용	없다	χ^2검증
전체		1,059	59.0	24.3	16.7	-
성별	남자	558	51.3	29.2	19.5	29.534 ***
	여자	501	67.7	18.8	13.6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65.8	19.9	14.3	84.150***
	공동생활가정	205	62.4	28.8	8.8	
	청소년쉼터	158	39.2	32.3	28.5	
	소년보호시설	53	22.6	35.8	41.5	
지역 규모	대도시	379	56.5	27.7	15.8	11.011*
	중소도시	541	58.4	22.6	19.0	
	읍면지역	139	68.3	21.6	10.1	

구분		사례 수	나 혼자 사용	시설 내 공동 사용	없다	χ^2검증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63.1	22.3	14.6	13.599 **
	2개소 이상	376	51.6	27.9	20.5	
거주 기간	3년 미만	217	41.9	30.0	28.1	40.817 ***
	3~5년	143	60.8	24.5	14.7	
	5~10년	285	63.2	24.9	11.9	
	10년 이상	411	64.5	20.9	14.6	

*p<.05, **p<.01, ***p<.001

시설 유형별 차이를 보면 비교적 장기적으로 생활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이들이 개인용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거주기간에 따른 기기 사용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년보호시설의 경우는 응답자의 41.5%가 개인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태블릿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컴퓨터·태블릿 사용에 제한을 받는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일부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② 컴퓨터·태블릿 사용의 자유 정도

개인용 컴퓨터·태블릿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과제나 정보 검색 등 필요시 언제든 자유롭게 컴퓨터·태블릿이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94.2%)의 응답자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19.4%로 청소년쉼터의 응답률인 10.6%보다는 8.8%p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부분적으로는 6호 처분 청소년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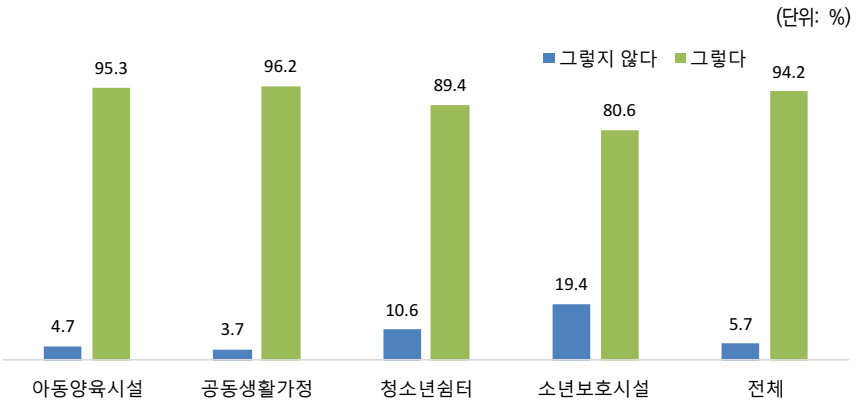


그림 V-29. 필요시 컴퓨터·태블릿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③ 컴퓨터·태블릿 사용 제한 시 대체 방법

컴퓨터·태블릿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시 어떻게 대체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른 기자재(예: 스마트폰)를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26.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주변 PC방 등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한다'(24.1%), '주변 사람에게 빌려 사용한다'(22.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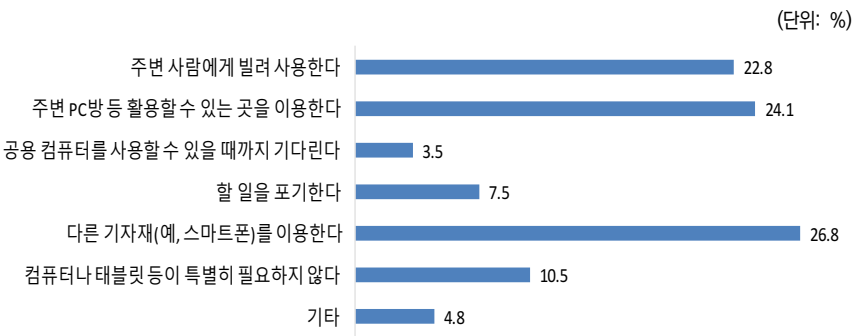


그림 V-30. 컴퓨터·태블릿 필요시 대체 방법

(2) 컴퓨터 활용 능력

전반적인 응답자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를 4점 척도(1점: 할 수 없을 것 같다-4점 할 수 있다)로 응답하게 하였고 각 항목별 응답률은 아래 그림과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거나 매우 잘한다는 응답률을 살펴보면 해당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73.9%)였으며 '학교 과제물 등 필요한 문서나 자료 작성 및 편집'이 70.3%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은 '인터넷 기사에 인용되었으나 URL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출처 찾기'로 55.6%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거나 매우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음향, 그림, 동영상을 넣은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하기'도 응답자의 60.2%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거나 매우 잘한다고 응답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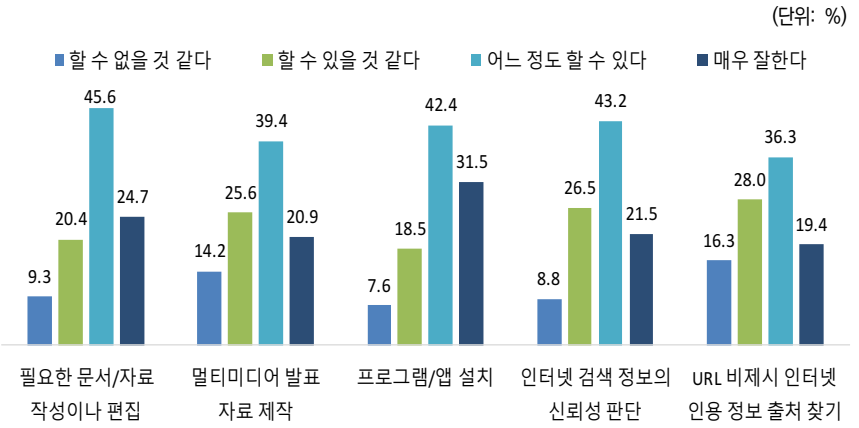


그림 V-31. 컴퓨터 활용 능력

이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항목별로 하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의 차이를 보면 학교 과제물 등 필요한 문서나 자료 작성 및 편집(t=-2.20, p<.05),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t=-2.20,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던 반면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의 신뢰성 판단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V-67. 성별에 따른 컴퓨터 활용 능력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평균[1)]	t/F 검증
문서나 자료 작성·편집	전체	1,059	2.86	-
	남자	558	2.80	-2.200*
	여자	501	2.92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	전체	1,059	2.67	-
	남자	558	2.60	-2.607**
	여자	501	2.75	
프로그램/앱 설치	전체	1,059	2.98	-
	남자	558	3.00	0.865
	여자	501	2.95	
인터넷 검색 정보의 신뢰성 판단	전체	1,059	2.77	-
	남자	558	2.83	2.087*
	여자	501	2.71	
URL이 제시되지 않은 인터넷 인용 정보 출처 찾기	전체	1,059	2.59	-
	남자	558	2.62	1.245
	여자	501	2.55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시설 유형에 따른 컴퓨터 활용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의 활용 능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URL이 제시되지 않은 인터넷 인용 정보 출처 찾기는 평균점수가 1.9점으로 가장 낮았고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 문서나 자료 작성·편집, 인터넷 검색 정보의 신뢰성 판단 항목에서도 중앙값인 2.5점 이하로 나타나 이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낮은 편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반해 청소년쉼터 거주 응답자들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거주 응답자들에 비해 평균 점수가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V-68. 시설 유형에 따른 컴퓨터 활용 능력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평균[1)]	t/F 검증
문서나 자료 작성·편집	전체	1,059	2.86	-
	아동양육시설[a]	643	2.90	13.501*** a,b,c>d
	공동생활가정[b]	205	2.97	
	청소년쉼터[c]	158	2.77	
	소년보호시설[d]	53	2.15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	전체	1,059	2.67	-
	아동양육시설[a]	643	2.73	9.239*** a,b,c>d
	공동생활가정[b]	205	2.72	
	청소년쉼터[c]	158	2.58	
	소년보호시설[d]	53	2.04	
프로그램/앱 설치	전체	1,059	2.98	-
	아동양육시설[a]	643	3.03	6.589*** a,b>d
	공동생활가정[b]	205	3.04	
	청소년쉼터[c]	158	2.84	
	소년보호시설[d]	53	2.55	
인터넷 검색 정보의 신뢰성 판단	전체	1,059	2.77	-
	아동양육시설[a]	643	2.81	6.279*** a,b,c>d
	공동생활가정[b]	205	2.83	
	청소년쉼터[c]	158	2.70	
	소년보호시설[d]	53	2.30	
URL이 제시되지 않은 인터넷 인용 정보 출처 찾기	전체	1,059	2.59	-
	아동양육시설[a]	643	2.66	9.673*** a,b,c>d
	공동생활가정[b]	205	2.64	
	청소년쉼터[c]	158	2.43	
	소년보호시설[d]	53	1.98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시설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거주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와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컴퓨터 활용 능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시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청소년들이 그 이상인 청소년들에 비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낮다는 것은 일정 기간 이상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이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능력 향상이 관련 교육 제공 등 시설에서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현 자료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69. 거주기간에 따른 컴퓨터 활용 능력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평균[1)]	t/F 검증
문서나 자료 작성·편집	전체	1,059	2.86	-
	3년 미만[a]	217	2.59	8.674*** a<b,c,d
	3~5년 미만[b]	143	2.97	
	5~10년 미만[c]	285	2.95	
	10년 이상[d]	411	2.90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	전체	1,059	2.67	-
	3년 미만[a]	217	2.41	6.737*** a<b,c,d
	3~5년 미만[b]	143	2.73	
	5~10년 미만[c]	285	2.74	
	10년 이상[d]	411	2.74	
프로그램/앱 설치	전체	1,059	2.98	-
	3년 미만[a]	217	2.75	6.182*** a<b,c,d
	3~5년 미만[b]	143	3.08	
	5~10년 미만[c]	285	3.02	
	10년 이상[d]	411	3.04	
인터넷 검색 정보의 신뢰성 판단	전체	1,059	2.77	-
	3년 미만[a]	217	2.53	7.007*** a<b,c,d
	3~5년 미만[b]	143	2.80	
	5~10년 미만[c]	285	2.84	
	10년 이상[d]	411	2.85	
URL이 제시되지 않은 인터넷 인용 정보 출처 찾기	전체	1,059	2.59	-
	3년 미만[a]	217	2.30	8.315*** a<b,c,d
	3~5년 미만[b]	143	2.63	
	5~10년 미만[c]	285	2.64	
	10년 이상[d]	411	2.69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학업성적에 따른 컴퓨터 활용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성적이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의 활용 능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성적이 상(높은 수준)인 집단과 중(보통 수준)인 집단 간에는 항목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항목에서만 성적이 높은 집단이 중간인 집단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0. 학업성적에 따른 컴퓨터 활용 능력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평균[1)]	t/F 검증
문서나 자료 작성·편집	전체	1,059	2.86	-
	상(7~10점)[a]	186	3.22	55.843*** a,b>c
	중(4~6점)[b]	391	3.05	
	하(0~3점)[c]	482	2.56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	전체	1,059	2.67	-
	상(7~10점)[a]	186	3.01	43.202*** a,b>c
	중(4~6점)[b]	391	2.86	
	하(0~3점)[c]	482	2.39	
프로그램/앱 설치	전체	1,059	2.98	-
	상(7~10점)[a]	186	3.30	33.574*** a>b>c
	중(4~6점)[b]	391	3.11	
	하(0~3점)[c]	482	2.75	
인터넷 검색 정보의 신뢰성 판단	전체	1,059	2.77	-
	상(7~10점)[a]	186	3.09	50.699*** a,b>c
	중(4~6점)[b]	391	2.97	
	하(0~3점)[c]	482	2.49	
URL이 제시되지 않은 인터넷 인용 정보 출처 찾기	전체	1,059	2.59	-
	상(7~10점)[a]	186	2.91	35.596*** a,b>c
	중(4~6점)[b]	391	2.76	
	하(0~3점)[c]	482	2.32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5) 일 경험

(1) 일 경험 여부

지난 1년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은 24.3%, 없다는 응답은 75.7%로 보고되었다.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수치를 비교해 볼 때 일반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경험률(황여정 외, 2024)보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일 경험률이 다소 높았다. 일 경험 여부는 또한 일부 하위집단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 중 일 경험이 있는 이들은 대략 19% 미만이었으나 청소년쉼터 및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읍면 지역보다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인 경우에, 복수의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에,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일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V-71. 지난 1년간 일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χ^2검증
일반청소년[1)]		4,310	13.7	86.3	-
시설거주 청소년		1,059	24.3	75.7	-
성별	남자	558	26.3	73.7	2.766
	여자	501	22.0	78.0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18.7	81.3	73.666***
	공동생활가정	205	18.5	81.5	
	청소년쉼터	158	47.5	52.5	
	소년보호시설	53	45.3	54.7	
지역 규모	대도시	379	25.3	74.7	7.341*
	중소도시	541	25.9	74.1	
	읍면지역	139	15.1	84.9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20.6	79.4	13.746***
	2개소 이상	376	30.9	69.1	
거주 기간	3년 미만	217	38.2	61.8	29.896***
	3~5년	143	19.6	80.4	
	5~10년	285	19.3	80.7	
	10년 이상	411	21.9	78.1	
학업 성적	상(7~10점)	239	19.4	80.6	6.003
	중(4~6점)	582	22.5	77.5	
	하(0~3점)	238	27.6	72.4	

*p<.05, **p<.01, ***p<.001

* 주: 1)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황여정 외(2024)의 연구 결과 중 고등학생의 응답률임.

(2) 주된 일자리 유형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257명(남자 147명, 여자 110명)을 대상으로 주로 종사한 일의 종류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χ^2=11.425, p<.05)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음식점 매장 관리, 식음료 서빙, 주방 보조 등 요식업소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요식업소 외에도 상점이나 단순 노동 등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았다. 또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일자리의 비율은 5% 정도였고 한때 청소년들이 많이 했던 배달일[79]은 1% 이하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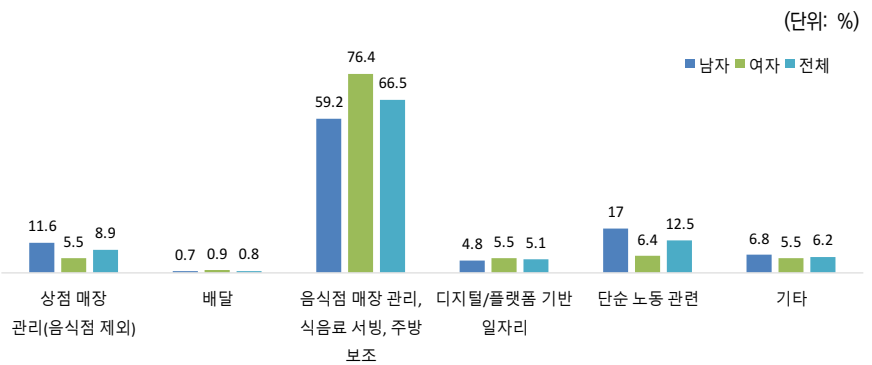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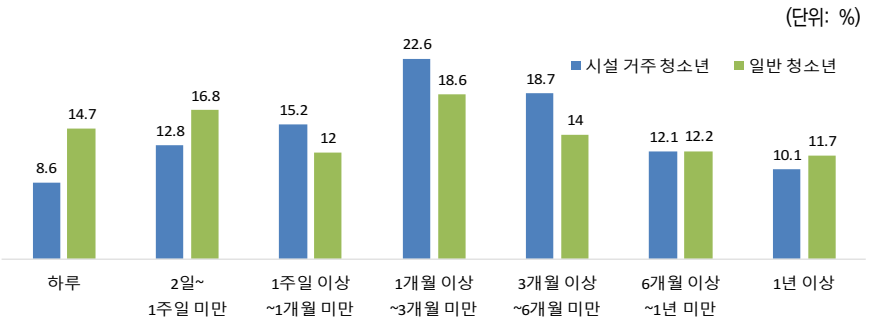
그림 V-32. 지난 1년간 경험했던 주된 일자리

(3) 일한 시간

앞서 언급한 주된 일을 한 기간은 1~3개월 미만이 22.6%로 가장 많았으며 3~6개월 미만(18.7%), 1주일~1개월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비교적 장기간 일을 한 경우도 22.2%로 보고되었다. 일한 기간을 일반청소년의 응답률과 비교해 보면 1주일 미만의 단기 경험은 일반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1주일 이상 일한 경험률은 시설거주 청소년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률은 시설 주 청소년들이 그만큼 단순 경험이 아닌, 경제적 활동으로서의 일자리를 더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한편, 시설거

79)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주된 일자리 중 배달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였다(김지연 외, 2020).

주 청소년들 안에서 성별이나 시설 유형, 거주기간이나 학업성적 등 하위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 주: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황여정 외(2024)의 연구 결과 중 고등학생의 응답률임.

그림 V-33. 일한 기간

표 V-72. 일주일 평균 근로 일수

(단위: 명, %, 일)

구분		사례 수	1일 이하	2일	3일	4일	5일 이상	평균(일)	t/F 검증
일반청소년[1)]		851	25.3	51.9		22.8		2.63	-
시설거주 청소년		257	15.6	34.2	22.2	9.7	18.3	2.82	-
성별	남자	147	15.6	31.3	19.0	9.5	24.5	2.99	2.070 *
	여자	110	15.5	38.2	26.4	10.0	10.0	2.58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120	18.3	34.2	23.3	13.3	10.8	2.60	3.995 ** a,b<c,d
	공동생활가정[b]	38	18.4	39.5	23.7	7.9	10.5	2.45	
	청소년쉼터[c]	75	12.0	34.7	20.0	5.3	28.0	3.11	
	소년보호시설[d]	24	8.3	25.0	20.8	8.3	37.5	3.58	
거주 시설 수	1개소	141	18.4	35.5	22.7	7.8	15.6	2.62	-2.169 *
	2개소 이상	116	12.1	32.8	21.6	12.1	21.6	3.06	
거주 기간	3년 미만[a]	83	12.0	31.3	16.9	9.6	30.1	3.25	6.383 *** a,b>c
	3~5년 미만[b]	28	7.1	28.6	35.7	14.3	14.3	3.00	
	5~10년 미만[c]	55	30.9	38.2	16.4	7.3	7.3	2.05	
	10년 이상[d]	90	12.2	35.6	26.7	10.0	15.6	2.83	

*p<.05, **p<.01, ***p<.001

* 주: 1)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황여정 외(2024)의 연구 결과 중 고등학생의 응답률임.

해당 일의 주당 평균 근로 일수를 보면 일반청소년보다 2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보다는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청소년, 그리고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 시설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청소년인 경우에 근로 일수 평균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가 안정적이지 않았을 경우 더 많은 근로를 하며 이는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73. 하루 평균 근로 시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 수	2시간 이하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이상	평균 (시간)	t/F 검증
일반청소년[1)]		840	8.4			91.6			5.77	-
시설거주 청소년		257	11.7	9.7	19.8	19.8	10.5	28.4	5.32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120	15.8	14.2	17.5	16.7	9.2	26.7	4.98	3.372* a,b<d
	공동생활가정[b]	38	7.9	13.2	18.4	23.7	13.2	23.7	5.18	
	청소년쉼터[c]	75	9.3	2.7	25.3	21.3	13.3	28.0	5.51	
	소년보호시설[d]	24	4.2	4.2	16.7	25.0	4.2	45.8	6.67	

*p<.05, **p<.01, ***p<.001

* 주: 1)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황여정 외(2024)의 연구 결과 중 고등학생의 응답률임.

이들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약 5시간 정도였다. 일반청소년들과 평균 근로 시간을 비교해 볼 때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일일 근로 시간은 다소 적었다. 시설거주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차이에서는 시설 유형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의 평균 근로 시간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보다 좀 더 길었다.

(4) 주된 근로 사유

응답자들의 주된 근로 사유를 보면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고정지출비(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 사용을 위해서'(19.8%)나 '용돈이 필요해서(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데 쓰기 위해서)'라는 응답(59.1%)이 일반청소년들(각 10.9%, 50.7%)에 비해 다소 많았다. 특히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청소년, 그리고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 집단에서 고정지출비를 위해 근로를 한다는 응답과 장기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는 이들의 넉넉하지 못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돈이 더 필요해서'라는 응답은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보다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거주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았다. 한편 '고정지출비(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복수의 시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에서 역시 고정지출비를 벌기 위해 근로를 한다는 응답률이 하나의 시설에서만 거주한 청소년 집단보다 더 높았다.

표 V-74. 주된 근로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χ^2검증
일반청소년[1)]		1,181	4.0	10.9	2.2	50.7	13.5	14.9	4.4	
시설거주 청소년		257	0.0	19.8	1.6	59.1	11.7	4.3	3.5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120	0.0	10.8	1.7	68.3	10.0	6.7	2.5	26.551 *
	공동생활가정	38	0.0	18.4	0.0	60.5	18.4	2.6	0.0	
	청소년쉼터	75	0.0	32.0	2.7	46.7	12.0	1.3	5.3	
	소년보호시설	24	0.0	29.2	0.0	50.0	8.3	4.2	8.3	
거주 시설 수	1개소	141	0.0	15.6	1.4	61.0	15.6	5.0	1.4	11.398 *
	2개소 이상	116	0.0	25.0	1.7	56.9	6.9	3.4	6.0	

* ①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② 나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고정지출비(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를 벌기 위해서
③ 학비(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데 필요한 돈)를 벌기 위해서
④ 용돈이 더 필요해서(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데 쓰기 위해서)
⑤ 진로경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⑥ 여유 시간이 있어서
⑦ 기타

*p<.05, **p<.01, ***p<.001

* 주: 1)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황여정 외(2024)의 연구 결과 중 고등학생의 응답률임.

6) 여가·문화 활동

(1) 공연·전시 등 관람 경험

지난 1년간 공연·전시 등 관람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경험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영화 관람(89.5%)으로 응답자 10명 중 9명 정도가 한 차례 이상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연(65.5%)이나 전시(59.8%) 관람 경험도 있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스포츠 경기 관람(48%)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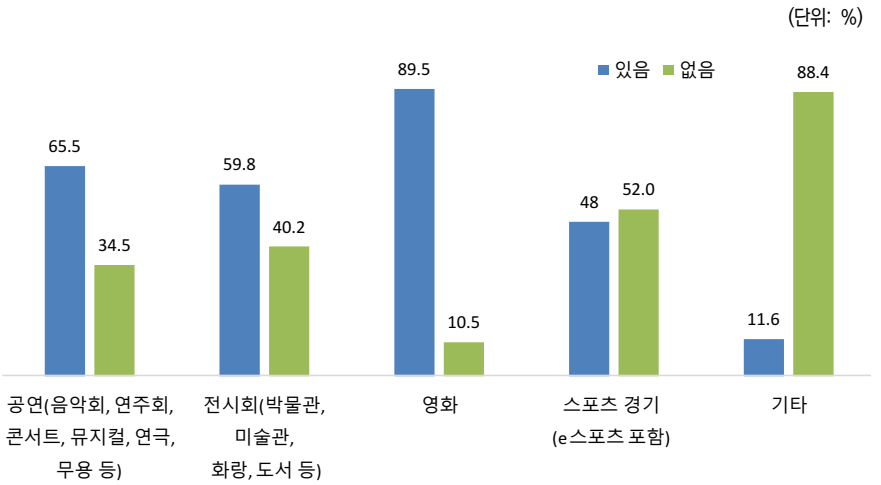


그림 Ⅴ-34. 지난 1년간 관람 경험 여부

한편, 응답자들의 관람 횟수를 평균으로 산출하면 1년에 약 10.83회 정도의 관람 경험이 있었으며 하위집단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거주하면 더 많은 문화 체험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설 유형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인당 한 해 관람 횟수 평균이 10회 내외이며 지역 규모나 시설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은 부분적으로는 거의 모든 시설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 활동 경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현장 종사자들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여가·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80] 그럼에도 약 5.6%의 응답자들은 지난 1년간 그 어떤 유형의 관람 경험이 없었던 점에도 주목할 필요도 있다.

80) 자립생활관 현장 종사자 자문회의(2025.8.14.), 공동생활가정 현장 종사자 자문회의(2025.8.14.), 아동양육시설 현장 종사자 자문회의(2025.9.3.), 청소년쉼터 현장 종사자 자문회의(2025.9.9.) 결과임.

표 V-75. 지난 1년간 관람 평균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 수	본 적 없음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평균	t/F 검증
전체		1,058	5.6	30.5	30.9	14.9	7.9	10.1	10.83	-
성별	남자	557	6.8	30.5	30.3	13.6	7.9	10.8	10.97	0.334
	여자	501	4.2	30.5	31.5	16.4	8.0	9.4	10.68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5.1	33.1	30.0	15.4	7.3	9.0	10.45	2.115
	공동생활가정	204	3.4	22.1	33.8	15.7	11.3	13.7	12.92	
	청소년쉼터	158	7.0	30.4	32.3	12.7	8.2	9.5	10.41	
	소년보호시설	53	15.1	32.1	26.4	13.2	1.9	11.3	8.64	
지역 규모	대도시	378	5.0	28.0	29.6	17.5	7.4	12.4	11.86	1.619
	중소도시	541	5.9	30.5	31.6	14.0	8.5	9.4	10.37	
	읍면지역	139	5.8	37.4	31.7	11.5	7.2	6.5	9.86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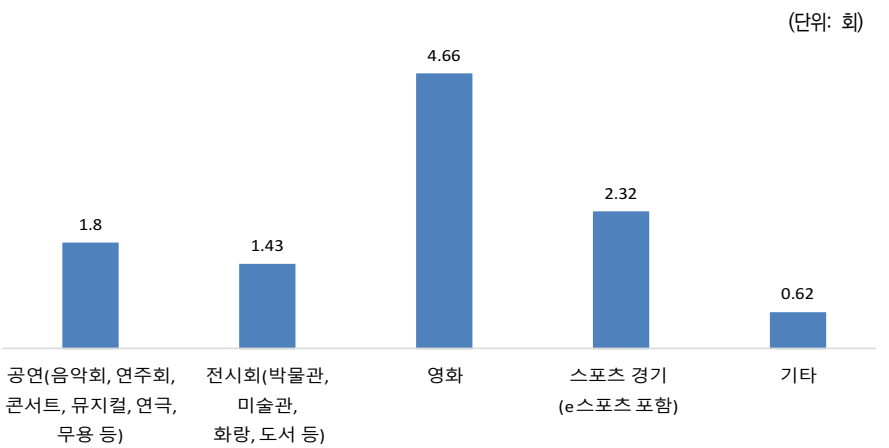


그림 V-35. 지난 1년간 관람 평균 횟수

활동 유형별로 이들의 평균 관람 횟수를 보면 영화 관람 빈도 역시 4.7회로 다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관람 횟수가 가장 낮은 유형은 기타를 제외하면 전시회로 일년에 한 차례(1.43회) 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나 수도권 등지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전시회가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음에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경험률이 낮은 것은 관련 정보가 적거나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이 적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설 청소년들이 전시회 등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V-76. 성별에 따른 관람 경험

(단위: 명, 회)

구분		사례 수	평균	t/F 검증
공연(음악회, 연주회, 콘서트, 뮤지컬, 연극, 무용 등)	전체	1,058	1.80	-
	남자	557	1.62	-2.445*
	여자	501	2.00	
전시회(박물관, 미술관, 화랑, 도서 등)	전체	1,058	1.43	-
	남자	557	1.30	-2.404*
	여자	501	1.58	
영화	전체	1,058	4.66	-
	남자	557	4.43	-1.180
	여자	501	4.91	
스포츠 경기 (e스포츠포함)	전체	1,058	2.32	-
	남자	557	3.15	4.216***
	여자	501	1.40	

*p<.05, **p<.01, ***p<.001

관람 경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활동 유형별로 하위집단 간 평균 관람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의 차이를 보면 공연이나 전시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관람 횟수가, 스포츠 관람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평균 관람 횟수가 더 많았다. 특히 스포츠 관람의 경우 공연이나 전시회의 평균 횟수 차이보다 그 폭이 컸다. 이러한 결과는 관람 경험의 전체 횟수에서는 성차가 없으나 관람 유형에서는 성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유형에 따른 평균 관람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시회 및 영화 관람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시행한 사후 검증에서는 전시 관람에서의 차이가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과 소년보호시설 청소년

들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화 관람에서는 모두 동일 집단군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전시 관람을 제외한 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경험을 위한 종사자들의 노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77. 시설 유형에 따른 관람 경험

(단위: 명, 회)

구분		사례 수	평균	t/F 검증
공연(음악회, 연주회, 콘서트, 뮤지컬, 연극, 무용 등)	전체	1,058	1.80	-
	아동양육시설	643	1.72	2.459
	공동생활가정	204	2.20	
	청소년쉼터	158	1.57	
	소년보호시설	53	1.92	
전시회(박물관, 미술관, 화랑, 도서 등)	전체	1,058	1.43	-
	아동양육시설[a]	643	1.43	3.695* b>d
	공동생활가정[b]	204	1.71	
	청소년쉼터[c]	158	1.28	
	소년보호시설[d]	53	0.81	
영화	전체	1,058	4.66	-
	아동양육시설	643	4.23	2.874*
	공동생활가정	204	5.73	
	청소년쉼터	158	5.03	
	소년보호시설	53	4.55	
스포츠 경기 (e스포츠포함)	전체	1,058	2.32	-
	아동양육시설	643	2.44	0.510
	공동생활가정	204	2.39	
	청소년쉼터	158	2.10	
	소년보호시설	53	1.26	

*p<.05, **p<.01, ***p<.001

(2) 여행 경험

지난 1년 동안 관광 목적의 여행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61.8%는 국내 여행만, 4.4%는 해외여행만, 그리고 20.3%는 국내외 여행 모두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전체 응답자의 82.1%는 국내 여행 경험이 있으며 24.7%는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중 그 어떤 여행 경험도 없는 경우는 13.5%였다. 한편,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국내 여행은 경험률은 낮은 반면 해외여행 경험률은 높았으나, 응답자의 연령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비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V-78. 지난 1년간 여행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국내 여행만	해외 여행만	국내외 여행 모두	국내 여행[1]	해외 여행[2]	경험 없음	χ^2 검증[3]
일반청소년[4]			-	-	-	72.3	11.6	-	-
전체		1,059	61.8	4.4	20.3	66.2	24.7	13.5	-
성별	남자	558	62.2	4.8	19.0	67.0	23.8	14.0	1.650
	여자	501	61.3	4.0	21.8	65.3	25.8	13.0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58.3	5.9	21.9	64.2	27.8	13.8	34.291 ***
	공동생활가정	205	67.8	2.0	23.4	69.8	25.4	6.8	
	청소년쉼터	158	68.4	3.2	11.4	71.6	14.6	17.1	
	소년보호시설	53	60.4	0.0	15.1	60.4	15.1	24.5	
지역 규모	대도시	379	66.0	2.4	16.9	68.4	19.3	14.8	15.790 *
	중소도시	541	60.8	5.2	20.9	66.0	26.1	13.1	
	읍면지역	139	54.0	7.2	27.3	61.2	34.5	11.5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59.9	5.1	22.5	65.0	27.6	12.4	9.507 *
	2개소 이상	376	65.2	3.2	16.2	68.4	19.4	15.4	
거주 기간	3년 미만	217	62.2	3.7	15.7	65.9	19.4	18.4	14.030
	3~5년	143	60.1	2.1	25.2	62.2	27.3	12.6	
	5~10년	285	64.6	4.6	18.6	69.2	23.2	12.3	
	10년 이상	411	59.9	5.6	22.4	65.5	28.0	12.2	
학업 성적	상(7~10점)	239	60.2	3.8	26.9	64.0	30.7	9.1	18.816 **
	중(4~6점)	582	59.1	6.4	21.7	65.5	28.1	12.8	
	하(0~3점)	238	64.5	3.1	16.6	67.6	19.7	15.8	

*p<.05, **p<.01, ***p<.001

* 주: 1) 국내여행 경험률은 국내 여행만 경험한 경우와 국내외 여행 모두 경험한 경우를 합산한 수치임.
2) 해외여행 경험률은 해외여행만 경험한 경우와 국내외 여행 모두 경험한 경우를 합산한 수치임.
3) 교차검증은 4개의 셀(국내 여행만, 해외여행만, 국내외 여행 모두, 경험 없음)에 대한 검증 결과임.
4)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사회조사보고서(통계청, 2023)의 연구 결과 중 13~19세의 응답률임.

하위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시설 유형, 지역 규모, 거주기관 수,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시설 유형별 차이를 보면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의 여행 경험이 가장 적었으며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들의 여행 경험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여행 경험률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소년보호시설거주 청소년들과 달리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해외여행 경험률은 낮았으나 국내여행 경험률이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들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이들의 여행 경험률 자체가 아주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앞서 분석한 문화 활동(관람) 경험과 여행 경험 모두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약 2%(21명)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문화 활동 경험은 주로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여가 시간

① 여가 시간 주요 활동 내용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 활동 상황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텔레비전·유튜브·OTT 등 영상 콘텐츠 시청(주중 58.5%, 주말 57%)이었으며 그다음으로 낮잠·사우나·산책 등을 포함한 휴식(주중 41.1%, 주말 45.8%),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주중 39.8%, 주말 37.1%) 순으로 응답하였다. 스포츠 활동 참여 및 관람은 주중 19.2%, 주말 16.8%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온라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었다.

여가 시간의 주요 활동 내용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보다는 영상 콘텐츠 시청에, 남자 청소년들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스포츠에 할애하는 비중이 다소 높았던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휴식을 더 많이 취하였다. 이러한 성차에 있어서 주중과 주말 간 차이는 매우 약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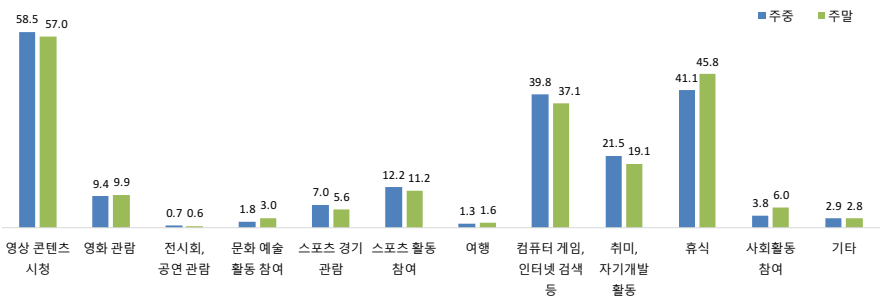


그림 V-36. 여가 시간 주요 활동 내용(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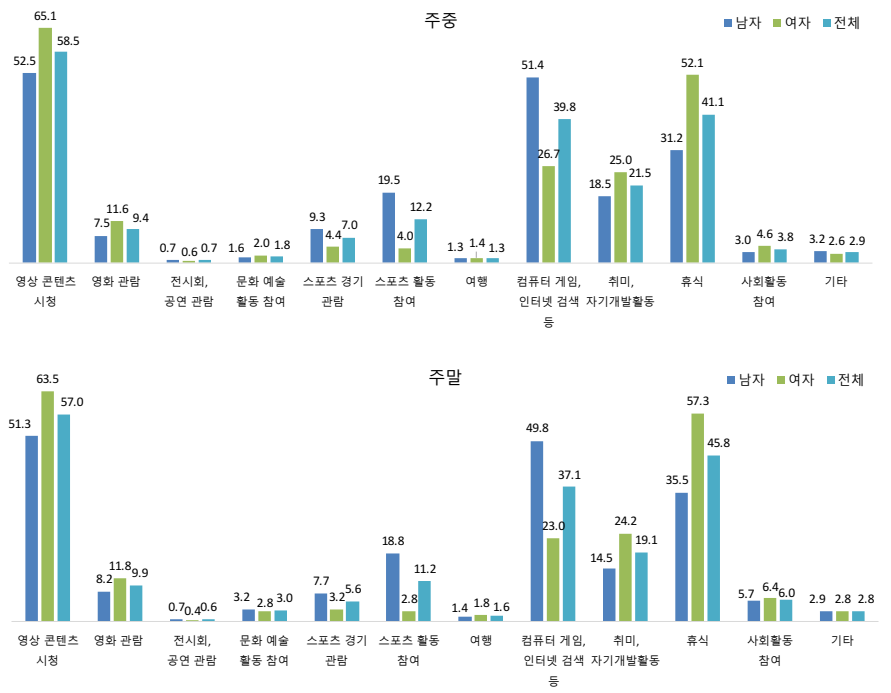


그림 V-37. 성별에 따른 주중-주말의 여가 시간 주요 활동 내용(1+2순위)

②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청소년들이 주로 누구와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이 시설 안팎의 또래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 내 또래보다는 시설 밖 또래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도 28% 전후로 나타나 인간관계가 협소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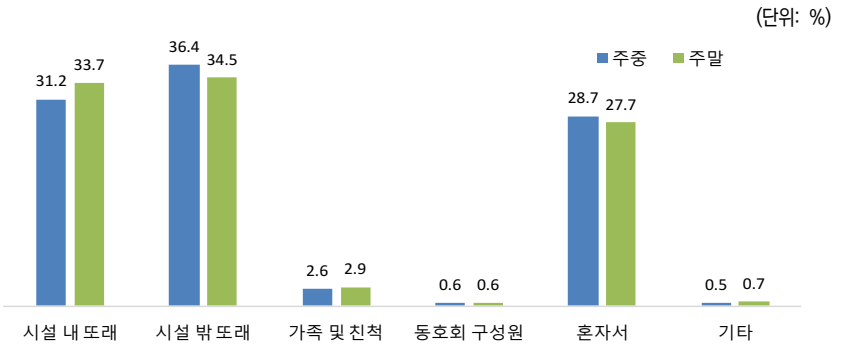


그림 Ⅴ-38. 주중-주말 여가 시간을 주로 함께 보내는 사람

주말을 기준으로 여가 시간을 주로 함께 보내는 사람에 따라 주된 여가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혼자서 보내는 경우에 또래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보다 영상 콘텐츠 시청이나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래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스포츠 관람·참여, 영화 관람, 사회활동 참여율이 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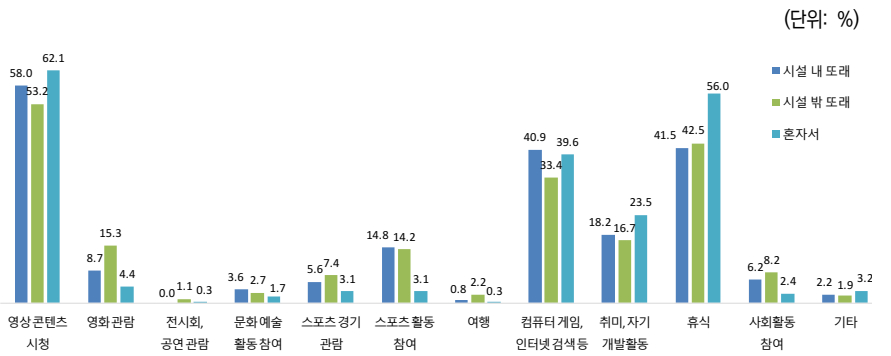


그림 Ⅴ-39. 주말 여가 시간을 주로 함께 보내는 사람에 따른 주된 여가 활동(1+2순위)

③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응답자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불만족인 경우는 7.4%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66.7%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시설 유형에 따라서는 공동생활가정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소년보호시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소년보호시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시설의 특수성과 더불어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상황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거주시설 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생활했던 시설 수가 1개인 경우가 2개 이상인 경우보다,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에서는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3년 미만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업 성적에 따른 차이에서는 성적이 높은(상) 경우가 낮은(하) 경우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오래 생활했거나 학업성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적응력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가정할 때 개인의 적응도와 여가생활 만족도 간에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79.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평균[1)]	t/F 검증
전체		1,059	1.9	5.5	26.0	40.8	25.9	3.83	-
성별	남자	558	1.4	4.8	24.0	41.2	28.5	3.91	2.643
	여자	501	2.4	6.2	28.1	40.3	23.0	3.75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3	1.9	5.3	26.1	39.2	27.5	3.85	7.240
	공동생활가정[b]	205	1.0	4.4	16.1	49.8	28.8	4.01	***
	청소년쉼터[c]	158	1.9	7.0	34.2	39.2	17.7	3.64	b>c,
	소년보호시설[d]	53	5.7	7.5	37.7	30.2	18.9	3.49	a>d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1.3	4.7	25.5	40.3	28.3	3.89	2.841
	2개소 이상	376	2.9	6.9	26.9	41.8	21.5	3.72	**
거주 기간	3년 미만[a]	217	3.2	8.8	27.6	38.7	21.7	3.67	3.496
	3~5년 미만[b]	143	0.7	2.8	27.3	55.2	14.0	3.79	*
	5~10년 미만[c]	285	1.8	6.3	23.2	41.4	27.4	3.86	a<d
	10년 이상[d]	411	1.7	4.1	26.3	36.7	31.1	3.91	
학업 성적	상(7~10점)[a]	239	0.5	4.3	16.7	45.2	33.3	4.06	10.803
	중(4~6점)[b]	582	1.0	4.3	26.9	41.2	26.6	3.88	***
	하(0~3점)[c]	238	3.1	6.8	28.8	38.8	22.4	3.71	a>c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5점임.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경우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은 경제적 부담(26.9%)이었다. 그 뒤를 이어 적당한 취미가 없음(17.9%), 시간 부족(15.4%), 원하는 것을 못함(10.3%)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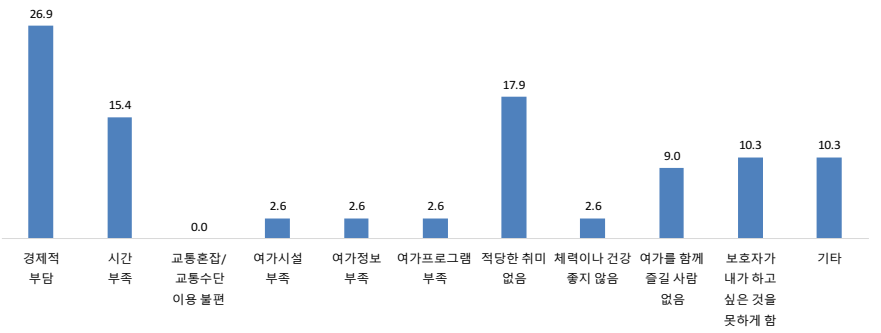


그림 Ⅴ-40.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주된 이유

④ 주요 희망 여가활동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에 주로 하고 싶은 활동은 여행이었으며 이러한 응답은 특히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스포츠 관련 활동을 더 선호하였다. 현재 온라인 활동에 치중하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인지·정서·신체적 발달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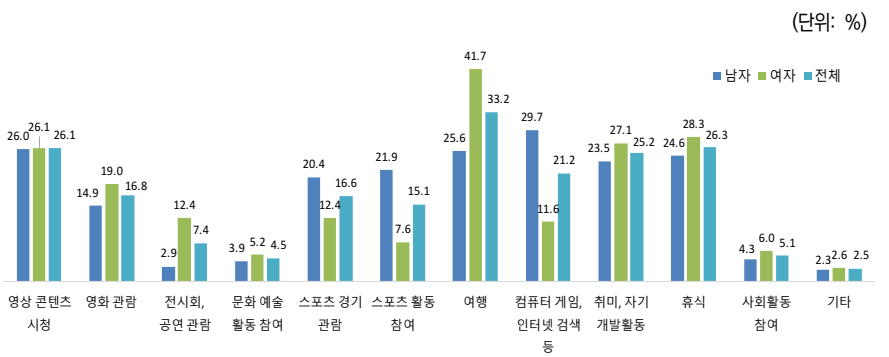


그림 Ⅴ-41. 주요 희망 여가활동(1+2순위)

7) 교육환경 및 휴식 공간

(1) 교육 공간

① 방의 공동 사용 여부

시설거주 청소년 중 혼자 사용하는 방이 있는 경우는 21%에 지나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78.9%는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사용하였다. 시설 내 방당 사용 인원은 2.5명이었는데 시설 유형별 평균 인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후 검증에서 모두 동일 집단군으로 분류되었다.

표 V-80. 방의 공동 사용 여부 및 방 당 평균 인원

(단위: 명, %, 명)

구분		사례 수	혼자 사용	함께 사용	방 당 평균 사용 인원	t/F 검증
전체		1,059	21.1	78.9	2.50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21.2	78.8	2.61	4.817**
	공동생활가정	205	21.0	79.0	2.12	
	청소년쉼터	158	19.0	81.0	2.50	
	소년보호시설	53	26.4	73.6	2.60	

*p<.05, **p<.01, ***p<.001

② 시설 내 학습 공간 여부

시설 안에는 청소년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책상)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5.5%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하위집단별 응답 결과를 보면 일부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시설 유형별 차이를 보면 앞서 많은 결과에서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보다 학습 공간 확보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었다. 지역 규모별 차이에서는 중소도시 청소년들보다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그리고 학업성적별 차이에서는 중(보통 수준) 이상인 청소년들이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V-81. 시설 내 학습 공간 여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1]	t/F 검증
전체		1,059	4.3	10.2	44.4	41.1	3.22	-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3	4.2	8.1	47.0	40.7	3.24	14.530 *** a,b>c,d
	공동생활가정[b]	205	1.5	6.8	37.6	54.1	3.44	
	청소년쉼터[c]	158	7.0	20.9	43.0	29.1	2.94	
	소년보호시설[d]	53	9.4	17.0	43.4	30.2	2.94	
지역 규모	대도시[a]	379	3.7	10.8	45.6	39.8	3.22	3.071 * b<c
	중소도시[b]	541	5.4	10.9	43.4	40.3	3.19	
	읍면지역[c]	139	2.2	5.8	44.6	47.5	3.37	
학업 성적	상(7~10점)[a]	239	3.8	9.1	41.4	45.7	3.29	6.397 ** a,b>c
	중(4~6점)[b]	582	3.3	8.2	43.0	45.5	3.31	
	하(0~3점)[c]	238	5.4	12.2	46.7	35.7	3.13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시설 내 학습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학교나 독서실 등 시설 밖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39.7%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시설 내 빈 공간(책상)이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식탁 등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것(29.2%)이었다. 특별히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23.2%에 달했는데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진학 준비 등 학업 중임에도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조사 참여자 중 상당수가 학업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V-82. 시설 내 학습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 대처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시설 내 대기 또는 다른 공간 이용	시설 밖 공간 이용	할 일 포기	공부 공간 필요 없음	기타	χ^2검증
전체		1,059	29.2	39.7	7.1	23.2	0.8	-
성별	남자	558	28.8	35.7	6.6	28.5	0.3	12.659*
	여자	501	29.5	43.9	7.5	17.7	1.3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시설 내 대기 또는 다른 공간 이용	시설 밖 공간 이용	할 일 포기	공부 공간 필요 없음	기타	χ^2검증
거주 기간	3년 미만	217	41.0	29.9	6.9	20.8	1.4	21.809*
	3~5년 미만	143	26.0	48.0	7.0	19.0	0.0	
	5~10년 미만	285	23.2	43.0	4.6	28.5	0.7	
	10년 이상	411	26.9	40.1	8.8	23.3	0.9	

*p<.05, **p<.01, ***p<.001

(2) 시설 밖 학습 공간의 이용

평소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도서관·독서실 등 외부 공간을 어느 정도나 이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62.4%가 공부를 하기 위해 시설 밖 공간을 이용하였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이용률이 약 15%p 정도 높았다.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은 그렇다는 응답이 35.8%로 다른 시설(62~65.4%)과 반대되는 응답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포함되는 등 거주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이 중(보통 수준) 이상인 경우가 하(낮은 수준)인 경우보다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표 V-83. 시설 밖 학습 공간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χ^2검증
전체		1,059	62.4	37.6	-
성별	남자	558	55.4	44.6	24.927***
	여자	501	70.3	29.7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63.8	36.2	17.215**
	공동생활가정	205	65.4	34.6	
	청소년쉼터	158	62.0	38.0	
	소년보호시설	53	35.8	64.2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χ^2검증
학업 성적	상(7~10점)	239	67.2	32.8	15.487***
	중(4~6점)	582	68.0	32.0	
	하(0~3점)	238	56.0	44.0	

*p<.05, **p<.01, ***p<.001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학교(64.3%)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스터디 카페(41.9%)와 도서관(41%)이었다. 이용 시설의 종류에서도 하위집단별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청소년센터 이용률이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보다 높았다. 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는 타 지역에 비해 스터디 카페의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스터디 카페보다는 도서관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 이처럼 지역 규모의 차이는 지역 내 기반 시설 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이 높은(상) 경우 보통(중) 이하인 경우보다 스터디 카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Ⅴ-84.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밖 학습 공간(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학교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청소년센터	기타
전체		661	64.3	41.0	12.0	41.9	7.3	10.7
성별	남자	309	66.0	41.7	14.6	40.1	10.0	6.1
	여자	352	62.8	40.3	9.7	43.5	4.8	14.8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410	68.0	41.5	11.5	42.7	4.1	9.0
	공동생활가정	134	63.4	36.6	14.2	47.0	1.5	17.9
	청소년쉼터	98	53.1	43.9	11.2	34.7	26.5	8.2
	소년보호시설	19	47.4	47.4	10.5	26.3	15.8	10.5
지역 규모	대도시	230	62.6	33.5	10.0	52.2	6.5	12.6
	중소도시	342	63.5	43.0	13.7	37.7	8.2	9.9
	읍면지역	89	71.9	52.8	10.1	31.5	5.6	9.0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학교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청소년센터	기타
학업 성적	상(7~10점)	125	58.4	37.6	16.0	48.8	8.0	8.8
	중(4~6점)	266	66.5	39.8	10.2	41.7	5.6	13.5
	하(0~3점)	270	64.8	43.7	11.9	38.9	8.5	8.9

*p<.05, **p<.01, ***p<.001

외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주된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48.5%)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시설 안이 편하기 때문(29.6%)이었다. 소수의 응답이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용 부담(6.6%)과 통금시간과 같은 시설 규칙 때문(6.4%)이라는 응답이다. 특히 청소년쉼터 청소년들은 비용 부담에 대한 응답률(16.9%)이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앞서 시설 내 학습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률(27.9%)도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학습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의 경우는 시설 규칙으로 외부 시설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는 보호처분에 따른 규칙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적에 따른 응답 분포를 보면 학업성적이 상(높은 수준)인 경우는 중(보통 수준) 이하인 경우에 비해 비용 부담이나 시설 규칙으로 인해 외부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학업성적이 하(낮은 수준)인 경우는 다른 이유보다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3) 휴식 공간

조사 참여자들에게 시설 내 학습 공간과 더불어 휴식 공간은 잘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4.9%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하위집단별 응답 결과를 보면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긍정 응답이 더 많았다. 시설 유형이나 지역 규모별 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학업성적별 차이에서는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V-85. 시설 내 휴식 공간 여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1)]	t/F 검증
전체		1,059	5.2	9.9	48.5	36.4	3.16	-
성별	남자	558	3.6	6.5	47.7	42.3	3.29	5.469***
	여자	501	7.0	13.8	49.5	29.7	3.02	
학업 성적	상(7~10점)[a]	239	3.2	8.6	43.0	45.2	3.30	4.394* a>c
	중(4~6점)[b]	582	5.4	9.7	47.3	37.6	3.17	
	하(0~3점)[c]	238	5.8	10.6	51.7	32.0	3.10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4) 동네 환경

조사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 내 학습 관련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교육시설·청소년 이용시설·문화시설의 구축 정도를 시설 유형과 지역 규모를 중심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적인 응답에서 긍정 응답률(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82~86%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대다수가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과 도서관·청소년센터·복지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도서관·극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67.1%로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이용시설만큼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시설 유형별로 응답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변량분석(ANOVA) 결과,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교육시설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시설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 검증 결과 모두 동일 집단군으로 분류되어 시설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사실상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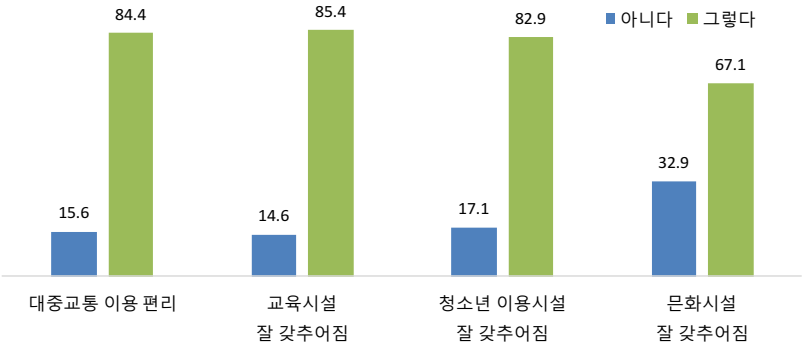


그림 V-42. 동네 환경에 대한 인식

표 V-86. 시설 유형에 따른 동네 환경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평균[1)]	t/F 검증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전체	1,059	3.25	-
	아동양육시설	643	3.18	5.228**
	공동생활가정	205	3.43	
	청소년쉼터	158	3.31	
	소년보호시설	53	3.26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짐	전체	1,059	3.22	-
	아동양육시설	643	3.21	3.554*
	공동생활가정	205	3.36	
	청소년쉼터	158	3.10	
	소년보호시설	53	3.15	
청소년 이용시설이 잘 갖추어짐	전체	1,059	3.16	-
	아동양육시설	643	3.16	0.649
	공동생활가정	205	3.18	
	청소년쉼터	158	3.21	
	소년보호시설	53	3.04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짐	전체	1,059	2.84	-
	아동양육시설	643	2.87	0.819
	공동생활가정	205	2.84	
	청소년쉼터	158	2.74	
	소년보호시설	53	2.81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지역 규모별 차이를 보면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이용시설 조성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문화시설 조성 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교통 이용은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편리하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문화시설 역시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거주 청소년에게서 잘 조성되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사회 내에 대중교통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축되어 있다거나 문화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것은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87. 지역 규모에 따른 동네 환경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평균[1)]	t/F 검증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전체	1,059	3.25	-
	대도시[a]	379	3.40	19.369*** a,b>c
	중소도시[b]	541	3.23	
	읍면지역[c]	139	2.91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짐	전체	1,059	3.22	-
	대도시	379	3.28	1.970
	중소도시	541	3.20	
	읍면지역	139	3.14	
청소년 이용시설이 잘 갖추어짐	전체	1,059	3.16	-
	대도시	379	3.18	0.190
	중소도시	541	3.15	
	읍면지역	139	3.14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짐	전체	1,059	2.84	-
	대도시[a]	379	2.97	7.332** a>c
	중소도시[b]	541	2.81	
	읍면지역[c]	139	2.63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8) 관계 및 주관적 웰빙

(1)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조사 참여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시설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률(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이 모든 문항에서 약 76~86% 범위 안에 있었다. 그중 긍정적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86.1%)였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선생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76.8%)'였다. '칭찬을 자주 하신다'와 '힘들 때 용기를 주신다'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각각 82.2%와 84.7%이다.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는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 시설 생활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생활과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대부분의 참여자는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로 보인다. 다만 응답자의 약 14~23%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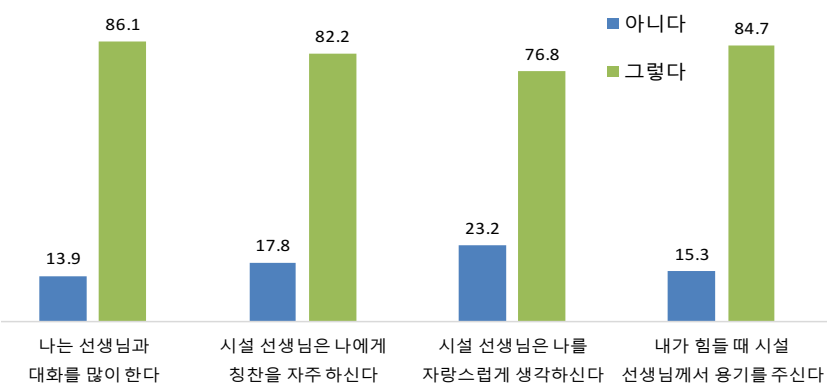


그림 Ⅴ-43.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하위집단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체로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이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생님의 칭찬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화의 정도, 나에 대한 선생님의 긍정적 인식, 힘들 때 격려의 정도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앞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는 일반적인 남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체로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환경이나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 경향을 보이는데 그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물론 성차 외에도 선생님과 청소년 간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과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88. 성별에 따른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평균[1)]	t/F 검증
나는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	전체	1,059	3.24	-
	남자	558	3.29	2.575*
	여자	501	3.18	
시설 선생님은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전체	1,059	3.12	-
	남자	558	3.16	1.794
	여자	501	3.08	
시설 선생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전체	1,059	3.04	-
	남자	558	3.11	2.900**
	여자	501	2.96	
내가 힘들 때 시설 선생님께서 용기를 주신다	전체	1,059	3.17	-
	남자	558	3.23	2.483*
	여자	501	3.11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시설 선생님의 칭찬 정도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에서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들이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보다 좀 더 높은 평균점을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에게서 선생님이 칭찬을 자주 하거나 자랑스러워한다는 응답률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그들이 「소년법」 위반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선생님과의 대화 정도에서는 시설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힘들 때 시설 선생님의 격려 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정에서 모두 동일 집단군으로 분류됨

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89. 시설 유형에 따른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평균[1)]	t/F 검증
나는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	전체	1,059	3.24	-
	아동양육시설	643	3.22	1.992
	공동생활가정	205	3.34	
	청소년쉼터	158	3.21	
	소년보호시설	53	3.11	
시설 선생님은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전체	1,059	3.12	-
	아동양육시설[a]	643	3.08	5.502** b>d
	공동생활가정[b]	205	3.30	
	청소년쉼터[c]	158	3.11	
	소년보호시설[d]	53	2.92	
시설 선생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전체	1,059	3.04	-
	아동양육시설[a]	643	3.01	4.596** b>d
	공동생활가정[b]	205	3.19	
	청소년쉼터[c]	158	3.04	
	소년보호시설[d]	53	2.77	
내가 힘들 때 시설 선생님께서 용기를 주신다	전체	1,059	3.17	-
	아동양육시설	643	3.13	3.099*
	공동생활가정	205	3.31	
	청소년쉼터	158	3.21	
	소년보호시설	53	3.13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학업성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적이 상(높은 수준)인 청소년들은 하(낮은 수준)인 청소년들보다 선생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힘들 때 격려를 받는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성적이 보통(중) 이상인 경우는 낮은(하) 경우보다 더 많이 선생님께 자주 칭찬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선생님이 자랑스러워한다는 인식 정도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과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간에는 정적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생님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들의 학업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높은 학업성적이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표 V-90. 학업성적에 따른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평균[1)]	t/F 검증
나는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	전체	1,059	3.24	-
	상(7~10점)[a]	186	3.37	6.295** a>c
	중(4~6점)[b]	391	3.27	
	하(0~3점)[c]	482	3.16	
시설 선생님은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전체	1,059	3.12	-
	상(7~10점)[a]	186	3.25	11.539*** a,b>c
	중(4~6점)[b]	391	3.21	
	하(0~3점)[c]	482	3.00	
시설 선생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전체	1,059	3.04	-
	상(7~10점)[a]	186	3.27	18.332*** a>b>c
	중(4~6점)[b]	391	3.11	
	하(0~3점)[c]	482	2.89	
내가 힘들 때 시설 선생님께서 용기를 주신다	전체	1,059	3.17	-
	상(7~10점)[a]	186	3.31	4.694** a>c
	중(4~6점)[b]	391	3.19	
	하(0~3점)[c]	482	3.11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2)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나 만족하는지 살펴보았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7.27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에 가까웠다. 관계 만족도는 거의 모든 하위집단에서 차이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의 만족도 점수가 더 높았고 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또한 두 곳 이상의 시설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보다는

한 곳에서 생활했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시설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3년 미만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한 곳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생활한 경우 관계가 좀 더 잘 형성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V-91.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1)]	t/F검증
전체		1,059	5.9	24.6	69.5	7.27	
성별	남자	558	3.9	22.0	74.0	7.58	4.831 ***
	여자	501	8.0	27.5	64.5	6.93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3	5.9	24.0	70.1	7.33	6.042 *** b>c,d
	공동생활가정[b]	205	2.9	18.5	78.5	7.62	
	청소년쉼터[c]	158	7.6	32.3	60.1	6.73	
	소년보호시설[d]	53	11.3	34.0	54.7	6.79	
거주 시설 수	1개소	143	5.1	21.5	73.4	7.45	3.558 ***
	2개소 이상	285	7.2	30.3	62.5	6.95	
거주 기간	3년 미만[a]	411	10.1	29.5	60.4	6.79	6.666 *** a<c,d
	3~5년[b]	239	9.1	29.4	61.5	6.95	
	5~10년[c]	582	3.9	23.5	72.6	7.44	
	10년 이상[d]	238	3.9	21.4	74.7	7.51	
학업 성적	상(7~10점)[a]	(172)	1.6	14.5	83.9	7.95	27.362 *** a,b>c
	중(4~6점)[b]	(375)	3.8	22.3	73.9	7.58	
	하(0~3점)[c]	(457)	9.1	30.5	60.4	6.75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며 응답률은 불만족(0~3점), 보통(4~6점), 만족(7~10점)으로 나누어 봄.

(3) 스트레스 및 무기력 정도

① 스트레스 정도

지난 1년 동안 시설거주 청소년 중 76.7%가 스트레스를 가끔 또는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지경 외, 2023)에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이 83.1%인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한편, 시설거주 청소년

의 스트레스 경험 정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 4명 중 1명 이상(26.4%)은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였던 반면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6.2%에 불과하다.

하위집단별 평균 차이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한 곳에 생활한 청소년보다는 두 곳 이상의 시설에서 생활했거나 시설 생활이 3년 미만인 청소년들이 10년 이상인 청소년들보다 더 자주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시설 유형별 차이는 사후 검정에서 모두 동일 집단군으로 분류되어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92. 스트레스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평균[1]	t/F검증
일반청소년[2]		1,264	-		83.1		-	-
시설거주 청소년		1,059	6.2	17.0	50.3	26.4	2.97	-
성별	남자	558	8.1	22.4	49.8	19.7	2.81	-6.728 ***
	여자	501	4.2	11.0	50.9	33.9	3.15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643	6.5	17.6	49.9	26.0	2.95	3.479*
	공동생활가정	205	8.8	19.5	47.8	23.9	2.87	
	청소년쉼터	158	3.2	10.8	55.7	30.4	3.13	
	소년보호시설	53	1.9	18.9	49.1	30.2	3.08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7.5	18.3	50.7	23.6	2.90	-3.543 ***
	2개소 이상	376	4.0	14.6	49.7	31.6	3.09	
거주 기간	3년 미만[a]	217	5.1	10.1	54.8	30.0	3.10	3.805* a>d
	3~5년[b]	143	5.6	16.1	49.0	29.4	3.02	
	5~10년[c]	285	6.0	17.2	49.1	27.7	2.99	
	10년 이상[d]	411	7.3	20.9	48.9	22.9	2.87	
학업 성적	상(7~10점)	239	9.1	15.6	47.8	27.4	2.94	0.607
	중(4~6점)	582	6.4	17.6	50.6	25.3	2.95	
	하(0~3점)	238	5.0	17.0	51.0	27.0	3.00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2)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지경 외, 2023)의 연구 결과 중 고등학생의 응답률임.

② 무기력 정도

지난 1년 동안 응답자 5명 중 1명(20.6%)은 무기력한 상황을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끔 경험한 경우는 42.1%, 반면에 전혀 경험하지 않았거나 별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37.3%였다. 무기력 경험률(62.7%)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지경 외, 2023)의 고등학생 응답 결과(27.8%)와 비교하면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무기력 경험률이 44%p 이상 높은데, 이는 약 2.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즉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무기력 경험률은 일반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위집단별 평균 차이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보다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이, 10년 이상 거주 청소년보다 5년 미만 거주 청소년이 더 자주 무기력 상태를 경험하였다. 한편,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V-93. 무기력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평균[1]	t/F검증
일반청소년[2]		1,264	-		27.8		-	-
시설거주 청소년		1,059	13.6	23.7	42.1	20.6	2.70	-
성별	남자	558	16.3	29.7	40.0	14.0	2.52	-6.692 ***
	여자	501	10.6	17.0	44.5	27.9	2.90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3	14.5	24.6	41.1	19.9	2.66	6.630 *** c,d>b
	공동생활가정[b]	205	18.0	25.9	39.0	17.1	2.55	
	청소년쉼터[c]	158	6.3	17.7	50.0	25.9	2.96	
	소년보호시설[d]	53	7.5	22.6	43.4	26.4	2.89	
지역 규모	1개소	379	13.5	25.6	43.5	17.4	2.65	3.575* b>c
	2개소 이상	541	12.8	21.1	42.9	23.3	2.77	
	3년 미만[a]	139	17.3	28.8	35.3	18.7	2.55	
거주 시설 수	3~5년[b]	683	14.5	25.6	40.8	19.0	2.64	-2.446*
	5~10년[c]	376	12.0	20.2	44.4	23.4	2.79	
거주 기간	10년 이상[d]	217	9.2	18.0	46.1	26.7	2.90	8.121 *** a,b>d
	상(7~10점)[a]	143	10.5	21.0	42.0	26.6	2.85	
	중(4~6점)[b]	285	14.0	23.5	42.8	19.6	2.68	
	하(0~3점)[c]	411	16.5	28.0	39.4	16.1	2.55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평균[1]	t/F검증
학업 성적	상(7~10점)	239	17.7	23.1	43.0	16.1	2.58	2.972
	중(4~6점)	582	13.6	24.6	43.2	18.7	2.67	
	하(0~3점)	238	12.0	23.2	40.9	23.9	2.77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2)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지경 외, 2023)의 연구 결과 중 고등학생의 응답률임.

(4) 우울 정도

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 우울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울 척도는 각 항목당 0~3점 분포를 기본으로 총 9문항(27점 만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5점 미만은 보통, 5~9점은 우울, 10~19점은 중등도 우울, 20점 이상은 심한 우울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6%는 보통이었으나 44%는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그중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보이는 경우는 10명 중 2명 정도(19%)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위집단별 차이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거주 유형이나 기간, 기관 수에 따른 차이이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보다는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가 더 심각하여 쉼터 거주 청소년들의 우울 치료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한 경우보다는 거주기간이 짧거나 두 곳 이상에서 생활했던 경우에 우울 증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94. 우울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보통	경도 우울	중등도 우울	심한 우울	평균[1]	t/F검증
전체		1,059	56.1	24.8	16.1	2.9	5.26	-
성별	남자	558	61.6	21.3	14.7	2.3	4.70	11.305**
	여자	501	49.9	28.7	17.8	3.6	5.88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보통	경도 우울	중등도 우울	심한 우울	평균[1)]	t/F검증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3	58.9	22.4	16.3	2.3	4.97	9.053 *** a,b<c
	공동생활가정[b]	205	63.4	23.4	9.8	3.4	4.42	
	청소년쉼터[c]	158	39.2	31.0	24.7	5.1	7.30	
	소년보호시설[d]	53	43.4	41.5	13.2	1.9	5.91	
지역 규모	대도시[a]	379	57.3	27.2	12.9	2.6	4.97	3.864* b>c
	중소도시[b]	541	53.4	24.4	18.9	3.3	5.69	
	읍면지역[c]	139	63.3	20.1	14.4	2.2	4.32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59.6	22.3	16.0	2.2	4.91	7.144**
	2개소 이상	376	49.7	29.5	16.5	4.3	5.89	
거주 기간	3년 미만[a]	217	42.9	28.6	23.0	5.5	7.00	10.541 *** a>d
	3~5년[b]	143	49.7	29.4	16.8	4.2	5.86	
	5~10년[c]	285	60.7	24.6	12.3	2.5	4.72	
	10년 이상[d]	411	62.0	21.4	15.1	1.5	4.51	
학업 성적	상(7~10점)[a]	239	60.2	29.0	9.1	1.6	4.31	5.930** a<c
	중(4~6점)[b]	582	58.8	22.3	17.4	1.5	4.95	
	하(0~3점)[c]	238	52.3	25.3	17.8	4.6	5.87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0~27점이며 응답률은 총점을 기준으로 보통(0~4점), 경도 우울(5~10점), 중등도 우울(11~20점), 심한 우울(20~27점)로 나누어 봄.

그 외에도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가 상인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더 심각하였다. 이는 학업성적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정서적 불안정이 학업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으므로 학업 지원에 있어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5)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에 대해 참여자의 대부분(88.6%)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10명 중 한 명 정도(11.4%)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청소년쉼터 청소년에게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는데 응답자의 20.3%가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거주시설 청소년의 인식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한

곳에서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보다 5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정신적 건강 인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답자의 79.1%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10명 중 2명 정도(20.9%)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하위집단별 차이도 신체적 건강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부정적 인식률(34.2%)이 상당히 높았고 소년보호시설 청소년(32.1%) 역시 쉼터 청소년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의 부정적 응답률은 16.6~18% 정도로 그보다 절반 정도에 그쳤다. 또한 학업성적에서는 성적이 하인 경우가 중 이상인 경우보다 정신적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련 응답 결과를 일반청소년(고등학생)의 긍정 응답률(신체적 건강 97.1%, 정신적 건강 94.8%)과 비교해 보면 시설거주 청소년의 인식률이 일반 동년배 청소년에 비해 훨씬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건강은 학업성적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학업에 대한 지원 이전에 건강에 대한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신체보다는 정신적 측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시설거주 청소년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뿐 아니라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에게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부가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V-95.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신체적 건강						
		사례 수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1]	t/F 검증
일반청소년[2]		1,264	2.8		97.2		3.37	-
시설거주 청소년		1,059	1.6	9.8	44.3	44.3	3.31	-
성별	남자	558	1.3	7.3	41.6	49.8	3.40	4.229***
	여자	501	2.0	12.6	47.3	38.1	3.22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3	1.4	8.9	45.6	44.2	3.33	5.618** b,d>c
	공동생활가정[b]	205	2.0	7.8	38.0	52.2	3.40	
	청소년쉼터[c]	158	2.5	17.7	45.6	34.2	3.11	
	소년보호시설[d]	53	0.0	5.7	49.1	45.3	3.40	

(단위: 명, %, 점)

구분		신체적 건강						
		사례 수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1]	t/F 검증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0.9	8.5	43.8	46.9	3.37	3.306**
	2개소 이상	376	2.9	12.2	45.2	39.6	3.22	
거주 기간	3년 미만[a]	217	3.2	13.8	47.9	35.0	3.15	6.007 *** a<c,d
	3~5년 미만[b]	143	1.4	12.6	44.8	41.3	3.26	
	5~10년 미만[c]	285	1.8	7.0	43.2	48.1	3.38	
	10년 이상[d]	411	0.7	8.8	42.8	47.7	3.37	
학업 성적	상(7~10점)[a]	239	0.5	9.1	38.7	51.6	3.41	3.821* a>c
	중(4~6점)[b]	582	0.8	9.7	44.5	45.0	3.34	
	하(0~3점)[c]	238	2.7	10.2	46.3	40.9	3.25	

구분		정신적 건강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1]	t/F 검증
일반청소년[2]		1,264	5.1		94.9		3.25	-
시설거주 청소년		1,059	4.2	16.7	44.6	34.6	3.10	-
성별	남자	558	3.2	14.5	41.9	40.3	3.19	4.142 ***
	여자	501	5.2	19.2	47.5	28.1	2.99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3	3.9	14.2	45.7	36.2	3.14	7.977 *** a,b>c
	공동생활가정[b]	205	3.4	13.2	44.4	39.0	3.19	
	청소년쉼터[c]	158	6.3	27.8	42.4	23.4	2.83	
	소년보호시설[d]	53	3.8	28.3	37.7	30.2	2.94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2.9	14.6	44.4	38.1	3.18	4.338 ***
	2개소 이상	376	6.4	20.5	44.9	28.2	2.95	
거주 기간	3년 미만[a]	217	6.5	25.3	43.3	24.9	2.87	12.221 *** a,b<c,d
	3~5년 미만[b]	143	6.3	18.9	51.0	23.8	2.92	
	5~10년 미만[c]	285	3.9	12.6	44.9	38.6	3.18	
	10년 이상[d]	411	2.4	14.1	42.8	40.6	3.22	
학업 성적	상(7~10점)[a]	239	1.1	10.8	46.2	41.9	3.29	11.597 *** a,b>c
	중(4~6점)[b]	582	3.3	16.6	41.7	38.4	3.15	
	하(0~3점)[c]	238	6.0	19.1	46.3	28.6	2.98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2)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지경 외, 2023)의 연구 결과 중 고등학생의 응답률임.

(6) 결핍 정도

본 연구에서는 유니세프(UNICEF)의 아동 결핍 지수를 바탕으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결핍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결핍이 있다는 응답률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수영·악기·태권도 등 정기적인 취미·여가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1%로 상당히 높았으며 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없는 경우도 38.3%로 그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나 문화·야외 활동이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시설거주에 따른 결핍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청소년들의 신체 및 문화 활동 여건이나 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결핍 항목 하나당 1점으로 하여 결핍 점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결핍이 하나도 없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하였다. 14개의 문항 중 1개 이하의 문항에서 결핍(아니오)을 보고한 비율을 결핍이 없다고 가정하면 전에 응답자의 41.9%만이 결핍이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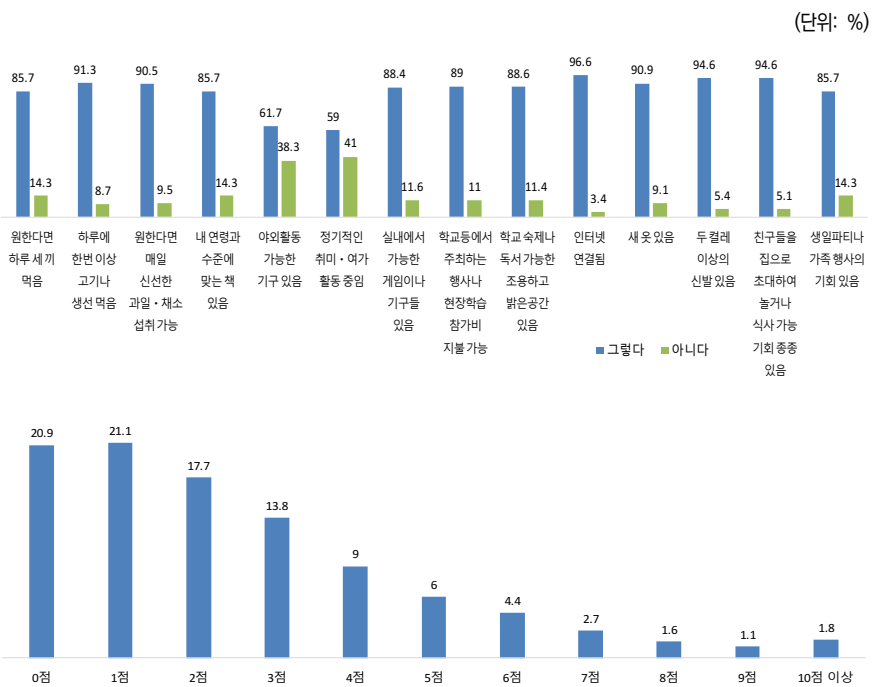


그림 V-44. 항목별 결핍 정도 및 결핍 점수별 분포율

결핍 총점을 바탕으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 유형에 따라 결핍 지수 총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보다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의 총점 평균이 더 낮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후자의 결핍 정도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거주시설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그리고 학업성적이 상(높은 수준)인 경우보다 중(보통 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결핍 정도가 더 많았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14개의 문항 중 최소 2개 이상의 문항에서 결핍(아니오)을 보고한 비율을 결핍 지수라고 할 때 12~17세 아동을 대상으로 2023년에 산출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9~17세 아동 중 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상정, 이주연 외, 2023)에서도 49.3%만이 결핍 지수에 해당하였는데 이와 비교하더라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결핍 지수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연령대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비교에 좀 더 신중한 필요는 있다.

표 V-96. 하위집단별 결핍 지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결핍 지수[1]	총점 평균[2]	t/F 검증
일반청소년[3]		2,300	24.8	-	-
전체		1,059	73.4	2.52	-
성별	남자	558	71.9	2.36	5.524*
	여자	501	74.9	2.71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3	70.3	2.36	28.339 *** a,b>c,d
	공동생활가정[b]	205	65.5	1.75	
	청소년쉼터[c]	158	88.7	3.82	
	소년보호시설[d]	53	85.4	3.60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72.3	2.39	6.198*
	2개소 이상	376	75.2	2.77	
거주 기간	3년 미만[a]	217	84.1	3.41	13.690 *** a<b,c,d
	3~5년 미만[b]	143	77.2	2.67	
	5~0년 미만[c]	285	63.2	2.24	
	10년 이상[d]	411	72.9	2.21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결핍 지수[1]	총점 평균[2]	t/F 검증
학업 성적	상(7~10점)[a]	239	63.4	1.97	11.810 *** a,b<c
	중(4~6점)[b]	582	71.7	2.33	
	하(0~3점)[c]	238	78.2	2.89	

*p<.05, **p<.01, ***p<.001

* 주: 1) 결핍 지수는 14개의 문항 중 최소 2개 이상의 문항에서 결핍(아니오)을 보고한 비율(2~14점)임.
2) 총점 평균의 범위는 0~14점임.
3)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이상정, 이주연 외, 2023)의 연구 결과 중 12~17세의 응답률임.

(7)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약 62%는 현재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만족도의 평균값은 6.87점으로 2023년 일반청소년의 만족도 점수인 7.23점보다 다소 낮은 점수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 차이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만족도가 낮았고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보다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의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의 만족도가, 2개소 이상의 시설 생활 경험이 있는 청소년보다는 1개 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의 만족도가, 그리고 시설에서 5년 이상 생활한 청소년의 만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성적이 보통(중) 이상인 경우가 낮은(하) 경우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표 V-97.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1]	t/F 검증
일반청소년[2]		1,264	-	-	-	7.23	-
시설거주 청소년		1,059	8.9	29.2	61.9	6.87	-
성별	남자	558	6.5	25.3	68.3	7.24	5.390***
	여자	501	11.6	33.5	54.9	6.46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a]	643	7.8	26.7	65.5	7.03	8.150*** a,b>d
	공동생활가정[b]	205	5.9	29.3	64.9	7.04	
	청소년쉼터[c]	158	12.7	36.1	51.3	6.39	
	소년보호시설[d]	53	22.6	37.7	39.6	5.68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1)]	t/F 검증
지역 규모	대도시[a]	379	10.0	30.9	59.1	6.71	3.512* a<c
	중소도시[b]	541	8.7	28.3	63.0	6.87	
	읍면지역[c]	139	6.5	28.1	65.5	7.33	
거주 시설 수	1개소	683	7.6	26.9	65.4	7.06	3.410**
	2개소 이상	376	11.2	33.2	55.6	6.54	
거주 기간	3년 미만[a]	217	12.9	31.3	55.8	6.50	5.915** b<c,d
	3~5년 미만[b]	143	11.2	35.7	53.1	6.37	
	5~0년 미만[c]	285	8.1	28.1	63.9	7.08	
	10년 이상[d]	411	6.6	26.3	67.2	7.09	
학업 성적	상(7~10점)[a]	239	6.5	17.2	76.3	7.44	16.455*** a,b>c
	중(4~6점)[b]	582	4.6	32.0	63.4	7.14	
	하(0~3점)[c]	238	13.3	31.5	55.2	6.43	

*p<.05, **p<.01, ***p<.001

* 주: 1) 평균 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며 응답률은 불만족(0~3점), 보통(4~6점), 만족(7~10점)으로 나누어 봄.
2) 일반청소년 응답률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지경 외, 2023)의 연구 결과 중 고등학생의 응답률임.

3. 소결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결과를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받고 있는 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학업 수준이나 학습 의욕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가 많고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특성화고 재학률도 높은 편이다. 다만 집단별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는데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며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 또는 2개 이상 복수의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형편이다. 후자의 경우는 학업 중단율도 높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가 더 많았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은 성적이 높은 친구들에 비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짧았다. 이는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적고 학습 의욕이 저하되어 있어 학습행동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참여자들의 학업 중단 이유를 알아본 결과,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공부하기 싫어서라는 것은 이들의 학습 의욕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데 이는 공부가 싫더라도 학력 취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설거주 청소년의 사교육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수강률이나 수강시간, 수강료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학업성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어, 영어, 수학의 사교육 경험률과 주당 수강시간 등이 낮았는데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이 대도시 거주 청소년보다, 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높은 청소년보다, 그리고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에게서 낮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사교육 경험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반 고등학생들이 거의 하지 않는 학습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또한 시설거주 청소년의 사교육 수강료는 시설이나 국가지원, 후원금 등 외부로부터 일정 부분 충당이 가능하였다.

두 번째로 진로·진학과 관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향후 진로에 관해 일하기(돈벌기)와 상급학교 진학 의견이 각각 37.5% 전후로 가장 많았다. 상급학교 진학계획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특히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거주자, 복수시설 거주자, 성적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낮았다. 한편,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19.5%)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진학·진로 결정 과정에서 시설거주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은 시설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논의한 경험이 있었고 그중 대다수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성적이 낮은 경우 의논 경험이나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장래 희망을 정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으며, 제과제빵사, 간호사, 바리스타, 미용사, 요리사, 군인 등을 많이 희망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러한 희망 직업이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다고 응답하였으나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 기준에 대해 아는 경우는 67.3%, 그 직업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준비하는 경우는 56.8%에 머물렀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거나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관련 지식이나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준비하는 것이나 취득한 자격증이 없다는 청소년 역시 절반 이상이었으며 특히 성적이 낮은 경우에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진로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직업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험을 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의 약 37~39% 정도로 시설거주 청소년 중 상당수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한편,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경제적 수입(24.3%)이었는데 이는 가족의 지원 없이 자립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세 번째는 정보활용 능력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인용 컴퓨터·태블릿 소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없는 경우가 약 40%였고 그중에는 공용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약 24%로 나머지는 기기가 아예 없었다. 특히 청소년쉼터·소년보호시설 청소년 중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지 않거나 공용 기기의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공용 디지털 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보호처분(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일부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컴퓨터·태블릿 활용 능력에 대한 응답률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활용 능력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있었으며 특히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의 능력이 타 시설에 비해 낮았다.

네 번째, 일 경험 영역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은 24.3%로 일반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경험률(황여정 외, 2024)보다 다소 높았는데 특히 청소년쉼터 및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의 일 경험률은 절반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 이들의 주된 일 장소는 요식업소였으며 한때 청소년들이 많이 했던 배달일은 1% 이하로 낮았다. 주된 근로 사유로는 고정지출비 사용(19.8%)이나 용돈이라는 응답(59.1%)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다소 많았다. 특히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또는 복수의 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 집단에서 고정지출비 사용이 주된 이유라는 응답과 장기 근로를 하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는 것은 이들의 일 경험이 단순 경험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활동이 더 중요한 이유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 번째는 여가·문화 활동 영역이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 공연·전시 등 관람 경험과 여행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대부분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여가·문화 활동을 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연평균 관람 횟수는 10회 내외이며 지역 규모나 시설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은 부분적으로는 거의 모든 시설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 활동 경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다만 이들의 관람 유형이 영화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전시회는 일 년에 한 차례 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거주 청소년은 이러한 문화 활동 외에 여가 시간의 대부분은 온라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었고 여가 시간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시간을 보낸

다는 응답도 28% 전후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교육 환경 및 휴식 공간과 관련하여 보면 시설 내 방당 사용 인원은 2.5명이었고 시설 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책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5%였다. 다만 청소년쉼터 청소년들은 시설 내 학습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률(27.9%)이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설 내 학습 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3.2%에 달했는데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진학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조사 참여자 중 상당수가 학업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시설거주 청소년 중 62% 이상이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시설 외부 공간에서도 공부하였는데 이용 장소로는 학교(64.3%), 스터디 카페(41.9%), 도서관(41%) 순이었다. 다만 외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주된 이유 중에는 비용 부담(6.6%)과 통금시간과 같은 시설 규칙 때문(6.4%)이라는 응답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 대다수가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과 도서관·청소년센터·복지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박물관·미술관·도서관·극장 등 문화시설의 구축 정도는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률이 낮았다. 대중교통 이용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읍면지역보다 편리하였으며 문화시설은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잘 조성되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관계 및 웰빙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는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 시설 생활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생활과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다행히도 대개는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일부 응답자(14~23%)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적과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간에는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선생님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들의 학업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높은 학업성적이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는데 공동생활가정 등 한 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생활한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만족도가 높았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일반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무기력이나 우울 경험률은 상당히 높았고 정신 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쉼터 청소년은 우울과 무기력 모두,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은 무기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였다.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도 무기력과 정신건강에서 부정적 경향을 더 많이 보였다. 따라서 이들의 정서 지원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부가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학습 지원에 있어서 시설 유형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학업 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이들에 대한 시설 차원의 학업 지원 역시 쉽지 않다. 물론 시설에서는 자체 예산 외에도 외부 사업 공모 신청, 후원 모집 등을 통해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받는 학업 지원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학습 지원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시설 예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사교육과 같이 장기간의 정기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일시적이거나 간헐적 지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적 현상을 무시하고 이들의 사교육비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기회의 박탈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학습 지원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시설 유형별 차이, 즉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과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시설 간의 일관된 차이는 개인적 특성의 차이로 볼 수도 있으나 일정 부분은 예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설거주 청소년을 시설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보기보다는 가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공통점을 지닌 청소년이라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시설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부처 간 차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생활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나 인력 충원 등 시설운영에 대한 국가최소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진로 지원과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 시설에서 사는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이라도 학업성적, 진로 결정 여부, 심리·정서 상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차를 보인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학업 지원뿐 아니라 진로 지도 역시 좀 더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은 진학·진로 결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은 진학·진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에서 바리스타 등 일부 자격증에만 국한되어 있는 데에서 벗어나 학업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도 흥미를 느끼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반면 학업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청소년들에게는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양질의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다 전문적인 진학·진로 상담이나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적절한 학습 공간 및 기자재 제공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준별 진학·진로 기회의 발굴 및 제공을 시설 종사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이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청소년 진학·진로 전담요원을 시설 또는 지역단위로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과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진로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직업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지자체에서는 시설거주 청소년의 상당수가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AI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학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질 향상에서도 핵심적인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개인용 기기 없이 공용 기기를 사용하거나 그마저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컴퓨터·태블릿 활용 능력에 대한 응답률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활용 능력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있었으며 특히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의 능력이 타 시설에 비해 낮았다.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의 컴퓨터·태블릿 활용 능력의 저하는 학령기 초기부터 인터넷 게임 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컴퓨터·태블릿 관련 교육이나 활용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컴퓨터 활용 능력은 청소년들의 학업뿐 아니라 향후 직업 역량이나 일상생활 기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설 내 일부 청소년들은 「소년법」 보호처분(6호)으로 시설 내 규칙상 컴퓨터(인터넷)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청소년과의 정보화 격차를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도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문화 및 청소년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은 개인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시설에서 청소년들에게 공연·전시 관람이나 여행 등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행을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문화 활동은 영화 관람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전시회는 일 년에 한 차례 정도 경험하고 있었다. 대도시나 수도권 등지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전시회가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음에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경험률이 낮은 것은 관련 정보가 적거나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이 적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 청소년들의 관람 유형 폭을 넓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거주 청소년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온라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었고 일부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보내고 있었다. 이에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문화 경험 확대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는 여가 시간 중 온라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의존도는 학습 무기력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바(예: 박봉환, 2022; 장은아, 정혜원, 2023) 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는 양질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구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동 수단이 편리하거나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졌다는 것은 다양한 교육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은 교육 환경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인해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과 문화·활동 경험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 내에는 학습 의욕이 없고 학습 습관이 형성되지 못하는 등 학습 역량이 저하된 청소년들이 상당수인데 이들을 위해 학습 의욕 향상 및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낮은 학습 의욕과 학습 습관 미형성은 청소년기 이전, 생애 초기 단계부터 누적되어 온 부분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시설거주 청소년 중 상당수는 시설 입소 이전 가정에서부터 방임·학대를 비롯한 부정적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김지연 외,

2022). 생애 초기의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하며(예: 이승진, 이화조, 최유정, 정익중, 2023) 우울 등 부정적 정서는 학업 성취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예: 장은아, 정혜원, 2023)하기도 한다. 이에 시설거주 청소년 중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 지원과 더불어 전문적인 정서 지원 및 심리 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심리·정서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소년쉼터·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부가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소년보호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 학생의 경우는 학교를 통해 지원되는 위(Wee) 프로젝트 사업,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서·심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Wee)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한 시설거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심리·정서 관련 지원을 받는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6장 시설거주 청소년 심층면접

1. 심층면접 개요
2. 자문회의 개요
3. 심층면접 결과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6 시설거주 청소년 심층면접[81)]

1. 심층면접 개요

1) 조사목적 및 방법, 조사대상자

심층면접은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관련 경험 및 관련 생활 실태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 현안을 파악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에 참여한 시설의 담당자에게 연구 전반 및 조사설문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청소년 중 심층면접 참여에 동의한 14명의 시설거주 청소년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면접을 수행하였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면접이 종료된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표 Ⅵ-1.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시설 유형	참여자명	성별	학교 및 학년	면접일
아동양육시설	참여자A	남	특성화고2	9.7.
	참여자B	남	특성화고1	9.7.
	참여자C	여	특성화고3	9.19.
	참여자D	여	일반고3	9.19.
	참여자E	여	일반고1	9.13.
그룹홈	참여자F	여	특성화고1	8.25.
	참여자G	여	중3	8.26.

81)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시설 유형	참여자명	성별	학교 및 학년	면접일
청소년쉼터	참여자H	여	특성화고3	9.21.
	참여자I	남	검정고시 합격	9.23.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참여자J	남	일반고1	8.27.
	참여자K	여	특성화고1	8.30.
	참여자L	남	특성화고2	9.16.
	참여자M	남	일반고2	9.16
	참여자N	남	중3	8.27.

2) 질문지 개발 및 주요 내용

질문지는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생활 장면에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에서 단편적인 사실 확인만이 가능했던 사항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원 연구진이 실태조사 설문지를 기초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Ⅵ-2〉와 같다. 개발된 질문지는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2025년 8월 5일 '승인' 통보를 받았다(승인번호: 202505-HR-고유-012).

표 Ⅵ-2. 심층면접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질문	
배경문항	- 성별, 연령, 거주지역, 시설 거주기간, 재학 여부, 학교 유형 등	
교육실태	- 현재 학교 진학 사유 - 현재 학업 및 학교생활 - 현재 학교 외 진로, 진학 교육 여부 - 진로 관련 준비 - 여가시간 활동 - 교육 및 휴식 공간	- 공부(학습) 방해 요인 - 공부(학습) 관련 어려운 점 및 희망 지원 - 후배들에게 필요한 지원 - 기타 교육 및 학습 관련 제안하고 싶은 내용

3) 분석방법

심층면접 자료는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 기록하고 녹취하였으며,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선행연구 분석 자료 등과 비교하기 위해 삼각검증 방법을 활용하

였는데, 이는 실태조사 자료 분석 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줄이고 분석내용을 보완하면서 타당성을 검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 자문회의 개요

자문회의는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유형별 교육지원 내용 및 방식, 교육환경 조성 현황 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각 시설 유형별로 실시하였다. 자문회의에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일부 시설의 경우 소장)가 참석하였고, 자문회의 시 발언 내용이 보고서에 일부 인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참석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하였다.

표 Ⅵ-3. 자문회의 참석자 정보

시설 유형	참여자명	직책	성별	자문회의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A	자립지원전담요원	남	9.3.
	종사자B	과장	남	9.3.
	종사자C	자립지원전담요원	남	9.3.
	종사자D	과장	남	9.3.
그룹홈	종사자E	실무자	여	8.14.
	종사자F	소장	남	8.14.
청소년쉼터	종사자G	소장	여	9.9.
	종사자H	소장	남	9.9.
	종사자I	팀장	여	9.9.
	종사자J	팀장	여	9.9.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종사자K	관장	여	8.14.
	종사자L	관장	여	8.14.
	종사자M	팀장	여	8.14.

자문회의 자료는 참여 종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기록하고 녹취하였으며, 심층면접 자료 분석 과정에서 면접 내용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3. 심층면접 결과 분석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충하고 시설에서의 교육지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시설별 지원 특성 및 청소년들의 진술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사자 자문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에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중학교 유예로 인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그리고 중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 자격을 취득한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심층면접은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결과 해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태조사 영역에 따라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결과도 그에 따라 정리하였다. 심층면접과 자문회의를 통해 파악한 주요 결과는 다음 〈표 Ⅵ-4〉와 같다.

표 Ⅵ-4 심층면접 주요 결과

영역	주요 질문	세부질문	세부내용
진로 관련 준비	고등학교 계열 선택	고등학교 계열 선택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본인이 결정한 후 주변 성인과 의논 주변의 정보를 얻은 후 본인이 결정
		고등학교 계열 선택 사유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선택 흥미·적성에 맞추어 선택 성적에 맞춰 선택 호기심으로 선택 기타 다른 이유로 선택
	향후 진로 관련 결정	진로 관련 정보 획득 경로	학교에서 얻는 정보들 시설에서 얻는 정보들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들
		향후 진로에 관한 생각	진로에 관한 명확한 결정 진로는 결정했으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막연한 결정 진로 미결정
	자립 계획		최대한 자립을 늦추려는 계획 퇴소 이후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자립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계획

영역	주요 질문	세부질문	세부내용
학교 외 교육 경험	고등학교 입학 전 교육 경험		
	고등학교 입학 후 교육 경험	학업 보충을 위한 정규수업 외 교육 경험	본인 요청으로 인한 학업 보충 시설 제안으로 시작한 학업 보충
		진학, 전공과목 보충,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취미를 위한 학원 수강	
	교육비 충당 방법		
	학업 흥미	작은 성취에서 시작된 흥미 낮은 목적의식, 무기력 학업 단절 경험 관리 부족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	
학습공간, 기자재, 여가생활 지원	학습공간 지원	학습공간	공부하기에 충분한 공간 시끄럽고 부족한 공간 비용과 통금시간으로 인한 외부공간 이용 한계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	노력이나 집중 부족, 놀고 싶은 마음 시끄러운 시설 환경 학원비 부담
	기자재 지원	개인소유의 기자재 불편 없는 공용기자재 사용 시간규정으로 인한 기자재 사용 불편감	
	여가생활 지원	휴식공간	
		여가시간	시설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 시설 밖에서 보내는 시간들
		문화생활	
개선이 필요한 점	현재 지원에 대한 생각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지원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지원 수혜자의 요구와 맞지 않는 지원	
	후배들에게 필요한 지원	적절한 관리를 통한 학습지원 성취를 지원해 줄 멘토 흥미나 취미활동, 진로 지원 경제교육 및 지원 정보 제공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시설 내 경계선지능 청소년 현황		
	시설 내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현황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안	조기개입을 위한 전문적 개입방법 정보 제공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공유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학습 지원 경계선지능인 전문지원기관과의 연계 협력 확대	

1) 진로 관련 준비

(1) 고등학교 계열 선택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 계열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시설과 학교 간 거리와 흥미·적성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계열 선택을 본인이 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다음으로 시설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였다.

① 고등학교 계열 선택 방법

가. 본인이 결정한 후 주변 성인과 의논

현재 시설에 거주 중인 고등학교 학령기 참여자는 고등학교 계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결정한 후 주변 성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 일단 제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게 가장 크고요. 주변에서 학원, 학원이나 여기 선생님들이 나 조언도 있었어요. (참여자B,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1)

- (제가 학교를 선택한 후에) 여기 시설 선생님하고도 특성화고 가겠다고 말씀드려서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정했어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나. 주변의 정보를 얻은 후 본인이 결정

또 다른 참여자들은 학교 홍보물이나 학교 체험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시설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나 조언을 얻은 후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 (의논한 적은?) 담임선생님. 중학교 때. (참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여, 특성화고1)

- (학교 특성에 대해) 한 절반 정도는 알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학교 체험도 한 7번 다니고 입학 설명회도 다니면서 더 자세히 알았던 것 같아요. (입학설명회는 어디에서?) 네, 그냥 저희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요. 제가 (고등)학교 찾아갔어요. (중략) 중학교에 이제 중3 되면 홍보가 많이 붙어서 조리학과 보러 갔어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시설 종사자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할 때 보통 성적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교생활이나 진로 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준 후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후 학교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고등학교 계열 선택 시 조언을 하지만, 최종 선택은 청소년 본인의 의견을 따르고 있었다.

- 저희는 우선 성적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 상담할 때 한 평균 한 75점 이상 맞으면 본인이 인문계 간다고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거니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아이들한테, (중략) 지금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감당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고, 만약에 75점 이하인 경우는 이 정도 성적이면 너 인문계 가는 거 자체가 어렵다. 내가 볼 때는 특성화고 가서 취업이랑 진학을 두 개를 노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최종 결정은 아동들이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75점 이하인 친구한테 충분히 안 했는데 본인은 자기는 인문계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건데 왜 자기를 무시하냐, 자기의 성장 기회를 왜 막냐, 이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친구들 그래서 인문계를 갔지만 솔직히 지금도 거의 가출하고 반항하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해도 또 가서 잘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고등학교 가서도 어쨌든 졸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사자A, 아동양육시설)

② 고등학교 계열 선택 사유

본인 스스로 진학할 학교의 계열을 선택한 참여자들이 고등학교 계열을 선택하게 된 사유는 학교 계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선택

시설거주 청소년들 중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 제가 하고 싶은 게 자동차 쪽이라 대학교를 기계공학 쪽으로 나오려고 해서 4년제 때문에 인문계 가게 됐습니다. (중략) 타 학교보다 (현재 진학한 학교가) 여기 학군 내에서 내신 따기가 제일 쉽다고 들어서.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또 다른 참여자는 대학 입시 때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기보다 특성화고 전형을 활용할

경우 대학 진학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여 특성화고를 선택했다고 하였다. 실제로 한 참여자는 특성화고에서 공업계열을 전공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현재 전공과는 전혀 다른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여 특성화고 전형으로 대학입학 수시원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였다.

- 그냥 대학교를 쉽게 가기 위해서요. (중략) 여기는 특성화고기 때문에 약간 쉽게, 다른 학교보다 쉽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이 학교를 선택했어요. 특성화고 전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형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맞는 게 특성화고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작성해서 냈어요. (중략) 저는 제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그 과가 면접이랑 수시랑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따로 없어요. (참여자C, 아동양육시설, 여, 특성화고3)

나. 흥미·적성에 맞추어 선택

컴퓨터나 요리 등 특정 영역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던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관계있는 특성화고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컴퓨터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더 배워보고 싶어서요. (언제 결정했는지?) 중 2때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고등학교 설명회 같은 거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라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참여자A,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2)

- 원래 요리도 좋아했었고 제과제빵으로만 하려 했다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넓혔어요. 여기 시설 선생님에게 특성화고 가겠다고 말씀드려서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정했어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다. 성적에 맞춰 선택

일부 참여자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내신이나 성적이 부족하여 특성화고 진학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 제가 원래 ○○시에서 지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지내는 시설로 오게 되면서 고등학교 선택을 △△시 쪽으로 알아보는데 내신에 맞춰서 알아봤어요. 그냥 그 과에도 조금 관심이 있고 궁금해서 갔어요. (관심이 생긴 시기는?) 작년부터요. 작년에 입학했을 때는 그냥 솔직히 내신이 안 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짧게 다니긴 했지만 한 달 두 달

동안 패션 쪽에 관심이 생겼는데 자퇴를 했다가 다시 다녀보고 싶어서 들어가게 됐어요. (참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여, 특성화고1)

- (특성화고는) 성적이 안 돼 가지고 갔습니다. (조경토목과를 선택한 이유는?) 거기가 제일 인기 많아서 갔는데 이제 붙었습니다. (참여자L,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특성화고2)

라. 호기심으로 선택

일반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이 많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기보다 다른 일을 체험해 보고 싶어서 호기심이 생기는 영역의 특성화고를 진학한 참여자도 있었다. 무엇을 공부하는지, 관련 직업군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다고 하였다.

- 어... 저희 지역에 다른 애들이 일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걸 원했어요. 뭔가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계 다루고 하면서 몸도 좀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걸 좀 원했어요. (중략) 저는 일반고가 공부만 하니까 그래서 공부 말고 뭔가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좀 체험해 보고 기계도 이렇게 다뤄보고 도면 설계도 하고 그게 확실히 재미있었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기계 이쪽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 만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다를까 하고 호기심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게 됐어요. (참여자B,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1)

마. 기타 다른 이유로 선택

참여자 중에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이 단기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 시설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학기 중에는 퇴소하였다가 방학 중에 다시 입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재 거주 중인 시설에서의 거주 및 생활 지원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였지만, 시설에서 거주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거주기간이 만료되어 지금까지 적응해 온 거주시설을 퇴소하여 다른 시설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

- 저희 학교가 기숙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랑 보건과가 있어서 거기로 가게 된 거거든요. 제가 부모님이랑 아동학대로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시에 있는 학교로 가면 쉼터 퇴소해

야 된다 해서 중장기로 옮겨야 된다고, 제가 지금 단기에 있는데 중장기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저는 단기가 너무 좋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학년 유예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참여자는 대학 진학 등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 도움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특수학급 전형이 있는 인근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갈 거예요. (고등학교는 여러 군데 지원하고 그 중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 특수학급 전형이라 가지고 좀 달라요, (참여자G, 그룹홈, 여, 중3)

(2) 향후 진로 관련 결정

① 진로 관련 정보 획득 경로

가. 학교에서 얻는 정보들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결과 진학·진로 결정 과정에서 시설거주 청소년의 80% 이상은 시설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논의한 경험이 있었고 그중 대다수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면접 결과 진로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은 참여자는 거의 없었다. 다만 참여자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진로 관련 정보를 얻거나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학기 초에 간단히 진로상담을 하면서 진로 관련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학교에 게시된 포스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취업담당 선생님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 일단 저희 학교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는 학원 선생님 이야기 가장 많이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특성화고 전형이 있다. 대충 이거를 그럼 네가 여기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는 게 어떠냐. (개인적으로?) 개인 상담은 안 했고요. 전체 수업으로요. (참여자B,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1)

- (학교의 진로나 진학 관련 상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받는 애를 한 번도 본 적은 없긴 해요.

- 학기 초에 처음으로 담임 쌤 뵀을 때 그때 다 개개인으로 상담 진행하긴 했는데, 그때가

> 약간 진로상담이라면 진로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저는 뭐 시설에 있고 약간 이런 거를 말씀드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중략) (설명회는) 학교에서 가끔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고3을 대상이었어요. 대학교에서 오는 거...(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나. 시설에서 얻는 정보들

참여자들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시설 선생님과 상의하거나 시설 선생님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하였으며, 시설에 방문하는 외부 진로 선생님이나 진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시설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진로상담이나 진로체험, 진로정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은 참여자도 있었다.

- 선취업 후진학은 학교에서 포스터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취업 담당 쌤한테 여쭤봐서 알았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 기관 소장님이랑 얘기해서 추천해 주시고. 거의 제가 소장님이 키웠다시피 해갖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건과는 제가 쉼터에 혼자라 딱히 (상담을) 받기보다는 다 제가 알아보거나 제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쉼터 담당 선생이랑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학교에서 대입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진로 관련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중략) 며칠 전에 진로 상담을 해가지고 10번 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어떤 선생님?) 외부 상담 선생님 오셔가지고 진로 코칭해주셨어요. (학교에서?) 아니 저희 센터로 오셔서요. (어떤 내용을?) 대학교는 이제 저희가 조리과니까 조리에서 제 성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주시고 대학교도 몇 개 둘러보고 했어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 저는 이미 제가 가고 싶은 학교랑 다 정해져 버려서 별로 (시설)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 적은 있어도 이미 저도 똑같이 가고 싶은 대학교가 다 정해져 버려서 '그럼 그쪽으로 가라. 괜찮다'라고 해서 네 그런 제 입장만 말을 했지 다른 건 별로 더 추천은 안 해 주셨어요. (참여자C, 아동양육시설, 여, 특성화고3)

다.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들

또 다른 참여자들은 쉼터 진로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지원 등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 핸드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재밌어 보이고 좀 하고 싶은 거... (쉼터 선생님들은) 진로 뭘 할지 일단 찾아주시거나 취업 같은 거 하면 도와주신다고.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 (향후 갖고 싶은 직업은?) 동물입양상담사요. 진로 프로그램 같은 거 했는데 거기서 직업 많이 봤는데 동물 좋아하고 돌보는 거 좋아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근데 보니까 시험도 그렇게 딱히 어려운 것 같진 않아서 생각해 봤어요. (진로 프로그램은 어디서?) 센터에서요. (중략) (동물입양상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대학 동물 관한 쪽 나와서 대학 팻시터 자격증을 따야 돼요. (중략) (자격증 시험에 대해 알아본 것이 있는지?) 그건 아닌데 뭐지 사람들 시험 치는 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자기는 뭐 두 번 만에 붙였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서요. (참여자G, 그룹홈, 여, 중3)

각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진로를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 프로그램, 진로캠프, 진로상담, 직업체험, 진로검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나 적성, 욕구를 좀 더 파악한 후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다만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욕구가 낮은 편이어서 이들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심을 보이는 진로가 발견되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진로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직업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지만 교육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경험을 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약 35% 내외로 시설거주 청소년 중 상당수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기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시설에서 멘토링, 직업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흥미에 기반하여 직업을 체험하다 보니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제한되고 지원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역시 한정적이어서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범위가 협소해지는 경향이 있다.

- 저희 기관에서는 제가 또 주도해서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자립 진로캠프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중략)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재미있어하고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은 지에 대해서 욕구를 좀 더 파악하고 그 욕구에 맞춰서 학원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략)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교 진로를 다시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잘하는 걸 알아서 학원을 다시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연계해서 졸업까지 해서 간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다양한 방면으

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사자C, 아동양육시설)

- 제가 자립전담요원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중3 이상 아동부터 고3까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상담해서 자립지원계획서 작성하고 있고 그 계획서에 맞춰서 정기적 상담하고 학원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는 '레디, 액션'이 □□□에서 '하자'라는 이름으로 자립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탐색 교육을 잡월드 간다든지 조향사 체험, 목공예 체험, 이런 다양한 체험도 하고 있고 진로검사도 하고 있고 또 외부 지원사업으로 멘토링이나 캠프 통해서 그런 직업 체험도 할 수 있는 것도 연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종사자A, 아동양육시설)

- 설문 같은 거 혹시 보시면, 통계 같은 거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꿈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 저희 세대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만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나 다른 교육 기관의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다음에 학습 욕구라는 것도 이 아이들이 '뭘 하겠다'는 최소 '무슨 대학을 가겠다' 이런 거라도 있어야 욕구가 생기는 게 가능한 건데, 저희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 겨울방학 쯤에 '너는 무슨 과를 갈래?' 라고 항상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수시로. 그러다 보면 어디 전공을 하고 싶다 정도는 대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등학생 때부터는 계속 집중하게끔 이런 식으로 학습을 좀 시켜주고 하거든요. 저희는,,, (종사자B, 아동양육시설)

- 학습에 대한 욕구가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습을 그렇게 강요를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음악 교육이나 인성 교육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요. 음악을 오히려 특화적으로 더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 (종사자B, 아동양육시설)

② 향후 진로에 관한 생각

가. 진로에 관한 명확한 결정

일부 참여자들은 대학입시 및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진로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 성적 기준, 입시전형 방법 등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대학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가며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고 자신의 진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 근데 성적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가서 선취업후진학제라고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로 학점 맞춰서 대학 가긴 할 건데 조금 너무 늦어질까 봐 걱정이... (대학 전공은?) 간호학과

가고 싶어요. (어느 학교에 가고 싶은지?) 간호학과는 다 4년제라 전문대에도 4년제거든요. 생각하는 건 보건전문대 가고 싶어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저 원래는 국어 교육과 희망했고요. 지금은 실용무용과 희망하고 직업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 (실용무용과를 선택한 계기는?) 제가 완전 어렸을 때, 한 7살쯤 그때부터 한 4년 동안 취미로 발레를 했거든요. (중략) 자라면서 어릴 때 아이돌 많이 보잖아요? 애들이. 그러면서 그냥 다 따라 추다가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약간 나 이거 직업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오히려 진로 못 정하고 약간 당황할 때라 해야 되나? 그때 더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어떤 어디 어디 학과가 있고 성적이랑 비율은 얼마나 되고 이런 걸로. (중략)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 설계해 둔 게 사실 실용무용과가 성적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가장 높은 과가 실기 8이고 학생부 2. 이렇게 8 대 2인데 그 학생부라는 게 출결도 포함이니까 성적 비중이 진짜 적단 말이에요. (중략) 학교에 뭔가 커리큘럼이나 그런 걸 보고 2년제도 저는 그런 게 괜찮다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실무로 연계해 주는 그런 기회가 많은 학교가 있고 아니면 약간 그렇지 않은 학과도 있고 그냥 그 학교가 어디였는지까지는 기억을 안 하고 있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2년제여도 그러한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좋다는 학교가 있다는 걸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 근데 ○○○에 있으면서 제가 비전트립이라고 일본에 가게 된 경험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때 너무 저한테 여행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나라를 둘러보고 이런 경험을 겪어서 제가 많은 걸 배울 수 있고.(중략) 저희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셔서 '베트남 어학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 어학과는 통역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여행가이드를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담임 쌤한테 여행가이드를 하고 싶다 했었는데 샘이 여행가이드는 본업으로 삼기에는 너무 빈도수가 적고 돈도 적게 번다 그러셔서 쌤이 저보고 승무원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중략)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너무 메리트가 좋고 저랑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잘 맞아서 지금까지 꿈을 꿔오고 어떻게든 장학금이랑 연결돼서 학원까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저는 현재 승무원을 꿈꾸고 있어서 지금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중략) (어떻게 정보를 모았는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저는 제가 항상 찾아봤어요. (중략) 약간 시설이나 이런 데는 확실히 이런 항공 쪽은 자식 쪽이 좀 적어요. 저희 이모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승무원 되고 싶다는 열정이 좀 강해서 제가 일일이 찾아보고 대학교 지원하기 전에도 커리큘럼 각각 다 보면서 저에게 맞는 학교가 어디일 것 같다.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아직 대학교 말고는 (다른 진로는)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떤 전공?) 같은 분야(조리)요. 호텔외식조리학과라고 △△대에 있어요. (진학은 어떤 방법으로?) 특성화고 전형이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면접 점수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신이 한 40정도 들어가고 면접이 60일 것 같아요.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은지?) 조리 자격증이 많으면 일단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중·일... 한식, 양식, 중식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격증 준비는 하는지?) 따면 좋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아직 목표로 하는 학교나 전공,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흥미를 탐색하고 인터넷 등에서 관련 자격증과 진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 (전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진로를 위한 경험에 대해) 들을 기회는 있고 자격증도 이제 뭘 따야 되는지 대충 다 알고 있어서 그쪽 이제 기회가 되고 시간이 있다면 뭐 자격증 그런 걸 공부를 위해서 학원 다니는 것도 좋지만 독학으로 해도 교재로 혼자 사서 독학으로 해도 돼서 그런 쪽은 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중략) (관련) 자격증을 제가 따는 게 학교 진학에 있어서 유리하려고 따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 관련해서 따보고 싶은 거고, 대학교 4년제는 그냥 요즘 시대에 대학교는 나와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보는 시선에도 제가 하고 싶은 업종에서 그래도 대학교를 안 나오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4년제를 진행하자 생각 중입니다. 기계 공학 쪽으로 아예 갈지 아니면 자동차 전문대 쪽으로 빠질지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 제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지게차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편하고 좀 쉬울 것 같아 가지고요. (지게차 관련된 직업을 가질 생각이 있는지?) 네. 나중에 어른 돼서 할 것 같아요. (언제?) (군대 다녀온 후에) 지게차에 일할 것 같아요.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나. 진로는 결정했으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막연한 결정

또 다른 참여자들은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하였지만,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과정을 보면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나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을 막연히 조합한 정도일뿐 구체적이지 않았고, 스스로 정보를 찾거나 조언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없었다.

- 대학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전공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운동선수 그런 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운동?) 저 아직 정하진 못했는데 약간 주짓수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참여자N,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중3)

일부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자격증 교육을 수강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청소년의 진로와는 무관하게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진로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 전공이나 직업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재 그 직업에 대한 수요나 전망은 어떤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강아지가 좋아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서',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의 막연한 이유로 진로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 (대학 진학해서) 저 요리학과. (요리 관련한 학원을 다니거나 코칭을 받는지?) 요리는 대학 가서 할 거고... 펫코칭은 그냥 자격증을 따는 거고 딱히 직업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중략) 그냥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부동산 경매사 할 거고 그걸로 돈 모아서 사업을 할 거라서 그냥 요리 배우는 용도로 가는 거에요. (왜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냥 부동산경매사가 돈을 제가 딱 적당히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중략)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할건지?) 대학 가서 학교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학원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부동산경매사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었는지?) 저 여기 생활관 관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진짜 딱 꽂혀가지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 펫코칭 강사 할 생각입니다. 그냥 강아지 교육시키고... (교육이 필요한지?) 여기 기관에서 알려줍니다. 그걸. (자격증이 필요한가?) 자격증을 따러 갑니다. (중략) (진로를 정한 계기는?) 제가 개 좋아해가지고... (대학교육이 필요한지?)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을 따고 그쪽 관련 대학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갈 준비는?) 아니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갈 마음이나 계획이 있는지?) 예. (참여자L,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특성화고2)

- 사회복지학과요. (진로를 정한 계기는?) 그냥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서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애들을 돌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말을 자주 들어서. (참여자C, 아동양육시설, 여, 특성화고3)

다. 진로 미결정

또 다른 참여자들은 대학을 갈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들은 주변 친구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자신의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으며, 어떤 일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 아직 생각 중에 있어요. (생각한 진로가) 아직 여러 개라서. (어떤?)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대학교 갈지 아니면 바로 취업할지 고민 중이어서... 바로 바로 이제 돈을 벌러 나갈지 안 그러면 더 기술을 닦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갈지 고민 중이었어서요.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면 고등학교 졸업생 전형, 공업고등학교 전형이 또 있어서 그걸로 취업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진로를 어떻게 정했는지?) 잘 몰라요. (참여자A,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2)

-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 딱히 꿈도 없어서... (여건이 가능하다면?) 대학? (이유는?) 요즘 시대에 대학 안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아니요. (중략) 근데 (취업을 하더라도) 패션 쪽으로 갈지 근데 커피 쪽으로 갈지 아직 정확한 꿈이 없어요. (커피?) 15살 때 카페 알바 해 보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알바를 해봤는데 별로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로봇이 거의 다 하잖아요. (참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여, 특성화고1)

(3) 자립 계획

① 최대한 자립을 늦추려는 계획

참여자들은 대부분 최대한 늦게 자립하겠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정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아직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시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자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난 후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자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저는 만 24살까지 쉼터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꽉 채워서 나갈 생각이에요. (이유는?) 제가 정서적으로 자립을 못한 상태거든요. 아직. 솔직히 말하면 다 안 어리다 하는데 저는 제가 어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쉼터 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정서적인 자립 먼저 하고 돈도 같이 모으면서 괜찮으면 쉼터에 2년 이상 거주하면 LH 아파트 지원받는 게 있어서 그걸로 받아서 나갈 생각이에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최대한 늦게요. (늦게?) 네. 대학 위치에 따라서 또 그때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요. 저는 뭔가 책임이 많이 주어지고 그런 게 싫어요.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 26살까지 있을 생각입니다. (참여자L,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특성화고2)

② 퇴소 이후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시설거주 청소년이 시설퇴소 후 사회에 나오면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왔다. 자립 이전에 시설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아 자립을 위한 준비를 탄탄히 하고 퇴소 후 일정기간 제공되는 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안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일부 참여자들은 퇴소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립에 대한 정보를 모으면서 자립을 위해 저축을 해나가고 있었다.

- 저는 일단 대학교 1학년 때는 친구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숙사 생활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 퇴소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기숙사 생활 말고 제가 자취가 필요하다 하면 ○○ 퇴소하게 되면 LH 전세주택 이런 엄청 혜택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하고 삼촌들이랑 사무실 직원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갈 것 같아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저는 24살까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쌤들이 자립하는 거 도와줘 가지고 그런 거 지원금 받으면서 돈 모으려고... (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 저 이번 이제 11월 달쯤에 퇴소하고... (어디로 가는지?) 저희 본 집. 여기 퇴소하면 그 집(LH)이랑 달마다 50만 원(자립지원금)씩 주는 게 있는데, 그거 줘 가지고 이제... 거기 일단 집도 받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고요.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③ 자립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계획

시설의 지원이 가능한 연령까지 시설에서 머무르며 자립을 최대한 늦추겠다거나 자립시기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어떻게 자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자립 시기나 자립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은 참여자도 있었다.

- 자립이요? 아니요. 아직 (계획) 없어요. (대학에 가면 통학할 예정인지?) 아니요. 기숙사 생활할 거예요. (방학에는?) 그때는 자취를 하던가 아니면 집에 여기 있든가 할 것 같아요.

(참여자C, 아동양육시설, 여, 특성화고3)

그렇지만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원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개인의 노력 없이도 정부의 지원으로 퇴소 이후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이 시설에 있는 동안 스스로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 자신의 장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자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에 '좋은 성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퇴소를 해서도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걸 지금은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요즘에는 미달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일반 전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말해요. '진짜 저 형이 대학교로 갔다고요?'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대학교로 진학을 해도 졸업을 못하거든요. (중략)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생계비라든지, 퇴소하게 되면 사례 수당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알아서 대학교를 입학과 동시에 아이들이 퇴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20만 원 받거든요. 생계비 70만 원 받고, 수당 50만 원 받으면 120만 원을 받아요. 그다음에 자립정착금 저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받거든요. 1,500만 원 받고 또 개인이 모은 개인 후원금, 결연금 있잖습니까? 그거를 또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CDA도 가져가요. 그러면 최소 아이들이 최소 한 2천만 원 이상은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대학교 생활을 잘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대학교를 유지해야겠다고 아이들이 되게 마음을 많이 먹어요. (중략) 아이들이 또 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악순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중략) 이게 현금성으로 애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많은 것 같고,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되게 잘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굉장히,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종사자C, 아동양육시설)

- 얘네들이 퇴소할 때 받는 지원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고등학생 되면 알다 보니까 굳이 퇴소해서 나가서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직장을 안 구해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늠이 되니까 뭔가 취업하거나 대학을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이 많지는 않아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 시설에도 지금 거의 10명 중에 한 한두 명 정도만 자기의 진로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고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 한 7~8명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퇴소되면 퇴소하지' 이런 식의

'나가면 정착금 받고 자립 수당 받고 대학교 가면 수급비 받고 하니까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다'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좀 더 내가 지금 여기 시설에 있는 동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종사자A, 아동양육시설)

- 연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설 아동으로서 이렇게 받기만 하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 부분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퇴소 후에도 '그렇게 되겠지? 뭐 지원받고, 이렇게 5년 동안 자립수당 50만 원씩 받으면서 있다 보면?' 근데 이런 게 다 떨어지면 또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결성이 좀 있는데, 일단은 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기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줘야 되는데 시스템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복합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종사자D, 아동양육시설)

2) 학교 외 교육 경험

(1) 고등학교 입학 전 교육 경험

고등학교 이전까지의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대체로 수학과 영어 과목의 학원을 다니거나 학습지를 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을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수업을 수강하기도 하였으며, 태권도, 발레, 축구, 배드민턴, 탁구, 피아노, 플루트, 난타 등 다양한 예체능 수업을 수강하였다고 하였다. 대체로 예체능 수업 및 방과후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영어나 수학과 같은 교과과목의 경우에는 학원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다거나, 학습지가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었다고 답하는 등 흥미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 수학 학원이랑 피아노랑 공부방 같은 거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공부방이랑 학습지랑 영어 윤선생이랑 태권도 발레 이렇게 다녔어요. (학습지?) 홈런이라고 전과목하는 거 있거든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이게 약간 가정사인데 제가 4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전에는 어머니랑 붙어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그때는 예체능 학원만 다녔어요. 어렸을 때. 왠지는 모르겠는데 수영이라든가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 발레 이런 거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만 했고...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 국영수 다요... 학교에서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선생님 남으라고... (방과후 수업은)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그런 거 했었습니다. (참여자N,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중3)

- 초등학교 때 학원 다녔었어요. 수학이랑 영어요. (어땠는지?)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갇혀 있는 느낌이어서. 학원에서. 중학교 때는 학원을 안 다녔어요. 딱히 돈도 없었고 다니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서. (참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여, 특성화고1)

- 저 구몬 학습지 (경험) 있습니다. (언제?)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저 수학했는데 한 2주일에 했습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 태권도 다녔어요. 초3부터 초6이요. (교과목은?) 저 푸르넷 다녔어요. 공부방. 수학이요. 중학교 때. (어땠는지?) 조금 (도움) 된 것 같아요. (중략) (공부방을 그만둔 건) 다른 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다른 거?) 다른 거요? 그 학원 그만 다니고요? 저 그거 끝나고 컴퓨터 학원으로.... 중 3때부터. (참여자A,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2)

다만 현재까지 학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당시의 교과과목 학습 경험에 대해 '재미있었다',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갔다'거나 '좀 잘 되면 재밌는 것 같다'와 같이 어느 정도 자신의 수업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고, 학습에서 오는 작은 성취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체능이나 방과후 수업 등에서 자신의 흥미를 찾기도 하였다.

- (중학교 때) 제가 **고를 맨 처음에 꿈꿨는데 **고가 내신 50%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 내신이 60~70%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를 못 들어간다는 게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 과목 학원을 처음 다녔는데 제가 진짜 학원을 처음 다녔고 제가 애초에 배우는 걸 좋아해서 (중략) 그런 도움이 있어서 내신을 제가 전교 30% 안에 바로 찍으면서 내신을 17%로 **고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초등학교 때 눈높이로 과외 좀 받았었습니다. (어땠는지?)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잘 따라갔어서요.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 저, 수학 학원 그런 거 다녔어요. (언제?) (초등학교 때) 한 3년 다녔었던 것 같아요. (어땠는

지?) 좀 잘 되면 재밌는 것 같아요. (중략) 방과 후 영어 같은 거 배웠어요.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 제가 부모님이랑 살 때요? 제가 시골에 살았어가지고 학원이랑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 읍내로 오면서 이런 게 있구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중략) (시설 들어오면서) 저 초등학교 때 방과 후 활동 7개 했어요. (어떤 활동?)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음악적으로도 좋아해서 여자 축구부 활동도 했고 오카리나도 했고 오케스트라도 했고 아침이면 플룻부도 했고 육상부도 했고 난타부도 했고 통기타부도 했고.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악기는 피아노 학원 조금 다녔고 체육 같은 거는 학교 끝나고 방과후로 했어요. (어떤 활동?) 배드민턴 했어요. 원래 학교 끝나고 가는 거였는데 아침마다 가서 좀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라 재밌었어요. 피아노는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저는 맨 처음보다 이렇게 확 잘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계단처럼 (실력이) 올라가서 좀 재미없었어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2) 고등학교 입학 후 교육 경험

① 학업 보충을 위한 정규수업 외 교육 경험

학업 보충을 위해 학교의 정규수업 외 교육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크게 본인이 요청하여 학업을 보충하게 된 경우와 시설의 제안으로 시작한 경우가 있었다.

가. 본인 요청으로 인한 학업 보충

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육 외에 학업 보충을 위해 학교에서 혹은 학원 등을 통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참여자 본인이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 수업을 수강하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학업을 보충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보충 방법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보충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중학교 3학년 1학기 초까지는 일단 다니진 않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거기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움 좀 받으려고 학원을 신청했었어요. (시설에서 제안했는지?) 아니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학원 가겠다고... (언제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 들어가고 나서 바로 시작했어요. (중략) 위기, 위기감. 고등학교 좋은 데 못 가는 거 아닌가? (참여자B,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1)

- 수업은 학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고요. 과학은 학원을 다닐까도 고려해 봤는데 제가 그러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학원은 포기하고 그냥 EBS 인강 들으면서 혼자 자습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EBS 것만 듣고 있긴 해요.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 지금 국어는 학원을 다니고 있고 영어는 저희 생활관에서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계시고 수학은 또 따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번에 선생님들 모집해서 저희 알려주시기로 하셔서 지금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국·영·수 여기 3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과학 정도가 배우고 싶어서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신청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진로, 진로도 있다 보니까 이과 쪽으로 전부 선택을 해서 과학 쪽을 좀 더 배우면 어떨지 싶습니다.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 제가 아무래도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게 이과 쪽이다 보니까 수학이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과목이 또 문제를 보다 보면 국어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어학원도 다니고 영어도 요새 자주 쓰게 되니까 그래서 영어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과목만 한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다방면으로 그냥 교과목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이러한 참여자들은 학원이나 과외 등의 방식을 통한 학업 보충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해나가면서 성적이 오르는 등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나아가 시설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학습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 처음에는 적응이 확실히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적응하는 게 많이 힘들었고, 적응하고 나서부터는 학원에서 원장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따라가면 확실히 따라서... (중략) 일단 중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안 하다시피 했다 보니까 갑자기 막 하려니까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뭔가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중략)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에는 막 시작했고 하니까 이제 성적이 오르지 않았는데 2학기 기말고사 칠 때 성적이 좀 하니까 빵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제가 수학을 그때는 못 했다 보니까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칭찬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참여자B,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1)

- 다른 아이들은 다니는데 저만 안 다닌다고 느꼈을 때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 자체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 때문에 하고 싶으면 그 상태로 밀어주시니까 걱정 없이 제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초등학교 때는 딱히 그런 학원이랑 다닐 필요 없이 제가 그때까지는 공부를 좀 했어서 딱히 신경은 안 썼는데 확실히 중학교나 그런 데 올라오다 보니까 그 사교육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특히 고등학교에 와서 이런 차이를 엄청 느꼈어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나. 시설 제안으로 시작한 학업 보충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결과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 고등학생들이 거의 하지 않는 학습지를 활용한 학업 보충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청소년들은 매일 일정 분량의 학습지를 풀고 학습지 담당선생님이 1주일에 한 번 시설에 방문하여 채점과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참여자들은 담당선생님이 1:1로 수업을 해주는 방식은 좋지만, 혼자서 문제를 푸는 것은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흥미 부족은 학습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 지금은 구몬 하고 있고 전에는 멘토 받았어요. (어떤 과목?) 지금 (구몬으로) 국어, 영어, 수학, 중국어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탭으로 풀고 이제 월요일마다 구몬 선생님 오셔요. (단계는?) 중 3거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는지?) 네. 좀 재미가 없긴 했는데 그래도 1대 1로 해서 좀 이해가 잘 됐어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 처음에는 수학했는데 지금은 영어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요. (어떤 방식으로?) (과외선생님이) 집으로 오세요. (효과는?) 괜찮아요. (성적이 올랐나?) 아니요. (참여자C, 아동양육시설, 여, 특성화고3)

- 학습지요? 저 구몬 학습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저 수학했는데 한 2주일에 했습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 제가 사칙연산이 부족해서 잠깐 구몬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학습지만 풀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져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샘이랑 1:1로 수업하는 게 좋은데 학습지로 하거나 태블릿으로 하면 정답을 제가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는 푼다기보다는 정답을 먼저 보는 편이라 그래서 도움이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이 넘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주요 교과목 수업을 수강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설거주 청소년의 수강률이나 수강시간, 수강료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학업성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어, 영어, 수학의 사교육 경험률과 주당 수강시간 등이 낮았으며, 이들의 사교육 경험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반 고등학생들이 거의 하지 않는 학습지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었다.

시설 종사자들은 거주 청소년들이 학원에 다니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원에서 현행 학습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거주 청소년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학원에서 수강생으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의 수준에 따른 학습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학년이나 교급에 비해 낮은 수준의 학습지를 풀고 있었다.

- 구몬 학습지를 지금 하는데 기초 연산이라든가 그런 거. 학원에서는 거의 거짓말 하고 안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냥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기초학습을 하고... 영어 학원도 보내고 수학 학원도 보내고 다 보내봤지만 애들이 단체 생활에서 같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구몬 학습지로 저희가 돌려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종사자E, 그룹홈)

- 사실 여기에 왔을 때는 이미 애들이 다 기초학력이 정말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원을 원래 보내려고 했는데 요새는 학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레벨테스트를 해서 학원 보내는 것도 사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너무 부족한 애들은 구몬학습을 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수학 이렇게 구몬학습 선생님이 방문해주셔 가지고 일주일에 그걸로 정기적으로 연산력 키우고 이러라고 그 구몬을 시키고 있고... 저희는 좀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편이어 가지고...(종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 구몬 학습을 해요. 중학교 좀 공부가 된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안 된 애들은 중학교 3학년이면 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과정)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칙연산이 안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구몬에서는 수준에 맞게 하니까 그렇게 가능하고 학원 보내기에는 어렵죠. 아이들 수준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 학원에 다닐 수는 없고 (종사자H, 청소년쉼터)

이 외에도 해당 시설을 퇴소한 멘토가 교과목을 지도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선배와의

만남으로 인해 만족도는 높지만 만남의 횟수나 장소 등이 불규칙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지금 제가 하는 건 대학교 아는 언니랑 아니면 쉼터 선생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긴 한데 거의 수학 쪽은 대학교 언니가 해주고. (멘토는 어떤 사람?) 그 쉼터에 있다가 퇴소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법대라 되게 소통을 잘해줘 갖고 아직까지 관계를 유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쉼터에서?) 근데 쉼터로 오기보다는 따로 나가서 만나는 게 많아요. (얼마나 자주?) 요즘은 잘 못 만나고 자주 만날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못 만나면 영통으로 하든가 했어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종사자들 역시 기초학습 부족으로 인해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은 좋은 학습지원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멘토링이나 학습봉사를 담당할 봉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봉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외부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있어 멘토링을 통한 학습지원이 항상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고등학생이 고등학교에 학원을 가면 당연히 못 따라갈 것이고 근데 중학교 과정을 가려고 하니 그 외부의 시선, 아이의 자존심과 자존감 이렇다 보니까 또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건 멘토링과 개인 학습봉사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점점 더 그거를 해 주시는 봉사자분들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종사자G, 청소년쉼터)

- 국어 같은, 한글 받는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고1인데 아직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한글도 좀 많이 늘고 조금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라든지 이렇게 외부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 본인들을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도 있고 일단은 좀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좀 되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가르친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꾸준히 자원봉사를 통해서 얼굴을 익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오래 유지되는 편인 것 같고요. (종사자C, 아동양육시설)

② 진학, 전공과목 보충,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대학 진학 및 특성화고의 전공과목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의 전공이나 진로에 부합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참여자는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과목을 배우기 위해 시설에 요청하여 학원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독학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를 중퇴한 한 참여자는 시설에 입소한 후 검정고시를 통해 중,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교육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공부가 싫긴 하지만 학력 취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참여자의 경우 전공에 필요한, 또는 진로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학원수강을 제안해주었다고 하였다.

- (공부방을 그만둔 건) 다른 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다른 거?) 다른 거요? 그 학원 그만 다니고요? 저 그거 끝나고 컴퓨터 학원으로... (중략) 중3 때부터 (참여자A,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2)

- 저 댄스 학원 다니긴 해요. 댄스(실용무용) 학원이요. (중략) 한 올해 1학기 때까지는 병행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춤 쪽으로 틀었는데, 그래도 여러 조언을 듣고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어른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수학, 영어 학원 다 유지하고 그냥 댄스 학원 빈도 수만 늘렸어요.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 저는 현재 승무원을 꿈꾸고 있어서 지금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시에 있는 학원인데 그냥 승무원 학원이라고 면접 준비하고 어피어런스랑 그런 거 준비하는 학원.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그냥 방과 후로 더 보충해 가지고 방과 후 때 시험봐요. (어떤 과목?) 저희 양식이랑 중식 일식하고 바리스타 있어요. (언제?) 이제 2학기라 1학기 때만 하고 2학기 때는 이제 조금 안 하고 2학년 때 더 하려고 했어요. (1학기 때는) 제가 카빙(carving)했어요, 카빙이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 3학년이라 조무사 자격증 최근에 취득했어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지금은 정보처리기능사 하고 있어요. 취업에 도움 될 것 같아서요. 컴퓨터활용능력 따서, 있었어요. (참여자A,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2)

- 일단 ITQ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참여자B,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1)

- 저 운전면허 자격증이랑 오토바이 원동기랑 이번에 지게차 필기 땄습니다. (참여자I, 청소년

쉼터, 남, 검정고시)

- 자격증 따고 싶어서요. (어떤?) ITQ.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다 공부하고 컴퓨터활용능력을 따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여자C, 아동양육시설, 여, 특성화고3)

- 들을 기회는 있고 자격증도 이제 뭘 따야 되는지 대충 다 알고 있어서 그쪽 이제 기회가 되고 시간이 있다면 뭐 자격증 그런 걸 공부를 위해서 학원 다니는 것도 좋지만 독학으로 해도 교재로 혼자 사서 독학으로 해도 돼서 그런 쪽은 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누가 알려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나이 제한이 없는 자격증이라서 너무 늦은 시기는 아니고 한 3학년 때쯤 준비해서 몇 개 따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랑요, 차체기능사랑 차체정비 이런 거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자동차 수리 관련해서요.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 중학교에서 자퇴했어요. 쉼터 와서 (중, 고등 검정고시) 다 봤습니다. (중략) 어렵긴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쉬워가지고... (쉼터에서) 학원비도 대주고 여기서 문제집 같은 거 사주고 그랬습니다. (학원에서는 얼마나 있었는지?) (하루 보통) 4시간 정도... 중학교(검정고시)는 그냥 쉼터에서 기출 문제 풀었어요. (중략) (검정고시 학원은) 한 달 정도 갔습니다. (참여재,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진로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부 시설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의 제안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시작하였지만, 그 내용이 청소년들의 흥미와 적성에 잘 맞는 경우에는 학습 욕구가 높아지고 자존감도 향상되면서 성공적인 자립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 고등학교 3학년 애, 저희가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꿈 잡는 무한 도전이라고 미용학원을 다니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우리는 ○○에서는 미용학원이 없어서 그 당시에 △△라고 여기 인근에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하교 후에 미용학원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 친구가 이거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간혹가다 한 사례씩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때는 아이가 진짜 공부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든지 하고 결국 미용사가 돼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본인이 이렇게 잘 풀리니까 당당해지고 자존감도 높아 높아지고 결혼도 잘 하게 되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잘 맞은 거를 만나게 될 때 아이들은 또 변화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종사자D, 아동양육시설)

시설에서 거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은 진로를 결정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흥미와 관심도 없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나아가 흥미도 관심도 없는 교육과정은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선택지로 작동하기보다 또 하나의 중도 포기 경험이 되기도 하였다.

- (미용학원) 다닌 게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등학교 때 다녔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언제 다녔는지. 이런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해서 삼촌(시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고 일단 기술이니까 하면 좋다고 해서, 그걸로도 많이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저는 계속 사회복지과 쪽을 원했던 것 같아요. (중략) (학원비를) ○○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원비를 제가 제 개인 돈으로 낸 게 아니라 ○○에서 내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느 곳(사회복지재단 등)에서 내주는 것이다. 좋은 기회라고 해서. (참여자C, 아동양육시설, 여, 특성화고3)

③ 취미를 위한 학원 수강

일부 참여자들은 교과과목 보충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외에 취미활동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학업에 대한 흥미가 낮고 흥미나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적은 청소년들을 위해 시설에서는 흥미와 적성을 보이는 분야를 탐색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체험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 학원 음악학원 하고 수학, 영어 하고. 네. 음악학원 다닙니다. (어떤 음악?) 지금 보컬 배우고 있습니다. 보컬. (실용음악에 관심을 두고 배우는 건가?) 약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취미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참여자N,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중3)

- 농구 학원 다녀요. (어떤 방식으로?) 그냥 학원이에요. (참여자G, 그룹홈, 여, 중3)

(3) 교육비 충당 방법

교육 실태조사 결과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사교육 수강료를 시설이나 국가지원, 후원금 등 외부로부터 일정 부분 충당한다고 응답하였다. 면접 결과 학원이나 과외,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비용이나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에 거주 중인 한 참여자는 수급비로 학원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추가로

더 수강하고 싶은 과목이 있지만, 퇴소 이후 생활을 위해서는 수급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 수강을 고민하고 있었다. 대체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시설 운영비, 기초생활급여와 후원금 등으로 인해 비교적 비용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거주 중인 청소년은 운영비나 후원금 등이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원하는 만큼의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그리고 학원비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원비가 한 달에 40만 원, 일반 과외도 4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돈 같은 것도 좀 신경 쓰게 되는데 ○○○ 자체에서도 절반 저희에게 투자를 해 주시고 저희 후원금 통장에서 이렇게 해서 학원에 다녔어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일단 나라에서 지원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쓰고. 그다음에 저희는 보육원이니까 후원비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시설 후원비에서도 남은, 좀 다른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 남은 학원비를 제가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도 좀 하신다고 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모자른 후원비는 제 개인 후원비나 장학금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아요. 대략 100만 원? 방학에는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 저희 이제 수급비 들어오는 걸로 해서 한 매달 3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사교육을 위한 비용) 수급비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자립 위해서 모으는 금액도 있다 보니까 아직은 과학을 독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지원은?) 네, 아직 없습니다.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 수강료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매달 내는 것 같아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4) 학업 흥미

① 작은 성취에서 시작된 흥미

참여자들 중에는 학업에 대한 흥미나 욕구가 강한 경우도 있었지만, 학업에 대한 흥미는 소수의 일부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학업 욕구가 높은 참여자들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의지가 생겼고 학원이나 과외 등의 방식을 통한 학업 보충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성적이 오르는 등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나아가 시설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학습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 처음에는 적응이 확실히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적응하는 게 많이 힘들었고, 적응하고 나서부터는 학원에서 원장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따라가면 확실히 따라서... (중략) 일단 중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안 하다시피 했다 보니까 갑자기 막 하려니까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뭔가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중략)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에는 막 시작했고 하니까 이제 성적이 오르지 않았는데 2학기 기말고사 칠 때 성적이 좀 하니까 빵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제가 수학을 그때는 못 했다 보니까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칭찬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참여자B,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1)

- 다른 아이들은 다니는데 저만 안 다닌다고 느꼈을 때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 자체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 때문에 하고 싶으면 그 상태로 밀어주시니까 걱정 없이 제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초등학교 때는 딱히 그런 학원이랑 다닐 필요 없이 제가 그때까지는 공부를 좀 했어서 딱히 신경은 안 썼는데 확실히 중학교나 그런 데 올라오다 보니까 그 사교육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특히 고등학교에 와서 이런 차이를 엄청 느꼈어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한 종사자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시설 내 학습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학습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면서 학습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 조금씩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자립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공부밖에 없다고 깨달은

경우에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계속 독학을 하거나 또 학습지원을 받아서 하거나 하는 요청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략) 흐름이 조금 생겼습니다. 사실은 없었는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되다 보니 아이들은 떠들고 시끄럽게 떠드는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친구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도 공부를 더 하는 거죠. 귀소시간이 있으니까, 학습방이나 상담실에서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갑자기 불었어요. 공부의 바람이. 그래 가지고 그 뒤로는 다른 친구들도 그러면 '나도 공부를 해볼까' 하면서 점점점점 저희가 또 이렇게 요청하는 게 학습지원 쪽으로 요청이 조금 작년 말부터는 좀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사자J, 청소년쉼터)

② 낮은 목적의식, 무기력

교육 실태조사 결과 아동양육시설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 또는 2개 이상 복수의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율도 높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가 더 많았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은 성적이 높은 친구들에 비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짧았다. 이는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고 학습 의욕이 저하되어 있어 학습행동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물론 일부 청소년의 경우 작은 성취 경험에서 시작된 학습에 대한 흥미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면접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학습에 대한 욕구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임에도 하교 후 교과목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는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공부가 어려워서 하고 싶지 않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 저는 학교에서 하거나 집에서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집에서 그냥 쉬고 싶으니까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참여자C, 아동양육시설, 여, 특성화고3)

- (교과목 관련 공부는?) 아니요. 없어요. (참여자A,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2)

- (교과목 관련 공부는?) 없습니다. (참여자L,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특성화고2)

-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를 좀 하는지?) 안 해요. 고등학교까지만 공부하고 싶어요. (이유는?) 공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못해서. (공부가 언제부터 어려웠는지?) 유치원 때부터 싫었어요. 학원 너무 재미가 없어요. (참여자G, 그룹홈, 여, 중3)

종사자들은 대부분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목적의식이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대체로 시설생활로 인한 결핍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학습에 대한 욕구가 낮은 편이며, 노력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지만 학교에서도 학생 개인에게 목적의식이나 동기 부여는 물론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거주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대학입시 전형 등이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갖고 공부를 해나가는 데 더욱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우선은 저희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목적이 의식이 없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여기 시설에 생활을 한다라는 게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정감이 없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한 것은 마음이 먼저 안정이 되어야지 학습할 의욕도 생기지 않냐' 그래서 고민도 저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뭐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를 얼마든지 요청하고 지원하면, 요즘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한다면 이거를 그쪽으로 안내해 주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어렵지가 않은데,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게 그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더더군다나 시설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단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사자D, 아동양육시설)

- 일단은 욕구인데 아이들의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건이고 그나마 욕구를 찾는 애들은 저희는 뭐라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음악 교육을 위주로 많이 시켜주다 보니까 음악을 전공하고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저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유학도 보내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서 실제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렇게 원하는 애들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종사자B, 아동양육시설)

- 공부를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쉬운 거를 좀 쉽게 결정하는 부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나 이런 게 목표 의식이 뚜렷하면 좀 따라가고 그럴 텐데 일단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내 안이 꽉 차 있다면 학습을 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죠. (종사자D, 아동양육시설)

- 아이들이 어떤 목적 의식이나 꿈이 없고 동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 참여

안 하고 애들이 조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는 크게 상관 안 해요. 오히려 그냥 가면 그냥 가버리는 거니까 저희 애들이 학교를 안 가려는 애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대학을 갈 때 수시 전형이 좀 유리한 전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도, 선배들이 저렇게 공부 안 해도 대학을 가네?'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종사자A, 아동양육시설)

③ 학업 단절 경험

참여자들이 학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학업이 단절된 경험 때문이기도 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시설거주 청소년 중 한 명은 학교 전학이나 잦은 시설 이동, 통학이 어려운 학교 위치 등으로 인해 학교에 나가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겼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서 학습과 더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6호 처분 등으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시설 내에서 교육을 듣게 되는데, 교과 관련 수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연령의 청소년이 모여 있어 자신의 학년에 맞는 수업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시설 간의 이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도 문제가 되지만,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단계에 부합하는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학업 단절 및 학업에 대한 흥미 저하, 학력 격차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중학교 때) 학교를 거의 안 가가지고. (이유는?) 약간 저희 학교가 경사가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아침에 걷기가 좀 싫었어가지고... (중략) 1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 (초등학교 때 성적은)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됐어요. (중학교 자퇴는) 2학년까지요. 그냥 자꾸 제가 안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 유급 처리하셔서. (중략) (부모님은)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뭐라 하셨는데, 계속 안 가니까 그냥 포기하신 것 같아요. (유급 처리 되고 나서) 그때는 그냥 막 친구들이랑 놀면서... (친구들) 학교 끝나고요. 학교 가기 전까지 집에 그냥 있다가...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 일단 전학을 세 번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적응할 틈도 없었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그쯤에 이제 막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학교를 안 갔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 때부터 이제 더 공부를 놓은 것 같구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초6 때 6호 시설을 갔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6호에서는 여러 학년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에 맞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학교 교과 과정을 더 놓치면서 거기서 또 1년 지냈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내고 나오니까 학교를 갔는데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아예 다 놓쳐버렸어요. (참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여, 특성화고1)

- 그냥 요일마다 다른데 이제 월요일에는 인문학 수업이나 연극, 뮤지컬 수업하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캘리그라피나 펫코칭이나 음악 같은 거 합니다. (교과목하고 관련된 수업은?) 국어도 있고... (다른 과목은?) 국어만 있습니다. (학년에 따라 수업이 다르지 않고 시설 친구들이 다 같이 듣는지?) 예. (참여자L,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특성화고2)

④ 관리 부족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

참여자 중 일부는 학교 수업을 어려워하고 있었으나 대체로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대체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었는데, 기관에서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학습지 등을 활용하여 발달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한 학습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방과후 활동은 안하는데 약간 기초학력 평가 대상자여가지고... 국, 영, 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숙제 내주십니다. (숙제검사는?)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할만한지?) 어렵습니다. (중략) (몇 학년 과정을 공부하는지?) 숙제는 중학교 1학년거... (중략) (초등학교 때는) 맨날 했어요. (어떤 과목을?) 국, 영, 수 다요.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서 방과후에 남아가지고... 선생님이 남으라고... (참여자N,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중3)

- 지금 (구몬으로) 국어, 영어, 수학, 중국어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탭으로 풀고 이제 월요일마다 구몬 선생님 오셔요. (단계는?) 중3 거 하고 있어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 제가 사칙연산이 부족해서 잠깐 구몬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학습지만 풀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져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샘이랑 1:1로 수업하는 게 좋은데 학습지로 하거나 태블릿으로 하면 정답을 제가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는 푼다기보다는 정답을 먼저 보는 편이라 그래서 도움이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종사자들은 기초학습에 대한 보충이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사춘기가 지나면서 학습을 거부하는 청소년도 있고, 학습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꾸준하게 학습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들도 있다고 하였다. 종사자들은 기초학습이 부족할 경우 퇴소 이후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초학습이라도 시키고 싶지만 억지로 학습을 유도하고 지속하면 오히려 종사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어 억지로는 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기초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종사자 중 누군가가 학습을 책임지고 관리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종사자의 업무 부담 과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애들을 일단은 계속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놓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너무 많이 애들 놓쳐왔고 지금까지 잦은 이동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이들이 시설을 전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를 시키는 시키고 있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어쨌든 학생이고 얘네들은 공부하는 나이잖아요. 일반 또래 애들처럼 그래서 그렇게 저는 키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저희 아이들이 워낙 어려서부터 환경 자체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매체들을 스스로 이용해서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도 한두 주, 길어야 한 달,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종사자가 같이 하거나. 근데 종사자가 그거를 계속 옆에서 수업하고 선생님한테 확인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학습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선생님이 오셔서 숙제 검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도록 하는 건 결국 종사자의 몫이잖아요? (종사자G, 청소년쉼터)

- 우선 시설에서 미취학이나 초등 정도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자율성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공부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따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초등학생하고 미취학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학습지를 시작하고 있고, 학습지 하다가 아이들이 학업에 더 관심을 가지면 학원을 연결하거나 지금처럼 청소년 그루터기 쪽에서 학습 멘토링을 연계하고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초등학교 5~6학년부터 학원을 가도록 저희는 그런 식의 체계를 가고 있는데, 학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중학교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약간 사춘기도 오고 주변에 친구들 비교하면서 좀 반발심이 커지는 거죠. '난 학원 가기 싫다'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 보호비나 지원사업 비용이 귀한 건데 이거를 다니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다니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학교 이후부터 아이들이 많이 변화를 겪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중간에 자기 적성을 찾는 애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임박해서 막 학원에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종사자A, 아동양육시설)

-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의 또 다른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학습지도를, 저도 종사자 때부터 학습 지도를 하면 관계가 썩... 계속 좋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나를 억지로 공부시키는 사람이 되고 그렇다고 안 시키자니 정말 기초가 너무 없고 그러니까. (종사자G, 청소년쉼터)

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는 학교에서도, 시설에서도 청소년들의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종사자들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출석이나 학습문제에 대해 예전만큼 관리를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다가 청소년들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좋지 않은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설에서의 관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 아동 인권이 대두되면서 아동에 대한 자율성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애들한테 '너 여기 시설에 있으니까 퇴소하기 전에 뭔가라도 준비 해' 했을 때도 선생님들이 약간 강압적으로 '너 이거라도 배워봐' 저거라도 했는데 는 애들이 '싫어요. 안 배워요' 이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볼 수밖에 없고. (종사자A, 아동양육시설)

- 얘들은 비교를 할머니, 조손가정이나 이런 데에다가 두면서, '왜 9시까지는 들어와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런 가정보다는 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너희보다 더 엄격하게 해, 왜 꼭 그렇게 비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울리는 아동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사자D, 아동양육시설)

- 요즘에 학교 자체도 그렇게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느낌을 저는 크게 받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조퇴를 하거나 늦게 와도 크게 개의치 않고.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부모님한테 당장 연락 가서 학교 안 왔다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중략)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울리는 친구들과 비교 할 때,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더 자유로운 친구들, '걔도 학원 안 가요', '걔는 학원 안 가도 너는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야지'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시설에 있는데,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걔네들은 퇴소하고 나서도

부모님들이 챙겨주고 다 해 줄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있는 시기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애들이 비교군을 좀 상향해서 잡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하거나 자기랑 비슷한 친구로 잡다 보니까 굳이, '쟤도 저런데 나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것도 (종사자A, 아동양육시설)

더구나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종사자들을 부모에 준하는 보호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종사자들이 청소년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거나, 학습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 진짜 부모로 좀 우리를 삼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그래야지 좀 교육도 더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아이들의 성적이... 요즘은 뭐 성적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어떤 수준인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하려면 성적표도 알아야 하는데 요즘 큰 아이들은 절대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약간 우리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사자F, 그룹홈)

3) 학습공간, 기자재, 여가생활 지원

(1) 학습공간 지원

① 학습공간

가. 공부하기에 충분한 공간

교육 실태조사 결과 시설 내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책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85%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적절한 학습공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시설 내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방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 내에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거나 상담실과 같은 활동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경우도 있었다.

- 생활관 안에서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생활관 안에서... 좀 작긴 해요. 그 큰 책상도 있고 칸막이 있는 책상도 있어요. (참여자N,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중3)

- 엄청 저희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여기 상담실이라고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서 해요. 여러 명도 되고 혼자 들어가도 되고요.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특히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내 도서관을 설치하여 거주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마련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 실태조사에서 시설 내 학습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냐는 질문에 약 23%의 청소년들은 특별히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상당수가 학업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들 역시 학습공간은 충분하지만 청소년들의 학업 의지가 부족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적음을 시사하였다.

- 저희는 아예 도서관 건물이 하나 따로 있거든요. 실제 도서관이 꾸며져 있고. (중략) 도서관 건물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시설이 조금 큰 편이라서 따로 있고, 그 안에 실제 도서관만큼 꾸며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도서실 책상들도 다 돼 있거든요. 똑같이 독서실처럼.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돼 있는데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잠깐 한 2~3일 쓰는 수준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 평소에는 먼지 닦기 바쁩니다. (종사자B, 아동양육시설)

- 저희도 실내 도서관이 있긴 있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이 공부하겠다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죠. (종사자D, 아동양육시설)

나. 시끄럽고 부족한 공간

학습공간은 시설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습공간이 충분하다고 하였지만, 청소년자립생활관이나 청소년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시설이 학습을 하기에 불편한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들은 시설 내 학습공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던 교육 실태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인실에 책상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프로그램실이나 상담실과 같은 활동실에서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거주를 하는 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있었으며, 다른 거주 청소년들이 떠드는 소리 등으로 인해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 저희가 원래 4층에서 1층 어린이집 있던 데로 내려와서 방마다 책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애들이랑 겹치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책상에서 못하면 침대에서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중략) 프로그램실이나 상담실이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이랑 생활실이랑 떨어져 있어서 문을 잠가버리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딱히 생활실 안에는 그 책상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저는 그 집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막 애들이 주변에서 떠든다던가 그러면 집중을 못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거라 좀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다. 비용과 통금시간으로 인한 외부공간 이용 한계

결국 시설 내에서 학습할 공간이 부족한 참여자들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도서관이나 학교를 이용하거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고 있었다. 교육실태조사 결과 시설거주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이 시설 외부 공간에서도 공부하였는데,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학교, 스터디 카페, 도서관 순이었으며, 외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주된 이유 중에는 비용 부담과 통금시간과 같은 시설 규칙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습공간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외부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스터디 카페를 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학습을 위해 학교나 공공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 요즘은 스터디 카페 제일 많이 가는 것 같고 약간 그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량이 좀 부족했다 싶었을 때 사설. 저는 방을 따로 쓰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거기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스터디 카페를 주로 했습니다.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
- 여기 주변에는 멀어 갖고 다 ○○여고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거의 ○○여고 쪽에 문화센터 있을 거예요. 거기 말고는 다 스카나 카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스터디 카페) 저, 끊어줍니다. 몇 달 3개월 더 끊어주고, 스터디 카페. 학교 도서관, 학교 옆에 시립 도서관 이런 데는 이제 무료잖아요. 주말에 또 꼭 가서 몇 시간씩 공부하고 오고 뭐 그런 건 훌륭하죠. (종사자F, 그룹홈)

- 카페는 안 가고 그냥 방과 후에 애들이랑 시간 나면 가끔 저희 XX시에 도서관. 이렇게

큰 공간에 책상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따로 유리 문으로 된 방이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끼리 거기 들어가서 한 네다섯 명씩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 저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주말에도 학교를 갔어요. 토요일에. 저희는 오전 자습 이런 식으로 주말에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돼 있었고 강제였어요. 그거는. 그리고 끝나고 바로 저희 ○○○이랑 5분이나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4층이나 5층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쭉 했어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저희는 가까운 한 10분 내에 걸어서 10분 내외의 거리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저희는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들은 도서관으로 내보내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으면 어쨌든 다른 아이들이 있고 다른 어떤 선생님들이 오시고 외부 강사들이 오고 하는 통에 아이들이 전혀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차라리 나가서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편이죠. (종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다만 실태조사 결과 비용부담과 통금시간 등의 시설규칙 때문에 외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면접에서 역시 참여자들은 정해진 귀가시간, 정해진 취침시간으로 인해 학습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규칙으로 인해 학습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였다.

- 기상 시간이 9시이긴 한데 뭐 늦게까지 자고 싶으면 좀 더 자고 그래갖고. 근데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막 폰을 보고 있으면 공부한다고 폰을 보지 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 알바 끝나고 늦게 한단 말이에요. 새벽까지. 그러면 또 집중하다 보면 쌤이 와서 풀면 이제 자야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집중이 깨지고 그래서 낮 시간은 딱... 그 때도 시끄러워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저희 취침 시간이 12시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12시까지인데 저는 막 1시 2시까지 하니까 그래서 쌤이 취침 시간 어기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집에 들어오는 시간, 고등학생이 언제까지 9시 전까지 들어오겠어요? 지금도 엄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공부하는 데도 늦게까지 하고 싶고, 스카에 애들이랑 새벽까지 있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친구들이랑 조금 뭔가 약간 벌어지는,

거리가 벌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이 '같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는데 ○○○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나 ○○○ 살아' 아직도 말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그건 아니고. 저희는 야자 하면 야자 끝나고 무조건 빨리 들어와라. 10시 반 전에.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근데 또 복귀 시간 맞춰서 들어와야 되니까 가서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 거의 30분을 잡거든요. 저는. 근데 준비하고 30분 하고, 다시 공부하다가 또 쌤들한테 전화 오거나 복귀 시간 맞춰서 가야 되면 별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물론 일부 시설의 경우 취침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시설은 여러 거주 청소년의 안전과 규칙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다.

- (소등시간 관련) 예. 저희는 100% 프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F, 그룹홈)

- 그러니까 10시 되면 소등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복귀가 전부 10시거든요. 10시까지는 다 들어와야 돼요. 집으로. 그러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잘 준비하고 자기 하루를 마감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간이라서 10시 되면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들은 다 오프를 시켜버려요. 현재로서는 근데 다만 아이가 꼭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거나 저희가 약속된 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잠깐 봐주지만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다 10시에 다 마무리 하게 되죠. (종사자L, 청소년자립생활관)

②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

가. 노력이나 집중 부족, 놀고 싶은 마음

일부 참여자들은 학습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나 불편한 요인이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학습을 위한 시설의 환경은 잘 조성되어 있으나 개인의 노력이나 집중의 차이, 놀고 싶은 마음과 같이 내적인 문제로 인해 학습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 불편한 것들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N,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중3)

- (불편한 건) 없어요. (참여자C, 아동양육시설, 여, 특성화고3)

- 그냥 개인 노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공간은 충분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집중을 일단 잘 못하고 근데 한 번 집중하면 잘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 놀고 싶은 마음? 집중력? (참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여, 특성화고1)

-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돌아다니고 이래서 왔습니다. (참여자L,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특성화고2)

- 저는 일단 '고등학교 와서 공부만 해야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연애를... 연애하면 안 돼요. 연애가 리스크가 제일 컸고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나. 시끄러운 시설 환경

학습에 방해가 되는 시설의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떠드는 소리나 TV 소리 등 일상적인 소음을 꼽았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 때 시설 내부에서 공부하기보다 도서관이나 스터디카페 등 외부 기관에 가야 했다.

- (시설에서) 약간 시끄러운 거만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할 때 약간 좀 소리 지르고 그래 가지고 (참여자N,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중3)

- 애들 TV 소리가 좀. 말소리 그런 거 말고는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 (방에서도) 보통은 자리를 많이 옮기긴 하는데 애들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면 다 들려서... 방음이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방음을 다 뚫고 들어와서 저는 궁금할 때 있으면 그냥 아예 나가버립니다.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다. 학원비 부담

또 다른 참여자는 학원비 부담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했다. 현재 학원비를 수급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추후 자립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받고 있는 수급비를 모아서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 더 다니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 없다고 하였다.

- 저는 공부하는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수급비에서 수급비 들어오는 거에서 학원비를 제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자립하려면 모아둔 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국어 학원비가 하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립할 비용이 마땅치는 않아서 아마 제가 과학 학원까지 다니고 싶은데 이제 과학 학원까지 다닐 사정은 아니라서 그게 조금 걸린다고 봅니다.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2) 기자재 지원

① 개인 소유의 기자재

교육 실태조사 결과 개인용 컴퓨터·태블릿 소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없는 경우가 10명 중 4명 정도였으며, 청소년쉼터·소년보호시설 청소년 중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지 않거나 공용 기기의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심층면접 결과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설 유형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일부 시설의 청소년들은 지자체나 후원기관 등으로부터 기자재를 후원받아 개인 소유의 기자재를 가지고 있어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 네. 다 제 소유로 하나씩 있어요. PC는 시설에 컴퓨터실이 있고 태블릿이랑 노트북은 있어요.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 아니요. 제 아이패드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졸업하기 전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학교에서 받은 노트북이 있어서 그걸로 해요.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들 다 나눠줬어요. ** 사는 사람들, 학생들한테 다. (참여자A,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2)

- (태블릿은) 저 후원받았어요. 개인 후원자는 아니고 재단에서 필요한 사람 막 해갖고 뭐지? 한국○○○○? 거기 있잖아요? ○○에 있는데 거기서 지원받은 거거든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태블릿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넷북이랄지 아무튼 태블릿 맞죠? 그런 거 요청할 때 구입해 주기도 합니다. 올해도 하나 사줬고 한 2년 전에도 넷북으로 사주는 애도 있었고... 아이들이 노트북 사기에는 조금 저희도 부담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기들도 원해서 그렇게 사 준 적이 있습니다. (종사자F, 그룹홈)

② 불편 없는 공용 기자재 사용

또 다른 시설에서는 시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용으로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외부 기자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였다.

- 네. 컴퓨터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 딱히 쓰는 일이 없어가지고 포토샵도 그냥 학원에서 컴퓨터 있으니까 (참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여, 특성화고1)

교육실태조사에서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지 않거나 공용기기의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는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경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면접에서도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컴퓨터나 태블릿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상수업이나 영상강의 등 학습과 관련된 경우 필요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 그거는 6호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일반 입주생들은 가능합니다. (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 근데 (6호생이어도) 수업 자료나 이런 거는 쓸 수 있어요. 부탁하면 봅아주셔서요. (참여자L,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특성화고2)
- 저희가 매체는 이용할 수 없지만 TV는 아이들이 상시로 수업 시간이 아닐 때는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은 6호 아이들 중에도 검정고시를 봐야 되거나 특별하게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무실의 한쪽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사무실에도 그래서 그쪽에서 노트북을 연결해서 영상 강의라든지 화상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지도는 하고 있어요. (종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③ 시간규정으로 인한 기자재 사용 불편감

다만 늦은 시간에 과제를 해야 하는데도 취침시간이나 기자재 사용가능시간, 1회 사용시간 등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불편하다고 하였으나, 시간규정으로 인한 불편감은 개인 소유의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기자재 활용에서의 불편함은 공용 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간규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PC나 노트북 등의 기자재는) 거실에 있어서 쓸 수 있어요. 밤늦게는 안 되고 한 9시 전까지는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략) (늦은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다음 날 학교를 간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주말 같은 경우는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 태블릿이랑 폰은 있는데 만약에 노트북 작업을 해야 되면 PC방을 가야 돼서 그게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컴퓨터 있는데 컴퓨터도 제가 알기론 9시인가 10시까지밖에 못 쓰고 최대 2시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중략) 다른 애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래 쓰지는 못해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으로 오면 기계 같은 거를 내고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10시 이후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 과제를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집 오기 전에 다 끝내고 오라고. (귀가시간이 있는지?) 저희 9시 전에 들어와야 돼요.(매체 사용 시간은) 고등학생이 10시고, 중학생이 9시, 초등학생이 7시, 이렇게 돼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3) 여가생활 지원

① 휴식공간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시설 내에 방이나 거실, 컴퓨터실, 교육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대체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 2층도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휴식하거나 방에서 핸드폰 하거나 (참여자N,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중3)

- 방에서 쉬어도 되고 여기 아래 교육실에서 쉬어도 돼요.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 여기 거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중략) 소파가 있어요. 소파가 좀 많이 큽니다. 기역자로

많이 길고 커가지고... (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② 여가시간

가. 시설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

참여자들은 여가시간 동안 시설 내에서 다른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시설 내의 친구나 동생들과 교류 없이 여가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휴대폰을 사용하여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는 등 혼자 시간을 보냈다.

- 여가요? 학교 끝나고 저 학원 숙제요. (주말에는) 휴대폰 하면서. 영상 많이 봐요. (참여자A,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2)
- 글 쓰거나 핸드폰 봐요. (어떤 글?) 명언이요. 만들기도 하고 쓰기도요. (참여자G, 그룹홈, 여, 중3)
- 여가 시간에는 산책하거나 휴대폰 게임하고 인터넷 좀 찾아보고 재밌어하는 거. (참여자B,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1)
-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 동생들이랑 놀아요. 보드게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얘기하고 놀거나 이러면서 놀아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 (시설 내에 있을 때는) 그냥 핸드폰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그냥 똑같이 해요. 그냥 친구들이랑 연락을 할 때도 있고 (참여자C, 아동양육시설, 여, 특성화고3)
- TV 보거나 보드게임하고요. (참여자L,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특성화고2)
- 그냥 누워 있습니다. 아니 그냥 나갈 때도 있고 외출할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 저는 운동할 때도 있고 게임할 때도 있고 연락 연락을 좀 많이 합니다. 여자친구라든지... 그냥 전화로도 하고... 인스타 (중략) (운동은) 턱걸이나 팔굽혀펴기 그런 거 합니다. (참여자N,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중3)
- 저는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 찾아본다던가 제가 아니면 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부품 알아보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거 보고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아니면 친구들하고 가끔 게임 합니다.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나. 시설 밖에서 보내는 시간들

일부 참여자들은 시간이 나면 시설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방, 카페를 가는 경우가 많고, 핫플레이스 등을 친구들과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이성친구가 있는 참여자들은 이성친구와 만나기도 하였고, 여가시간이 나면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 여자친구 만나거나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 여기 쉼터 친구들이랑 PC방 가거나 카페 그런 데 가고, 그런 거 없으면 쉼터에서 그냥 휴대폰 하고 있어요. (PC방에서는) 저 게임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 게임이요. 저, 배그(Battlegrounds)랑 발로란트(Valorant)... 총 게임이에요 (중략) 카페 가고. 친구들이랑요. (참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여, 특성화고1)
- (게임은) 피파 온라인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N,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중3)
- 저는 친구들이랑 놀아요. 학교 친구들 만나서 놀아요. 그냥 노래방 가고, 카페 가고, 볼링 치고, 그냥 다양한 거 하면서 놀아요. (참여자C, 아동양육시설, 여, 특성화고3)
- 평상시에는 그냥 자거나 웬만하면 약속을 잡는 것 같긴 해요. (중학교) 친구들이랑.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자요. 집에서... (친구들과는) ◇◇도 가고. ◇◇ 가거나 ○○ 가거나 그냥 ▽▽시 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 제가 ▽▽ 쪽으로 멀리 다녀가지고 가고 오는데 왕복이 좀... 놀러 다니는데... 그냥 □□ 가거나 아니면 종합시장 가요. (누구랑?) 아는 전 센터 애들이랑 많이 놀아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 공부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남자친구 만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스카 가서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저는 주말에는 학원을 가다 보니까 토요일에는 무조건 학원을 가서 제 자유의 시간을 즐기기

에는 조금 힘들고 즐긴다면 일요일에 즐기는데 그때는 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그렇게.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③ 문화생활

참여자들은 시설 내에서의 문화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교육 실태조사 결과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1인당 연평균 전시, 공연 등의 관람 횟수가 10회 내외였으며, 지역 규모나 시설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 대부분의 시설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 활동 경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심층면접 결과 청소년들은 영화 및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예술 관람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 바다나 계곡으로의 여행, 해외여행 등을 경험하였는데,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시설장 및 시설 선생님들이 계획을 세워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너무 좋아요. 뭐 빠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부족함이 없고 문화생활이나 여행에 있어서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 3월 달에 저희 필리핀 보라카이도 갔다 왔고, 주기는 없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냥 당일 치기든 1박 2일이든 그래도 저희 바다 보러 간다든지 이런 거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중략) 보통은 가기 며칠 전에 어디 갈지 애들끼리 상의하고서는 정하고서는 이제 장소는 애들끼리 정하고 관장님이나 실장님들께서 여행 계획은 다 짜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바다 갔을 때도 있었고 강원도 쪽으로 그거랑 이번에 계곡도 가고 싶다 해서 저희 다 같이 그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 최근에는 안 간 것 같고 이번 연도 초쯤에 미술관 간 것 같아요.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 일본 간 거 기억나요. 오사카랑 도쿄 갔던 것 같아요. 2박 3일... (중략) 해외 여행이 처음이라 조금 비행기 타는 것도 좀 약간 그렇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돈키호테 갔던 거가 기억나... (참여자F, 그룹홈, 여, 특성화고1)

- 방학에 템플스테이랑 그 뭐지? 영종도의 파라다이스에서 놀았어요. 템플스테이에서는 불교라 가지고 명상 이런 거 좋아하고 파라다이스에서는 거기서 잔 건 아닌데 그냥 수영했어요. (참여자G, 그룹홈, 여, 중3)

- 태국이랑 일본이요. 일본은 이번 연도 1월에 갔고 태국은 2023년도에 갔어요. 재밌었어요.. 태국에서는 마사지 한 거 생각나고 일본에서는 돈키호테요. (참여자G, 그룹홈, 여, 중3)

4) 개선이 필요한 점

(1) 현재 지원에 대한 생각

①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지원

참여자들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학습을 위한 비용 지원이나 시설환경 조성, 진로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진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하였다. 시설에서 책정된 1인당 학습지원 비용은 개인에게 부족할 수 있지만, 시설에서는 지정후원금이나 사업에 지원하여 시설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이 원하는 경우에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다른 아이들은 다니는데 저만 안 다닌다고 느꼈을 때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 자체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 때문에 하고 싶으면 그 상태로 밀어주시니까 걱정 없이 제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저는 솔직히 이렇게 놓는 것보다 뒤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딱히 그런 학원이랑 다닐 필요 없이 제가 그때까지는 공부를 좀 했어서 딱히 신경은 안 썼는데 확실히 중학교나 그런 데 올라오다 보니까 그 사교육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특히 고등학교에 와서 이런 차이를 엄청 느꼈어요. 그리고 학원비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원비가 한 달에 40만 원, 일반 과외도 4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돈 같은 것도 좀 신경 쓰게 되는데 ○○○ 자체에서도 절반 저희에게 투자를 해 주시고 저희 후원금 통장에서 이렇게 해서 학원에 다녔어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 근데 여기 시설에 공부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애가 사실 저 포함 2명 밖에 없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먼저 하신 말이긴 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저보다 한 살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누가 공부하는 걸 보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중략) 그 친구들과 미술 하는 언니도 있고 아니면 제빵이나 네일아트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다양한 길을 찾더라고요.(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 그냥 다 샘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딱히 바라는 건 없습니다.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진로를 잘 생각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혼자 이제 커서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미리 잘 알려주셔 가지고.(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 학원은 잘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지게차 학원비)도 이제 쉼터에서 다 지원해줘요.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 저는 솔직히 지금 만족하고 있어서 딱히 모자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 거의 다 봤는데 애초에 저희 원장님이 저희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엄청 후원자님들을 많이 끌어서 저도 후원자님이 지금 10명? 11명? 정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때 카드도 직접 손수 작업해서 다 보내드리고 그렇게 항상 하는데. 저희가 ○○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거에 엄청 따른 것 같아요. 원장님은 저희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을 보면 원장님이 그래도 걔네를 붙잡으려고 하시지만 정 안 되겠다 하면, 그 후원금 통장에 있는 돈마저도 자기 돈 갚는데 쓰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제지가 조금 들어가는 편이에요. 걔네한테는. 다른 애들한테 거의 다 전반적으로는 다 많이 지원을 받아요. 저희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②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지원

시설에서는 학습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청소년자립생활관의 경우 후원금이나 민간기관의 장학금을 활용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학습에 관심을 가진 참여자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학원비나 교재비 등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음,,, 학원? (학원에 대한 지원?) 네. 기초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어떤 기초?) 일단 수학, 수학은 아예 못 따라가 가지고. (또 다른 것은?) 문제집? (참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여, 특성화고1)

더구나 청소년들이 수급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급비를 학원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과 같은 시설의 경우 별도의 교육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급비를 수령하는 청소년 중에서도 추후 자립을 위해 수급비 지출을 최소화하다 보니 원하는 만큼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 저는 공부하는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수급비에서 수급비 들어오는 거에서 학원비를 제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자립하려면 모아둔 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국어 학원비가 하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립할 비용이 마땅치는 않아서 아마 제가 과학 학원까지 다니고 싶은데 이제 과학 학원까지 다닐 사정은 아니라서 그게 조금 걸린다고 봅니다. (참여자J,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1)

수급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시설에서 모든 수급비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인 청소년이 원하는 경우 개인이 수급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은 유흥 및 교제비로 사용하고 자신의 취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서 지원받으려는 경우도 있었다.

- 돈 지원금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커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 (현재 지원금은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는지?) 수급비 받고 장학금 받으면 (한 달에) 한 120? (장학금은 어디서 받는지?) 그건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 약간 공부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학원 다닐 수 있는 돈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해가지고. (수급비를 받고 있는지?) 수급비 받긴 하는데 다른 데 좀 많이 써가지고 제가...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저는 운동 같은 거... 저는 근데... 공부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은 약간 하고 싶어요. (참여자N,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중3)

③ 수혜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지원

또 다른 참여자들은 후원기관에서 지원하는 자격증 과정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전공 또는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 후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진로가 아닌 다양한 진로 지원을 해주길 원하기도 하였다.

- ○○이 같은 경우는 미용학원은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자격증 따는 학원에만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객실 승무원은 면접을 준비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후원금)으로 안 될 것 같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저한테는 아쉬웠고. 저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좀 그런 게 잘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2) 후배들에게 필요한 지원

① 적절한 관리를 통한 학습지원

참여자들은 후배들을 위해 학습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초기 시기에 적절히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을 안 다니거나 못 다녔던 경험으로 인해 학습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학습습관을 형성하고 목표를 정하여 달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저랑 비슷한 친구들은 보통 가정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거의 다 학원을 다 안 다녀요. 못 다녀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 그래도 좀 공부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참여자K, 청소년자립생활관, 여, 특성화고1)

- (학습지(구몬)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목표를 정한 것보단 샘이랑 같이 정해서 하는 게 더 조금 효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학원 일단 보내주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초등학교 때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중략) 제가 공부를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으면 확실히 조금 좋아졌을 것 같아요. 많이. (참여자B, 아동양육시설, 남, 특성화고1)

- 저희 말고는 공부에 열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약간 바라는 거는 그래도 기초적인 것들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누군가 지원을 해줘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초적인 거라 하면?) 약간 그냥 단순히 수학이라 치면 산수가 아니고 약간 그래도 중학교 과정은 있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은 약간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중학교 과정까지는 국·영·수 정도는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거는 지원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다들 공부해 본 경험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참여자J, 청소년자립

생활관, 남, 일반고1)

② 성취를 지원해 줄 멘토

또한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에 학습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성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멘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 일단 공부에 조금 관심이 있는 애들이면 멘티 멘토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막 흐지부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관심도 있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게 되면 그다음 것도 또 성취할 수 있다는 그게 있는데 만약에 혼자 하게 되면 성취 그런 느낌이 없어 갖고 그냥 다음 것도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멘티 멘토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H, 청소년쉼터, 여, 특성화고3)

- 어릴 때 자아 형성될 시기 그때쯤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제 성격이 약간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불안해서 공부를 했던 스타일이어 가지고 친구들도 어릴 때 옆에서 얘기해 주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면 하지 않을까... (참여자E,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1)

③ 흥미나 취미활동, 진로 지원

공부가 아닌 다른 흥미나 취미활동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진로·진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다.

- 그냥 뭘 배우고 싶다고 할 때 그러니까 얘가 막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 보내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 쪽 말고 딴 걸 좀 안 해주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I, 청소년쉼터, 남, 검정고시)

- 고등학교 진학 잘하기... 자기가 일반고를 가고 싶고 특성화고를 가고 싶고 할 텐데 그런 거를 잘 갈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해 놓으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M, 청소년자립생활관, 남, 일반고2)

④ 경제교육 및 지원 정보 제공

이 외에도 퇴소를 위한 준비로 경제관념을 갖도록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 저는 자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경제 경제관념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는 퇴소하게 되면 부모님이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없는 얘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퇴소하게 되면 ○○○ 자체에서 도움을 주겠지만, 항상 저희가 뭐 농협을 가거나 그럴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화를 걸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성인인데 혼자 스스로 저를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제관념을 키워가고 그러니까 따로 교육이 지금처럼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퇴소해서 저희가 받을 혜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저희한테 알려주고, 저희가 이런 거를 알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D, 아동양육시설, 여, 일반고3)

5)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1) 시설 내 경계선지능 청소년 현황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시설에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시설거주 청소년의 약 30~40%에 달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김태균, 민원홍, 김수진, 2024)에서 추정한 청소년 경계선지능인 의심대상자 13.6%에 비해 약 3배, 〈청소년쉼터 내 경계선지능 청소년 실태조사〉(박현숙, 2022. 12.15.)에서 추정한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보호 청소년 중 경계선지능 의심대상자 21%에 비해서도 1.5~2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종사자들은 시설에 거주 중인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발달 초기의 학대나 폭력, 방임 또는 시설에서의 자극 및 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인지적 발달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며, 이들은 일반청소년들과 비교하여 학습 격차는 물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

- 경계선지능이 있거나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이 있는 친구들은 학습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초기에 학습지능은 정상인데 지도가 안 돼서 안 된 아이들은 우리가 현재 10명 정원이 다 있는데 그중에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종사자H, 청소년쉼터)

- 저희는 느린학습자 비율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더라도 지능점수가 70 미만의 청소년들, 지적장애 경도나 또는 경계선 학습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주변 친구들이 좀 괜찮은 친구들이 안정이

돼서 학습을 하면 자기도 좀 멋있어서 좀 하고 싶은데 막상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희 안정이 됐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사실 일반청소년하고 비교를 한다면 기초학습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로 아이들이 방임이나 학대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종사자J, 청소년쉼터)

- 저희 기관이 지금 41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30~40%가 다 경계선이고 지적(장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적 아이가 한 4명 되고 나머지가 다 경계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욕구는 1차적으로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잘 가지만 그 이외에 본인들이 뭘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중략) 최근에 입소한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계선이라든지 지적 3급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다 보니까, 입소한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학업적으로 더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종사자C, 아동양육시설)

- 저희는 시설에 현재 지금 4명이 있는데 지적장애 여자 아동 그룹홈이에요. 그래서 지적장애 1명 경계선 지능이 3명이에요. 현재 4명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지능이 낮다고 물론 학습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학습의욕이 좀 매우 낮은 편이고요. (종사자E, 그룹홈)

- 저희는 사랑의 열매 프로포절이나 또 보조금으로 특기 적성비 같은 경우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원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던 게 자립을 하면 필요 기술이라든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자립해서 살아가는 데 조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계속 이제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경계선... 그런 부분들을 한계에 부딪혀서 도전하지 않거나 또 이론이랑 실기 시험이 있잖아요. 이론조차 통과를 못해서 그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올해 8월 달에 저희가 자립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과제빵을 몇 년을 했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종사자E, 그룹홈)

(2) 시설 내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현황

시설에서는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기초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학습을 보충하며 특기적성교육,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면서 진로를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사자들이 특기적성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나 욕구가 낮고 지속적인 실패로 인해 자립을 위한 준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이 실패자, 문제아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잘 관찰하여 청소년이 흥미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고자 하는 종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지나 노력 부족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저희는 시설에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과 가족여행이라든가 문화체험 같은 경우로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중략) 그래서 기초학습 위주로 거의 하고 특기 적성으로는 아이들이 자립을 준비하면서 외식조리나 한식/양식 조리사 같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자격증 취득 학원을 작년까지 저희가 지원해서 보냈는데 욕구와 자격증 취득도 아직 못한 상태로 조금 많이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을 논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돈이라든가 지원 자원이 많지만 아이들의 욕구수준과 그 수준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종사자E, 그룹홈)

- 이런 (경계선지능)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진로라든지 이런 걸 정하면 안 되겠다고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더 뭘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지금 되게 지금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종사자C, 아동양육시설)

- 저희도 또 경계선 아이들이 또 공부에 흥미가 없고 문제아들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심리적으로 우선 안정을 주다가 보면 학습적인 거나 지금 이 아이의 특기 적성이 뭔지 저희가 계속 유심히 보는 중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심히 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아이는 정말 잘 키워보고 싶다... 사회의 일원으로 정말 키워보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 마음은 본인이 이제 조금은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들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어느 자원이라도 충분해요. 본인들의 마음이 조금 중요하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종사자E, 그룹홈)

물론 경계선지능 청소년 중에서도 자립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흥미나 적성을 보이는 활동이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작은 성취 경험을 쌓아가면서 단계적인 활동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의 자립 성공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시설에서 해당 청소년을 전담하여 관리, 지원하기 위한 전담선생님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들을 함께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저희 같은 경우는 학습을 좀 도움이 되면 정상으로 가는. 그리고 지금 그런 아이들은 자립하는 데는 지장은 없거든요. 사회생활도 다 되고 요령도 다 있고 하니까. 근데 자립이 어려운 친구들은 지적장애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계선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성이 현저히 낮거나 경계선 있는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서 자립을 한다 해도 배달이나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수준, 편의점 정도. 식당 서빙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고로 보내서, 남자니까 저희는 공고로 보내서 지금 현재 2명이 경계선이에요. IQ가 70대 있고 80대 초가 있는데 이 친구들을 지금 지게차, 굴삭기 이렇게 필기를 일단 합격을 시켰어요. 필기를 합격시키는 데 상당히 어렵죠. 계속 매달리면서 공부를 시키고 시키고 해가지고 일반 아이들 같으면 한 달이면 딱. 그렇게 한 3개월 걸려서 필기를 해놓고 지금 실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기를 해서 그다음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취업의 길을 저희가 알아봐 주고 한번 테스트를 하게끔 연결도 시켜주고 기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종사자H, 청소년쉼터)

- 학교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전체 수준에 놓고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얘들이 못 따라가죠. 사실은. 못 따라가니까 우리가 다시 개인별로 시키는 거죠. 저희 쉼터에서. 그렇게 해서 합격을. 상당히 금액이 비싸거든요. 우리가 자립지원비가 있는데... 시간당 거의 한 1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굴삭기 같은 경우는 12만 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 70만 원 주고 7시간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7시간을 하는데 70만 원을 줘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해서 7일을 딱 하고 합격을 해야 돼. 떨어지면 다시 돈을 줘야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약간 좀 경계선이 있는 아이들은 좀 이해도도 떨어지고 동작이 약간 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디 가서 꾸준하게 그런 직업은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저희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종사자H, 청소년쉼터)

-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 쉼터에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최근 자립한 친구 사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계선 친구였고 자립을 쉼터 근처에 주거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한테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어쨌든 '흥미랑 강점 기반의 진로를 조금 탐색할 수 있도록 돕자'가 저희의 사례회의 결과였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글도 잘 쓰고 또 문학을 좋아하고 이런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못 따라가는데 거기에서만 유독 흥미를 보이고 재능도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흥미를 좀 탐색해 주면서 좀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 친구한테는 학교 공부보다는 생활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같이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병 따기 한 번 따는 것도 쉽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될 때까지 반복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살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술을 선생님들한테 와서 무조건 물어보도록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예를 들면 요리를 혼자서 밥이라도 차려 먹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친구 자립 전에는 한 3개월 이상은 계속, 계속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생활 기술이라고

해서 그냥 담당 선생님이 아예 붙어서 좀 가르쳐 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작은 성취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축적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또 얘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를 저희는 확인을 했고, 지금 이 친구가 나간 지가 그래도 한 1년은 되는 것 같아요. 장학금도 최근에 탔더라고요. 학교에서. 굉장히 좀 신기한 사례입니다. 저희에게는... (중략) 대학을 가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너무너무 적응을 못하고 모든 것에서 낙제를 받고 했다가 이렇게 될 줄은 저희도 모르는 사례였는데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사항이 있는 사례이긴 하지만 중점적으로 자기 삶이 어쨌든 기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또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종사자J, 청소년쉼터)

- 저희 같은 경우는 비율이 좀 많은 편이고요. 검사로도 그렇고 관찰로도 그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많고 오히려 정상 궤도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가 저희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청소년들이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이거나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은 담당 선생님이나 사례 관리를 해 주시는 선생님이 저희는 별도로 다 지정을 했어요. 각각.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진짜 시간적으로나 더 친밀하게 있는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성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종사자, 청소년쉼터)

- 근데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필수는 아닌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 교육이에요. 금융 교육이나 경제 교육 관련된 거. 저희가 용돈을 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용돈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를 끝까지 해내는 청소년과 또 이탈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도 자립의 성공률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 작은 거를 조금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연습들을 좀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종사자, 청소년쉼터)

-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용돈기입장 쓰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 결산을 시키거든요. 식비가 얼마였고 교통비가 얼마였고 유흥비가 얼마였는지. 그거를 연으로 또 계산하게 하고 해서 1년 동안 '네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써서 얼마를 모아서 네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걸 가시적으로 계속 봐야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얘가 그럼 어떻게 다른 관계들을 배울 것이냐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노출 시키는 편이에요. '선생님이 요즘 이 드라마 보는데 되게 재밌어 같이 보자'해서 그 50분 같이 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종사자G, 청소년쉼터)

-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 몇 년 전에 그 얘기한다면 일단 저희가 취업을 시켰어요. 취업을 이론 가지고 안 되고 취업을 '돈을 벌게 하자. 경제적으로 좀 돈을 꾸준히 벌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자립이 가능하다'해서 보통 저희가 자립 전에 한 달만 일해보기, 처음에는 하루 일하게 하고, 그런 데를 찾는 거죠. 업체를. 그다음에 일주일 하게 하고, 한 달 하게 하고 3개월만 하면 되더라고요. 3개월 정도만 아이들이 할 수 있다면 꾸준히 할 수는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아는 우리 후원자가 있는 식당에 부탁을 했죠. '이 아이는 지능도 좀 떨어지고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일을 좀 못하더라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몇 개월만' 그래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좀 시키면 좀 짜증도 내고 하니까 본인이 돈 주면서 시키는데 일은 잘 안되고 그래서 3개월을 했어요. 3개월 해서 돈을 좀 벌었죠. 돈을 벌고 거기서 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형 문구 하는 데 있잖아요? 문구 센터, 문구를 파는데 거기도 사장님이 우리가 아는 사이라 부탁을 했어요. '이 친구는 급여를 좀 적게 줘도 되니까 좀 써달라' 그래서 걔는 몇 년째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립이 아니라 성공한 거죠. 이 아이는. (종사자H, 청소년쉼터)

(3)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경계선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민간) 자격에 응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는 경계선지능 아동 양육자 교육 등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종사자들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경계선지능 아동의 특성 반영이나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전담해야 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타 유형의 시설들에 비해 대상자 이해를 위한 교육과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 할 수 있다.

-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경계선 사업도 하고 있고 마이 스페이스라고 해서 경계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학습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건데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미취학부터 초등 이렇게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또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종사자C, 아동양육시설)

- 제가 실제로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기 때부터 제가 교육을 받아서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다 짜여진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2기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제로 발생은 돼서 이 아이들을 케어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안 맞는 거죠. 현실과 정부지원과 안 맞는 상황이고, 저희는 당장 아이들이 있으니까 애들을 어떻게든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이 다 좀 정비가 우선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종사자B, 아동양육시설)

- 실제로 그 경계선 지도,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민간으로 돼 있어서 실제 진행은 아동권리보장원이 하는 데 민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사업도 경계선아동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사업은 되게 많아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경계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많은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경계선아동을 위한 사업인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매뉴얼 틱 주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가 많고 그냥 바우처만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라 해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종사자B, 아동양육시설)

- 이게 지금 저희도 경계선아동사업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 한 3~4명 정도. 이 아동 참여 하에서 선생님들이 1:1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러면 본인들 근무 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근무 외 시간에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프로그램 할 때는 1:1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소홀할 수도 있고 근무시간 아닐 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선생님들의 시간을 보장해 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고. 솔직히 경계선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너희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라' 하지만 이거에 대한 시간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해 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안양에서는 아동양육시설 3개 정도 있는데 저희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다른 기관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아이들을 위한 건 좋지만 종사자 입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가중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 직원에 대한 어떤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기간에 뭔가에 좀 더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또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도 계속 이슈가 돼서 아마 조만간, 자립준비 청년이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한 사업도 확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종사자A, 아동양육시설)

(4)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안

① 조기개입을 위한 전문적 개입방법 정보 제공

종사자들은 시설에 거주 중인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기개입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즉, 학교에 입학한 후 또래들과 학습격차를 경험하고 학습에 대한 의욕과 자존감이 저하되고 무기력해진 이후에 개입하기보다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초기 아동기 동안 시설 내에서의 초기 자극이나 지도의 부족, 또는 가정에서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 인해 발달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어린 나이에 조기개입하여 단계적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원은 경계선지능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설거주 청소년 전반에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발달시기별 개입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저희하고 학계 교수님들, 전문가들하고, 의학계에서 정신과 쪽에서도 다 공통적인 의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아이들은 빠르게 개입을 해서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빨리 잡아주는 게 제일 좋다는 의견이 똑같이 동의가 돼서. 초기에 빨리빨리 이 아이들한테 개입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최대한 일반 아이들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교육을 빨리 당겨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효과가 좋긴 하더라고요. 중학교쯤 되면 자기들도 서로 구분을 안 하고 잘 지내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저희는 좀 좋지 않나 판단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B, 아동양육시설)

- 저는 그 아이들 그러니까 느린학습자나 그런 대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은 한 번쯤 종사자들이 들으면 좋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소장님 욕심인 거고, 근데 대상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그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할 수는 없겠으나 그 아이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책자로 온다면 얼마만큼 또 와 닿을지는... 한두 번의 대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 그래서 접근은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이 있는 교육은 한 번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종사자G, 청소년쉼터)

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공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

립생활관 등의 시설에는 아직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 교육이나 프로그램, 사례관리 방법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에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경계선지능평생교육지원센터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종사자들은 책자로 제공되는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다양한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프로그램화해서 이렇게 책자로 배분되면 그게 얼마나 현장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활용할지는 사실은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저희는 작년에 정말로 저희가 필요해서, 왜냐하면 지적장애를 동반한 청소년들이 작년부터 너무 많이 입소를 해서, 근데 저희가 장애에 관련된 그런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 생활 시설에 소장님을 좀 모셔서 같이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쪽과 청소년과 그 경계의 어느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는 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오셔서 교육이나 이런 생활 같은 거를 좀 듣고, 어떻게 어느 선까지 지도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쉼터에서 아이들 만나면 실무진 선생님들이 가끔 현실적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지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 장애인 시설에서는 어디까지 해 주시는지, 그거에 대한 경계를 어느 정도 쉼터 나름의 답을 찾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은 한 적이 있었고. 그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사자I, 청소년쉼터)

- 예를 들면 밈센터 같은 곳이 저희는 없지만 그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교육을 받아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체험식으로, 그냥 저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를 들면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 접근할 때 그 친구 머릿속을 그려봐 달라고 좀 하거든요. 걔 머리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잠깐 거기 구경했다가 나오는 것처럼 경계선이나 또는 느린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설움이나 그 삶들이 있거든요. 애환들이 다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콘텐츠화해서 접근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뉴얼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지금은 한번 해봤습니다. (종사자J, 청소년쉼터)

③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학습 지원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반청소년과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장애청소년들은 특수반을 운영하여 별도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청소년에 비해 학업능력이 부족한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별도의 반을 구성하면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에 수월할 수는 있으나,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개인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보충 수업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저는 경계선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왕따나 그런 데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학습이 이제 좀 안 되고 사회성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느린 학습자 애들을 위주로 조금 학습이나 그런 게 조금 많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 학원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살아남지 못해서 학원에서도 도태되고 학교에서도 도태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서포트를 해줘도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런 반편성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특수반이 아닌 특수반은 거의 장애로 취급해서 가는 거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종사자E, 그룹홈)

- 아까 경계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경계선 아동들이 솔직히 학습이나 사회성 부분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학습이라는 부분이 이 아이 한 명만 붙들고 교육을 하기가 사실 솔직히 힘들어요. 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2배, 3배 힘이 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 학습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성 때문에 어울리지 못해요. 이 친구들이. 또래 아이들도 저희가 아무리 같이 친하게 지내도 그거는 아이들끼리의 교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경계선 친구들을 모아서 따로 두면 교육하는 부분도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낙인효과 때문에 또 원치 않을 것 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종사자A, 아동양육시설)

- 경계선이 아주 힘든 점이 본인들은 자각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준 차이가 나는데도 본인들은 그거를 잘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학습에 있어서 말로는 '하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도 않고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발달 지연이 된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대부분 또 경계선 지능을 또 가지더라고요.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딱 답이 있는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장애인처럼 장애인증이 있어서 복지카드가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 범주에 들지도 않고 그래서 퇴소해서도 많이 문제가 일으키는 게 주로 경계선 아이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C, 아동양육시설)

④ 경계선지능인 전문지원기관과의 연계 협력 확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에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계선장애 청소년의 발달수준과 요구, 필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서울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발달적으로 지연된 부분이 많고 이들이 보이는 특성이 다양하여 공통된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장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종사자들은 시설거주 청소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높이고 이들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 서울에는 감사하게도 밈센터가 있어서... 밈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좀 연계를 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참 감사한 점이에요. (종사자G, 청소년쉼터)

- 저도 장애인이나 느린학습자들, 경계선 있는 친구들의 프로그램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중장기 쉼터랑 같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적장애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장애인 센터에 일단 의뢰를 해요.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거기서 자립 훈련도 시키고 취업까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근데 그 경계선 친구들이 장애우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이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거죠. 성공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앉아서 탁상에서 막 설명해도 잘 안돼요. 실천이 안 되니까. (종사자H, 청소년쉼터)

4. 소결 및 시사점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과 종사자 대상의 자문회의는 앞서 추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중 일부는 자신의 향후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진로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업을 보충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기초학력이 낮고 학업흥미가 낮으며, 목적의식이 부족하고, 학업단절 경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학력격차를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기초학력부족으로 현행 학년의 교육수준을 따라가기 어려워 학원수강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시설에서 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강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흥미 저하 등으로 인해 거부하고 있었다.

시설에서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 또는 향후 진로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참여자들 중 흥미와 적성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준비 중인 참여자들은 자격증이 학습욕구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자립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흥미 없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수단이 되는 교육은 참여자들에게 중도포기 경험을 한 번 더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 학업에 대한 흥미가 낮고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시설에서는 예체능 등의 취미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학습에 대한 낮은 흥미와 목적의식 부족은 진로 결정 시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정보 없이 막연한 이유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로를 전혀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 상태에 있었다. 대부분 자립을 최대한 늦추려 했으며,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습공간은 대부분의 시설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쉼터 참여자들은 다인용 침실, 공용공간과 학습공간과의 거리, 다른 거주 청소년들의 소음 등으로 학습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대체로 시설에서는 주변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 이용을 권장하고 있었으나, 귀가 및 취침 시간 규정으로 인해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용 컴퓨터 및 태블릿과 같은 기자재에 대해 개인 소유의 기기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과 공용기기를 사용하지만 학습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소년보호시설에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학습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자재 사용에서의 불편감은 개인 또는 공용 등 기자재의 소유 문제보다는 취침시간 규정이나 기자재 사용시간 규정 등으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가생활과 관련하여서는 휴식공간은 대체로 충분한 편이며, 여가시간은 대체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외부 친구들과 함께 PC방, 노래방, 카페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행을 포함한 문화생활은 대체로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 종사자들은 별도의 교육비 예산이 없고 후원금이 부족하여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고 하지만, 참여자들은 대체로 시설에서 충분히 학습을 위한 비용이나 환경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후배들을 위해 초기 시기부터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 학습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습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성취를 지원해줄 수 있는 멘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경제교육이나 각종 자립지원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등 자립준비 지원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종사자들은 시설 내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추세를 지적하면서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신의 낮은 욕구 인식, 지속적인 실패, 노력 부족 문제에 더하여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종사자의 낮은 이해와 개인 전담의 반복훈련 지원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제고,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전문 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사례 공유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거주 청소년들 중 일부는 자신의 향후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학을 할 것인지 여부, 희망 직업 결정 정도의 막연한 진로결정에 머물러 있거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단순히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직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직업탐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및 후원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의 진로와 무관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 지원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퇴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일부 청소년들은 자립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인해 오히려 발달시기에 필요한 과업 습득 또는 학습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지원에 익숙해져 개인의 노력 없이도 복지지원에 의존하여 퇴소 후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시설퇴소 후 지원이 한시적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사회 안착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기간 동안 스스로 진로 및 진학에 대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계획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낮은 학업 흥미와 발달 초기의 부족한 자극과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취 경험 기반의 학습흥미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수준별 학습지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사자의 업무 부담 완화 및 거주 청소년들과의 관계 안정을 위하여 아동복지교사와 같은 학습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간 잦은 이동과 위탁교육 등으로 인한 학업단절 경험 청소년을 위해 기초학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위탁교육 시 수준에 맞는 교과 수업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해 학습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문제가 완화될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심리·정서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넷째,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교육환경 및 재정 격차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교육비 예산 및 후원금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학습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현재 교육비 예산이 부족한 시설 유형에 대해 별도의 교육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비를 청소년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 사용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의지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율적인 학습보장을 위해 학습에 방해가 되는 획일적인 귀가 및 취침 규정을 유연화하여 외부 학습공간 이용 및 심야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시설거주 청소년 중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들의 자립준비에 어려움이 많아 전문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달 초기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 대상의 전문교육을 개발·확대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경계선지능인 전문지원센터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등의 유관기관 설치 및 확대를 검토하고,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7장 정책제언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정책제언

7 정책제언[82]

아동·청소년기 동안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 및 폭력, 방임, 가정해체,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시설에 입소하게 된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상실이나 심리적 외상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경험을 가진 적이 없는 청소년들과 동일한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하며, 개인의 학습거주 공간 정비 및 시설에서의 규칙 재정비, 진로·진학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실태와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제도, 5장과 6장에서 살펴본 시설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진로·진학, 정보활용능력, 일 경험, 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사회적 관계 및 주관적 웰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정과제 중 '취약·위기 아동·청년 지원'을 포함하는 〈국정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환경 조성〉 및 '청소년의 활동·참여 활성화,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등을 포함하는 〈국정과제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및 마음건강 지원'을 포함하는 〈국정과제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을 실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2)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 정책의 기본 방향

시설거주 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과의 교육격차는 물론 이들이 입소한 시설에 따라 경험하는 삶과 지원에서 격차를 경험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 규모 및 지원 내용, 시설 환경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퇴소 시까지 한 시설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설을 이동, 표류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2개소 이상 거주 청소년 35.5%, 표 V-8). 이러한 결과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퇴소시설을 기준으로 한 단일 보호체계의 정책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보호체계에서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들이 서로 중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시설별 격차는, 즉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의 차이도 있지만 지원시설의 교육 환경 및 지원의 차이로 인한 격차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시설의 교육지원 환경이 서로 다르고 각종 지원에 있어서도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 유형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고 거주 청소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지원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할 때 일반청소년과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기반을 논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목표를 '시설거주 청소년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기회 보장'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1) 안정적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2)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3)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강화 등 세 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추진과제별로 세부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시설거주 청소년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기회 보장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1. 안정적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1) 청소년 거주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최소필요기준 마련 2) 시설거주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 지원 현실화 3) 자기주도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제공 4)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기준 수립	
2.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1) 학습지원	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② 지역 및 시설 단위 학습지원인력 배치: 아동복지교사 제도의 확대 및 학습지원인력 신규 채용 ③ 학습 의욕 향상 및 학습 습관 형성의 기회 제공 ④ 학습환경의 개선: 학습실 설치 및 관련 규정 제·개정 ⑤ AI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 제공 ⑥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교육 시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과 수업 제공 방안 마련
	2) 진학·진로 지원	① 지역 및 시설 단위 청소년 진학·진로 전담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② 다양한 진로·직업탐색의 기회 제공을 통한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진로 교육 제공 ③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기술평가의 표준화 마련 및 보급
	3) 심리·정서 지원	① 전문적·안정적인 정서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②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확대 ③ 대규모 시설 지양 및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
	4) 다양한 문화 및 체험활동 지원	① 인터넷 과몰입 예방을 위한 대체활동 제공 ② 폭넓은 문화 및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제공
3.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강화	1) 청소년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연수 확대 2)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공유 3) 경계선지능인지원기관(사업) 확대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그림 Ⅶ-1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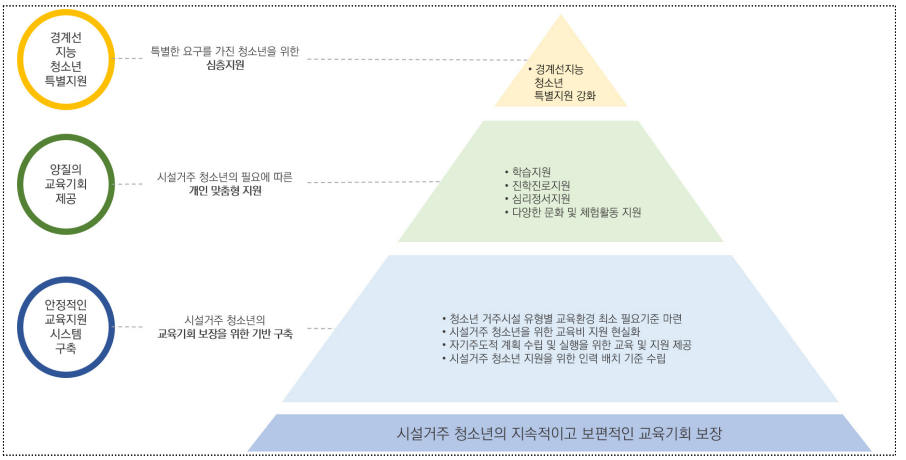


그림 Ⅷ-2.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2. 정책제언

1) 안정적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범부처 소관 청소년 거주시설 간 학습지원 격차 최소화

(1) 청소년 거주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최소필요기준 마련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열람석 및 도서류를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학습공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주택형 숙사를 갖추도록 하여 가정과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쉼터는 학습공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고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법적 설치근거가 미비하여 시설환경에 대한 최소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생활관 거주 청소년들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조용히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시설 유형별 설치규정

- 아동복지시설
  -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부지 선정,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6.6㎡ 이상
  -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 아동양육시설은 66㎡ 이상의 강당 또는 오락실, 도서실, 심리검사·치료실을 갖추어야 함
  - 공동생활가정은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 이상의 공간 확보
  - 침실 내 정원은 단기쉼터 1실당 3인, 중장기쉼터 1실당 2인 이하로 권고
  - 상담실, 단체활동실 구비
- 소년보호시설
  - 시설 설치 규정 미비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아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제20조)가 있으며, 아동이 보호 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제25조) 하는 등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의 경우 국가가 이들에게 제공되는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환경의 미비로 인해 이들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27조)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설 유형별로 발생하는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주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공통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개인 침실(아동이 동의 시 최대 2인까지)을 제공하며 개인공간에는 학생이 조용히 앉아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비롯한 관련 가구 및 집기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숙제 및 독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아동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내용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그룹홈의 경우 아동에게 침대, 옷장, 서랍장 등 집기가 포함된 침실을 제공하며, 가구를 제외한 침실의 최소 규모와 샤워실 확보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다.

〈해외사례: 해외 시설의 개인공간 규정〉

■ 영국 아동홈

• 집단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설거주 아동에게 반드시 다른 구성원과 떨어져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개인 침실) 제공
  - 국가 최소 기준 및 잉글랜드 아동홈 규정에 따르면, 각 아동에게는 개인 침실(1인실)이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의 동의 시 최대 2인까지 하나의 침실(2인실)을 공유(국가 최소 표준에 따르면 기숙학교의 경우 최대 4인 1실까지 가능)
  - 또한 학생이 조용히 앉아 공부할 수 있는 의자·책상/테이블·조명·책장 등을 제공하고, 개인별로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 사물함 등 개인 보관함도 제공

■ 미국 일리노이주 그룹홈

• 아동에게 침대, 옷장, 서랍장 등이 포함된 침실 제공
  - 1인 1베드(침대)
  - 침실 규모는 옷장, 서랍장 공간을 제외하고, 아동 1인당 최소 40평방피트(약 3.7㎡)
  - 만 6세 이상 아동은 성별에 따라 침실 구분
  - 아동 5인당 1개 이상의 욕실(샤워실) 확보

* 출처: 잉글랜드 아동홈 규정 (2015)
일리노이주 그룹홈 규정
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홈페이지, April 10, 2025). *Rules 403 – Licensing Standards for Group Homes*. https://dcfs.illinois.gov/content/dam/soi/en/web/dcfs/documents/about-us/policy-rules-and-forms/documents/rules/rules-403.pdf (검색일: 2025.8.1.)

우리나라의 경우 각 소관부처별로 규정된 시설 설치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여전히 시설별로 규정이 상이하며 개인적인 공간 및 학습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집기나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개인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침실 크기 및 이용 인원, 개인 공간 내 필요 집기(책상, 의자, 옷장 등), 조명 및 환기 등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환경의 최소필요기준을 설정하여 청소년의 신체·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시: 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필요기준〉

• 초등학교 학령 청소년까지는 최대 2인실, 중·고등학령 청소년 1인실(청소년 동의 시 최대 2인)
• 침실 내 개인별 책상/테이블, 의자, 조명 구비
• 침실 내 개인별 옷장 및 개인 보관함 구비
• 시설 내 공동(4~5명)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실(도서실) 설치: 학습실에는 책상/테이블, 의자, 조명, 학년과 수준에 맞는 도서 및 참고서, 학습용 컴퓨터, 헤드폰 등 기자재 구비

* 시설 내 디지털 학습권 보장 및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자의 적절한 지도하에 교육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룸' 설치[83]

(2) 시설거주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 지원 현실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받는 반면, 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개별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기초생활급여를 시설회계로 편입하여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고, 지정후원금을 교육비 및 자립정착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들이 교육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체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낮긴 하지만 아동복지교사를 활용하여 기초학습 및 외국어, 예체능 지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쉼터는 사업비에서 교육비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자립활동실비 등의 지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비에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학습지원비, 교복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의 학업 보충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자립활동실비는 청소년들의 자립지원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비 중 개소 당 500만 원 한도 이내의 비용을 시설 상황이나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소당 입소 청소년의 수가 상이하고 개별 청소년마다 자립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청소년에게 자립지원비용이 편중될 가능성도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사업비 내 교육 관련 예산이 부재하고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 후원금 모집 상황에 따른 지원 변동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시설 유형별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의 필요에 따른 학습기회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에 현재 교육비 예산이 부족한 시설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비 예산을 확보, 책정하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 보충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쉼터의 경우 입소청소년의 개별 학습계획 및 요구에 따라 예산을 변동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들과 일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생활관 거주 청소년들은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교육급여를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 교육과 무관한 활동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83)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2025.12.16.) 토론 내용의 일부임.

시설로 모두 편입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급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으로 교육급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 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사용처에 대해 검토하는 등 청소년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급여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올바른 관리방법을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설에서 단기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학업 및 진로계발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원과 입소 시기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졸 학력 획득 및 대학 진학, 취업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2~3년 이상 부모의 보호력 부재로 장기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설 입소기간 동안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청소년들이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포기 또는 중도에 중단하는 일을 방지하여 무기력이나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자기주도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제공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현장 종사자들은 시설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이 자립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인해 지원에 익숙해지고 개인의 노력 없이도 복지지원에 의존하여 퇴소 후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발달시기에 필요한 과업 습득 또는 학습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이는 백혜정 외(2023)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수당을 100% 받기 위해 수당을 받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적 자립수당이 독이 된다고 평가하였으며, 실제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수당을 받는 동안 소득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수당이 종료되는 시점인 20대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락할 위험도 존재(백혜정 외, 2023:180)하기 때문에 지원제도가 확대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장기적인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는 등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청소년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미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거나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청소년들은 미래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다소 비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당 수강시간 및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많았고,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한 청소년들은 장래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 기준을 잘 알고 있으며, 장래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 진로계획

- 진로결정 하지 않음: 시설거주청소년(19.5%)>일반청소년(9.0%)
- 희망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 시설거주 청소년(28.1%)>일반청소년(6.7%)
- 진학·진로 결정 시 도움을 받는 대상: 시설 선생님(85.8%), 학교 담임 및 교과교사(83.8%)
- 장래 희망 직업: 정하였음 66.7%
  - 학업성적별: 상(78.5%)>중(69.8%)>하(59.5%)
- 장래 희망 직업과 적성·흥미 간 일치 여부: 일치하지 않는 편(2.8%)+잘 모르겠음(3.5%)
-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에 따른 평균 공부시간 및 미래결정요인 차이
  - 평균 공부시간: 정하였음>정하지 않았음
  - 미래 결정요인: 정하였음(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정하지 않았음(환경에 의해 결정)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인지적 성숙, 사회적 요구의 변화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수많은 선택 상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수반되고 그것을 통해 미래의 삶의 방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과 초조감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탐색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해나감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미래의 삶에 대한 인식이나 계획은 삶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목표의식을 제시해주고 자신의 학업이나 활동, 경험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나아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 강점과 약점 등에 대해 탐색하면서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삶의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전 경험을 하면서 실패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발휘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자립 후 제공되는 한시적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진로 및 진학에 대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계획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통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주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이해에 기반을 둔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립 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선행될 때 현 정부의 국정과제(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 초기 재무설계 등을 통한 자립 준비 지원'이 보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기준 수립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구성은 각 시설 유형별로 상이하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14 참조)에,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별표2 참조)에 근거하여 필요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하위유형 및 규모에 따라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년보호시설 중 6호 처분 청소년을 위탁할 수 있는 아동치료보호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준하여 종사자를 배치하는 데 비해 청소년자립생활관의 경우는 시설 운영규정 내에 종사자의 자격과 직원의 역할은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배치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설별 필요인력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의 유형이나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입소정원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청소년쉼터는 이에 비해 청소년의 보호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보호·상담원에 한정되어 있다. 소년보호시설의 경우는 6호 처분 청소년의 위탁교육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에 준하여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재)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운영규정 내에 종사자의 자격 및 역할만 규정되어 있으며, 종사자의 역할도 입주생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며 이들의 자립을 위해 생활지도계획, 학업, 취업, 금전관리, 일상생활, 여가활동, 상담 및 조언, 사례관리, 가정복귀 등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숙식제공 및 일상생활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심리·정서, 진로·진학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가 적절히 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시의 페어퓨처 프로그램의 경우 11세부터 장기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생활해갈 수 있도록 전담코치를 제공하고 있다. 전담코치는 교육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졸업률 개선, 고등교육 진학률 개선, 청소년이 자립생활 달성 등에 기여하고 있다.

〈해외사례〉 미국 뉴욕시의 페어퓨처 프로그램

- 모든 청소년은 돌봄을 제공하는 성인과 장기적이고 건강한 관계 및 성공을 위한 지원·기회에 대한 접근이 필요
- 위탁보호 시스템 내 11~21세 청소년에게 전담코치를 배정하여 어린 나이부터 21세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십 프로그램
- 장기적인 코칭과 양질의 학업 및 직업 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의 결과는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음
- 위탁보호 청소년들에게 성인전환기까지 이어지는 장기코칭, 사회·정서적 지원, 학업, 커리어 개발 지원 등을 제공
- 동 모델에는 총 10가지의 역할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일부 역할은 제외 가능함
  - 프로그램 디렉터
  - 중학교 교육 전문가(전문가 1인당 최대 담당학생 50명): 학업성과 모니터링 및 가정 튜터링 제공, 고등학교 진학 관련 맞춤화된 지원 제공
  - 코치 슈퍼바이저(1:4~1:5 비율)
  - 코치(1:15 비율): 9학년부터 위탁보호 청소년과 연계되어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교육 및 경력 목표를 식별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 컬리지 전문가: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수가 적은 기관에서는 제외 가능
  - 6~12학년 튜터(1:18 비율)
  - 튜터 슈퍼바이저(1:4~1:5 비율)
  - 커리어 개발 전문가
  - 주거지원 전문가: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수가 적은 기관에서는 제외 가능
  - 아웃리치 코디네이터

* 출처: 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p.59.

즉 청소년들이 자립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개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입소청소년에 대한 전담코치 역할을 해줄 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 과정에서 학습이나 심리·정서 문제를 가까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 시설 내에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소관부처별로 별도의 최소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발달 측면에서 요구되는 필요인력의 공통기준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역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를 지원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심리적 외상과 상실 경험을 완화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설 내 분야별 전담인력이 지원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할 때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1) 학습지원

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연구결과〉

- 시설거주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낮은 경우가 많고 일반청소년에 비해 특성화고 재학률이 높은 편이며 학습 의욕 역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 특히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 복수 시설 생활 경험 청소년들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업 중단율이 높고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 및 학습 의욕이 저하되어 있음
- 영국 사례: 모든 지자체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가상학교'와 '가상학교장' 제도를 도입함. 가상학교는 물리적인 학습 공간이 아니며 보호 아동·청소년의 교육 관계자 모두를 지원하는 일종의 '서비스'로, 가상학교장은 교육시스템 내 여러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보호 아동이 다른 또래들과 동등한 교육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청소년의 학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함
- 미국 사례: (모든학생성공법) 위탁 아동·청소년의 학업 결손 방지를 위해 정규 교과과정 외 보충수업, 개별 튜터링,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등 균형 잡힌 교육기회 제공을 명시

우리나라 일반 중산층 가정을 생각해 보면 자녀 학업에 있어서 부모의 뒷받침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해 가정의 지원이 거의 없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취는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고 학습 의욕이 저하되어 있으며 심리·정서·행동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해외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영국은 지자체 내 보호아동의 학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 내에 가상학교장이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상학교장은 지역 내 보호아동의 출석, 학업성취도 등을 모니터링하며 부모처럼 아동의 교육에 관여하면서 해당 아동의 교육 관계자, 즉 사회복지사, 교사, 보호자 등에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시 정신건강 서비스,

교육심리학자, 멘토 등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와 연계하기도 한다. 가상학교장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은 같은 지역 내에서라도 교육에 대한 정보와 연계 능력 등 종사자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이에 시설 종사자 기반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는 기초학력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업 내 지원(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 '학교 내 지원(두드림학교)'→ '학교 밖 지원(학습종합클리닉센터)'이라는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개별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까지 각 단계별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84] 다만 이 사업에서 기초학력 미달(20% 미만) 학생에 대한 지원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백혜조, 2022) 중하위권 이상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학교 밖 청소년은 이 사업의 사각지대이다. 시설거주 청소년들도 기초학력 미달이 아닌 이상 학교를 통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다.

시설거주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 내에 아동 개개인의 교육적 성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학습수준 진단[85]에 따른 개인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지원 제공 및 효과성 검증을 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및 학교-아동·청소년 거주시설-지역 내 연계기관 등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그 기반 위에 협력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통합 체계가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즉 지자체별로 시설 아동과의 일대일 배정이 가능한 규모의 교육지원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된 미국 뉴욕시의 페어퓨처 프로그램을 참고할 만하다. 페어퓨처 프로그램에서는 중학교 교육 전문가 1인당 최대 담당학생 50명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지원전담인력을 시설 내가 아닌 지자체에 배치하여 시설을 순회할 경우 이동시간이나 거리, 청소년 개인별 특성에 따른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84)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k-basics.org/user/ (검색일: 2025.10.14.)
85)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2025.12.16.) 토론 내용의 일부임.

고려하여 인력 1인당 담당 청소년의 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교육지원전담인력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등의 부가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② 지역 및 시설 단위 학습지원인력 배치: 아동복지교사 제도의 확대 및 학습지원인력 신규 채용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 보살핌의 부족, 시설 간 잦은 이동과 위탁교육 등으로 인해 학습 의욕이 낮고 학습 공백이 있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많다.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 외 보충적인 학습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이 선행 학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낮은 학습 의욕과 뒤처진 교과 진도 등으로 교과목 보충을 위한 학원 수강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차선책으로 시설에서는 개인의 수준에 따라 방문학습지 풀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시설 종사자들은 이때도 청소년들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누군가 옆에서 일일이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함을 호소하였다. 학습지 풀이뿐 아니라 부족한 학과 공부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은 장기간 양질의 자원봉사자를 찾기 어려워 효과가 크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시설 종사자들은 대안으로 지역단위나 시설 단위로 학습지원인력이 배치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구결과〉

- 시설거주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학습 의욕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
- 학업에 대한 목적의식이 낮고 무기력한 경우가 많음
-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실력이 부족하여 교과 보충을 위한 학원 수강이 여의치 않음
- 학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자질 부족으로 장기간 양질의 학습지원이 어려움
- 시설 종사자가 일대일로 청소년의 학습 진도 상황이나 숙제를 일일이 점검하고 학습 내용을 봐주기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 부담됨. 아동복지시설 대상 아동복지교사 지원제도가 있으나,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

학습지원인력과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제도[86]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기초학습·외국어·독서·예체능 등의 분야에서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규정상 주 3~5일 이내 1일 5시간(9:00~21:00) 근무가 가능하다. 파견 가능 시설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가능한 시군구에서 해당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86) 아동복지교사 지원제도에 대한 서술은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5a)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한 것임.

위탁가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5명 이상인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평등가족부나 법무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등은 주무부처가 다르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이 제도의 활용이 어렵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조차도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시설에서 아동복지교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교사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인원이 많은 시설에는 아동복지교사를 시설 내에 배치하도록 하고 인원이 적은 경우는 시·군·구 내에서 복수의 시설에 주 1~2회씩 순회 방문을 통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지원할 경우는 학교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밤 10시 정도까지 야간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쉼터나 자립생활관 등에서는 주무부처의 차이로 인해 아동복지교사 지원제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아동복지교사 지원 대상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만약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학습전담인력 지원제도 신설을 고려해 볼만하다. 지자체별로 학습전담인력을 선정하여 신청 시설에 배치 또는 순회하도록 하면서 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방문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낮은 기초학력과 학습 의욕, 무력감 등을 고려할 때 꿈드림센터에서 시설거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작 단계에는 거주시설 방문을 병행하면서 사례관리 및 기초학습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예로 현재 꿈드림센터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인력을 활용하는 데에는 업무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대학생이나 은퇴 교원 등에게 기초적인 상담에 대한 교육을 사전 이수하게 하여 단순 지식전달자가 아닌 정서적 지지자로서 학습동기를 부여[87]하는 인력을 확보·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개인 수준별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학습지원 인력의 질적 관리와 적정량의 업무량이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지원인력의 질적 제고

87)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2025.12.16.) 토론 내용의 일부임.

를 위해서는 교육·연수나 슈퍼비전 등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정량의 업무 부과를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일인당 담당 시수 및 사례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적정량의 업무 부과는 열악한 처우 문제에 따른 전문인력의 유출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③ 학습 의욕 향상 및 학습 습관 형성의 기회 제공

〈연구결과〉

- 낮은 학업성적과 학습 의욕, 학습 습관의 미형성으로 학습 역량이 저하된 청소년이 많음
-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 20.8%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업 욕구 및 흥미를 상실한 면접사례들이 보고됨
- 시설 종사자의 학습 독려가 종사자-청소년 간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음
- 학습에서의 작은 성취를 통해 학업 욕구 및 흥미, 성적이 상승한 면접사례들이 보고됨
- 일본 사례: 맞춤형 지도와 단계적 성취가 가능한 구몬 학습을 실시하여 개인별 학습 격차 최소화 및 학습 습관 형성

앞서도 언급했듯이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학습 의욕이 낮고 올바른 학습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학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학업성적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면접조사 결과에서는 시설 입소 전 불안정한 가정생활로 인한 잦은 이사와 전학,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등교 대신 장기간의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되면서 일부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학습 공백기를 경험한 탓에 학습 의욕을 잃고 학습 습관 미형성 및 붕괴와 학력 저하 등의 상태에 이르게 됨이 나타났다. 이에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학습과정에서 성공을 경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학력 저하가 심한 상태에서는 학교 수업 현장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시설 안에서 개인 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을 통해 단계별 성취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학습지원인력 등 주변의 긍정적 피드백 등을 통해 작은 성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작은 성취 경험 기반의 구체적인 학습 지원방안 사례로는 방문학습지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 방문학습지를 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방문학습지와 관련하여 시설 종사자들은 이들의 학력 수준이 자신의 현재 학년보다 낮은 초·중학교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학원 수강은 어렵고 학습지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학습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방문학습지 기반의 학습 지원은 일본의 여러 아동보호시설들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방문학습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학원 수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현재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에 맞춘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시판 중인 방문학습지 제공 업체와의 민관 연계를 구축하여 방문학습 기반 학습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 즉 방문학습지 제공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개인별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교사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여 단계별 기초학습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덧붙여 성취 경험 기반의 학습 흥미 제고 및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일정 단위별로 단계가 상승할 때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작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설 종사자 대상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문제해결 방안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여타 현장 종사자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우수사례 공모전을 많이 개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설 종사자들 역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학습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해결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이들에게 아이디어 제공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한편 시상자들에게는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학업성취에 대한 성공 경험은 이르면 유아기, 학령기부터 시작되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유아기, 학령기에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경험 제공을 통해 학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적절한 인지적·정서적 자극이 가능하도록 발달단계별 기자재 마련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자극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④ 학습환경의 개선: 학습실 설치 및 관련 규정 제·개정

〈연구결과〉

- 일인용 침실 사용 21.1%,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용 78.9%(침실당 평균 사용 인원 2.5명)
- 시설 내 언제든 사용 가능한 조용한 학습공간 없음 14.5%(청소년쉼터 27.9%, 소년보호시설 26.4%)
- 시설 내 학습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 할 일을 포기함 7.1%
- 시설 외부 학습공간(학교·도서관·독서실 등) 이용률 62.4%
- 필요시 학습 교재를 언제든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 13%
- 시설 내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저하, 귀가시간 및 취침시간 일괄 적용, 학습공간 부족 등은 학습의 저해 요인임
- 일본 사례: 구마모토현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2곳으로 결성된 공동체(컨소시엄)에 위탁해 현 전역에 학원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학습지원 교실을 만들어 학습지원을 실시

시설거주 청소년 중에는 학습 의지가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청소년 집단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집단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규칙의 획일적인 적용, 시설 내 면학 분위기 저하 등을 학업의 방해 요인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 좀 더 늦게까지 또는 집중하여 공부하고 싶지만 귀가 및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2인용 방을 사용하는 경우 상이한 생활 방식으로 학업에 몰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성인기에 이르러 경제적 활동과 자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각 시설은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학교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외부 공간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귀가 시간 조정 및 이용료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일부 아동양육시설의 경우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학습실이나 도서관 등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모든 시설이 동일하지는 않다.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 시설의 경우는 도서실 설치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등에는 도서실(학습실) 설치 규정이 없다(보건복지부, 2025:230; 여성가족부, 2025:228; (재)한국소년보호협회, 2025). 청소년쉼터의 경우는 단체활동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학습보다는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되는 공간이며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운영 시간이나 공간 배치 등에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일인실 침실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침실에 책걸상을 마련하여 개인 학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2인실 이상의 침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학습실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 쉼터는 학업지원을 핵심기능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여성가족부, 2025:199)

단기 쉼터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는 중장기 쉼터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의 조용한 학습공간 확보가 시설 기준에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립생활관 역시 운영 규정((재)한국소년보호협회, 2025)에서 사회정착지원사업 안에 학업지도가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자립생활관 일부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6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학습지원을 해야 하므로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준하여 학습시설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학습실에는 기본적인 책걸상과 청소년들의 학년과 수준에 맞는 도서 및 참고서, 학습용 컴퓨터와 헤드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실 운영시간에 유연화를 기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에서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학습지원 및 관련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AI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 제공

AI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단순히 생활의 편의를 위한 기술 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자립, 경제적 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능력으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디지털 리터러시는 AI 리터러시로 그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 즉 AI 리터러시 교육은 도구의 단순한 활용을 넘어 AI 관련 기술의 이해와 한계점, 사회적 영향과 윤리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2023년에 디지털 10년 약속에 따라 2030년까지 16~74세에 해당하는 EU 인구 중 80%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European Council, 2023). 아동권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 102항에서 취약계층 아동은 "적절한 기반시설을 가동해 모든 아동이 원격 교육에 필요한 기본 설비(기기장치, 전력, 접속 용이성, 교육 자료, 전문 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88] 또한 104항에서는 "미취학 단계에서부터 전 학년에 걸쳐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자료를 안전하게 다루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명시하였다.[89]

88)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21):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배포일 2021.3.2).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pair/line/510 (검색일: 2025.10.15.)

89) 출처: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21):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pair/line/510 (검색일: 2025.10.15.)

〈연구결과〉

-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컴퓨터·태블릿) 있음 59%, 시설 내 공용 기기 사용함 24.3%, 사용 가능 기기 없음 16.7% → 시설별 기기 보유 여부에 차이가 있음
- 컴퓨터 활용 능력 중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또는 "매우 잘 한다" 응답률: 프로그램/앱 설치 73.9%, 문서 및 자료 작성과 편집 70.3%, 인터넷 검색 정보의 신뢰성 판단 64.7%,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 60.2%, URL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 정보의 출처 찾기 55.6%
- 학업성적이 낮거나 시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낮음
- 영국 사례: 컴퓨터·인터넷 포함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 및 제공
- 일본 사례: 스마트폰 기반 온라인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금 제공
- 독일 사례: 디지털 도구 사용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장려, PC·노트북 이용 보장

그러나 현재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를 단순 활용하는 수준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에 시설거주 청소년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습 의욕이 저하되어 있거나 학업 수준이 낮은 시설거주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급 단위의 수업을 통한 디지털 교육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마저의 교육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거주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능동적 체험형 소집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 등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들을 위한 실생활에 유용한 AI 활용 및 응용기술 강화,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한 청소년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더 나아가 코딩 등 심화 교육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스마트 환경 구축 및 디지털 기기 보급을 지원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강사를 포함한 교육팀을 파견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기 보급 및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꿈드림센터 등을 중심으로 학습용 디지털 기기 보급 및 활용, 양질의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 강사를 통한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⑥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교육 시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과 수업 제공 방안 마련

〈연구결과〉

- 보호처분(6호)으로 시설 내 위탁교육을 받는 청소년 대상의 일괄적 교과 수업 제공으로 학업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함

면접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처분(6호 처분) 등으로 학교가 아닌 보호시설 내 교육으로 위탁되는 청소년의 경우 교과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교과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여러 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통합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학년이나 학업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제공받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들은 보호처분 기간을 마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처분 기간 동안 발생한 학습 공백으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은 일반 학교 복귀 후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더 이상의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학교 복귀 후 수업을 따라가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은 청소년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맞춤형 교과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학년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탁시설의 특성,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나 심리·정서 상태를 고려할 때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 수준을 포함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학업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위탁시설은 규모가 작고 종사자들의 업무가 과중한바 종사자들에게 교과교육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앞서 제언한 교육지원 전담인력, 학습지원인력 등을 위탁시설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위탁교육 청소년들의 학습 가능 정도를 및 수준 파악을 위한 진단평가 도구가 개발·보급될 필요도 있다. 진단평가 내용에는 어휘력·독해력·수리력 등 핵심 기초능력, 주요 교과목의 성취 수준, 학습 습관 및 전략, 학습 동기 및 의욕, 심리·정서적 문제 여부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의 자문 내용에 따르면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같은 시설 내 또래의 학습 태도에 따라 학업에 대해 흥미를 갖기도 하고 자발적인 학습 지원을 요구하거나 시설 전체에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이에 시설에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성공을 자주 경험하며 점진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단계를 매우 잘게 쪼개어 제시하고 단계별 성취를 이룬 청소년들에게는 작은 보상을 제공하는 등 학업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2) 진학·진로 지원

① 지역 및 시설 단위 청소년 진학·진로 전담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연구결과〉

- 장래 희망 직업이 결정되어 있을수록 평균 공부시간과 노력의 중요성 인식의 정도가 높음
- 고등학교 연령대 시설거주 청소년 진로 미결정률 19.5%(일반청소년의 경우 9.0%)
-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경우 45.6%
- 진로 설정 시 자신보다 시설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는 편인 경우 33.3%
-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 선생님으로부터의 진학·진로 관련 의견·정보 제공 정도가 낮으나 시설 선생님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에는 차이가 없음
- 시설 선생님으로부터의 진학·진로 관련 의견·정보 제공 정도에서 시설 유형별 편차가 나타남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는 향후 시설퇴소 후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모든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진학·진로 준비 상태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진로 미결정률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정보 부족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시설 선생님의 진로지도에 의존하고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시설 종사자 역시 학업성적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에게 최선을 다해 진로 정보 및 지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들은 진학·진로 전문인력이 아니므로 정보 제공이나 지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 그리고 종사자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시설 유형별 격차가 발생하였다.

일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학교에서 진로전담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매우 많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낮거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정기적이고 밀도 있는 개별적 만남을 통해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받기가 쉽지 않다. 시설거주 청소년의 상당수는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진로전담교사를 찾아가기보다는 시설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진로 관련 의논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설문조사 응답률은 높았으나 면접조사 결과에서는 일대일 상담·지도보다는 담임교사와의 학기 초 면담을 통한 의논이나 수업 시간에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상담 및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진로 관련 전문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일부 시설의 경우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외부 진로 선생님이나 진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시설 선생님과의 상담, 진로 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고등학생 연령이 되어서도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 및 정보 제공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만큼 진학·진로 관련 전문인력의 배치는 시설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 및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모든 시설 내 진학·진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인력 수급이나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지역별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내 시설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사례를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교사에서 진로전담교사로 전환한 것과 같이 진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시설 종사자들을 시설거주 청소년 대상 진학·진로 관련 전문인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 종사자들의 교육·연수 내용에 심도 있는 진학·진로 지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진학·진로 강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좌들이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특성과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과중한 업무 탓에 시설 종사자들이 이러한 강좌를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설거주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진학·진로지도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섭외하여 시설 종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면 시설 종사자들의 진로지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진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시설 종사자들을 연수 강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교육청의 협조를 바탕으로 학생인 경우 학교 내 진로전담교사의 도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다. 학기 초 담임교사 면담을 바탕으로 진로전담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시설 종사자-담임교사-진로전담교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설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수행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복지사나 전문상담교사의 지원이 병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다양한 진로·직업탐색의 기회 제공을 통한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진로 교육 제공

〈연구결과〉

- 주변에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응답률 37.3%
- 장래 희망 직업은 제과제빵사, 간호사, 바리스타, 미용사, 요리사, 군인 등 몇 가지 특정 직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미래를 위한 자격증 취득 또는 취득 준비 중인 비율 46.1%이며 자격증 종류는 바리스타, ITQ, 제과제빵 기능사, 조리기능사, 간호(조무)사, 헤어·피부 미용, 전기기능사, 지게차 운전 등이 비율이 높음
- 미국 사례: 퍼스트스타 아카데미(First Star Academy)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과 연계하여 보호위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준비, 학업 지도, 라이프스킬 수업, 대학 진학/직업 계획 및 이력서 작성, 지역사회 봉사 및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대부분의 시설들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캠프, 진로상담, 직업체험, 진로검사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로 지원에 힘쓰고 있다. 다만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흥미와 욕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낮은 편이어서 이들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파악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직업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시설에서 멘토링, 직업 체험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흥미에 기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공하거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교육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보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성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 및 직업탐색 기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자체별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직종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시설별 종사자들에게 진로체험 현장 발굴을 맡긴다면 업무가 과중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단위에서 연계하여 신청 가능 기관 목록을 일선 기관에 제공하고 연계 일정을 각 기관에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멘토 선정 및 연결에 있어서도 지자체 단위에서 일정한 검증 및 훈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자체별 진학·진로 전담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해외사례에서 언급한 미국의 대학 연계 사례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관련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학습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일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와 부설 평생교육기관 등이 일선 학교만이 아니라 시설 방문을 통한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 시설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생들의 전공 지식 전달 및 정기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한다면 양쪽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개별 시설 종사자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전담인력이 맡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시설 지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자신의 진로와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현재 정한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이 역시 청소년에게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사자나 외부 인력들이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준비 수준, 직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진학·진로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진로 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로 지원에서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진로 지원의 부작용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일부 청소년의 지나친 지원 의존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 기관의 진로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재정적 지원이 일부 청소년에게는 직업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취업 유예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에 개인 맞춤형 진로 준비 평가를 바탕으로 최대 지원 기간을 제한하고 지원 내용의 단계적 축소, 가시적인 성과 도출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진로 지원의 한계점으로는 가시적 성과 위주의 지원이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지원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연계 진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종류의 진로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다. 향후 취업 등을 고려할 때 자격증 취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보다 다양한 직종에서 자격증보다는 관련 경험이나 교육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자격증 취득이 목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불필요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격증 취득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은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반면 개인에게 적절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준비 과정의 내용과 기간이 타당하다면 이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체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별 심사를 통해 이를 허용하는 등

보다 유연한 형태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③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기술평가의 표준화 마련 및 보급

〈연구결과〉

- 아동양육시설(보건복지부)의 경우는 입소생 대상 15세부터 매년 개인별 자립기술평가 실시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 청소년쉼터(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의 경우는 통합된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자립준비 평가 및 계획 수립
- 일부 청소년의 경우 시설퇴소 후 자립을 위한 노력보다는 복지지원에 기대어 살고자 하는 경우도 보고됨

아동양육시설에서는 15세부터는 보호종료 시점까지 자립 준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5세부터 보호종료 3개월 전까지는 매년 1~3월에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하되 고등학교 시기부터는 연 2회 이상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전까지 자립기술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영역은 집중지원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34). 자립기술평가와 자립지원계획은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에 명시된 8대 프로그램 영역(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 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업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에 근거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36). 반면 청소년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은 시설별 자체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별 편차가 존재한다.

이에 청소년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에서도 시설 간 자립준비 지원의 편차를 줄이고 거주기간 동안 좀 더 체계적인 개별 지원을 위해서 표준화된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체계적인 입소생 맞춤형 자립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자립준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와 달리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은 입퇴소 과정이나 거주기간 등에서 개인 간 차이가 심해 모든 입소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아동양육시설의 기준에 준하여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표준화된 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자립준비를 지원한다면 보다 방향성 있고 효율적인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아동·청소년 시설거주자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주무부처에 상관없이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매뉴얼'과 시설별 특성 및 개별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매뉴얼'을 개발[90]하여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심리·정서 지원

① 전문적·안정적인 정서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연구결과〉 심리·정서상태

- 스트레스 정도(1~4점): 2.97점
  - 거주시설 수: 2개소 이상(3.09점)>1개소(2.90점)
  - 거주기간: 3년 미만(3.10점)>3~5년(3.02점)>5~10년(2.99점)>10년 이상(2.87점)
- 무기력 정도(1~4점): 2.70점
  - 시설 유형: 청소년쉼터(2.96점)>소년보호시설(2.89점)>아동양육시설(2.66점)>공동생활가정(2.55점)
- 우울 정도(0~27점): 5.26점(우울 상태)
  - 시설 유형: 청소년쉼터(7.30점)>소년보호시설(5.91점)>아동양육시설(4.97점)>공동생활가정(4.42점)
  - 학업성적: 하(5.87점)>중(4.95점)>상(4.31점)
- 정신적 건강 상태(1~4점): 3.10점
  - 시설 유형: 공동생활가정(3.19점)>아동양육시설(3.14점)>소년보호시설(2.94점)>청소년쉼터(2.83점)

시설거주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거주를 경험한 시설의 수가 많고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심리·정서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상태가 가장 양호한 편이었고, 그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심리·정서적 상태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시설거주 유형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 청소년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점은 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선행·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맞춤형 상담·치료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사업의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인지·정서·행동상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및 언어치료·놀이치료 등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은혜, 김은영(2022)은 2012년~2020년

90)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2025.12.16.) 토론 내용의 일부임.

사업성과를 분석하면서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사업수혜 대상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도 30% 정도 발생하고 있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예산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먼저 선정되고 내면화된 문제를 가진 아동이 선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평균적으로 20회기 이내의 단기상담만을 지원하고 있어 치료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개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백혜정 외(2023)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시설에 있는 동안에 '따로 상담받아야 하는 애'로 분류되면서 낙인이 동반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에게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는 언제든지 '생활보급형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상황이 준비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청소년들이 낯선 사람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는 것은 단순히 '낯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지원기관을 통해 받는 상담이 단기적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상담이 종료된 이후 또 다른 낯선 상담자를 만나 처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반복되기 때문이기도 하다.[91] 이러한 경험은 상담에 대한 기대와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떨어뜨리기도 하며, 시설 거주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심리·정서적 문제는 자립 이후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시설 내에서 거주 청소년들의 돌봄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는 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시설 내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자가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안정적이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례관리자가 심리상담을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사례관리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 내 '생활보급형 심리상담'을 도입할 경우 시설에 상담자를 배치하거나 전문 상담교육을 받은 사례관리자가 업무 부담을 덜고 내담청소년과의 이중관계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거주시설 이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청소년쉼터나 소년보호시설 청소년들에게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설 내 심리상담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91)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준비: 무엇이 어려운가?〉 콜로키움(2025.10.10) 논의 내용 중 일부임.

업무협의를 통해 상담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시설퇴소청소년에게 8~10회기의 단기 상담을 동일하게 제공하기보다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따라 상담기간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확대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에 참여한 시설거주 청소년들 가운데 중졸 이하 및 고등학교 휴학/중퇴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은 6.1%였으며, 고등학교 휴학 및 중퇴를 제외하면 2.1%의 청소년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의 비율은 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쉼터에서 높았고, 거주했던 시설의 수가 많은 경우에 더 높았다.

〈연구결과〉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현재 학업 상태(중졸 이하+고등 휴학/중퇴): 6.1%
  - 시설 유형별:
    소년보호시설(26.5%)>청소년쉼터(18.3%)>공동생활가정(4.4%)>아동양육시설(1.8%)
  - 거주시설 수: 2개소 이상(10.4%)>1개소(3.7%)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심리·정서 지원 외에도 학교에 설치된 Wee클래스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교육청 산하의 Wee센터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병원형 Wee센터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이나 자살시도 학생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예시(인천)

- 지원비: 학생(1인당) 지원금: 정신건강 300만 원 이내 / 자살시도 학생 중 신체 상해 300만 원 이내
  -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 검사비 40만 원(최초1회), 고위험군 치료비(주1회, 6만 원 이내), 자살시도 치료비(주2회, 1회 6만 원 기준 총 12만 원 이내)
  - (자살시도)신체상해 치료: 골절, 음독치료,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 지원대상:
  - (자살시도 학생) 자살시도 학생 중 학교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고위험군 학생) 정신건강 관련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학생

※ 자퇴 및 퇴학 발생 시,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중단(예: 10일 자퇴 시, 9일까지 지원)

*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24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공고**. https://www.ice.go.kr/ice/na/ntt/selectNttInfo.do?nttSn=3278749&mi=10840 (검색일: 2025.10.15.)

그러나 참고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퇴 및 퇴학 발생 시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고위험군에 있는 청소년의 상담이 가능하긴 하지만, 학교에서 지원되는 것과 같이 병원형 Wee센터 이용이나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시설거주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시설에 거주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도 고위험군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대규모 시설 지양 및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의 교육실태 및 심리·정서적 상태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체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거주기간이 길고, 시설 간 이동 경험이 적으며, 기초생계급여 등의 복지 지원이 적절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중에서도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들의 상태가 보다 더 양호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아동복지시설은 보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인 것에 비해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유사한 주택형 숙사에서 소수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혜정 등(2023:178)은 인원이 10명이 넘어가는 순간 '집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선을 지켜야 해서' 종사자와 아동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쉽지 않고 단체생활로 인해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지며 개인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즉 시설에서의 돌봄은 특정한 통제하에 돌봄을 받는 개인들이 단체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특성 등으로 인해 개인이 일상의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개인의 의지나 선호와는 무관하게 일상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부모의 양육이 아닌 대안 양육을 결정하게 될 경우 이들의 욕구와 권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지만, 다수의 거주 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율을 강조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개인 맞춤형 경험보다는 다수의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외사례: 영국의 아동보호시설, Holly House 〉







- 레스터(Leicester) 시의회가 운영하는 새로운 아동 보호 시설 '홀리 하우스(Holly House)'
  - 시의회 소유의 주택 두 채를 개조하여 만들었으며, 8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최대 5명 수용
  - 실내 욕실이 있는 침실 4개와 보호종료를 앞둔 청소년을 위한 반 독립형 아파트 포함
  - 공동 레크리에이션 공간, 다이닝룸, 현대식 주방, 라운지, 사무실, 직원 수면 공간 등 마련

-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대다수의 아동은 위탁보호자와 살지만,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추세로 아동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거형 아동 보호 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
  - 시의회에서 자체 건립한 시설을 통해 아동들이 지역과의 연결고리와 관계를 유지하고 개별적인 필요에 맞춘 지원 가능
  - "아동 보호 시설은 말 그대로 '집'처럼 느껴져야 하며, 홀리 하우스가 그러한 마음으로 설계되고 마감되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설이 문을 열고 레스터에서 가장 취약한 일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Sarah Russell, 시의원)

* 출처: Leicester City Council (영국 레스터시 홈페이지). https://news.leicester.gov.uk/news-articles/2024/september/new-council-run-children-s-home-prepares-to-open-its-doors/ (검색일: 2025.7.1.)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은 40명 이상의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단기 청소년쉼터의 경우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거주에 부적합하고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개인 맞춤형 지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수에게 필요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는 시설에서의 생활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의 욕구를 탐색하고 개인의 능동성과 주도성, 자율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개인은 무기력해지고 목표의식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 이에 시설거주 청소년에게 종사자와의 깊은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및 소속감과 일상생활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공간으로 부적합한 환경의 대규모 시설 환경을 지양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형태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4) 다양한 문화 및 체험 활동 제공

① 인터넷 과몰입 예방을 위한 대체활동 제공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휴식시간 동안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낮잠을 포함하여 휴식을 보내거나,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대부분 혼자서 온라인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시설 내에 야외활동이 가능한 기구가 없고, 정기적인 취미·여가 활동이 없다는 응답도 높았다. 시설 내에 또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하기보다 혼자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 몰입하는 활동은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일 수도 있지만, 대인관계를 더욱 단절시키고 소원하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나아가 영상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소비 및 몰두는 텍스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를 야기하고, 뇌가 현실에 둔감해지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매일경제, 2025.3.17).

〈연구결과〉 여가활동

- 여가시간 주요 활동내용
  - 텔레비전·유튜브·OTT 등 영상 콘텐츠 시청(주중 58.5%, 주말 57%)
  - 낮잠·사우나·산책 등을 포함한 휴식(주중 41.1%, 주말 45.8%)
  -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주중 39.8%, 주말 37.1%)
-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주말)
  - 시설 밖 또래(34.5%)>시설 내 또래(33.7%)>혼자서(27.7%)
- 여가생활 만족도 66.7%
  - 시설 유형별:
    공동생활가정(78.6%)>아동양육시설(66.7%)>청소년쉼터(56.9)>소년보호시설(49.1%)
-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
  - 경제적 부담 26.9%, 적당한 취미 없음 17.9%, 시간부족 15.4% 등
- 주요 희망 여가 활동(1+2순위): 여행(33.2%), 휴식(26.3%), 영상 콘텐츠 시청(26.1%), 취미·자기개발활동(25.2%),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21.2%) 등
- 아동결핍지수 결과
  - 야외활동 가능한 기구 없음 38.3%
  - 정기적인 취미·여가활동 없음 41.0%

그러나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서 주로 하고 싶은 활동 중 여행과 휴식 다음으로 영상 콘텐츠 시청 순위가 높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경험의 부족으로 특별한 취미·여가활동을 찾지 못하였거나 시설 내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한 도구나 기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이미 영상 콘텐츠나 컴퓨터 게임과 같은 자극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휴식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시간제한을 두어 인터넷에 오랜 시간 동안 몰입하지 않도록 운동이나 산책과 같은 신체활동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도구 및 기구를 지원하고 독려하는 동시에 집단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가시간 동안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고 현실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대체활동을 적극 발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제공하여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등을 비롯해 여행 및 프로스포츠 관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거주 청소년 중 발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전반으로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목적의식이 낮고 무기력한 시설거주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공연, 영화, 전시

및 스포츠 관람 외에 자신이 직접 목표를 갖고 참여하여 성취감을 경험하는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활동 중 14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나 만 7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취포상제는 목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였을 경우 포상하는 제도로 타인과의 경쟁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성취감과 자기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작은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성장 프로그램
  - 참가대상: 만 14세~만 24세 청소년
  - 활동영역: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금장에 한함)
  - 포상단계: 동장(6개월), 은장(6~12개월), 금장(12~18개월)
- 주의사항
  - 활동 1회당 주 1회 간격, 매회 1시간 이상 실시
  - 탐험활동은 사전 기본교육 및 예비탐험활동 필수사항
  - 활동영역별 최소 필요 시간과 성취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각 단계별 포상을 받게 됨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https://www.kywa.or.kr/business/business4.jsp (검색일: 2025.10.15.)

② 폭넓은 문화 및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제공

시설거주 청소년들은 대체로 문화 및 체험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화 및 체험활동의 대부분이 영화 관람과 여행에 국한되어 있어 영화 외 공연, 전시회 등으로 문화 활동 경험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읍면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접근성 및 문화시설 이용 편의성이 낮아 문화 및 체험활동 기회가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동수단을 지원하고, 문화소외지역 청소년의 문화활동 경험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활동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소외지역의 시설거주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청소년활동·참여 활성화를 통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에 대한 균형성장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과도 맥락이 상통할 수 있다.

〈연구결과〉 동네 환경에 대한 인식

- 동네 환경에 대한 인식(1~4점)
  - 대중교통이 편리: 3.25점(대도시 3.40점>중소도시 3.23점>읍면지역 2.91점)
  - 청소년 이용시설이 잘 갖추어짐: 3.16점(지역별 유의한 차이 없음)
  -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짐: 2.84점(대도시 2.97점>중소도시 2.81점>읍면지역 2.63점)

또한 시설에서는 여행이 관광 및 휴식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교류와 같이 특정 목적을 가진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시설 외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교류하는 경험을 제공할 경우 공동체 의식과 사회정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에 적용해 볼 수 있고, 자기주도력이나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청소년활동은 성별이나 학교 재학 여부, 시설거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청소년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제도 개선 없이 시설에서 거주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추가적인 활동참여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활동을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 참여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역량개발 및 진로개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사례〉 영국 아동홈의 오락/여가활동 지원

- 아동이 창의적·문화적·지적·신체적·사회적 관심사와 기술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아동의 관심사와 취미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인해 제공
  - 아동이 수학여행, 학교 밖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여가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장려

* 출처: 잉글랜드 아동홈 규정(2015) 외.

이 외에도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활동기관의 생활체육, 문화강좌, 청소년참여활동,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맞는 취미를 탐색하고 개발시킬 수 있다. 나아가 나와는 다른 상황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시설이나 학교에서의 국한된 관계를 넘어 청소년지도자 및 참여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나가는 경험은 이들이 퇴소 후 사회에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적응해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 강화

(1) 청소년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연수 확대

본 연구의 자문회의에서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내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문제는 콜로키움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시설에서는 거주 청소년 중 약 30% 이상을 경계선지능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 모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통해 진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선지능 청소년이라고 구분되는 청소년 중 일부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아닌 일반청소년인 경우도 있고, 일반청소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 청소년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92]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보이는 특성이 다양하고 그 수준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공통된 특성이 있는 집단으로 범주화하기 어려워 실제 경계선지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적절한 개입 미흡이나 심리·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해 경계선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은 대체로 사회적·학업적 측면에서 습득이 느리고 의욕이 낮아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반복학습과 섬세한 집중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설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계선지능 청소년만을 집중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토로하였다.[93] 또한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은 장애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연계할 수 있는 기관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직접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계선지능에 대한 종사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직무연수 등을 통해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년보호시설 종사자 대상의 교육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경우 가능한 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시설 내에서 어려움을 갖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해 조기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특성부터 이해하고 발굴하여 개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92)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준비: 무엇이 어려운가?〉 콜로키움(2025.10.10) 논의 내용 중 일부임.
93)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자문회의(2025.9.3), 청소년쉼터 종사자 자문회의(2025.9.9) 결과임.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복지시설 직무연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연수 등에 청소년쉼터 및 유관기관(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등) 종사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거나 청소년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나아가 중앙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의 이러닝 교육과정 및 연수프로그램을 상호개방하거나 공동개발하여 시설 종사자들이 소관부처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교육추진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공유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이 동일 연령대의 또래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부족하지만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라도 개입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경우 기초학력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개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학습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거나 학습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94] 이에 현장에서는 시설 청소년들의 기초학습을 전담할 수 있는 아동지원인력이 배치되어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미취학 및 초등 시기까지라도 학습을 담당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시설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종사자들은 학습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어려울 경우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사례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경계선지능 청소년 대상의 지원사업은 매우 많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비전문적인 프로그램이거나, 단순히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도일 뿐이라고 하였다. 즉 실질적으로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이들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에 대한 조기개입 및 발굴부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만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매뉴얼화되어 배포만 될 경우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질

94)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자문회의(2025.9.3) 결과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서 제안한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종사자 교육·연수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종사자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운영사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다양한 응용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경계선지능인지원기관(사업) 확대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시설거주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거주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해 전문적이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확대되고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례로 한 청소년쉼터의 종사자는 서울시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밈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연계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경우 학습문제뿐만 아니라 생활기술, 진로교육, 사회기술, 경제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 내에서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인지원기관은 서울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부산시,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는 경계선지능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거주시설의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이 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수업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 즉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 부진학생 중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에 설치한 단위학교에 '두드림팀'이라는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부진 수준 파악, 부진 원인 진단 및 맞춤형 학습지도 등 전반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두드림학교가 2020년 초등학교 3,308개교, 중학교 1,225개교, 고등학교 353개교에서 운영(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2025년 10월 15일 검색)되고 있으나, 전국적 학교 수에 대비하여 초등학교는 약 50% 내외, 중학교는 약 37%, 고등학교는 약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경계선지능을 포함한 학습부진 청소년들이 지원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경우 학습 문제만 경험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앞서 제시한 경계선지능인자립지원기관이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두드림학교 등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들의 무기력과 의욕저하 등에 대해 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상담기관과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개별 경계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목표 및 지원 방법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최적의 지원이 이루어질 때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각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연계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공통적인 연계·협력 모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설 및 기관 간 실질적 연계·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두드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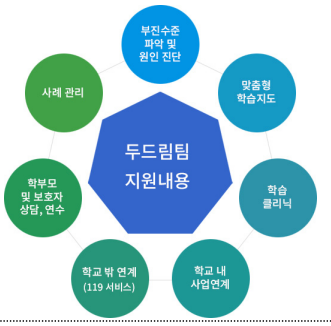
• 두드림팀 구성



• 두드림학교 지원 대상



• 두드림학교 지원 내용



* 출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두드림학교란**. https://k-basics.org/user/dodreamPolicy.do?menuSeq=719 (검색일: 2025.10.15.)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내문헌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내부자료 (2023).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정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내부자료 (2025).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규정.

강한나, 박혜원 (201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51**(6). 613-622.

강현아, 이종은 (2018). 시설퇴소청소년의 초·중·고 학교생활 및 진로선택 경험. **학교사회복지, 43**, 49-79.

관계부처합동 (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

김기헌, 배정희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서현, 양은별, 정익중 (2017). 편견을 희망으로 바꾸는 달리기: 학업성취 우수 시설보호 아동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4), 177-202.

김승경,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 (2024).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은예, 한수연, 박용한 (2023).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4**(4), 193-216.

김은정, 백혜정, 김희진 (2019).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모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2), 113-144.

김정숙 (2018). 소년원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건강 결정요인. **형사정책연구, 29**(1), 177-210.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2020).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202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정소연 (2015). 청소년의 가출횟수 및 청소년쉼터 이용경험에 따른 집단 특성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6**(4), 207-237.

김태균, 민원홍, 김수진 (2024).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완, 임완섭, 김기태, 이원진, 김영미, 김진욱, 노법래, 주병기, 최준영, 한수진 (2023).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총괄).**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희진 (2024.5). 가정 밖 청소년 탈시설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4년 5월 통권 제331호**, 49-6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남미자, 김시연, 마한얼, 정찬송, 정용림, 황혜신 (2024).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거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7**(1), 117-148.

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류정순, 이순형 (1998).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의 시계열 분석, **한국사회정책, 5**(1). 223-258.

문인영, 나승일 (2021). 중학교 이후 교육 및 고용 경로 유형과 결정요인: 한국교육고용패널 1-12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1), 97-124.

민소영, 장희선, 오세현, 강현아, 김세원, 김희진, 안재진, 이상균 (2023). **2022 아동보호 통합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Ⅶ: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박봉환 (2022).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주의집중문제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8), 213-222.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2.22.8.213

박현숙 (2022.12.15.). 청소년쉼터 내 경계선지능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청소년정책리포트 2022 VOL.4**.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백윤철, 이연숙 (2023). 일본에서 사회보장의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5**(3), 65-88.

백혜정, 임희진, 송미경, 김양희 (2020).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 정책방안 연구Ⅱ: 위기청소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2023).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조 (2022). 우리나라 기초학력보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397-415.

법무부 (2024). **2024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경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법원행정처 (2024). **2024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제70호).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5a).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5b). **2025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a).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b).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3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현황 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2025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서민희, 신혜성, 이동원, 한수연, 한정아, 천해주, 양혜원, 김성원 (2024).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23 결과 분석**.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손재환, 김범구, 한유화, 김세진 (2020).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양은별, 김태우, 박은혜, 이소연, 정익중 (2015).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청소년 및 가정외보호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311-331.

여성가족부 (2024a).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여성가족부 (2024b).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25).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 (Ⅱ)**. 서울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여성가족부 (2025.1.10).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
유명희, 정희원 (2012), 아동양육시설의 공간계획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1), 228-239.
윤인애, 마신연, 신윤아 (2023). 수면부족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고찰: 청소년, 대학생, 노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8**(1), 89-96.
이상미 (2023).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21**(8), 119-127.
이상정, 김수진, 이주연, 임성은, 함선유, 김지선, 김지연, 주영선, 하태정, 주하나 (2023).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이주연, 전진아, 김수진, 임성은, 신영규, 류정희, 하태정, 권영지, 김시아, 김지현, 유민상 (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주보혜, 이민경, 권영지, 강민희, 김성희, 임세희, 심석순, 김혜진, 강현주, 허선영, 김민정, 마한얼 (2023).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12**(1). 113-128.
이승진, 이화조, 최유정, 정익중 (2023). 부모-자녀의 부정적 생애경험과 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 간의 관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6**, 149-175.
이승현, 권수진, 박선영, 고기원 (2021).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재)한국소년보호협회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세희, 권지성, 이아영, 전수아, 윤수경 (2021). **보호대상 아동 주거경험 및 주거실태 연구: 아이에게 주거는 시설이 아니라 집이어야 한다.**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임희진, 황여정 (202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은아, 정혜원 (2023). 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 탐색: 랜덤포레스트와 SHAP 적용. **교육학연구, 61**(1), 31-63.
전병유, 신진욱 (2016).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서울: 페이퍼로드.

정미라, 곽은순, 윤장숙 (2007). 저소득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양육 실태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347-369.

정은희, 이봉주, 신재동, 한겨레, 우선희, 하은솔, 김지원, 송지은, 박나영, 정다운, 강상경, 박정민, Yoo, Joanpeak, 정원오, 김찬우, 김화선, 김동진, 임은정 (2021).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익중 (2011). 초중고 사교육비의 사회계층적 예측요인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5,** 73-98.

정종우, 이동원, 김혜진 (2024). [BOK 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BANK OF KOREA 제2024-06호**.

조정우 (2024). 일본의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 현황: 최근 변화와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년 겨울호, 통권31호**, pp.32-46.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지은 (2025.1.22.). '청년 삶의 경로를 고려한 데이터 기반 연구 방안' **서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포럼 자료집**(청년 삶의 경로를 고려한 데이터 기반 연구 방안). 서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청 (2024). **2024년 사회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통계청 보도자료 (2025.3.13.).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하은혜, 김은영 (2022). '아동복지시설 치료・재활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정서·행동장애연구, 38**(3), 187~211.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홍문기 (2022).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년 겨울호(통권23호)**. 141~14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문기 (2024).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 및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년 겨울호(통권31호)**, 15-3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성효, 장수명 (2022).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이수정 (202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국내 인터넷 자료

(재)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청소년자립생활관**. https://www.kjpa.or.kr/53 (검색일: 2025.8.6.)

UN 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국문 번역본). https://www.unicef.or.kr/what-we-do/advocacy-for-children/crc-implementation/ (검색일: 2025.2.13.)

UN 총회 (2009). **64차 유엔총회 결의안 A/64/434/ 부록_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국문 번역본).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33&bbsId=1106&nttSn=2597&cataGori=&tabName= (검색일: 2025.2.13.)

교육부 보도자료 (2023.08.30).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19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5.2.6.)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2021 교육기본통계 개황.** https://kess.kedi.re.kr/mobile/publ/publFile?survSeq=2021&menuSeq=3894&publSeq=63&menuCd=89632&menuId=0_0&itemCode=02 (검색일: 2025.2.5.)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k-basics.org/user/ (검색일: 2025.10.14.)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두드림학교란**. https://k-basics.org/user/dodreamPolicy.do?menuSeq=719 (검색일: 2025.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최저주거기준.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https://www.law.go.kr/LSW/unSc.do?section=&menuId=391&subMenuId=395&tabMenuId=409&eventGubun=060101&query=%EC%B5%9C%EC%A0%80%EC%A3%BC%EA%B1%B0%EA%B8%B0%EC%A4%80 (검색일: 2025.3.11.)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2021):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배포일 2021.3.2.).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pair/line/510 (검색일: 2025.10.15.)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https://case.humanrights.go.kr/dici/diciSearchView.do?search_data=a87007e3223d1ccf4531

94fda71b9ce3 (검색일: 2025.3.11.)
김나영 (2021). **[2021년 1월] 이슈 통계. 통계로 본 교육격차의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post/6716609?code=&words=&since=&until=&page=12&itemCode=03&menuId=m_02_03_03 (검색일: 2025.4.22.)
마잘로센터 홈페이지. http://www.mcmain.or.kr/ (검색일: 2024.2.5.)
매일경제 (2025.3.17.). **"요즘 젊은이들, 매일밤 뇌가 썩고 있다"…무기력증까지 이어진다는 '이것' 증독**. https://www.mk.co.kr/news/it/11265640 (검색일: 2024.10.1.)
문화누리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란?** https://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 (검색일: 2025.2.19.)
법무부 블로그.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아시나요?**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3611830000?trackingCode=rss (검색일: 2025.2.1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 아동복지(생활)시설 현황**(2022.12.31. 현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40&act=view&list_no=377911&tag=&cg_code=&list_depth=1 (검색일: 2025.2.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tag=&act=view&list_no=1482557 (검색일: 2025.1.2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0500 (검색일: 2025.2.12.)
복권위원회 (2025.2.12.). **2025년 복권기금 수입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ageNum=1&seq=9375 (검색일: 2025.8.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 〉 청소년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https://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 (검색일: 2025.2.12.)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24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공고.** https://www.ice.go.kr/ice/na/ntt/selectNttInfo.do?nttSn=3278749&mi=10840 (검색일: 2025.1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https://www.arko.or.kr/board/view/5962?cid=1807716 (검색일: 2025.

4.2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https://www.kywa.or.kr/business/business4.jsp (검색일: 2025.10.15.)

■ 국외문헌 · 국외 웹사이트

3keys 웹페이지. **これまでの事業.** https://3keys.jp/service/other-projects/ (검색일: 2025.9.10.)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웹사이트. *Compilation of Titles IV-B, IV-E and Related Sections of the Social Security Act*. https://acf.gov/cb/law-regulation/compilation-related-sections-security-act (검색일: 2025.9.20.)
Arizona Friends Of Foster Children Foundation (2024.3.2). *Foster Care and Education: Challenges & How to Support*. https://www.affcf.org/supporting-the-education-of-students-in-foster-care/ (검색일: 2025.9.20.)
bafoeg-aktuell (2024.8.16.). *Berufsausbildungsbeihilfe (BAB) – Voraussetzungen und Höhe*. https://www.bafoeg-aktuell.de/berufsausbildungsbeihilfe/ (검색일: 2025.9.30.)
BBC (2024.11.18). *'Exploitative' children's home profits to be curbed.* https://www.bbc.com/news/articles/c1wj5v711zzo (검색일: 2025.8.30.)
BBW Waiblingen 웹페이지. *Unsere aktuellen Kostensätze*. https://berufsbildungswerk.diakonie-stetten.de/das-bbw-waiblingen/informationen-fuer-jugendaemter/kostensaetze-jugendhilfe.html (검색일: 2025.8.15.).
Bramlett, M. D., & Radel, L. F. (2014). Adverse family experiences among children in nonparental care, 2011–2012. *National Health Statistics Reports*, 74.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BFSFJ) (2022. 12.16.). *Gesetz zur Abschaffung der Kostenheranziehung von jungen Menschen in der Kinder-und Jugendhilfe*.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e/abschaffung-kostenheranziehung-kjh-199758 (검색일: 2025.9.30.)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BFSFJ). *Förderungsarten und Förderungshöhe.* https://www.xn—bafg-7qa.de/bafoeg/de/das-bafoeg-alle-infos-auf-einen-blick/foerderungsarten-und-foerderungshoehe/foerderungsarten-und-foerderungshoehe.html (검색일: 2025.8.17.)

Bundesnetzwerk Ombudschaft in der Jugendhilfe (2023.1.1). *Kostenheranziehung junger Menschen in der Jugendhilfe.* https://www.ombudschaft-jugendhilfe.de/de/topic/6491.kostenheranziehung.html (검색일: 2025.9.30.)

BVH Hanse-Zentrum 웹페이지. *BVH-Standort Jugendheim Hanse-Haus Salzwedel.* https://bvh-karriere.de/standort/jugendheim-salzwedel/#1583272016972-e1c4796e-385c (검색일: 2025.8.18.)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페이지. *Foster Care*.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foster-care (검색일: 2025.8.1.)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페이지. *School Success K-12*.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cdss-programs/foster-care/california-foster-youth-education-resource-hub/k-12. (검색일: 2025.8.3.)

Callagher (2023.08.10.). *What is a children's home?* https://www.ajg.com/uk/news-and-insights/what-is-a-childrens-home (검색일: 2025.6.6.)

Care Standards Act 200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14/contents와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541/contents (검색일: 2025.6.6.)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웹사이트. *Timeline Of Major Child Welfare Legislation*. https://www.cwla.org/wp-content/uploads/2014/05/TimelineOfMajorChildWelfareLegislation.pdf (검색일: 2025.7.30.)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웹사이트. *What Are the IV-B Programs?* https://www.cwla.org/what-are-the-iv-b-programs/ (검색일: 2025.7.30.)

Clark, Z., Denysova, O., & Molnar, D. (2023). Unwahrscheinliche Bildungskarrieren. *Sozial Extra, 47*(5), 285-290.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웹페이지.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https://www.pa.gov/agencies/dhs/resources/for-pr

oviders/child-welfare-providers/chafee-foster-care (검색일: 2025.8.3.)
Community Care (2024.11.18.). *'Crackdown on excessive profits' pledged as government unveils children's social care reforms*. https://www.communitycare.co.uk/2024/11/18/crackdown-on-excessive-profits-pledged-as-government-unveils-childrens-social-care-reforms (검색일: 2025.8.30.)
Department for Education (2011). *Children's Homes: National Minimum Standards.*
Department for Education (2015.4.). *Guide to the Children's Homes Regulations including the quality standards*.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2.). *Promoting the education of looked-after children and previously looked-after children -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7.). *The Children Act 1989 guidance and regulations. Volume 2: care planning, placement and case review*.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Deutscher Bundestag (2022.11.10.). *Kostenheranziehung in der Kinder-und Jugendhilfe wird abgeschafft*.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45-de-kostenheranziehung-917450 (검색일: 2025.9.30.)
e-Gov 法令検索 (일본 e-GOV 법령검색 사이트). https://laws.e-gov.go.jp (검색일: 2025.9.10.)
e-Gov 法令検索 (일본 e-GOV 법령검색 사이트). **こどもの貧困の解消に向けた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https://laws.e-gov.go.jp/law/425AC1000000064 (검색일: 2025.9.10.)
e-Gov 法令検索 (일본 e-GOV 법령검색 사이트). 児**童福祉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六十四号)**.** https://laws.e-gov.go.jp/law/322AC0000000164 (검색일: 2025.7.23.)
e-Gov 法令検索 (일본 e-GOV 법령검색 사이트). 児**童福祉施設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昭和二十三年厚生省令第六十三号)**. https://laws.e-gov.go.jp/law/323M40000100063/20200401_502M60000100049#Mp-Ch_7 (검색일: 2025.

7.23.)

European Council (2023). *Digital skills and competences and successful digital education and training: fit for the digital era.*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1/23/digital-skills-and-competences-and-successful-digital-education-and-training-fit-for-the-digital-era/ (검색일: 2025.10.15.)

First Star (2017.4.27). *Center for Child Welfare and Adoption Studies receives $250,000 to help youth in foster care reach college*. https://www.firststar.org/illinois-state-university/ (검색일: 2025.9.20.)

Foster Love (2025.5.26.). *The Problems with the Foster Care System in 2025: Where We Are and What Still Needs to Change*. https://fosterlove.com/blog/the-problems-with-the-foster-care-system-in-2025-where-we-are-and-what-still-needs-to-change/ (검색일: 2025.9.20.)

GOV.UK. (영국 정부 웹사이트). *Inspection outcomes of children's hom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spection-outcomes-of-childrens-homes (검색일: 2025.9.10.)

GOV.UK. Blog Ofsted: social care (2021.2.17.). *The education of children living in children's homes.* https://socialcareinspection.blog.gov.uk/2021/02/17/the-education-of-children-in-childrens-homes/ (검색일: 2025.8.30.)

GOV.UK. Ofsted (2021.2.17.). *The education of children living in children's hom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education-of-children-living-in-childrens-homes/the-education-of-children-living-in-childrens-homes (검색일: 2025.8.30.)

GOV.UK. Ofsted (2025.08.01). *Introduction to children's hom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ow-to-open-a-childrens-home/introduction-to-childrens-homes (검색일: 2025.8.30.)

Hessisches Ministerium für Arbeit, Integration, Jugend und Soziales (2023.4.). R*ichtlinien für (teil-)stationäre Einrichtungen in Hessen, die gemäß § 45 Achtes Buch Sozialgesetzbuch (SGB VIII) einer Betriebserlaubnis bedürfen.* https://s

oziales.hessen.de/sites/soziales.hessen.de/files/2023-04/GWE_2023_02_13%20Einrichtungsrichtlinien.pdf (검색일: 2025.9.30.)

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홈페이지, April 10, 2025). *Rules 403 - Licensing Standards for Group Homes*. https://dcfs.illinois.gov/content/dam/soi/en/web/dcfs/documents/about-us/policy-rules-and-forms/documents/rules/rules-403.pdf (검색일: 2025.8.1.)

Illinois State University 웹페이지. *First Star Academy*. https://childwelfare.illinoisstate.edu/first-star-academy/ (검색일: 2025.8.9.)

Infosystem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웹페이지. *Heimerziehung, sonstige betreute Wohnformen*. https://www.kinder-jugendhilfe.info/aufgaben-und-handlungsfelder/hilfen-zur-erziehung/heimerziehung-sonstige-betreute-wohnformen (검색일: 2025.8.15.)

Kern County Superintendent of Schools Office(KCSOS) 웹페이지. *Foster Youth Services Coordinating Program(FYSCP)*. https://kern.org/foster-youth-services/ (검색일: 2025.8.9.)

KUMON 홈페이지 (2015.7.). **児童福祉施設での公文式 〉日本水上学園**. https://www.kumon.ne.jp/houjin/case/children_home/report_01_1 (검색일: 2025.9.10.)

KUMON 홈페이지 (2015.7.28.). **児童養護施設でのKUMON－日本水上学園 学習を通して、がんばっている 自分に出会うことができる。だから「学習支援は 子どもにとって"癒し"」なのです。** Vol.097. https://www.kumon.ne.jp/kumonnow/topics/vol097 (검색일: 2025.9.10.)

KUMON 홈페이지 (2018.7.3.). **公文式の施設導入－児童養護施設 日本水上学園 将来の自立につながる学習支援 施設スタッフとの「大切な時間」** Vol.263. https://www.kumon.ne.jp/kumonnow/topics/vol263 (검색일: 2025.9.10.)

Leicester City Council (영국 레스터시 홈페이지). https://news.leicester.gov.uk/news-articles/2024/september/new-council-run-children-s-home-prepares-to-open-its-doors/ (검색일: 2025.7.1.)

Living in Peace 홈페이지. **2025年度7月おしごとリップ開催**. https://www.living-in-peace.org/news/kodomo-2025-08-01/ (검색일: 2025.9.10.)

Living in Peace 홈페이지. 児童養護施設で暮らす子どもたち向けのキャリア教育プログラム「おしごとリップ」. https://www.living-in-peace.org/kdpj/oshigoto-lip/ (검색일: 2025.7.20.)

NCFE 웹페이지. *Spotlight on the role of the virtual school and the virtual school head: What do you need to know?* https://www.ncfe.org.uk/sector-specialisms/early-years-and-childcare/education-childcare-career-toolkit/contemporary-issues-debates/virtual-school-head (검색일: 2025.8.30.)

New York State 웹사이트.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https://ocfs.ny.gov/programs/youth/chafee.php (검색일: 2025.8.3.)

NSPCC Learning (2024.11.). *Statistics briefing: children in care*. https://learning.nspcc.org.uk/media/mjrls2ci/statistics-briefing-children-care.pdf (검색일: 2025.8.30.)

OECD Policy Insight (2022.7.). Starting unequal: How's life for disadvantaged children? OECD *OECD Centre on Well-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and Equal Opportunity(WISE)*. July 2022.

Paralym Art (2020.3.5). 児童養護施設で育つ子供たちの現状と私たちにできるサポート. https://paralymart.or.jp/kiquest/7026 (검색일: 2025.9.10.)

Radel, L., Bramlett, M., Chow, K., & Waters, A. (2016). Children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Highlight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 in Nonparental Car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Šiška, J., & Beadle-Brown, J. (2020). Report on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based services in 27 EU member states. *European Expert Group on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Based Care.*

Socialnet (2025.2.14). *Stationäre Erziehungshilfe*. https://www.socialnet.de/lexikon/Stationaere-Erziehungshilfe (검색일: 2025.9.30.)

Statistische Bundesamt (독일 연방 통계청, 2024.11.19.). *Seit 2017 erstmals wieder mehr junge Menschen in Heimen und Pflegefamilien*. https://www.destatis.de

/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35_225.html (검색일: 2025.9.30.)

The California Evidence-Based Clearinghouse for Child Welfare(CEBC) 웹페이지. *Foster Youth Services Coordinating Program(FYSCP)*. https://www.cebc4cw.org/program/foster-youth-services/ (검색일: 2025.8.9.)

The 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홈페이지). *Foster Care*. https://dcfs.illinois.gov/loving-homes/fostercare.html (검색일: 2025.8.1.)

The 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홈페이지, 2021.9.17.). *Statewide Foster Care Advisory Council*. https://dcfs.illinois.gov/content/dam/soi/en/web/dcfs/documents/loving-homes/foster-care/documents/swfcac_minutes_091721.1.0.pdf (검색일: 2025.9.20.)

The official home of UK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uk (검색일: 2025.8.3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25.5.1.). *The AFCARS Dashboard(Print Version).* https://acf.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2023-afcars-dashboard-printable.pdf (검색일: 2025.9.20.)

UN CRPD (2022).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 10 October 2022.

Voices for Children (2022.12.). *2021-2022 FOSTER YOUTH SERVICES COORDINATING PROGRAM*. https://www.speakupnow.org/wp-content/uploads/2022/12/Foster-Youth-Services-Coordinating-Program-FYSCP-Pamphlet-Email-version-2021.22.pdf (검색일: 2025.9.20.)

Walsall Council (2020.11.), *Residential Education Policy*. https://proceduresonline.com/trixcms1/media/8497/residential-education-policy.pdf (검색일: 2025.8.30.)

WAM NET (2015.10.). **生活困窮者自立支援関連情報.** https://www.wam.go.jp/content

/wamnet/pcpub/top/skinformation/fromwam/20161128_05.html (검색일: 2025.9.10.)

White, C., Gibb, J., Graham, B., Thornton, A., Hingley, S., & Mortimer, E. (2015). *Training and developing staff in children's homes.* Department for Education.

こども家庭庁 (2023.5.10.). 児**童福祉法による**児**童入所施設措置費等**国**庫負**担**金について**.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457e2a2-61a9-4c92-9bbd-da2846dbc95b/40e73edc/20241108_policies_shakaiteki-yougo_jidonyushoshisetsu-kokkofutankin_02.pdf (검색일: 2025.9.10.)

こども家庭庁 (2025.2.28.). **社会的養育の推進に向けて**.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ba23f3-abb8-4f95-8202-f0fd487fbe16/bd79fb76/20250228_policies_shakaiteki-yougo_125.pdf (검색일: 2025.9.10.)

こども家庭庁 (2025.3.27.). 児**童養護施設等における一時保護**児**童の受入**体**制の整備について**.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a23cc922-6f03-41a4-a39d-c7bdadaf7adf/10ec62ef/20250401_policies_shakaiteki-yougo_tsuuchi_92.pdf (검색일: 2025.9.10.)

こども家庭庁 (일본 어린이가정청, 2024.2.29.). 児**童養護施設入所**児**童等調査の概要(令和5年 2月 1日現在)**.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ba23f3-abb8-4f95-8202-f0fd487fbe16/5c104d63/20240229_policies_shakaiteki-yougo_86.pdf (검색일: 2025.9.10.)

ジョブメドレー 홈페이지 (2024.6.21.). 児**童養護施設とは？職員に必要な資格と仕事**内**容、入所理由について解**説. https://job-medley.com/tips/detail/33449 (검색일: 2025.9.10.)

セーブ・ザ・チルドレン (2024.6.21.). **日本/子どもの貧困問題解決**. https://www.savechildren.or.jp/scjcms/sc_activity.php?d=4492 (검색일: 2025.9.10.)

ランチャイズ本部 웹페이지 (2025.1.8.). 児**童養護施設の独立開業方法！開業費用や年収の目安と、起業の手順や流れ。経営の成功方法や、儲からない失敗ポイント.** https://next-business.co.jp/kaigyo/20751/#:~:text=%E5%85%90%E7%AB%A5%E9%A4%8A%E8%AD%B7%E6%96%BD%E8%A8%AD%E3%81%A8%E3%81%97%E3%81%A

6%E9%96%8B%E6%A5%AD,%E3%81%AE%E7%A2%BA%E8%AA%8D%E3%81%8C%E5%BF%85%E9%A0%88%E3%81%A7%E3%81%99%E3%80%82 (검색일: 2025.9.10.)

福祉新聞 (2024.7.23.). **施設出身者の進学後押し ·受験費新設、支度費は2倍 (こども家庭庁)**. https://fukushishimbun.com/yoiku/36141 (검색일: 2025.9.10.)

児童養護施設運営指針 (후생노동성, 2024.3.29). **児童養護施設運営指針**.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ba23f3-abb8-4f95-8202-f0fd487fbe16/1d1aa7d2/20230401_policies_shakaiteki-yougo_07.pdf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熊本県 (2019.3.25.). **子どもの学習援助事業.** https://kouseikyoku.mhlw.go.jp/kyushu/000117332.pdf (검색일: 2025.9.10.)

행복한교육 (2015.4.). **가정형 대안학교로 위기청소년 품는다.** 하임 Heim.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6&nttId=3959 (검색일: 2025.8.15.)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5.3.). **「生活困窮世帯の子どもの学習支援事業」**実践**事例集**.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080240.pdf (검색일: 2025.9.10.)

■ 법령 ·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 시행 2022.2.18.]
「소년법」 [법률 제17505호, 2020.10.20., 타법개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1075호, 시행 2025.1.1.]
「아동복지법」 [법률 제20885호, 2025.4.1., 일부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34417호, 시행 2024.4.25.]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9841호, 2023.12.26., 타법개정]

부 록

부 록

2025년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실태 설문지

//2025년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요구와 일반 청소년 대비 교육영역의 격차를 분석하여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내용은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거주 청소년이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본 조사에서는 해당 시설들에서 총 1년 이상 거주한 만15~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의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연구 문의: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 문의 전화: 044-415-2130

수행기관 HPOR 한국여론리서치 Hankook Public Opinion Research

※ 조사 문의: 박종경 선임
※ 문의 전화: 02-3014-0146

//상기 내용 설문에 모두 제시 필요//

AQ1. 조사 참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동의함
2. 동의하지 않음 → 선정 탈락

[로직: 동의하지 않음 시, 확인창 : 동의하지 않을 시, 조사 참여가 불가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으신가요?]
[선정 탈락 멘트 : "귀하께서는 아쉽게도 이번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다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좋은 설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선정 탈락은 상기 멘트로 모두 통일]

AQ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2025년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실태 조사〉 관련 의견 수렴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 거주지역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동의함
2. 동의하지 않음 → 선정 탈락

[로직: 동의하지 않음 시, 확인창 : 동의하지 않을 시, 조사 참여가 불가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으신가요?]

//카테고리 단독//

※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초반에 탈락할 수 있어요!
조사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몇 가지 선정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답 내용에 따라 조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2. 정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 설문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듣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거나 친구들과 상의하지 말고, 여러분의 진짜 의견을 응답해주세요.

3. 대충 하지 말아 주세요!
빠르게 끝내려고 아무렇게나 고르거나, 아무 숫자나 응답하지 말아 주세요.
응답을 성실하게 해야 소중한 사례(모바일상품권 1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돼요!
설문 응답은 통계로만 사용되며,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응답한 개인정보(연락처)는 답례를 제공할 때만 사용됩니다.

// 사전 질문 //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 남자
2. 여자

SQ2. 귀하의 **태어난 해와 월**은 언제인가요?
1. ( )년 [로직: 2004 to 2018]
2. ( )월 [로직: 1 to 12]

[로직: 드롭다운으로 제시하되, 연도는 내림차순으로 구성]
[로직: 년과 월을 가로 한 줄에 나란히 배치]
[로직: 2007.1. ~ 2009.12. 이 외에는 선정 탈락]

[로직: 기관DB 연동 문항으로 DB 값으로 응답 대체]
SQ3. 현재 귀하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 중 어느 유형에 속하나요?
1. 양육시설(보육원)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 청소년쉼터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5. 소년보호시설
6. 청소년자립생활관
7. 기타( )

[로직: 기관DB 연동 문항으로 DB 값으로 응답 대체]
SQ4.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시·도 ( ) [로직: 솔본 보유 시도 코드 사용]
2. 시·군·구 ( ) [로직: 솔본 보유 시군구 코드 사용]

SQ5. 귀하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커스텀]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0	1	2	3	4	5	6	7	8	9	10

SQ6. 다음 중 귀하가 생활한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양육시설(보육원)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 청소년쉼터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5. 소년보호시설
6. 청소년자립생활관
7. 기타( )

[로직: SQ6에서 응답한 보기만 제시]

SQ6-1. 다음은 귀하가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 유형입니다. 각 기관 유형별로 이용했던 기관 수는 몇 개인지 응답해 주세요. [커스텀]

※ 'A쉼터(1년) → B자립생활관(2개월) → A쉼터(6개월)'로 이동하면서 생활한 경우,
청소년쉼터 1곳, 청소년자립생활관 1곳으로 응답합니다.

생활했던 기관 유형	기관 수 [로직: 1 to 5] [드롭다운]
1. 양육시설(보육원)	( )곳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곳
3. 청소년쉼터	( )곳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곳
5. 소년보호시설	( )곳
6. 청소년자립생활관	( )곳
7. 기타([제시: SQ6 응답값])	( )곳
합계(자동산출) //자동 산출//	( )곳 //수정 불가//

[로직: SQ6에서 응답한 보기만 제시]

SQ6-2. 각 기관 유형에서 생활했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1개의 기관 유형에서 2곳 이상 생활했던 경우 생활 기간을 모두 더해서 응답해 주세요.

※ 거주한 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 응답해 주세요.
※ A쉼터(1년) → B청소년자립생활관(2개월)→ C쉼터(6개월)'로 이동하면서 생활한 경우,
거주 기간은 **청소년쉼터 1년 6개월(A쉼터 1년+C쉼터 6개월), 청소년자립생활관 2개월**로 응답합니다.

생활했던 기관 유형	총기간	
	년 [로직: 0 to 20] [드롭다운]	개월 [로직: 1 to 11] [드롭다운]
1. 양육시설(보육원) / [제시: SQ6-1 응답값]곳	( )년	( )개월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제시: SQ6-1 응답값]곳	( )년	( )개월
3. 청소년쉼터 / [제시: SQ6-1 응답값]곳	( )년	( )개월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제시: SQ6-1 응답값]곳	( )년	( )개월
5. 소년보호시설 / [제시: SQ6-1 응답값]곳	( )년	( )개월
6. 청소년자립생활관 / [제시: SQ6-1 응답값]곳	( )년	( )개월
7. 기타([제시: SQ6 응답값]) / [제시: SQ6-1 응답값]곳	( )년	( )개월
합계(자동산출) //자동 산출//	( )년 //수정 불가//	( )개월 //수정 불가//

[로직: 기관 유형별로 '년'과 '개월' 중 최소 1개는 응답해야 함]

[로직: 합계가 1년 미만이면 선정 탈락]

// 1. 교육 //

문1. 귀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나요?
1. 졸업하였다
2. 다녔지만 중간에 그만두었다
3.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로직: 문1=1 응답자]
문1-1. 귀하는 **중학교**를 졸업하였나요?
1. 졸업하였다(중등 검정고시 합격 포함)
2. 현재 다니고 있다
3. 다녔지만 지금은 휴학 중이다
4. 다녔지만 중간에 그만두었다
5. 중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로직: 문1-1=1 응답자]
문1-2. 귀하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1. 현재 다니고 있다
2. 다녔지만 지금은 휴학 중이다
3. 다녔지만 중간에 그만두었다
4.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로직: 문1-1=3 or 4 응답자 or 문1-2=2 or 3 응답자]
문1-3. 학교를 **몇 학년**까지 다녔나요?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로직: 문1-1=2 응답자 or 문1-2=1 응답자]
문1-4. 현재 **몇 학년**인가요?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로직: 문1-1=3 or 4 응답자 or 문1-2=4 응답자]
문1-5.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는 어떤 학교였나요?
1. 일반 중학교(국제중/예체능 포함)
2. 소년원 중학교
3. 특수학교(시각/청각/지체 장애, 정신지체 등)

[로직: 문1-2=2 or 3 응답자]
문1-6.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는 어떤 학교였나요?
1. 일반고등학교
2. 자율형 공립/사립학교
3. [특목고] 예술/체육고등학교
4. [특목고] 과학/외국어/국제고등학교
5. [특목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6. [특성화고]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 등 직업교육 특성화 학교
7. [특성화고] 체험(대안)고등학교
8. 방송통신고등학교
9. 소년원 고등학교
10. [특수학교] 시각/청각/지체 장애, 정신지체 등
11. [기타학교] 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위탁형 교육기관/각종학교(평생교육시설, 미인가대안학교 포함)

[로직: 문1-1=2 응답자]
문1-7.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1. 일반 중학교(국제중/예체능 포함)
2. 소년원 중학교
3. 특수학교(시각/청각/지체 장애, 정신지체 등)

[로직: 문1-2=1 응답자]
문1-8.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1. 일반고등학교
2. 자율형 공립/사립학교
3. [특목고] 예술/체육고등학교
4. [특목고] 과학/외국어/국제고등학교
5. [특목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6. [특성화고]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 등 직업교육 특성화 학교
7. [특성화고] 체험(대안)고등학교
8. 방송통신고등학교
9. 소년원 고등학교
10. [특수학교] 시각/청각/지체 장애, 정신지체 등
11. [기타학교] 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위탁형 교육기관/각종학교(평생교육시설, 미인가대안학교 포함)

[로직: 문1-6 or 문1-8 응답자]

문2-1. 귀하가 다녔던(또는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계열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성적에 맞춰서
2. 흥미, 적성에 따라서
3. 취업에 유리해서
4. 진학에 유리해서
5.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학비 등)
6. 주변의 권유로
7. 거리가 가까워서
8. 기타( )

[로직: 문1-6 or 문1-8 응답자]

문2-2. 귀하가 다녔던(또는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계열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본인
2. 가족(부모, 형제, 친지 등)
3. 학교 선생님
4. 시설 선생님
5. 학원 선생님
6. 친구
7. 기타( )

문3. 귀하의 가장 최근 학업성적은 대체로 어느 정도인가요? 과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학교에 다녔을 때의 최종 성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항목	매우 못함				보통					매우 잘함
	1	2	3	4	5	6	7	8	9	10
1. 국어										
2. 수학 3. 영어										
4. 사회										
5. 과학										
6. 전체적으로										

[로직: 문1-1=2 or 문1-2=1 응답자]

문4. 귀하는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항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항목	불만족		보통이다	만족	
	매우 불만족한다	약간 불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1. 교육내용 (교육수준)					
2. 교육방법 (수업 및 평가방법)					
3. 친구와의 관계					
4. 교사와의 관계					
5. 수업분위기					
6. 전반적인 학교생활					

[로직: 문1-1=2 or 문1-2=1 응답자]

문5. 귀하는 **학교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느끼나요?

1. 전혀 느끼지 않는다
2. 약간 느낀다
3. 꽤 느낀다
4. 많이 느낀다

[로직: 문1-1=3 or 4 응답자 or 문1-2=4 응답자]

또는, [로직: 문1-2=2 or 3 응답자 or 문1=2 or 3 응답자]

문6. 귀하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2.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3. 양육자와의 갈등, 불화 및 무관심 등 가정문제로
4. 입학시험 실패 또는 학업부진으로
5. 친구 문제로
6. 교사와의 갈등으로
7. 공부기 히기 싫어서
8. 적성 및 특기를 살리기 위해
9. 학교가 너무 멀어서 또는 교통이 불편해서
10. 학교의 처분(규칙 위반, 징계 등)으로
11. 법원의 처분(보호처분, 형사처벌 등) 때문에
12. 기타( )

[로직: 문1-1=3 or 4 응답자 or 문1-2=4 응답자]
또는, [로직: 문1-2=2 or 3 응답자]
문7-1. 귀하는 학교를 그만두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로 하고 있는 활동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한 가지만 하는 경우 1순위만 응답해 주세요. [복수][maxrank:2]

※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월급, 시급 등을 받고 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구직활동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취업,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원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 부탁, 직업알선 기관 등록 등과 같은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직업교육훈련은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원,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한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1. 진학준비(유학, 대안학교 및 방통고 진학 및 재학, 대학입시 등)
2. 검정고시 준비
3. 취업 및 아르바이트
4. 구직 활동(취업준비) 및 직업교육훈련
5. 치료 및 요양
6. 아무것도 하지 않음 [중복 선택 불가]
7. 기타( )

[로직: 문7-1=4 응답자]
문7-2. 귀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나요?

※ 직업교육훈련은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원,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한 활동 뿐 아니라 구직활동 관련 교육훈련도 모두 포함합니다.
※ 구직활동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취업,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원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 부탁, 직업알선 기관 등록 등과 같은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1. 예
2. 아니오

[로직: 문7-2=1 응답자]
문7-3. 수강이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나요?
1. 내 돈으로(자부담)
2. 시설 또는 외부지원(비용없음)
3. 가족 지원(부모님, 친인척 등)

[로직: 문1-1=2 or 문1-2=1 응답자]
또는, [로직: 문7-1=1 or 2 응답자]
문8-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학교공부나 학력 취득을 위해(검정고시 포함)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업, 인터넷 강의, 학습지 등을 받은 적**이 있나요?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예체능 등의 과목에 대해 학원, 개인/그룹 과외, 온라인 과외, 인터넷 강의(EBS 포함), 학습지,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기관(청소년센터 등)의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주세요.

1. 있다
2. 없다

[로직: 문8-1=1 응답자]
문8-2. 지난 1년 동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업, 인터넷 강의, 학습지 등을 받은 과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
1. 국어
2. 수학
3. 영어
4. 사회영역
5. 과학영역
6. 예체능영역
7. 기타

[로직: 문8-2 응답별로 문항 로테이션]
문8-3. 지난 1년 동안, [문8-2: 과목명] 과목을 수강한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학원
2. 개인/그룹 과외
3. 온라인 과외
4. 인터넷 강의(EBS 포함)
5. 학습지
6.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7. 지역기관(청소년센터 등)

[로직: 문8-3과 세트 문항]
문8-4. [문8-2: 과목명] 과목의 수강 시간은 1주일에 몇 시간 정도인가요?
1. 일주일 평균 ( )시간
[로직: 드롭다운 오름차순, 1 to 30]

[로직: 문8-2 응답자]
문8-5. 한 달에 내는 수강료는 모두 얼마인가요? 수강 과목의 수강료를 모두 더해서 응답해 주세요.
1. 한 달 평균 약 ( )만원 [제시:한글] [로직: 0 to 500]

[로직: 문8-2 응답자]
문8-6. 수강료는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1. 내가 벌어서
2. 가족들이 지원
3. 외부 지원(시설 또는 국가 지원, 후원금 등)
4. 기타( )

문9-1. 귀하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업, 인터넷 강의, 학습지 등을 받고 싶은 과목이 있나요?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예체능 등의 과목에 대해 학원, 개인/그룹 과외, 온라인 과외, 인터넷 강의(EBS 포함), 학습지,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기관(청소년센터 등)의 수업을 수강하고 싶은지 응답해주세요.

1. 있다
2. 없다

[로직: 문9-1=1 응답자]

문9-2.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업, 인터넷 강의, 학습지 등을 받고 싶은 과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

1. 국어
2. 수학
3. 영어
4. 사회영역
5. 과학영역
6. 예체능영역
7. 기타

[로직: 문9-2 응답별로 문항 로테이션]

문9-3. [문8-2: 과목명] 과목을 수강하고 싶은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학원
2. 개인/그룹 과외
3. 온라인 과외
4. 인터넷 강의(EBS 포함)
5. 학습지
6.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7. 지역기관(청소년센터 등)

문10. 최근 1년 동안 학교수업이나 학원/과외수업 외에 혼자서 교과 공부를 한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인가요?

※ 숙제를 한 시간도 포함하되, 1일 평균 시간으로 표기해주세요.

1. 하루 평균 ( )시간

[로직: 드롭다운 오름차순, 0 to 15]

2. ( )분

[로직: 드롭다운 오름차순, 10 to 50, 10분 단위로만 노출(0/10/20/30/40/50)]

[로직: 시간과 분을 가로 한 줄에 나란히 배치]

문11. 귀하가 필요로 할 때 참고서, 문제집 등 학습교재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 2. 진로, 진학 //

문12. 귀하는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1. 상급학교로 진학할 것이다
2. 일을 해서 돈을 벌 것이다(아르바이트, 창업, 취업 포함)
3. 돈을 받지 않고 가족들이 하는 일(사업, 장사 등)을 도울 것이다
4. 진학도 취업(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창업, 무보수 가업 도움 포함)도 하지 않을 것이다
5.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6. 기타(군입대 등)( )
7.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다시 학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복교, 검정고시 포함)

[로직: 보기7은 아래 응답자만 노출]

[로직: 문1-1=3 or 4 응답자 or 문1-2=4 응답자] 또는, [로직: 문1-2=2 or 3 응답자]

문13.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나요?

1. 고등학교 이하
2. 대학(교) (2~3년제)
3. 대학교(4년제 이상)
4. 대학원(석사)
5. 대학원(박사)

문14. 귀하의 시설선생님은 귀하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나요?

1. 고등학교 이하
2. 대학(교) (2~3년제)
3. 대학교(4년제 이상)
4. 대학원(석사)
5. 대학원(박사)

문15-1. 귀하가 진학·진로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나요?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의논 및 정보제공 정도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약간 있었다	매우 있었다
	1	2	3	4
1. 학교선생님(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2. 학교선생님(진로담당교사, 상담교사)				
3. 시설 선생님(양육시설, 그룹홈, 쉼터, 생활관)				
4. 외부 진로 관련 공공 기관·센터 선생님 (고용센터, 청소년센터 등)				
5. 민간(사설)기관 선생님(진로컨설팅기관, 학원 등)				
6. 친구, 선후배 등				
7. 인터넷 진로사이트 등				
8. 기타				

[로직: 문15-1=3 or 4 응답 항목만 노출]

문15-2.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면 의논 내용이나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도움 정도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1	2	3	4
1. 학교선생님(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2. 학교선생님(진로담당교사, 상담교사)				
3. 시설 선생님(양육시설, 그룹홈, 쉼터, 생활관)				
4. 외부 진로 관련 공공 기관센터 선생님 (고용센터, 청소년센터 등)				
5. 민간(사설)기관 선생님(진로컨설팅기관, 학원 등)				
6. 친구, 선후배 등				
7. 인디넷 진로사이트 등				
8. 기타				

문16. 귀하는 장래 희망직업을 정하였나요?

1. 예(정하였다)
2. 아니오(정하지 않았다)

[로직: 문16=1 응답자]

문16-1. 귀하의 장래 희망직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오픈]

예시) 운동선수(X) → 야구선수(O), 방송인(X) → 아나운서(O)

1. ( )

[로직: 문16=1 응답자]

문16-2. 귀하가 정한 장래직업은 귀하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일인가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5. 잘 모르겠다

[로직: 문16=1 응답자]

문16-3. 귀하가 정한 장래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나요? [단일척도]

거의 잘 모른다			←		보통		→			매우 잘 안다
0	1	2	3	4	5	6	7	8	9	10

[로직: 문16=1 응답자]

문16-4. 귀하가 정한 장래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어느 정도나 준비하고 있나요?

[단일척도]

거의 준비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많이 준비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로직: 문16=1 & 문1-8=3 or 4 or 5 or 6 or 7 응답자]

문16-5. 귀하가 정한 장래직업은 귀하의 전공과 어느 정도 일치하나요?

1.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2.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일치하는 편이다
5. 매우 일치한다

문17. 귀하는 현재 직업이 있나요?

※ 학생, 아르바이트는 직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예
2. 아니오

[로직: 문17=1 응답자]

문17-1.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오픈]

예시) 운동선수(X) → 야구선수(O), 방송인(X) → 아나운서(O)

1. ( )

[로직: 문17=1 응답자]

문17-2. 현재 직업이 있다면 현재 직업이 장래 희망직업과 일치하나요?

1. 예
2. 아니오

[로직: 문17-2=2 응답자]

문17-2-1. 귀하의 현재 직업이 희망 직업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현재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 중이어서
2. 희망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3. 현재 내 상황에서 희망 직업에 맞는 자격을 갖추기 어려워서
4. 희망 직업은 장래성이 없거나 안정적이지 않아서
5. 기타( )

문18. 귀하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세요. [복수][rank:2]

※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을 구할 당시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단, 직업을 변경할 생각이 있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자신의 능력
2. 사회적 지위
3. 대중적 인기
4. 안정성
5. 직업의 장래성
6. 의사결정권
7. 경제적 수입
8. 창의성 발휘
9. 자신의 적성
10. 자아성취
11. 사회에 대한 기여도
12. 일과 삶의 균형
13. 자율성
14. 기타( )

[로직: 보기 로테이션(기타 제외)]

문19. 귀하는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취득한 자격증이 있나요?

1. 예 (있다)
2. 아니오 (없다)

[로직: 문19=1 응답자]
문19-1. 있다면 어떤 자격증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만 적어주세요. [복수][maxrank:3][오픈]

1. 첫 번째 자격증( )
2. 두 번째 자격증( )
3. 세 번째 자격증( )

[로직: 문19=1 응답자]
문19-2. 그 자격증은 현재 직업이나 장래 희망직업에 도움이 되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20.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2. 나는 주변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문21. 귀하의 생각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단일척도]

나의 미래는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							→ 나의 미래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1	2	3	4	5	6	7	8	9	10

문22.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많이 배울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2. 돈을 일찍 벌고 싶다				
3.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모른다				
4.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시설 선생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 3. 정보활용능력 //

문23. 귀하가 사용하는 **컴퓨터(태블릿, 노트북 포함)**가 있나요?

1. 나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
2. 내 것은 없지만 시설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
3. 없다

[로직: 문23=1 or 2 응답자]

문23-1. 학교 과제나 필요한 정보 검색 등을 위해 컴퓨터나 태블릿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로직: 문23=3 or 문23-1=1 or 2 응답자]

문23-2. 컴퓨터나 태블릿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1. 주변 사람에게 빌려 사용한다
2. 주변 PC방 등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한다
3.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4. 할 일을 포기한다
5. 다른 기자재(예, 스마트폰)를 이용한다
6. 컴퓨터나 태블릿 등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7. 기타( )

문24. 귀하는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나요? 각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항목	할 수 없을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매우 잘한다
	1	2	3	4
1. 필요한 문서나 자료(학교 과제물 등) 작성 또는 편집하기				
2. (음향, 그림, 동영상을 넣은)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하기				
3.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하기				
4.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의 신뢰성 판단하기				
5. 인터넷 기사에 인용되었으나 URL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출처 찾기				

// 4. 일경험 //

문2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 일을 한 경험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명칭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임금(또는 수수료)을 받은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 단,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직업계고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제외하고 답해주세요.

1. 예(있다)
2. 아니오(없다)

[로직: 문25=1 응답자]

문25-1.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주된 일**은 무엇인가요?

※ 여러 개의 일을 한 경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을 기준으로 1개만 선택해 주세요.

항목	예시
1. 상점 매장 관리 (음식점 제외)	• 편의점/소형마트 • PC방/DVD방/OTT방/노래방/만화방 • 대형마트/쇼핑몰/아울렛/백화점 • 기타 (의류·잡화/가전·휴대폰/화장품·뷰티용품 등)
2. 배달	• 각종 배달 (플랫폼 기반 배달 포함, 배민, 쿠팡이츠 등)
3. 음식점 매장 관리, 식음료 서빙, 주방 보조	• 음식점·식당·레스토랑 • 뷔페/웨딩홀/연회장 • 패스트푸드점 (피자/치킨/햄버거) •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림
4. 디지털/플랫폼 기반 일거리	•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기미선 작업 (공예작업, 그림그리기 등) • 개인이 의뢰한 일거리 (반려동물 돌보기, 수리하기 등) • SNS 홍보 • 영상편집 등
5. 단순 노동 관련	• 전단지 배포 (스티커 붙이기) • 물류·창고 관리/택배상하차 • 행사도우미 (이벤트/지역축제/놀이공원 등) • 공장 (제조·가공/포장·조립) • 주차안내 및 관리
6. 기타( )	• 기타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일

[로직: 문25=1 응답자]
문25-2. 그 일을 한 기간은 모두 얼마인가요?
1. 하루
2. 2일~1주일 미만
3. 1주일 이상~1개월 미만
4.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6개월 이상~1년 미만
7. 1년 이상

[로직: 문25=1 응답자]
문25-3. 그 일은 1주일에 평균 며칠 동안 했나요?
1. 1주일 평균 ( )일 [로직: 1 to 7]
[로직: 드롭다운으로 제시]

[로직: 문25=1 응답자]
문25-4. 그 일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동안 했나요?
※ 식사시간은 제외하고 적어주세요.
※ 대기시간이 있는 경우, 대기시간을 포함해서 적어주세요.
1. 하루 평균 ( )시간 [로직: 1 to 20]
[로직: 드롭다운으로 제시]

[로직: 문25=1 응답자]
문25-5. 귀하가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2. 나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고정지출비(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를 벌기 위해서
3. 학비(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데 필요한 돈)를 벌기 위해서
4. 용돈이 더 필요해서(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데 쓰기 위해서)
5. 진로경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6. 여유 시간이 있어서
7. 기타( )

[로직: 문25=1 & 문7-1=1 or 2 응답자]
문25-6. 그 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1. 전혀 받은 적 없다
2. 별로 받은 적 없다
3. 약간 받았다
4. 많이 받았다

// 5. 여가 및 활동 //

문2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공연이나 전시,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을 몇 번 관람하였는지 **모두** 응답해주세요.

※ 집에서 TV,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시청한 것은 제외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본 횟수만 응답해주세요.
※ 직접 관람 경험이 없으면, '0회'로 응답해주세요.

항목	지난 1년 동안 관람 횟수 [로직: 0 to 100]
1. 공연(음악회, 연주회, 콘서트, 뮤지컬, 연극, 무용 등)	( )회
2. 전시회(박물관, 미술관, 화랑, 도서 등)	( )회
3. 영화	( )회
4. 스포츠 경기(e스포츠 포함)	( )회
5. 기타	( )회

[로직: 횟수 입력은 드롭다운으로 구성]

문2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여행**(당일 및 숙박 여행 포함)을 다녀온 적이 있나요?

1. 국내 여행만 다녀왔다
2. 해외 여행만 다녀왔다
3. 국내, 해외 여행 모두 다녀왔다
4. 여행을 한 적이 없다

문28-1. 귀하는 **주중(평일)**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주로 하는 활동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세요.
[복수][rank:2]

※ 여가 시간이란 먹기, 잠자기, 일하기, 수업듣기, 숙제하기, 집안일, 육아 같은 의무적인 활동 전후에 남는 자유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1. 영상 콘텐츠 시청[텔레비전, 유튜브, OTT(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등]
2. 영화 관람 (영화관 방문)
3. 전시회, 공연 관람 (연극, 연주회, 전시회, 공연 등)
4. 문화 예술 활동 참여 (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 사진촬영 등)
5. 스포츠 경기 관람
6. 스포츠 활동 참여
7. 여행 (관광, 캠핑 등)
8.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9. 취미, 자기개발활동 (요리, 독서, 어학,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10. 휴식 (낮잠, 사우나, 산책 등)
11. 사회활동 참여 (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
12. 기타( )

문28-2. 귀하는 주중(평일)에 주로 누구와 여가 활동을 하나요?

1. 시설 내 또래
2. 시설 밖 또래(학교 및 동네 선후배, 동료, 이성친구 등)
3. 가족 및 친척
4. 동호회(동아리) 구성원
5. 혼자서
6. 기타( )

문29-1. 그렇다면, 귀하는 주말(휴일)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나요? 주로 하는 활동 순서대로 2개 선택해주세요. [복수][rank:2]

※ 여가 시간이란 먹기, 잠자기, 일하기, 수업듣기, 숙제하기, 집안일, 육아 같은 의무적인 활동 전후에 남는 자유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1. 영상 콘텐츠 시청[텔레비전, 유튜브, OTT(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등]
2. 영화 관람 (영화관 방문)
3. 전시회, 공연 관람 (연극, 연주회, 전시회, 공연 등)
4. 문화 예술 활동 참여 (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 사진촬영 등)
5. 스포츠 경기 관람
6. 스포츠 활동 참여
7. 여행 (관광, 캠핑 등)
8.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9. 취미, 자기개발활동 (요리, 독서, 어학,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10. 휴식 (낮잠, 사우나, 산책 등)
11. 사회활동 참여 (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
12. 기타( )

문29-2. 귀하는 주말(휴일)에 주로 누구와 여가 활동을 하나요?

1. 시설 내 또래
2. 시설 밖 또래(학교 및 동네 선후배, 동료, 이성친구 등)
3. 가족 및 친척
4. 동호회(동아리) 구성원
5. 혼자서
6. 기타( )

문30. 귀하는 평소 본인의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는 편이다
5. 매우 만족한다

[로직: 문30=1 or 2 응답자]

문30-1. 만족하지 않는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2. 시간이 부족해서
3. 교통혼잡 및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서
4. 여가시설이 부족해서
5. 여가정보가 부족해서
6. 여가프로그램이 부족해서
7.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8.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9.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10. 보호자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11. 기타( )

문31. 귀하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나요? 가장 원하는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세요. [복수][rank:2]

※ 여가 시간이란 먹기, 잠자기, 일하기, 수업듣기, 숙제하기, 집안일, 육아 같은 의무적인 활동 전후에 남는 자유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1. 영상 콘텐츠 시청[텔레비전, 유튜브, OTT(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등]
2. 영화 관람 (영화관 방문)
3. 전시회, 공연 관람 (연극, 연주회, 전시회, 공연 등)
4. 문화 예술 활동 참여 (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 사진촬영 등)
5. 스포츠 경기 관람
6. 스포츠 활동 참여
7. 여행 (관광, 캠핑 등)
8.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9. 취미, 자기개발활동 (요리, 독서, 어학,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10. 휴식 (낮잠, 사우나, 산책 등)
11. 사회활동 참여 (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
12. 기타( )

// 6. 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

//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32. 귀하는 현재 시설에서 **방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1. 혼자 사용한다
2.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한다

[로직: 문32=2 응답자]
문32-1.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한다면,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이 함께 사용**하나요?
1. 나를 포함하여 ( )명

[로직: 드롭다운, 1 to 100]

문33. 시설 안에는 귀하가 원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1. 전혀 없다
2. 가끔 있다
3. 자주 있다
4. 항상 있다

문34. 시설 안에는 귀하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책상)**이 있나요?
1. 전혀 없다
2. 가끔 있다
3. 자주 있다
4. 항상 있다

[로직: 문34=1 or 2 or 3 응답자]
문34-1. 시설 안(내 방 포함)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책상)이 **마땅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 시설 내 빈 공간(책상)이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공간(예: 식탁)을 이용한다
2. 시설 밖 공간(예: 학교, 독서실)을 이용한다
3. 해야 할 일을 포기한다
4. 특별히 공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5. 기타( )

문35. 평소에 공부를 하기 위해 귀하가 살고 있는 **시설 밖의 다음과 같은 공간을 이용**하나요?

〈다음〉 학교,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청소년센터 등

1. 예
2. 아니오

[로직: 문35=1 응답자]

문35-1.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해주세요.
[복수][maxrank:2]

1. 학교
2. 도서관
3. 독서실
4. 스터디카페
5. 청소년센터
6. 기타( )

[로직: 문35=2 응답자]

문35-2. 이용하지 않는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시설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 편해서
2. 공부를 하지 않아서
3.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알바 등으로)
4. 비용이 부담돼서
5. 시설 규칙(통금시간 등) 때문에
6. 이용 자격 제한에 걸려서(성적순 입장, 떠들다 걸려서 등)
7.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8. 기타( )

문36.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동네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전철 등)을 이용하기 편하다				
2.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3. 청소년 이용시설(도서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복지관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4.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 7. 관계 및 주관적 웰빙 //

문37. 귀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38. 귀하는 요즘 귀하의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39. 다음은 시설선생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 시설선생님이 여러 명인 경우, 가장 가깝게 지내는 시설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대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나는 시설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				
2. 시설선생님은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3. 시설선생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4. 내가 힘들 때 시설선생님께서 용기를 주신다				

문40.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나요? 각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항목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1	2	3	4
1. 일상생활 중에 스드레스를 느낀다				
2.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를 느낀다				

문41.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현재 상태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2.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문42.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각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항목	전혀 없다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2	3	4
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5.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6.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7. 일상적인 일(예: TV 보기 등)에 집중하기 어렵다				
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항목 5/4개씩 페이지 나누어서 제시//

문43.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활이나 환경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항목	예	아니오
	1	0
1. 원한다면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2.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채식인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3. 원한다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할 수 있다		
4. 내 연령과 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학교 교재 제외)		
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6. 정기적인 취미·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수영, 악기, 태권도 등)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적어도 한 명 당 한 개씩이 있으며 교육적인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컴퓨터 게임 등 포함)		
8. 내가 지내는 시설에서는 학교나 외부기관, 학원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내줄 수 있다		
9. 내가 지내는 시설에는 학교나 외부기관, 학원 등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공간과 적당하게 밝은 조용한 공간이 있나		
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그 중 한 켤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		
14. 생일파티나 가족 행사를 할 기회가 있다		

//항목 5/5/4개씩 페이지 나누어서 제시//

동의1. 모바일상품권(1만원권)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의하지 않으실 경우 상품권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1. 동의함 -〉 동의2
2. 동의하지 않음(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음)

동의2. 모바일상품권을 수령하실 분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휴대전화번호는 상품권을 수령하실 번호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1. 이름 ( )
2. 휴대전화번호 ( )-( )-( ) [로직: 맨 앞자리만 010, 011 등 드롭다운 목록으로, 나머지는 오픈]
[로직: 확인창을 띄워서 응답 내용을 확인하도록]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모와 같은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생애 초기에 보호자의 부재나 보호자로부터의 이탈, 보호자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 이전 교육 경험을 조사하여 시설유형별 청소년의 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시설유형별 격차 및 일반청소년들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 퇴소 시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청년과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경험해야 할 교육경험에서의 취약영역을 보완하고 자립에 필요한 교육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일반청년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 거주시설의 유형별 지원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 영국,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등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경험, 진로 및 진학, 정보활용능력, 일경험, 여가 및 활동, 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관계 및 주관적 웰빙 등 7개 교육 관련 영역을 포함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및 시설거주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시설종사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경험, 교육 지원 수혜 여부,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 등 현안을 파악하고 시설유형별 격차 및 일반청소년들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 확인하여 시설거주 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교육 지원 기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3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안정적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과제와 관련하여 ①청소년 거주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최소필요기준 마련, ②시설거주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 지원 현실화, ③자기주도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제공,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기준 수립 등 네 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과제와 관련해서는 네 개의 영역별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①학습지원영역의 추진과제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지역 및 시설 단위 학습지원인력 배치, 학습 의욕 향상 및 학습 습관 형성의 기회 제공, 학습 환경의 개선: 학습실 설치 및 관련 규정 제·개정, AI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 제공,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교육 시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과 수업 제공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고, ②진학·진로영역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및 시설 단위 청소년 진학·진로 전담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을 통한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진로 교육 제공,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기술평가의 표준화 마련 및 보급 등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③심리·정서영역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적·안정적인 정서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확대, 대규모 시설 지양 및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을, ④ 다양한 문화 및 체험활동 영역의 추진과제로는 인터넷 과몰입 예방을 위한 대체활동 제공, 폭넓은 문화 및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제공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강화’ 과제에서는 ①청소년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연수 확대, ②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공유, ③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사업) 확대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시설거주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시설거주 경계선지능 청소년, 교육기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e-independence educational experiences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as caused by the absence of guardians, separation from guardians, or poor parenting during early life stages when children ought to be protected by adults such as parents. The study aimed to identify educational issues currently affecting adolescents by facility type and determine where gaps occur between facility types as well as between adolescents in care and in the general adolescent population.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to devise strategies to minimize the gap between adolescents in care and their peers in the general population and support a stable transition to independence. The objective is to enable youth who are leaving care to begin on an equal footing with other young adults by strengthening the educational foundation required for independent living and supplementing the vulnerable areas in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that typically arise during adolescence.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d support systems and status by residential facility type among adolescents in Korea and reviewed support systems in countries abroad such as the United Kingdom,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o derive implications for supplementing education-related support measures for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The Survey on the Educational Status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covering seven education-related areas, namely educational experiences, career and academic advancement, information literacy, work experience, leisure and activitie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rest spaces, relationships and subjective well-being—was administered among adolescents in three types of facilities: child welfare, youth welfare, and juvenile detention. This research sought to identify current issues—such as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their receipt of educational support, and their educational support needs—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and advisory meetings with facility staff. It also sought to precisely identify gaps between facility types and between adolescents in care versus in the general adolescent population, thus providing evidence for formulating customized support measures based on the vulnerabilities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With reference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cess, the study established the policy goal of reducing educational environment disparities among facility types and ensuring stable educational support opportunities. Three significant policy tasks and corresponding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strategies a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is objective.

First, regarding establishing a stable educational support system, four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are suggested: defining 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al environment by type of residential adolescent facility, improving the realism of educational expense support for adolescents in residential facilities, offering guidance and assistance for creating and executing self-directed plans, and establishing personnel allocation criteria to support youth in residential facilities.

Second, to accomplish the policy task of providing quality educational opportunities, this paper also presents four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strategies developed for each relevant area. Action items for the learning support area are establishing an integrated and professional community-based educational support system, assigning learning support staff at the regional and facility levels, offering opportunities to boost learning motivation and develop study habits, and enhancing the learning environment. Additionally, in recognition of the AI era, this paper suggests creating study spaces and enacting or modifying relevant regulations, systematically offering learning opportunities to enhance digital literacy competencies, and developing strategies to deliver individualized subject instruction during required education under protective dispositions. Furthermore, detailed action items are offered to foster academic advancement and provide career area support. These include establishing and distributing standardized individual independent living support plans and independent living skills assessments, providing comprehensive and effective career education via opportunities for diverse career and vocational exploration, and deploying and using specialized professional personnel for adolescent academic advancement and career services at the regional and facility levels. I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domain, the proposed action tasks are providing professional and stable emotio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therapy services, expand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out-of-school adolescents, avoiding large-scale institutional facilities, and providing family-like environments. The suggested action tasks in the cultural and experiential activity domain are offering diverse youth activities for greater cultural participation and

opportunities for experiential learning alongside alternative activities aimed at preventing excessive internet immersion.

Third, regarding the task of strengthening special support for adolesc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proposed action items are expanding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staff at adolescent residential facilities, sharing educational programs and operational cases for supporting adolesc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expanding support institutions (programs) for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while also establishing linkage and collaboration systems.

Keywords: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child welfare facilities, youth welfare facilities, juvenile detention facilities, adolesc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n residential care, educational opportunities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헌·김윤희·이용해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헌·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수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Ⅰ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언경·정송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낭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헌·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 탁 과 제

〈일반〉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헌·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깅영인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효·박현정·김희정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헌·김영인·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헌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헌·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세미나〉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워크숍〉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포럼〉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콜로키움〉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기타자료집〉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NYPI Bluenote 통계〉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프리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52-4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93330
9 791156 544524

ISBN 979-11-5654-452-4